2018년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발굴 육성 지원사업

1937년 3월

예 산 군 지

(국역본)

예산군교육회

예산문화원

2018년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발굴 육성 지원사업

1937년 3월

예 산 군 지

(禮山郡誌)

禮山郡教育會

예산문화원에서 수행하는 30여 개의 크고 작은 연간 사업 중 우리 지역만의 문화적 특수성을 발굴하고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은 예산문화원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들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이기에 예산문화원에서는 매년 연간 총서에 담을 기록물을 찾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발간되었던 일본어판 『예산군지』를 박병하(전 예산문화원 사무국장, 부원장) 선생께서 발견하여 번역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책을 접하고 취지에 공감하여 2016년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지역문화특성화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매칭을 통해 초기 번역을 시작하고, 2017년 충청남도의 지방문화원 공모사업인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발굴 육성 지원사업」으로 역시 도비와 군비 매칭으로 편집을 하였고 2017년과 동사업인 「2018년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발굴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최종 편집하고 인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일본어로 기록되었어도 부피가 많지 않아 다소 가볍게 시작한 작업이었지만 번역이라는 것이 단어와 어구에 담겨 있을 당시의 시대상황도 감안되어야 하고, 더군다나 일본어와 한문이 혼용되어 있어 80년이라는 시공간적 차이에서 오는 언어단절 현상도 있어 번역에 많은 고초가 뒤따라 장장 3년의 시간 속에 소중한 자료가 재탄생하여

편찬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군 문화관광해설사로 계신 오가와데루요(小川哲代) 여사와 특히 유시유종의 마음으로 끝까지 편집과 감수를 해주신 박병하 선생님께 진심어린 찬사와 함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역사는 기간의 정체된 기록이 아닌 과정의 기록이고 지금과 현재 다가오는 시간도 역사라는 굴레의 기록의 순간이라 볼 때 이번에 번역된 『예산군지』는 근대 예산의 역사를 가늠해 보고 현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척도로서 좋은 자료가 되리라 봅니다. 이러한 역사적 자료가 재탄생 되는 3년의 시간 속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흔쾌히 연속사업으로 결과물을 낳는데 도움을 주신 충청남도를 대표하여 양승조 지사님과 사업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황선봉 예산군수님, 예산군의회를 대표하여 이승구 의장님과 충청남도와 예산군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서적이 지역을 알아가는 소중한 지역학 자료로 활용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예 산 문 화 원 장
공학박사 김 시 운

목차(目次)

발간사

예산군지 ····· 7

편자의 말 ····· 8
예산군면 관내 약도 ····· 10
제1장 연혁(沿革) ····· 11
제2장 고적(古蹟) ····· 18
1. 성곽(城郭) ····· 18
2. 봉수(烽燧) ····· 22
3. 건조물(建造物) ····· 22
4. 기타(其他) ····· 149
제3장 사적(史蹟) ····· 158
제4장 전설(傳說) ····· 164
제5장 인물(人物) ····· 175
제6장 명승지(名勝地) ····· 210
제7장 토지 주민 기타 ····· 220

|부록| 『예산군지』 원본(1937.3) ····· 249

|후기| ····· 438

1937년 3월

예 산 군 지

(禮山郡誌)

편자는 예산군 교육회(禮山郡敎育會)에서 의뢰를 받아『예산지(禮山誌)』를 편찬하게 되었다. 다행히 경성(京城)에서 고서적(古書籍)을 비장(秘藏)하는 친구들 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참고자료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줄 생각했다. 또한 대흥(大興)은 원래 필자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하고, 더구나 예산과 덕산지방은 전임지였고, 기타 관계가 깊은 곳이기도 해서 경솔히 맡았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착수해 보니 좀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원래 대흥군 관내에서 현재 학교구역이기 때문에 지난 가을 본교 25주년 기념사업으로 향토지를 편찬해서 석학박식(碩學博識)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좌담회를 개최한 관계상 다소의 전설, 기타 참고로 해야 할 자료도 조사하고 수집했었지만 이것보다 범위를 확대시켜 예산군 전체가 된다면 충분한 조사에 임하는 날짜도 얼마 남지 않고, 게다가 이에 관한 좌담회 등 개최할 기회도 쉽게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고전(古典)을 비장하고 있던 서울 친구와 도서관을 이용하고, 예산군 및 군내 각 학교의 도움으로 주로 아래 편에 기재한 몇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했다.

- 해동향토사(海東鄕土史)
- 여지승람(輿地勝覽)
- 조선사천년사(朝鮮四千年史)
- 조선사(朝鮮史)

- 조선신지지(朝鮮新地誌)
- 전고대방(典古大方)
- 향토지(鄕土誌)(본교 하)
- 예산군일람표(禮山郡一覽表)
- 군내 각 교 수집자료

위쪽의 것 중에는 서울 친구가 비장한 해동향토사는 역시 산천(山川) 동리(洞里)의 명칭, 명승고적(名勝古蹟)의 유래와 인물, 산물(産物), 교육 행정, 풍속(風俗) 등의 실지 조사한 흔적이 분명하고, 전문편찬이니만큼 상세함의 극지였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전문가가 실지 조사한 연구물이고 더구나 한적(漢籍)이며 통속적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편찬에 있어서는 조사는 상술(上述)과 같이 소루(疏漏)하고 더구나 불문(不文) 불비(不備)한 점이 많았다. 유일 바라건대 장래에 훌륭한 분(선비)이 나온다면 이것으로 인해 재검토(再檢討)하시고 구명(究明)한 다음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군내 서정쇄신(庶政刷新)을 실제로 이바지하므로 국가가 원하는 진전을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昭和 12年 3月 3日(1937년 3월 3일)

봉수산 마학사(魔學舍)에서 윤창구(尹昌求)*

---

* 윤창구 : 대흥심상소학교 11대 교장, 1935년 3월 31일 역임

예산군면 관내 약도(禮山郡面 管內 略圖)

제1장 연혁(沿革)

1914년(대정3년) 3월 1일 군 폐합의 결과 구(舊) 예산(禮山), 덕산(德山) 급(及) 대흥(大興) 3군을 병합해서 새로이 예산군이 창설되었다.

구 예산군은 백제(百濟)시대에는 오산현(烏山縣)이라고 하고 신라(新羅) 때는 바꾸어서 고산현(孤山縣)이라고 호칭하고, 임성군(任城郡=현재 대흥)의 영현(領縣)이 되어 고려 태조(太祖) 2년 예산(禮山)이라고 개칭, 현종왕(顯宗王) 9년에 천안부(天安府)에 속하고 후에 감무(監務)를 두고 이조 태종왕(太宗王) 13년에 현감(縣監)으로 칭했다. 후에 군이라고 바꿨다.

덕산군(德山郡)은 원래 덕풍(德豊) 및 이산(伊山) 2현을 합병한 것이다. 덕풍현(德豊縣)은 덕산현의 동쪽 별아산(別鵝山)의 서쪽에 위치하며 이것이 고덕(古德)이다. 백제시대에 금물현(今勿縣)이었고 신라 때에는 금무(今武)로 바뀌어 고려 현종왕(顯宗王) 때에 운주(運州=현재 홍성)에 속하였고 명종왕(明宗王) 때가 되어 현무(縣務)가 있었던 이산현(伊山縣)은 가야산(伽倻山) 동구(洞口) 밖에 있었다(현재 면소재지).

백제의 마시산현(馬尸山縣)이며 신라조(新羅朝) 때는 이산(伊山)으로 바꿔서 군으로 했다. 고려 현종왕(顯宗王) 때 2개 현을 합병해서 덕산현(德山縣)이라고 개칭하고 감무(監務)를 두고 근세에 와서 군으로 바뀌면서 예산군에 속한다.

대흥(大興)은 백제시대 임존성(任存城) 일명은 금주(今州)라고 했는

데, 신라조(新羅朝)에는 임성군(任城郡)으로 바꾸었고, 고려 초에는 흥주(興州)라고 하여, 후에 지금 이름으로 되었다. 현종왕(顯宗王) 9년에는 운주(運州, 지금 홍성(洪城))에 속하여 명종왕(明宗王) 2년에 감무(監務)를 두고 이조 태종왕(太宗王) 13년에 현감(縣監)으로 되었다가 숙종왕(肅宗王) 때가 되어 군으로 승격하고 1914년(대정3년) 군 폐합에 의해 예산군에 속한다.

부기(附記) (각 소재지 학교 조사)

예산면(禮山面)

백제 때는 오산(烏山)현·고산(孤山)현(縣)이라 칭했다.

'백제 무령왕 20년 임인(壬寅) 9월 왕엽(王獵) 고산(孤山)의 벌판.....'

당나라 때 마진현(馬津縣)으로 바꾸었다.

'백제 의자왕(義慈王) 19년 경신(庚申)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켜 오산현(烏山縣)을 마진현(馬津縣)이라 했다.'

신라가 되어 오산현을 바꿔 고산(孤山)이라 하고 임성군(任城郡=현재 대흥)의 영현(領縣)이었다.

'신라 문무왕(文武王)이 백제 부흥(復興)을 탈취하여 고산이라 칭하고.....'
'신라 신문왕(神文王) 5년 병술(丙戌) 2월 고산현을 두고.....'
'신라 경덕왕(景德王) 15년 정유(丁酉) 12월 계속해서 고산현.....'

고려 태조 2년에 예산이라고 개칭했다.

현종왕(顯宗王) 9년에 무오(戊午) 임성(任城)에서 분리해서 천안부(天安府)에 예속(隷屬)하여 공민왕 때 천안부를 영산(寧山)이라고 바꾸어 따라서 영산에 속하고, 명종(明宗) 때 예산에 감현(監縣)을 설치했다.

문종왕(文宗王) 때 영산을 바꾸어 천안부로 개칭, 계속 천안군에 속했다.

이조(李朝) 계사(癸巳) 태종(太宗) 15년 감무(監務)를 폐하여 현감(縣監)이라 했다.

'이조(李朝) 태종(太宗) 시에 예산현감이라 고쳐서.....'

광무(光武) 10년(1906, 명치39) 천안군에서 분할하여 예산군이 되었다.

'광무10년 본군(천안군)의 일부를 분할해서 아산(牙山), 예산(禮山)에 붙어.....'

융희(隆熙) 4년(1909, 명치42) 경술(庚戌) 8월 일한합병(日韓合併), 동 10월 1일 지방관제(地方官制) 발표, 원래 이름으로 군을 두고 서기할 것.

대정2년 계축 12월 폐합부군(廢合府郡)의 개정 명칭 치(置) 관(管) 구(區)에 따라 예산, 덕산, 대흥을 합하여 하나의 군으로 해서 예산군이라 칭하고 1914년(대정3) 3월 1일 시행되었다.

응봉면(鷹峰面)

본 면은 1914(대정3) 4월 면 폐합으로 인해 원래 대흥군 내북면(內北面)과 외북면(外北面) 2개 면을 병합해서 봉산면(峯山面)이라고 칭하였는데 1917(대정6) 9월 응봉면이라 면(面) 이름을 변경했다.

그러나 종리(宗里), 망리(望里)는 원래 내북면이었지만 편 폐합으로 오가면(吾可面) 신장리(新長里)에 속하여 13개 리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오가면(吾可面)

상고(上古)의 연혁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약 300년 전부터 오원리(吾元里)와 우가산(于可山) 거구화(巨九火) 3개면이 되어 1906년(명치39)에 처음 면장을 두고 1914년(대정3) 3월 면 폐합으로 오가면이라 칭하고 13개 리를 두었다. 면사무소는 오원리에, 녹야리(綠野里) 우가산은 신대리(新垈里)에, 거구화는 좌천리(佐川里)에 두고 1914년(대정3) 3월 면 폐합으로 좌천리에 두며, 그후 신대리에 이전해서 그해 12월 17일 역탑리(驛塔里)로 변경해서 현재에 이른다.

삽교면(揷橋面)

원래 덕산군 대조지면(大鳥支面), 대덕면(大德面), 장촌면(場村面)의 3개면이 1914년 3월 면 폐합으로 합병해서 삽교면이 되었다.

덕산면(德山面)

덕풍현(德豊縣)과 이산현(伊山縣)이 조선 태종 5년(아시카가 시대) 현을 폐하여 합병해서 덕산군으로 하였다. 덕산군(德山郡)은 현재 덕산면, 고덕면(古德面), 삽교면, 봉산면(鳳山面)이다. 1914년 예산, 대흥, 덕산의 이 3개 군을 합병해서 예산군으로 하여 덕산면이 되었다.

덕풍현은 백제시대에는 금물현이었다가 신라시대에는 금무(今武)로 변경하며 니산군(尼山郡)으로 하다가, 현종조(顯宗朝)에 이연군(二連郡)으로 속하여, 명종조 때 덕풍현이 되며, 현내면(縣內面) 자하동(紫霞洞)(지금 고덕면 대천리)에 현청(縣廳)을 두었다.

이산현은 백제시대에는 마시산현이었는데 신라시대에는 니산현으로 변경, 현종(顯宗)조에는 홍주에 속하여 조선 태종 5년에 이르러 덕풍현에 합하였다. 덕산면 서소평(西小坪= 현재의 덕산면 옥계리 월봉(月峰))에 현청을 두었다.

봉산면(鳳山面)

조선 태종 5년, 이산군 덕풍군을 합하여 덕산군이 되었다. 1914년 내야면(內也面)과 외야면(外也面) 합하여 예산군 봉산면이 되었다.

서쪽으로 봉명동(鳳鳴洞)이 있고 동쪽으로는 천대산(天臺山)이 있기 때문에 봉(鳳) 자와 산(山) 자를 차용해서 봉산(鳳山)이라 이름을 지었다.

고덕면(古德面)

마한(馬韓) 무강왕(武康王) 원년(戊申) 감계국 시수봉 건국(感奚國始受封建國)(마한말왕 27년 백제 온조34년 기사(己巳)

백제(百濟) 병합 마한 감계국(馬韓感奚國) 항복 백제의 속국(屬國)(백제 고이왕(古爾王) 12년 병인(丙寅))

감계국 시통 중국위(中國魏)(고이왕 42년 병신(丙申))

감계국 내부(附) 진(晋)(고이왕 46년 경자(庚子))

감계국 조헌(朝獻) 진(晋) (고이왕 52년 병오(丙午))

감계국 유사(遺使) 헌우(獻于) 진(晋)(백제 책계왕(責稽王) 2년 무신(戊申) 서기 288년

감계국 결진(訣晋) 교위(校尉) 내부(內附) (백제 무령왕(武寧王) 원

년 임오(壬午)) 서기 502년

폐봉건(廢封建) 감계국 설치 금물현(今勿縣) (一云, 거물성(居勿城)) 백제 의자왕 19년 당고종(唐高宗) 현경(顯慶) 5년(庚申) 서기 660년

당 멸망 백제의 금물현(今勿縣)의 금련도독부(今連都督府)가 세운 기문현(己汶縣) 남은 백제인 수복(백제 후(後)왕 3년 신라 문무왕 2년 癸亥)

신라유장(新羅遺將) 김흠순(金欽純) 천존개(天存改) 백제(百濟) 거물성(居勿城) 강지(降之) 이때(是歲) 당(唐) 더불어 신라(新羅) 또 멸 백제(신라 문무왕(文武王) 8년 당(唐) 고종(高宗) 총장(總章) 2년 기사(己巳) 서기 669년

당폐(唐廢) 금련도독부 치(置) 지심주(支潯州) 잉치(仍治) 기문현(己汶縣)(신라 문무왕 10년 당고종(唐高宗) 함형(咸亨) 2년 신미(辛未)

신라격파(新羅擊破) 당병취(唐兵取)) 지심주(支潯州) 기문현(己汶縣) 후칭 금물현(今勿縣)(신라 경덕왕 15년 정유(丁酉) 개(改) 금물현 위 금물현 위 금무현(今武縣) 고려태조 천수(天授)23년 개 금무현 위 덕풍현(德豊縣)(고려 현종(顯宗)이 덕풍현 속 운주(運州) (今洪州)

고려 명종(明宗) 설치 덕풍현무(德豊縣務) 조선 태종(太宗) 합 덕풍(德豊) 이산(伊山) 그현위 덕산현감(德山縣監) 읍 밑에 이산 자시(自是) 덕풍현 드디어 폐속 덕산현(德山縣) 위 고현내면(古縣內面) 대정(大正) 3년 폐 덕산군(德山郡) 속 예산군(禮山郡)

고현내(古縣內) 도용(道用) 고산(高山) 거등(居等) 4면과 고덕면(古德面) 자동으로 예산군(禮山郡) 고덕면(古德面)

신암면(新岩面)

1914년 4월 1일, 면 폐합으로 입암면(立岩面: 용궁(龍宮), 예림(禮林), 중예(中禮), 별(別), 조곡(鳥谷). 신종면(新宗面: 신택(新宅), 신종(新宗)), 두촌면(豆村面: 두곡(豆谷), 계촌(桂村), 종경(宗敬)), 오원리면(吾元里面=오산(五山) 탄중(灘中) 중의 오가면의 일부), 중리(中里=탄중(灘中), 전탄리(箭灘里=탄중(灘中)), 기사리(其士里), 산직리(山直里: 오산(五山)), 오지리(五池里: 오산(五山))을 합병해서 신암면으로 하였다.

제2장 고적(古蹟)

1. 성곽(城郭)

1) 읍성(邑城)

대흥면(大興面))

대흥읍성(大興邑城) 석축(石築) 주위(周圍) 1115척(尺) 그중 1개소 우물이 있음. 지금은 폐되었음.

덕산면(德山面)

덕산면 읍내리에 있지만 황폐했음. 토축(土築)이며 축조자(築造者)는 자세하게 모르고 있음.

봉산면(鳳山面)

가동리(佳洞里) 뒷산에 성적(城跡)이 있음. 석축(石築)이며 신라시대 축조라고 함.

2) 산성(山城)

예산면(禮山面)

(1) 산성(山城)

산성리 2구에 있고, 그 형태는 타원형(橢圓形)이며 산 전체가 노송

(老松)으로 울창하게 우거져, 이 토성은 백제시대 수성(守城)으로서는 가장 뛰어나고 그 규모는 크고, 지금도 남아있는 형적은 흥미롭다. 산성 내부는 넓고 직선코스로는 100m이며, 200m의 원형코스도 만들 수 있는 정도다. 동남(東南)부터 동북(東北) 끝에 경사가 되어, 멀리 서북(西北)의 큰 평야를 바라볼 수 있고, 동시에 눈앞에 무한천(無限川)을 가는 하얀 돛단배를 바라보던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산성에 이조시대(李朝時代: 조선시대) 유학자의 분묘가 있고, 그 곁에는 웅대한 비석이 있으며, 그 옆에는 천년이라고 전해 온 노송나무가 고독히 하늘 높이 치솟고, 영구적인 역사를 말하며 있는 것 같다.

(2) 금오산성(金烏山城)

향천사(香泉寺) 뒤쪽, 즉 금오산(金烏山) 정상에 소규모 토성 터가 있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3) 토성민보(土城民堡) : 흙으로 민간에서 쌓은 보루

금오산 최고봉이 옛날 민보라고 한다. 또 시대 미상(未詳)인 민보의 흔적이 뚜렷이 보일 뿐이다.

대흥면(大興面))

(1) 임존성(任存城)

봉수산(鳳首山) 정산에 있음. 석축(石築)으로 주위(周圍) 5,194척(尺) (14정(町) 25간(間) 4척(尺)), 그 속에 3개소 우물이 있음. 사비성(泗泌城=지금 부여) 함락 후 도침(道琛) 백제장군 흑치상지(黑齒常之)가 다른 장군 사타상여(沙吒相如)들과 축조했다고 함.

(2) 무한성(無限城=현재 산성리)

무한산(無限山) 정상에 있고, 주위 2,002척(5정 33간 4척)의 석축이며 속에 1개소 우물이 있음. 옛날 홍수 때는 이무기[大蛇]가 나타나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를 끼쳤다가 지금은 없음. 축조한 사람과 연월은 불명함.

덕산면(德山面)

덕산면 사동리(社洞里) 뒷산인 수암산(壽岩山=옛날에는 금청산(今靑山))에 있고, 토축(土築)이다. 이곳에는 용제담(龍祭潭)이 만들어졌음. 옛날부터 큰 가뭄 때 망우제(望雨祭)를 함. 장례식을 이곳에서 하면 비가 안 온다고 전해 왔다.

봉산면(鳳山面)

천태산(天台山)에 토성 터가 있음. 신라시대에 축조한 것이라 함.

고덕면(古德面)

대천리(大川里) 뒷산에 있고 신라시대 농보(農堡) 축조(築造)라고 함.

3) 기타 역사적 성터(其他 歷史的 城跡)

예산면(禮山面)

요도(蓼島) : 지금 읍내 마을 변두리에 있음. 흙으로 만든 산으로 주위 185척(尺)이다.

대술면(大述面)

입석소(立石所) : 일명 문석(文石)이라 함. 옛날 대지동면(大枝洞面)에 있다.

신양면(新陽面)

거변소(居邊所) : 지금 신양면 거변리(居邊里)에 있음. 옛날에는 거질물소(居叱勿所), 아니면 거물소(巨勿所)라고 했다.

덕산면(德山面)

(1) 이산진(伊山鎭)

고려 최형(崔瑩)이 건의해서 도절제사영(都節制使營)을 이곳에 설치하고 이조(李朝) 태종왕(太宗王) 16년 거가(車駕=임금이 타던 수레)로 태안군으로 가시고, 해미현(海美縣)에 군대 이진(移鎭)을 명령했기 때문에 이산구영(伊山舊營)이라 하여 본현(本縣)의 치소(治所)로 사용했다.

(2) 내박소(乃朴所)

일명 나박소(羅朴所). 지금 나박소리(羅朴所里)

고덕면(古德面)

(1) 고덕산(古德山)은 지금 고덕면이다.

(2) 신곡소(薪谷所)는 지금 고덕면이다.

신암면(新岩面)

화물장(化物莊)은 옛 입암면(立岩面), 지금 신암면이다.

2. 봉수(烽燧)

예산면(禮山面)

읍을 출발해서 동북에 8km 지점. 지금 간량리(間良里)에 있고, 뒷산 산정에는 봉수(烽燧) 터가 있다.

옛날에는 연봉정(延烽亭)이라고 말하며, 봉수를 올리고 조정(朝廷)으로 급보(急報)를 알리던 장소다.

덕산면(德山面)

덕산면 가야산 산정에 있다. 현재는 유적(遺蹟)만 있다.

3. 건조물(建造物)

1) 궁실(宮室)

덕산 둔리(屯里)의 일부에 궁리(宮里)라는 장소가 있다. 정신옹주(貞愼翁主)가 광해(光海) 계축(癸丑)에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의 자손을 용서해서 주거하게 했으므로 궁리라고 전해왔다.

김재찬(金載鑽)이 생장했기 때문에 국촌(菊村)이라고도 전해왔다.

덕산면(德山面)

태실(胎室) : 옥계리(玉溪里) 태봉산(胎封山)
헌종대왕태실(憲宗大王胎室)
(1931년 경기도 양주 지방에 이안한 후 폐적(廢跡)이 되었다.)

2) 관청(官廳)

예산면(禮山面)

읍내리에는 고래 규범으로 인해 夫々관청(官廳)이 있었지만 잔존보관(殘存保管)하는 것은 지금은 없다. 현재 보통학교는 옛날 군청이 있었던 소풍경명미(所風景明美)인 것은 군내에서 일품이었고 옛날이야기에 의하는 것이며, 단 운동장 구석에 나이를 먹은 배나무가 있을 뿐이다.

지(之) 군수(郡守) 관사(官舍) 마당에 있는데 오래된 나무이며, 영고(榮枯) 성쇠(盛衰)를 조용히 말하며, 어느 해에는 만발한 꽃이 백운(白雲)처럼 되어 정조(情操)교육(敎育)에 일층 아름다움을 첨가함.

대흥면(大興面))

대흥 객사(客舍) 삼간(三間) 지금 공립(公立) 보통학교
대흥군청사 삼간(三間) 지금 면사무소

덕산면(德山面)

구 덕산군청 시대에 있었던 관청사(官廳舍)가 있다.(현재 보통학교

교지 내) 객사 전패(殿牌)를 봉안(奉安)해서 매월 1일 15일에 군수 조하(朝賀)를 했다.

정각(政閣)(축일문당(祝日文堂))

내아(內衙)(군수 내실)

이청(吏廳) (아전 의청)

장교청(將校廳)

형리청(刑吏廳)

관노청(官奴廳)

사령청(使令廳)

3) 루정(樓亭)

예산면(禮山面)

석가정(夕佳亭) : 지금 예산읍내이지만 불명하다.

대흥면(大興面))

포정정(布政亭) : 객관(客館)의 동측에 있었다. 그것을 관찰사(觀察使) 안침(安琛)이 견사정(見思亭)이라 개칭했다.(그 내용은 달구경 때문이라는 것.) 정(亭) 밑에 연지(蓮池)가 있었다. 이맹상(李孟常)의 시(詩)에 '포정정동영소월관어지북인한천(布政亭東迎素月觀魚地北引寒泉)'이라고 한다. 현재의 대흥공립보통학교 운동장 북측에 연지(蓮池) 일부분만 있다. 누정(樓亭)은 경퇴(傾頹)해서 새로 함석 즙소정(葺小亭)을 만들고 이름을 동옥(東屋 : 아즈마야)라고 칭했다.

삽교면(揷橋面)

삽교면 2리에 이목은(李牧隱) 영당(影堂)이 있다.

덕산면(德山面)

덕산면 낙상리(樂上里)에 인영원(印榮源) 쌍효각(雙孝閣)이 있다.

봉산면(鳳山面)

봉산면 시동리(侍洞里)에 야곡(冶谷) 조(趙) 선생의 효자여(孝子閭)가 있다.

봉산면 봉임리(鳳林里) 성지동(聖知洞)에 정병사현용(鄭兵使見龍)라는 정려(旌閭)가 있다.

동인(同人)의 처 우봉이씨(牛峰李氏)의 정려가 있다.

고덕면(古德面)

충신정각(忠臣旌閣) : 임진난(壬辰亂) 한순(韓楯) 전망(戰亡) 우(于) 경상도 백량산(白梁山) 하(下)고(故)자(自)대천시(大川市) 약오정(約五町) 상거지(相巨池) (즉 대천리(大川里)) 건축(建築) 우(于) 충신정각(忠臣旌閣)

4) 사단(社壇)

(1) 사직단(社稷壇)

하나는 예산읍 서북 약 10정(町), 하나는 대흥면 서방 약 10정(町),

하나는 덕산면 서방 약20정(町)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 폐(廢) 되었다.

(2) 성황사(城隍祠)

하나는 예산읍내 북방(北方) 약7정(町), 하나는 덕산면 동방 약10정(町)에 있다. 또한 대흥의 성황사(城隍祠)는 봉수산 밑에 있다. 말하기에는 당나라 장군 소정방(蘇定方)이 사신(祠神)인 것을 춘추(春秋) 본면(本面)에서 제사(祭祀)를 했다고 전해 왔다고 한다. 현재는 모두 폐지되었다.

(3) 여단(厲壇)

하나는 예산읍 북방 약5정(町), 하나는 대흥면 북방 선학동(仙鶴洞), 하나는 덕산면 북방에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다.

(4) 가야신사(伽倻神祠)

덕산면 서쪽 약10정(町)에 있다. 신라 서진(西鎭)을 위해 모시고, 이조(李朝)에서는 그 지방관(地方官)을 시켜 춘추(春秋)에 제(祭)를 모시게 했는데 지금은 폐지했다.

(5) 기우단(祈雨壇)

대흥면에 하나 있다. 하나는 봉수산(鳳首山)의 고성(古城) 속이고 하나는 송지연(宋之淵) 위에 있다고 한다.

5) 신사(神祠)

예산면(禮山面)

시민(市民) 일반(一般) 경신(敬神) 숭조(崇祖)의 념(念)을 일으켜, 1923년(대정(大正)12년) 12월, 황대신궁(皇大神宮)을 원정(願定)해서

읍 동쪽 산원(山原)에 예산신사(禮山神祠)를 안진(安鎭)하여 경신을 정성으로 모셨다.

소화(昭和)9년(1934) 5월 금오산(金烏山) 남쪽 기슭의 고조장려(高燥壯麗)한 신역(神域)을 정하여 엄숙하게 선궁을 드렸다.

춘추(春秋)의 예제(例祭)는 물론 매일 아침저녁 적심(赤心)을 담아 참배하여 오는 시민들이 끊어지지 않았다.

※ 현재 예산읍 아리랑로 185-10 근처이다.

6) 향교(鄕校) 및 서원(書院)

예산면(禮山面)

향교 중에는 문묘(文廟)가 있다. 예산, 대흥, 덕산 구 군청소재지에는 춘추(春秋)에 2회 유림(儒林) 자손(子孫)이 가까운 문묘(文廟)에 모여서 석존제(釋尊祭)를 행한다.

7) 문묘(文廟)

按文廟者崇奉孔子之所也在高麗從安文成裕說刱是制而至韓國每郡必設一廟享祀孔子本郡之有三廟者以併禮山 德山 大興 三郡爲一郡故也古制大成殿奉安孔子及配享四聖東西從享之新羅高麗韓國之儒賢十八位是謂鄕校近來儒生之入校修學問者稀少只爲享祀之所

예산문묘(禮山文廟)

① 예산군 향천리에 있는 묘(廟)(在禮山郡禮山面香泉里)

대성전(大聖殿) 1동(棟)

내삼문(內三門) 삼간(三間) 1동(棟)

명윤당(明倫堂) 1동

동재실(東齋室) 1동 제관방(祭官房)

서재실(西齋室) 1동 작포실(作脯室) 감상실(監床室)

교노실(校奴室) 1동

홍살문(紅箭門) 頹敗己久

② 신좌(神座) 正中主壁 大成至聖文宣王 남향(南向)

正位肖像排

配享 兗國復聖公顔子(서향) 郕國宗聖公曾子(동향)

沂國述聖公子思(서향) 鄒國亞聖公孟子(동향)

③ 내전(內殿) 東從享 동무(東廡) 弘儒薛聰高麗顯宗十三年從祀

文敬公金宏弼 光海君二年從祀 文成公安裕 忠肅王六年從祀

文純公李滉 仝上 文正公趙光祖 光海君二年從祀

文元公金長生 肅宗四十三年從祀 文成公李珥 肅宗八年從祀十五年

黜二十年復

文敬公金集 李太王二十年從祀 文正公宋浚吉 英祖三十二年從祀

④ 내전(內殿) 西從享 서무(西廡)

文昌候 崔致遠 高麗顯宗十一年從祀

文忠公 鄭夢周 朝鮮中宗十二年從祀

文獻公 鄭汝昌 光海君二年從祀

文元公 李彦迪 光海君二年從祀

文正公 金麟厚 正祖二十年從祀

文簡公 成渾 肅宗八年從祀十五年黜二十年復

文烈公 趙憲 李太王二十年從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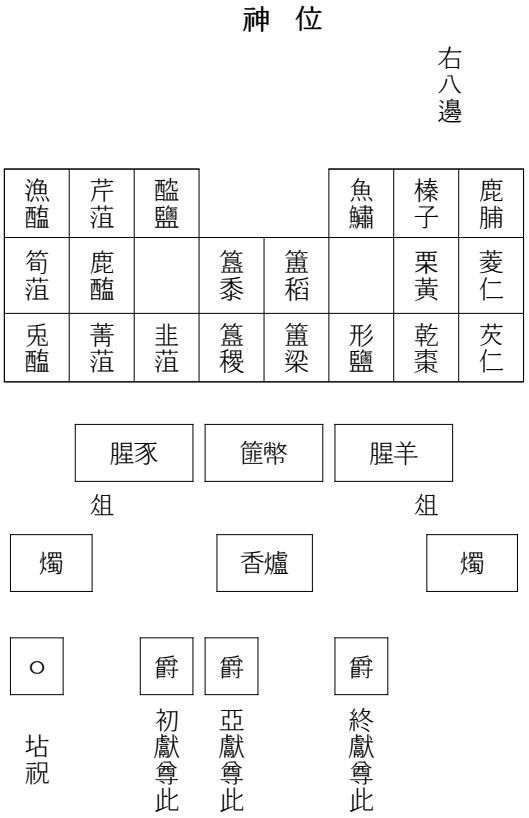
文正公 宋時烈 英祖三十二年從祀

文純公 朴世采 英祖四十年從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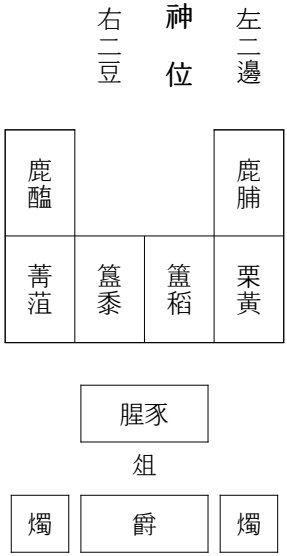
共二十三位

共二十三位但東西廡位牌亦奉安于大成殿內東西壁下是最初禮山郡也故廟制亦依規縮小者耳

⑤ 주현석존정배위설찬도(州縣釋尊正配位設饌圖)



⑥ 주현석존종형위설찬도(州縣釋尊從亨位設饌圖)



鹿脯 녹포 (사슴고기포)	榛子 진자 (개암)	魚鱐 어숙 (건어포)	菱仁 능인 (마름)	栗黃 율황 (밤)	芡仁 검인 (연밥)	乾棗 건조 (대추)	形鹽 형염 (흰소금)
醓醢 탐해 (장조림)	芹菹 근저 (생미나리)	漁醢 어해 (물고기)	鹿醢 녹해 (소고기)	筍菹 순저 (죽순)	韭菹 구저 (부추)	菁菹 청저 (청무)	兎醢 토해 (꼴뚜기젓)
羊腥 양성 (양고기)	幣篚 폐비 (폐백담은그릇)	豕腥 시성 (돼지고기)	簋稻 궤도 (쌀)	簋粱 궤량 (수수)	簠黍 보서	簠稷 보직	

⑦ 釋尊日時

每歲陰曆仲春仲秋初丁日午前十時(古者丁日質明行杞)擧行祭祀初獻郡守新行亞獻以下獻官諸執行事依直員薦報者囑託學校學生生徒皆叅拜各至朔望日直員只行焚香禮

⑧ 釋尊祝文式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于干支禮山郡守何某敢昭告于

先聖大成至聖文宣王伏以

道冠百萬世之師玆値上丁精煙是宜謹以性幣醴齊粱盛成庶品式陳明薦以

先師兗國復聖顔氏郕國宗聖公曾氏沂國述聖公孔氏鄒國亞聖公孟氏配向饗

8) 書院

(1) 德岑書院(덕잠서원)

肅宗乙酉建甲午賜額

金絿字大柔 號 自菴光州人官副提學贈吏曹判書諡文懿

(2) 集成祠影堂

肅宗戊子建

덕산면(德山面)

덕산문묘(德山文廟)

이조(李朝) 정종(定宗) 때 건설한 것이다.

현재 제임(齊任)은 직임(直任) 1명, 장의(掌議) 4명이다.

봉산면(鳳山面)

봉림리(鳳林里)에 회암서원(晦岩書院) 터가 있다.

8) 사원(寺院)과 사지(寺趾)

예산면(禮山面)

(1) 향천사(香泉寺)

읍내 동북쪽 약 2km 금오산(金烏山) 기슭에 있다. 본사는 신라 보조국사(普照國師)[2] 희강왕(僖康王) 2년 임인(壬寅), 당(唐)으로 건너가 구자산(九子山) 여단화상(如湍和尙)이라는 스님의 제자가 되어 불교도 수행하고 전해, 신라(新羅)[3] 문성왕(文聖王) 2년에 석불 3,052위를 싣고 와서 극락전(極樂殿), 천불전(千佛殿)을 축조(築造)했다고 한다.

(2) 은적암(隱跡庵)

향천사의 남동 약 수십 보에 있었지만 현재는 오랫동안 그 터가 남아 있을 뿐이다. 신라의 보조국사가 향천사 창립 당시에 석불 3천여를 황소 한 마리로 운반할 때 운반한 지 7일째 지쳐서 죽었다. 그 소 시체를 매장한 곳이라는 전설이 있다.

(3) 시라사(施羅寺)

금오산 정상에서 동북 약 수십 보 위치에 있고, 본사는 대각국사

2) 837년
3) 840년

(大覺國師)의 수제자 혜종(惠宗)이라는 승려가 감로암(甘露庵), 서운암(瑞雲庵), 부도암(浮屠庵) 등을 건설할 때 산 밖으로 향천사의 일분사(一分寺)로서 增築했다고 한다.

(4) 십층탑(十層塔)

향천사 극락전 앞 광장에 있다. 신라 문무왕(文武王) 2년에 보조국사가 건설한 것이라고 한다.

(5) 타라암(陀羅庵)

읍내에서 북방으로 약 2리, 현재 도고산(道高山)에 있다.

(6) 용산암(龍山庵)

읍내에서 서방 약 2리 반에 있다.

(7) 관정사(觀正寺)

읍내에서 북방 약 2리, 도고산(道高山) 중에 있다. [절터(寺跡)]

(8) 정수사(淨水寺)

읍내에서 동방 약 2리 반에 있다. [同]

(9) 웅곡사(熊谷寺)

읍내에서 동방 약 1리반에 있다. [同]

(10) 간양사(澗陽寺)

읍내에서 약 3리, 간양산(間良山) 기슭에 있는 고찰(古刹)이며, 현재 150년 전까지 현물(現物)이 있었으나 퇴폐(頹廢)해서 지금은 단석탑과 절터가 남아 있을 뿐이다.

(11) 몽기사(夢起寺)

간양리(間良里) 뒤 도고산(道高山) 기슭에 있었으나 폐사되어 지금

은 절터가 있을 뿐이다.

(12) 간사(間寺)

간양리(間良里) 깊숙한 곳 덕방산(德方山) 밑에 있었으나 이것도 폐사되어 지금은 책에 약간 흔적이 있을 뿐이다.

대술면(大述面)

(1) 천방암(千房庵)

이산해(李山海) 아계(鵝溪)와 석루판(石樓板) 하나가 있다.

(2) 은적사(隱跡寺)

예산읍내에서 동쪽 약 1리 수정(數町)이다. 현재 대술면에 있다.

(3) 봉수암(鳳首庵)

예산읍내에서 동쪽 약 2리 10정이다. 현재 대술면에 있다.

신양면(新陽面)

(1) 안곡사(安谷寺)

지금 신양면 사자산(獅子山) 북쪽 산기슭에 있고, 법당(法堂) 구간(九間) 나한전(羅漢殿) 삼간, 선당(禪堂) 12간, 승당(僧堂) 12간, 그리고 정문(正門) 25간은 지금은 폐되었다.

(2) 감탕사(甘湯寺)

지금 신양면 무봉리(無鳳里) 솔밭 밑 기슭에 3간 초방(草房)이 있다.

(3) 용흥사(龍興寺)

신양면 사자산에 있다.[절터(寺跡)]

광시면(光時面)

(1) 대련사(大蓮寺)

광시면 동산리(東山里) 봉수산 남쪽 기슭에 있다. 법당 3간, 선당 5간, 승당 5간, 북전(北殿) 5간, 향로전(香爐殿) 3간, 정문 12간이었으나 현재 북전, 향로전, 정문은 폐되었다. 백제 의자왕(義慈王) 36년 7월 7일 창정(創定). 창건자(創建者) 승려 도침(道琛), 중건자(重建者) 승려 무염조사(無染祖師).

(2) 보광사(普光寺)

백월산(白月山)에 있다. [절터(寺跡)]

(3) 은사(銀寺)

금롱산(金籠山) 현재의 촉롱산(燭籠山) 기슭 은사동(銀寺)에 있다. [절터(寺跡)]

대흥면(大興面)

(1) 송림사(松林寺)

대흥면 대률리(大栗里)에 있다. [절터(寺跡)]

응봉면(鷹峰面)

팔봉산(八峰山)에 옛날 번창했던 절터(寺跡)가 있다. 현재는 조그만 불당(佛堂)이 있다.

덕산면(德山面)

(1) 보덕사(報德寺)

이조 474년 금벽쟁화상(金碧爭和尙)의 창건으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의 단시(檀施)였다. 건물 153평이며 절의 보물로서 고려시대의 청와(靑瓦) 1장(杖)이 있다.

(2) 수덕사(修德寺)

신라 문무왕(文武王) 5년(天智天皇時代), 1,260여 년 전 원효국사(元曉國師)가 개산창건(開山創建)하여 고찰(古刹)로서 덕숭산(德崇山) 중복(中腹)에 있다. 소화(昭和) 8년(1933) 대수리를 했다. 사내(寺內) 대웅전(大雄殿)은 조선보물고적명승(朝鮮寶物古蹟名勝) 천연기념물 보존회에 의해 소화 11년(1936) 5월 23일 보물 지정을 받았다.

(3) 정혜사(定慧寺)

수덕사 상방(上方)에 있다. 수덕사와 동시에 동사(同師)가 개산창건하여 1933년 경내에 높이 25척(尺) 폭이 15척의 대관음석불(大觀音石佛)을 건립했다.

(4) 서림사(西林寺)

상왕산(象王山)에 있다.

(5) 용연사(龍淵寺)

가야산(伽倻山)에 있다. 일명 용암(龍菴)이다.

(6) 수암사(水菴寺)

덕산면 남쪽 약1리 상왕산 기슭에 있다.

(7) 운암사(雲庵寺)

덕산면 북방 약1리 상왕산(像王山) 기슭에 있다.

(8) 일조암(日照庵)

가야산 기슭에 있다.

(9) 용인암(龍仁庵)

덕산면에서 서쪽 약1리 가야산 밑에 있다.

(10) 수정암(修靜庵)

덕산면 서방 2리 상왕산 밑에 있다.

(11) 가야사(伽倻寺)

고려 말기 것이며 옥계리(玉溪里) 와룡담(臥龍潭)에서 월봉(月峰)까지 1리에 속한 큰 사찰이다. 지금은 절터가 있을 뿐. 군청 앞에 석탑은 그 남은 것이다.[4)]

(12) 백운암(白雲庵) 나한전(羅漢殿)

덕산 원효봉(元曉峯) 밑에 있었다.

(13) 둔지사(屯知寺)

옛날 덕숭산 밑에 있었다.

---

4) 가야사에 돌궐(突厥)이라는 승려가 있었다. 성욕(性慾) 난폭(亂暴)하며 많은 부녀자를 능욕했다. 어느 때 정병사(鄭兵使) 현룡(見龍)의 처(우봉이씨(牛峰李氏))를 가르쳤는데, 그녀는 절개를 굽히지 않고 남모르게 그 남편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후에 정병사 현룡은 돌궐을 죽였는데, 얼마 안 돼서 동시에 폐사(廢寺)되었다고 한다. 당시 경내에 5층석탑이 있었지만 붕괴해서 지금부터 수십 년 전쯤에 본면(덕산면) 옥계리 백철현(白喆鉉) 씨가 조립(組立)해서 소화11년(1936) 군(郡)의 모씨에게 매각했던 것을 구적보존(舊跡保存)의 의미로 당국의 지시에 따라 반각(返却)하여 현재 군청 경내에 자리 잡고 있다.

봉산면(鳳山面)

봉림리 운암사(雲菴寺) 터가 있다.

신암면(新岩面)

(1) 화암사(華巖寺)

위치는 신암면(新岩面) 용궁리(龍宮里) 용산(龍山) 위 동서로 위치하며 뒤는 병풍암(屛風岩)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암벽 남쪽에는 "詩境", 북쪽에는 "天竺古先生宅"이라고 제(題)한 추사(秋史)의 각자(刻字)가 있다. 용산 남쪽 끝에는 암석을 나란히 쌓은 것 같은 기암(奇巖) 끝에 추사의 "小逢來"라는 제목인 각자(刻字)가 있다. 산 북쪽 끝은 앵무봉(鸚鵡峯)이 육박하고 동(東)은 멀리 광야(曠野) 중원(中原)을 흐르는 무한천(無限川)은 아산만에서 황해(黃海)로 들어가는 것을 조망(眺望)한다.

화암사의 유래는 분명한데 삼한(三韓) 고찰(古刹)의 후(後)라고 전해지고, 옛날에는 병풍암(屛風岩) 아래에 있었는데 석탑을 몇 층 남기고 그 아래에 영조(英祖) 임신(壬申)에 영조의 부마(駙馬) 정효김공(貞孝金公)이 재물(貨)을 손출(損出)해서 중건(重建)했었고, 95년 후에 헌종(憲宗) 12년 병오(丙午)에 이르러서 사찰이 훼손되어 승려가 거주할 수 없는 것을 추사의 일가가 재물을 서로 내놓고 같은 해 오월 기공해 같은 9월에 준공한 것이 현재의 화암사다.

옛날의 도자기로 추측(推測)된 청와(靑瓦)가 본당(本堂) 옥상(屋上)에 3장, 삼신당(三神堂)에 1장 합계 4장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찰(古刹)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불금감(佛今龕)에는 '무량수각(無量壽閣)'이라는 제목으로 추사의 글이 있다 더한 조망루(眺望樓)에 '시경루(詩境樓)'라고 있다. 이것도 추사의 글씨이다.

불상(佛像)은 대여섯 살 작은 아이 크기인데 옛날부터 이 사찰에 봉안(奉安)해 온 것을 지금부터 약20년 전에 분실, 현재의 불상(佛像)은 예산군 향천사(香泉寺)의 천불(千佛)을 이안(移案)한 것이다. 이 관음존상(觀音尊像)은 8년 지나 도금(鍍金)을 해서 참배자들은 감탄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좋다고 봉암사(鳳巖師)의 발기(發起)로 구전(鳩錢) 수만과 쌀 여러 말을 받아 재화로 해서 소화4년(1929) 기사(己巳) 개금(改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면의 액자는 '화암사(華巖寺)' 뒷면 약사당(藥師堂)은 영조(英祖)의 부마(駙馬) 정효공(貞孝公)의 글씨이다. 부근에 몇백 년인지도 모르는 고목이 산재하는 것도 옛 정효공, 추사 등 명사와 함께 고찰의 후를 그리워하는 데 충분하다.

<화암사 중건기>

華巖寺重建記

山泉金明喜撰 弟相喜謹書

龍山之有寺不知其圻由未常英宗壬申我 曾祖考貞孝公損資重建蓋以高祖考靖獻公墓在於寺北數里而近守此域禁樵蘇僧徒與有焉 貞孝公所撰定墳菴規惓 以惠愛僧人誠後承旣而 貞孝公 曾祖妣貴生下世宮左合葬于 山之鸚鵡峰下距寺兪近時上魔或病民 命御史暗行以廉之御史歸秦言都尉遺愛在民 至命不忘近寺緇徒語及有流涕者 上曰奇哉其得人必可知卽 命賜祭 親綴文値之有若曰噫禮山何地卽爾先塋民思爾惠不知其勞華巖緇徒語爾垂淚云子可謂有壻矣於是 貞孝公惠澤之爲民若僧追思者

至於動主聽行袞褒而寺之名曰得以載之　御製文矣重建後九十五年而當丙午之歲寺毁僧無以庇身余小子大躍墜失 先訓 丞而改脩從祖兄判樞公先以錢三萬施之族父鴻山監公以鐵百勇從祖兄羅州使公以錢二萬從祖弟龍潭監近喜以紙五十束次第損助經始于閏五月至九月而工告竣正室而哀背西廣三間修半之前榮修得室　三之一後如之中安佛龕扁日無量壽閣伯氏書之龕之左右羣僧栖息重之在夾拓東北隅三分室而得其一爲樓以待眺望逍遙扁曰詩境只伯氏書也又北而三分樓而得其爲禪室以行焚香禮誦又北而倍其室爲房以待衲囊箱瓶盂之箴及北而三分房而益爲庫以待薪糧之儲室之右夾爲廚以室之修爲廣三分廣而益爲修以得飯食筍蔬之供又北而爲室修視廚之廣三分修而損一爲廣以待運水搬紫者處焉總名之曰華巖寺扁仍舊 貞孝公手書也又就舊佛堂址建屋一架安舊石僞 小金像二篇仍舊曰藥師菴亦　貞孝公書也凡用上梓者坊者治者丹靑者總若干人錢之取諸宮中者又二萬余於是寺之制客備視舊損三之一而人之見者皆以爲宏且麗之昔無而今始有之山若益以奇林木益以公蘢煙雲之朝夕變化者盖以獻態呈色於前盖人之心目劃然開於新觀能造境如此僧徒始稍稍來集守挑禁樵蘇不患不力矣夫成而毁物理也毁而成則在乎人寺之成毁無常而吾所以爲守挑禁樵蘇討計者至干永世之久人愈久而愈不贊以克體我　先訓則寺可以後毁矣吾竊爲後承祝焉徒知物理之任乎彼不知觀乎人之修乎此觀寺之毁捨然不以意是其於 先訓悤焉忘之傳所謂數與而忘其

祖者也寺之毁可之憂乎吾又竊爲後承懼焉嗚呼可不煬然戒哉　伯從祖祖父　賜贊成公墓距寺不數百武爲尤近判樞公所爲首先損施樂爲之成也此又諸後承不可以不知者也

惟十有四年戊申揭

平壤曺鍉臣刻

<국역문>

화암사 중수건기

山泉 金命喜 글을 짓고, 弟 相喜 글씨 씀

용산의 사찰이 있었던 그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영조 28년 임신(1752)에 나의 증조고 정효공께서 재산을 경주하여 중건하였으니 고조고 정헌공의 묘소가 북편으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였고 그 묘역을 지키면서 벌채를 금하는 승도(僧徒)들의 참여와 힘을 보태주었기 때문이다. 정효공께서 찬술하신 정분암규(定憤菴規)는 친절한 마음으로 승도들을 애호하여 계속하여 이어오다가 얼마 후 정효공과 증조비 귀주(貴主, 화순옹주)께서 하세하시어 관비로 이 산 앵무봉 아래 합장하니 화암사와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그때 영조께서 혹시 백성들의 병폐가 있을까 염려하시어 암행어사에 명하여 그 지역 민정을 염탐하라 하였는데 어사가 돌아와 보고하기를 김도위(金都尉)의 유애(遺愛)가 백성들에게 젖어 있기에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으며 화암사의 중들도 그를 칭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기특하다 그가 인심을 얻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시고 즉시 사제(賜祭)를 명하고 몸소 제문(祭文)을 지어 말씀하시기를

아! 예산은 어떠한 곳이더냐? 너의 선영이 계신 땅이로다.

백성들은 너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수고로움을 알지 못하는도다.

화암사의 승도들도 너의 덕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하시면서 나도 사위를 잘 두었다고 말할 만하다 하시었다.

여기면서 정효공의 백성을 위한 혜택과 승도들의 추사(追思)하는 정경으로, 주상전하의 귀를 감동시켜 화암사의 이름이 그로 인하여

어제문(御製文)에 기재되게 되었다.

중건 후 95년이 지난 병오년(1846 헌종12) 절이 허물어져 승도들이 몸을 응거할 곳이 없게 되었다. 나, 소자 명희는 선조의 유훈을 추실(墜失)할까 크게 두려워하던 중 급히 개수할 것을 계획하는데 종조형 판추공(從祖兄判樞公)이 우선 돈 3만을 내놓았고 족부(族父) 홍산(鴻山)현감공이 철백용(鐵百勇)을 내고 또 종조형 나주목사공이 돈 2만과 종조제 용담현감 근희(近喜)가 지(紙)50속(束), 차제(次第)가 조력을 다하여 윤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9월에 준공하였는데 정실은 동향으로 광(廣)이 3간인데 반간의 앞퇴를 수리하여 방을 만들고 3분의1의 뒤퇴도 같이 하였다.

중간에는 부처님의 감실을 안치하고 무량수각(無量壽閣)이라 편액을 하였는데 백씨(伯氏)인 추사(秋史)의 친필(親筆)이다. 감실좌우에는 승도들이 서식하고 감실 좌측 동북우삼분실(東北隅三分室) 중 1실은 루를 만들어 조망소요(眺望逍遙)하기도 하고 편액(扁額)은 시경(詩境)이라 하였는데 이 또한 백씨의 친필이다. 또 루(樓)의 북편으로 3분의 2를 할애하여 선실(禪室)로 만들고 분향 예송에 대비하게 하였으며 또 북편으로 방보다 배나 되는 공간을 만들어 기물을 보관하게 하고 또 북편으로 한 곳을 이어내어 곳집을 만들어 나무와 양식을 보관하고 실(室)의 우(右)편으로는 주방을 만들고 또 한 편으로는 3분의 2를 넓혀 반식(飯食)과 채소의 공양을 이바지하게 하고 또 한편 3분의1의 공간은 나무하고 물질하는 자들이 거처하게 하고 총명(摠名)하여 화암사(華巖寺)라 하는데 편액은 옛날대로 정효공(月城慰 漢藎)의 수서(手書)이다.

또 옛 불당터에 집 한 채를 지어 석상 금상 2조를 안치하고 편액

은 옛날대로 약사암(藥師菴)이라 하였는데 역시 정효공의 수서이다.

모든 목수, 미장, 야장(冶匠), 단청 장인과 약간인의 인부와 궁중에서 취해준 금액이 2만여이다. 이에 사찰의 규모가 대략 갖추어졌다. 옛날에 비해 3분의1이 줄었지만 보는 사람마다 웅장하고 화려하다 하며 옛날에 없던 것들이 지금에야 갖추어 있다는 것이다.

산에는 깔려 있는 바위와 돌, 울창한 임목(林木) 피어오르는 안개와 구름이 아침저녁으로 변화하는 경광이 눈앞에 드리우니 사람들의 심목(心目)에 획연(劃然)히 새롭게 펼쳐지고 아름다운 조경(造境)이 이와 같으니 승도들도 점점 모여들고 묘역(墓域)을 수호하며 벌채를 금지(禁止)하는데 힘이 없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대저 이루어졌다 허물어지는 것은 사물의 이치이고 허물어졌던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니 이 사찰의 성(成)과 훼(毁)는 무상(無常)함으로 내가 묘역을 수호하며 벌채를 금하는 자를 위하여 영세(永世)토록 더욱더 막힘없이 전해주기 위하여 우리 선조의 유훈을 지켜 나간다면 이 절도 허물어짐이 없을 것이니 내 간절히 후손들이 잘 이어갈 것을 축원하노라. 다만 사물의 이치가 저기에 있다는 것만 알고 허물어진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되겠는가, 이에 이 절의 허물어져 가는 것을 안연(安然)히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는 선조의 유훈을 소홀히 하고 망각하는 것이니 전언(傳言)에 이른바 법전만 헤아리다가 조상을 잊게 된다는 말과 같을 것이니 절의 허물어짐을 걱정하겠는가. 나 또한 후승(後承)을 위하여 적이 두려워하노라. 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백종조부(伯從祖父) 증(贈) 찬성공(贊成公)의 묘소와는 절과 거리가 불과 수백보로 더욱 가깝기 때문에 판추공께서 수선(首先)

으로 거금을 내놓으시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또한 후승(後承)들은 다 알아두지 안해서는 안 될 일이다.

헌종 14년(1848)임신년

게판(揭板) 평양조석신 각(田溶國 譯)

<新岩面誌에서>

<화암사 관음개금불사 동 시주기>

화암사 관음개금불사 동 시주기

華巖寺觀音改金佛事 同 施主記

대화암지개사산천김공기무신금불현야오호취봉관음존상년구김퇴예

大華巖之開寺山泉金公記戊申今不賢也嗚呼取奉觀音尊像年久金退禮

자담자함제민환행득봉암사동발서원구전기만래기곡이경기중사방비

者聸者咸齊悶歡幸得鳳巖師同發誓願鳩錢幾萬來幾斛而經紀重事方費

이십허일기취점안태천유이신조야색상복광의상병갱신환연약제후지

二十許日己就點眼殆天誘而神助也色相復光衣橡丙更新煥然若霽後之

월빈호여수상지연일체승속막불천약환희여삼낙수진상사막비선남신

月濱乎如水上之蓮一切僧俗莫不踐躍歡喜如叅洛遂眞相斯莫非善男信

녀단방지대은석축이기복게전우영년기수자기록기계 이게송 단하막

女檀邦之大恩昔祝而祈福揭傳于永年其數字記록起系 以偈頌 丹霞莫

분덕산정철조배석예문무설설소견다괴범부소설보타당시여차하별만

焚德山貞撤朝拜夕禮聞無說說少見多怪凡夫소舌寶陀當時輿此何別萬

고휘헌일반백월수비불성정제단월

古徽獻一般白月誰非佛性訂諸檀越

동치팔년기사십이월이십사일점안

同治八年己巳十二月二十四日點眼(1869년)

(2) 서강사(西江寺)

삼한(三韓) 시대의 절로 유인(儒人) 김상기(金尙其) 그 앞에 논은 서강답(西江畓)이라고 부르고, 탑의 파편(破片)도 남아 있으나 절은 모습도 없다. (신암면 종교리(宗敎里) 동쪽) 위치는 명확함.

(3) 개경사(開境寺)

지금은 개경답(開境畓)이라고 하는 논이 있을 뿐, 부근에 밑바닥이 깨진 돌절구[石臼]가 골짜기에 산재한다. 절은 형태도 없고 개경답은 신암면 동북쪽 끝에 있다.

(4) 청용사(靑龍寺)

옛날 우물 뒤였다는 곳이 지금도 말로 전해지고 있다. 절의 부지는 종교리 동남쪽 끝이라고 전한다.

9) 석탑(石塔)

예산면(禮山面)

향천사 탑, 향천사와 동시에 축조(築造)한 것이며 향천사 경내에 있다. 예산군청 마당에 5층탑이 있다. 이것은 덕산면 가야사 절에서 이전한 것이다.

광시면(光時面)

동산리(東山里) 대련사(大蓮寺)에 5층탑이 있다.

대흥면(大興面)

대률리(大栗里) 송림사(松林寺) 터에 5층탑이 있다.

이 석탑은 원래 대률리 불도곡(佛道谷, 일명 (佛屠谷)의 산기슭에 있었고, 고려시대의 절터가 있다. 절은 폐된 후 어느 날 승려 꿈에 석탑이 나타나 말하기를 "지금 장소에서는 불안하니 산 위로 이전하시오."라고. 승려는 답하기를 "이 승려의 힘이 못 당하여 어찌하리…"라고 말하니 석탑이 더 말하기를 "일은 쉬우니, 귀승(貴僧)의 등을 대시오." 하였다. 다음날 승려는 가르쳐준 방법으로 산위로 옮겼다. 그 후 지금부터 15년 전에 마을의 이(李) 아무개가 탑 속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넘어뜨렸는데 부패(腐敗)한 지편(紙片)이 나왔지만 문자는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 후 탑석(塔石)은 산 바닥에 산재(散在)한 것을 백련사(白蓮寺) 창주(窓主) 신양선(申良善)이 마을 주민들과 상의해서 현재 경지(境地)에 이축(移築)했다.

고덕면(古德面)

고덕면(古德面) 방축리(防築里) (현재 石谷里)의 후산(後山)에 있다. 고려시대의 유물이라고 한다.

10) 석불(石佛)

예산면(禮山面)

미륵불(彌勒佛) 간량리(間良里) 앞에 천하(川下)에 있고, 축조 연대는 미상(未詳)이다.

대흥면(大興面)

(1) 대흥공립보통학교 교정(校庭)에 석불 일좌(一座) 있다. 원래는 송림사(松林寺) 유적에서 본 면사무소로 옮긴 것을 새로 교정으로 안치했다.

(2) 대흥면 동서리 강문희(姜文熙) 씨의 택지(宅地) 앞과 상중리(上中里) 김학수(金學壽) 씨의 택지에 각 일좌(一座)씩 있다. (그 유래는 불명)

덕산면(德山面)

덕산면 신평리(新坪里)에 있다.(미상)

11) 석비(石碑)

예산면내(禮山面內)에 건립된 것

(1) 현감박후래우청덕애민선정비(縣監朴候來羽淸德愛民善政碑)
숭정기원후재 경술 이월 일입
崇禎紀元後再 庚戌 二月 日立(1730 영조6년)

(2) 현감임후기인자애민비(縣監任候者仁慈愛民碑)
을미 십이월 일입(乙未 十二月 日立)(1895, 고종32년)

(3) 관찰사겸순찰사심공의훈애민선정비
(觀察使兼巡察使沈公宜薰愛民善政碑)
도광 십육년정유육일(道光 十六年丁酉六日)(1837, 헌종3년)

(4) 현감권후기헌청덕애민영세불망비

(縣監權候基憲淸德愛民永世不忘碑)

무신 삼월 일 (戊申 三月 日)(1848, 헌종14년)

(5) 현감엄후석겸청덕애민영세불망비

(縣監嚴候錫謙淸德愛民永世不忘碑)

헌종 십삼년 정미(憲宗 十三年 丁未)(1847년)

(6) 박현감유애비(웅집)(朴縣監遺愛碑(雄緝))

공휘웅집자제진천 公諱雄緝字濟鎭川

무진십월침임 병자임십월환기 戊辰十月針任 丙子任十月換起

문경삼민여실부모 門境三民如失父母

만력무인사월입(萬歷戊寅四月立)(1578, 선조11년)

(7) 종이품유공치흥기념비(從二品兪公致興紀念碑)

축석방안 거침무구 蓄石防岸 巨浸無懼

천손진자 혜편궁부 荐損賑資 惠遍窮蔀

대정7년(1918) 십월립(大正7年(1918) 十月立)

(8) 충혼비(忠魂碑)

원수육군대장 元帥陸軍大將

자작천촌경명서 子爵川村景明書(가와무라가게아기)

대정십오년(1926) 칠월 건립(大正十五年(1926) 七月 建立)

(9) 헌병보 훈팔등 공칠급 채달점지비

(憲兵補 勳八等 功七級 蔡達點之碑)

조선헌병대사령관지영잔치서 朝鮮憲兵隊司令官持永殘治書

소화십일년칠월십칠일 1936년(昭和十一年七月十七日 1936年)

(10) 열녀박경상처창령성씨비(烈女朴慶相妻昌寧成氏碑)

부병열지 부통욕절 夫病裂指 父恫欲絶

상욕순신 강인전론　喪欲殉身 强忍全論

진성소사 인리분작　盡成所事 隣里奮作

필미고인 표감정민　匹美古人 表監貞珉

(11) 지포정상공낙용영세불망비(芝圃鄭相公洛鎔永世不忘碑)

연봉구광 거민안업　捐俸救廣 居民安業

휼은견세 원상쟁집　恤隱蠲稅 遠商爭集

숭정기원후오 무술삼월 입(崇禎紀元後五 戊戌三月 立

(1898, 고종 광무2년)

(12) 현감신후사원청덕애민선정비(縣監申候史源淸德愛民善政碑)

숭정기원후삼정미칠월(崇禎紀元後三丁未七月)

(1907, 순종1년)

(13) 군수이후기상애민선정비(郡守李候基相愛民善政碑)

전민산중림임성해 낙민지현민식공선

全民山重霖林成海 樂民之縣民式恐先

성일아루부표무류 우민지애원약장유

成日我淚府慓無流 憂民之愛願若長留

금상 기해삼월 일今上 己亥三月 日(1899, 고종 광무3년)

(14) 행관찰사정공주영청덕선정비(行觀察使鄭公周永淸德善政碑)

복성취수 정분팔강 福星取垂 正分八綱

세숙민자 부월추상 歲熟民慈 斧鉞楸霜

여감기명 군삼십칠 如鑒基明 郡三十七

여수기청 정금출일 如水基淸 政今出一

금상기해 삼월 일(今上己亥 三月 日)(1899, 고종 광무3년)

(15) 동돈령장공윤식영세불망비(同敦寧張公胤植永世不忘碑)

지재보교 천재유석 指財補校 千載遺石

오산비중 구석유경 烏山比重 龜石猶輕

경인 유월 일입(庚寅 六月 日立)(1890, 고종27년)

(16) 순찰사민공치상영세불망비(巡察使閔公致庠永世不忘碑)

경오 십이월 일입(庚午 十二月 日立)(1870, 고종7년)

(17) 현감심후의훈청덕간애민선정비

(縣監沈候宜薰淸德簡愛民善政碑)

신묘 십월 일(辛卯 十月 日)(1891, 고종28년)

(18) 현감이후순응애민선정비(縣監李候純應愛民善政碑)

정해 칠월 입(丁亥 七月 立)(1887, 고종 24년)

(19) 현감이후시우애민흥학선정비(縣監李候時宇愛民興學善政碑)

(20) 동돈령장공윤식영세불망비(同敦寧張公胤植永世不忘碑)

시공지택 세금우방 是公之澤 歲金牛方

천세운송 일편석호 千歲云頌 一片石號

신묘 이월 일 대청수입(辛卯 二月 日 大廳竪立)

(21) 현감장후윤식영세불망비(縣監張候胤植永世不忘碑)

정저조궁관해결리연봉완답 政著調窮官廨結理捐俸完答

치효흥폐유관우혜견쇄균세 治效興廢儒官優惠蠲刷均稅

민회구덕송해칠사편석가어 民懷舊德頌該七事片石可語

이복신제재비만계비극영세 吏服新制財費万計俾克永世

경오 십이월 일입(庚午 十二月 日立)(1870, 고종7년)

(22) 현감장후장윤식영세불망비(縣監張候張胤植永世不忘碑)

삼반함송 일의상수 三班咸頌 一議相竪

(23) 중서쇠길공시혜송덕비

(中西衰吉公施惠頌德碑)(나가니시시노기지)

이부처세 이재발신 공래원방 추성기욕

以富處世 以財發身 公來遠方 秋省其慾

난득기예 인인지사 시혜불소 춘성보족

難得其譽 仁人之事 施惠不少 春省補足

차아빈민 범급농촌 일가흥희 중구성비

嗟我貧民 凡及農村 一家興喜 衆口成碑

안토식력 함칭기덕 가이모범 물지기념

安土食力 咸稱其德 可以模範 勿志記念

소화 십년 을해 구월 일입(昭和 十年 乙亥 九月 日立)

(1935년)

(24) 유명조선증의정부령정행직산현감한산이공희선지묘

(有明朝鮮贈議政府領政行稷山縣監韓山李公羲先之墓)

배증정경부인반남박씨부좌 配贈貞敬夫人潘南朴氏祔左

위치 재 예산면 산성리 대성지상묘비

位置 在 禮山面 山城里 大成趾上墓碑

<이면(裏面)>

오호차고직산현감증의정부영의정이공휘희선지묘야배증정경부

嗚呼此故稷山縣監贈議政府領議政李公諱羲先之墓也配贈貞敬夫

인반남박씨부좌불상고경좌수석자묘도읍남성지일존군자생후이

人潘南朴氏祔左不尙孤景左樹石子墓道泣南誠之日存君子生後李

씨계한산우고려가목양선생잉세이덕업문장대현자세입아조명석

氏系韓山右高麗稼牧兩先生仍世以德業文章大顯子世入我朝名石

석상망위동방거벌유휘정연호폐천관이조참판망중대시생휘행진
碩相望爲東方巨閥有諱廷燕号敝川官吏朝叅判望重代是生諱淬進
정관화양지문수역예학음평창군수증이조참판어부군사세조야증
靜官華陽之門邃易禮學蔭平昌郡守贈吏曹叅判於府君四世祖也曾
조휘채철익능참봉증이조판서조휘태중호삼산이직도설망위세명
祖諱采哲翌陵叅奉[5]贈吏曹判書祖諱台重號三山以直道說望爲世名
신문호조판서시문경공고휘학예음장부사증의정부좌찬성비평산
臣文戶曹判書諡文敬公考諱學禮蔭長府使贈議政府左贊成妣平山
신씨참판휘위여부군이영자을미삼월십이일생순조갑자등사마
申氏叅判諱暐女府君以英字乙未三月十二日生純祖甲子[6]登司馬
임신익종책봉수고일청선득세마병자출재무인사월이십일하세자
壬申翼宗冊封首雇日淸先得洗馬丙子出宰戊寅[7]四月二十日下世子
주소평년사십사부군유지덕문행위사우소추중이심윤음도미사전
住所平年四十四府君有志德文行爲士友所推重而沈倫蔭途未巳展
시천우불가지년소비명야불상절위우조루몽은증천지보시당재시
施天又不假之年小非命耶不尙竊位于朝屢蒙恩贈天之報施堂在是
즉시권착자홍주용천면기묘사월침원자예산산성리간좌지원부참
卽始權厝子洪州用川面己卯四月枕寃子禮山山城里艮坐之原夫叅
봉휘홍수여금성위휘명원증손야이갑오사월십일생맥법가훈유사
奉諱泓壽女錦城尉諱明源曾孫也以甲午四月十日生脈法家訓有士
행신미오월십이일하형년삼십팔장동광유이남삼녀창재음참판경
行辛未五月十二日下亨年三十八葬同壙有二男三女昌在蔭叅判景

5) 翌陵叅奉~仁敬王后(숙종)
6) 純祖甲子 : 1804년
7) 純祖戊寅 : 1818년

재문과금판돈령김조근음영돈령영흥부군탄고현왕후홍종무음준
在文科今判敦寧金祖根蔭領敦寧永興府君誕考顯王后洪鍾茂蔭濬
전현감박신양김정식경존자승구구현조천차즉승오녀김병덕금판
前縣監朴頤陽金正植景存子承九救現早天次卽承五女金炳德今判
서조중협금참판김병운진사김오근자병준금승지녀남기추판서홍
書趙重協今叅判金炳運進士金梧根子炳準今承旨女南氣推判書洪
종무무주자순양진사녀수명노전참봉학연자우향진사녀고수신이
鍾茂茂朱子淳養進士女秀明魯前叅奉學淵子友香進士女考秀臣李
승우금진사오호아호비불행조세이불상배몽준무지식평설덕무행
承禹今進士嗚呼我乎妣不幸蚤世而不尙輩蒙駿無知識平說德茂行
지불가민자무소고휘종불능표장이시후중분고지죄차불상소설세
之不可泯者無所考徽終不能表章以示後重分考之罪此不尙所設世
은편야고기선계자성편천백세후감지오부모지침이기부숙지오선
隱偏也姑記先系子姓便千百世後感知吾父母之葴而己夫熟知吾先
군지유지무년오선비지유덕종야오호통의
君之有志無年吾先妣之有德棕也嗚呼痛矣
남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 우의정겸령경연사감춘추관사원임
男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 右議政兼領經延事監春秋館事原任
규장각제학실록총재관경재범직병서
奎章閣提學實錄摠裁官景在泛織幷書
숭정기원후사갑자십월일입
崇禎紀元后四甲子十月日立(1864년 고종1년)

(25) 현감김후노응영세불망비(縣監金候魯應永世不忘碑)

○○○○ 공마초폐 ○○○○ 貢馬草幣

빙부식간 ○수복춘　　氷夫息看 ○水復春

세재 도광이년계춘입(歲在 道光二年季春立)(1822, 순종22년)

(26) 현감이후규문애휼민선정비(縣監李候揆文愛恤民善政碑)

자혜일심 견함이폐　　字惠一心 蠲咸而弊

종사행소 영위폐비　　從寺幸蘇 永位肺碑

건융육년 신유 삼월 입(乾隆六年 辛酉 三月 立)

(1741, 영조17년)

(27) 현감이후동우영세불망비(縣監李候東宇永世不忘碑)

사태덕 감추인 우검신　　乍兌德 減椎人 禹儉愼

답실각 노화낙 수광겸　　踏實脚 老化洛 樔廣兼

방수날 애교영 촉흥학 근지석(坊修揑 愛皎永 蜀興學 勤之石)

계미 십월 입(癸未 十月 立)(1883, 고종20년)

(28) 현감이후도근청백휼민선정비(縣監李候度謹淸白恤民善政碑)

기묘 십월 일입(己卯 十月 日立)(1819, 순종19년)

(29) 관작리송계조합 박영관 성낙건 이석형 이규성 기념비

(觀爵里松契組合 朴永寬 成樂建 李錫衡 李奎性 記念碑)

유아임록 추총흥포 출기비리 특여회원

惟我林鹿 椎穗興飽 出其非理 特與會員

치만저왕 일리여왕 미인견구 구재협력

雉万佢往 一里與旺 美人見舊 鳩財協力

출오우오 표이수비　　出吾友吾 表而竪碑

환인진산 강류석석　　丸仞晋山 江流石碩

정한영 조학빈 정종옥 이용직 이경수 전정일 이용구 차원중

합원팔십팔명

鄭漢永 趙學彬 鄭鍾玉 李容直 李慶壽 全正日 李容九 車元仲
合員八十八名
대정십일년임술이월(大正十一年壬戌二月)(1922년)

12) 려정(閭旌)

예산면(禮山面)

(1) 방맹(方萌)효정(孝旌)

숭정(崇禎) 후, 삼계축(三癸丑) 9월 예산현(禮山縣)에 건립. 씨(氏)는 고려(高麗) 왕조(王朝)의 충신(忠臣)으로 이조(李朝)의 불신(不臣)한 신하(臣下)였다. 서울(都)에서 당지(當地)로 영락(零落)해 올 때부터 그 자손(子孫)이 영주하여 지금까지도 후예(後裔)는 많다.

1936년(소화(昭和)11) 봄, 예산리에 있던 정문(旌門)을 방가(方家)의 구(舊) 묘지인 향천리 산기슭에 이축(移築)했다. 예산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효자호장방맹지문(孝子戶長方萌之門) 숭정후삼계축구월 일 십일세손 호장문탁여제족개조 崇禎後三癸丑九月 日 十一世孫 戶長文鐸與諸族改造

(2) 효열녀정(孝烈女旌)

효녀 이씨(李氏)의 문을 광서(光緖)11년 을유(乙酉) 9월「명치(明治)18년=1885년」예산읍내에 건립. 향천사 행로(行路) 변(邊)

효열녀향리박영배처경주이씨지문
孝烈女鄕吏朴英培妻慶州李氏之門
광서11년을유5월초2일명정려동년9월일 불초자호장효원수립
光緖11年乙酉5月初2日命旌閭同年九月日 不肖子戶長孝源竪立

(3) 열녀문(烈女門)

1930년(昭和5) 경성(京城) 대성학원(大成學院)에서 효열(孝烈) 박씨(朴氏)의 문을 예산 오리정(五里亭)에 세웠다.

효열부학생왕석종처유인평산박씨지문
孝烈婦學生王奭鍾妻孺人平山朴氏之門
공부자탄강이천사백팔십일년경오삼월 일
孔夫子誕降二千四白八十一年庚午三月 日

<이면(裏面)>
평산박씨 정효행록
平山朴氏 貞孝行錄
부인정길종일이종윤리지정야주어 험일절사유성인정지소난이문유일
婦人貞吉從一而終倫理之正也主於 險一節舍愈誠人情之所難而聞有一
궁행이종신자향당유탄사장려식조풍화지불가소자야김열보장견예산
躬行而終身者鄕黨楢歎社奬勵寔助風化之不可少者也金閱報章見禮山
군왕석종부인평산행적지기재위인격절이삼탄금견광성묘사무소완의
郡王奭鍾夫人平山行蹟之記載爲人擊絶而三歎今見光聖廟事務所完議
문쌍간기상종이요여기실용위게판지자이수구원여수필둔졸의불패사

文饔間其詳從以要余記実庸爲偈板之資以垂久遠余雖筆鈍拙義不敗辭
급위지문왈부인세위효우숙유훈도급반왕씨효사구고경봉부자일가화
及爲之文曰夫人世爲孝友夙有薰陶及般王氏孝事舅姑敬奉夫子一家化
지왈인모지월삼년삼자영우체불수지증기거욕탄실기자유부인친자족
之曰隣募之越三年三子嬰右体不遂之症起居欲嘆失基自由夫人親自族
지야이전서진불의간구불중미류이영의공약위사우설단어후원쟁처과
持夜以纏書辰不衣幹口不重味柳以迎醫供藥危事又設壇於後園爭處課
급정화축천기우십삼년불해여일일기소급지수륭동역불응연가견지성
汲井華祝天冀佑十三年不懈如一日基所汲之水隆冬亦不凝演可見至誠
감신야급기위욕상분작지다방구호이연시일경조붕역표통기지운절행
感神也及其危欲嘗糞斫指多方救護以延時日竟曺崩域表痛幾至殞絶行
로위지유체방결의하종번연오왈구고재수위봉양호내차족자준위사이
路爲之流涕方決意下從翻然悟曰舅姑在誰爲奉養乎乃此族子俊爲嗣以
전부문오세지술윤상패풍교자하한사조영첨부인지평생숙불자반이혼
全夫門噫世之茂倫常敗風敎者何限使朝迎瞻夫人之平生孰不自反而混
원소기성지불가민야재차여지위차문서가위세지무행자계부세기사계
願所○性之不可泯也在此余之爲此文庶可爲世之無行者戒否歲己巳季
춘상한통정대부승선원재사승선겸경련참찬관춘추관조찬관
春上澣通政大夫承宣院在嗣承宣謙經蓮叅贊官春秋館條撰官
완산 이봉종 모
完山 李鳳鍾 模

(4) 김근이개우(金勤李開右)

조선시(朝鮮時) 구(俱)효정(孝旌)인데 이제는 터도 미량(未諒)이다.

(5) 매읍덕(每邑德)열녀문(烈女門)

호장장중연녀삼십삼부사삼년여모부모욕탈기지삭발위잉정려
戶長張仲淵女三十三夫死三年廬慕父母欲奪其志削髮爲仍旌閭
장소미량(場所未諒)

신양면(新陽面)에 건립된 것

(1) 면장이병국기념비(面長李秉國紀念碑)

감면십재 설교육영 監面十載 設校育英
근억위치 교부망피 勤億爲治 橋簿忘疲
덕풍초언 편석가어 德風草偃 片石可語
인택양시 만구성비 仁澤兩施 萬口成碑
소화삼년 십일월 일월입 (1928年)
昭和三年 十一月 一日立 (1928年)

광시면(光時面)에 건립된 것

(1) 유명조선국소위장군행 세자익위사부솔증가선대부이조참판겸
有明朝鮮國昭威將軍行 世子翊衛司副率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
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김공묘갈명
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金公墓碣銘
대광보국숭록대부원임령중추부사치사사조하
大匡輔國崇祿大夫原任領中樞府事致仕事朝賀
이의현 찬 손 교행근서
李宜顯 撰 孫 敎行謹書

현손자헌대부예조판서겸지의금부사동지경연성균관사 의순근전고상

玄孫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義禁府事同知經延成均館事 義淳謹篆故相
국안동김문충공우노난태절어강도후학사존지칭위선원선생자손법상
國安東金文忠公遇虜亂殆節於江都後學師尊之稱爲仙源先生子孫法象
기현함이충효절행자려유휘성학도향호수월헌자문충지증손문충휘상
其賢咸以忠孝節行自勵有諱盛學道鄉號水月軒者文忠之曾孫文忠諱尙
용전이조참판휘광현면천군수휘수빈식취전의이씨청강공제신증손녀
容傳吏曹參判諱光炫沔川郡守諱壽賓寔娶全義李氏淸江公濟臣曾孫女
야공수만출어군수이천자특영초학어편식문학십이상부특별여성인견
也公雖晩出於郡守而天姿特穎苕學語便識文學十二喪父特別如成人見
자난이지공자조기부기도약관여제우상월우동년기복독오아불탁왈오
者難異之公自助己負器度弱冠與儕友賞月遇○年幾覆獨傲睨不擢曰吾
배기엄사인재시유도이허경경외분파공작지기녀불연점운심산좌정역
輩豈渰死人載時有島夷虛警京外奔波公灼知基女不然點運心算坐定繹
소장로이위비년소소급기사흉찬진윤감절종로문곡공수급어갈공비분
騷長老以爲非年小所及己巳兇贊進倫滅絶宗老文谷公首及於禍公悲憤
강개기연참수궐지반우유팔해피세지노수봉대부인환홍주지갈산촌사
慷慨堅連參守闕之班又有八海避世之老遂奉大夫人還洪州之葛山村社
문병거사절인시상앙옥장탄회오처의역가위시고인무소총의오공출처
門屛居謝絶人市常仰屋長歎回吾處義亦可謂視古人無所愧矣嗚公出處
지정차언가관이어견소인필엄지계우유가입수등자유인희모
之正此言可觀而於見小人必嚴之戒又有加入數等者有人餙貌

(2)

면암최선생익현지묘(勉菴崔先生益鉉之墓) 정부인청주한씨부좌(貞夫人淸州韓氏祔左)

대흥면(大興面) 내에 건립된 것

(1) 유명조선국영의정 흥인군 증시충익완산이공휘최응지묘
(有名朝鮮國領議政 興寅君 贈諡忠翼完山李公諱最應之墓)

증정경부인안동권씨 贈貞敬夫人安東權氏

증정경부인연일정씨 부우 贈貞敬夫人延日鄭氏府右

정경부인안동김씨 부좌 貞敬夫人安東金氏 府左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領宗正卿府事總理統理機務衙門事侍講院師興寅君諡忠翼公神道碑銘幷序

惟我 聖上宵旰憂勤每念得與共國旁求俊彦其所知之深信之篤可以朝夕納誨者固莫若忠翼李公遂乃勿用甌卜 特命爰立入中書九載殫誠盡忠鞠瘁後己國朝宗英惟公一人是也公諱最應字良伯號山響全州人系出璿派祖諱禛恩信君諡忠憲卽 莊獻世子第三子考諱球南延君諡忠正本以仁祖大王第三者諱濬麟平大君諡忠敬之派至諱秉源進士 贈領議政是生忠正過房爲忠憲後忠正生四子公序居第三而興宣大院君之同胞叔兄也妣郡夫人驪興閔氏監役 贈右議政諱景爀女左議政諡文忠諱鼎重之後也公以 純祖乙亥二月十七日生自幼仁厚之性藹然流出喜施與見人過失必掩覆之亦不言愛憎當時以國器稱焉己丑授興寅副正翌年陞都正封君蓮資至顯綠以有高於仲氏興完君疏辭而後更授之 憲宗丙申丁忠正公憂克遵禮制易戚備至服闋忠冬至上使裁特淸嚴象譯敬憚甲子 當宁御極判宗正卿以處地自別用朝紳宦塗 特除判敦寧扈衛大將太廟南殿尙方梨院太僕提擧甲戌特拜左議政陞領宗正卿翌年 王世子冊禮爲傳冬陞領議政自此乍解旋拜

者四判事領事於樞府敦府間嘗科取主試得人爲多非文纓而秉筆特例也統理機務衙門新設 命管總理大臣以都相則 太廟廚院藥院譯院禁衛訓局武衛營而權差於哀慶四都監賞賜之廐馬文豹任子之典繁不盡錄壬午 特授廣州留守六月十日軍亂大變也訓局叛卒露兵圍公第時尙早矣公急起寢室驚憤氣塞移寓於雲峴宮上道御醫齊齎看病竟於是日卒壽六十八訃聞上震悼撤朝別下隱敎厚賜賻賵遺近侍致祭 命中湏庀喪不待狀議諡孝憲仍又特敎改諡忠翼危身奉上曰忠思慮深遠曰翼時値擾壤翌月葬龍山坊甲申遷窆于大興郡牛井里辛坐原配 贈貞敬夫人安東權氏進士義仁女配 贈貞敬夫人延日鄭氏縣監明源女俱無育配貞敬夫人安東金氏晩根女三配同公移柎金夫人生一男載兢禮判諡獻簡年纔二十五而先公夭無育取今廣興令熙夏子垠鎔爲后公貌瘦 音朗身不踰中人而若不勝衣擧止端雅有儒者氣像外雖樂易內實剛介薀確乎不拔之操矣恒以祿不逮養爲平生慟恨兄第親戚務存愛敬各盡其道理而謹約謙牧矜式宗黨逮夫受知于 上親密倚毘托之股肱心膂遂至委任百責手札以寵之公亦感激恩眷圖報一念寤寐如結不擇夷險置此身於度外若乃勉君德濟民生立紀綱節財用皆其嘉謀嘉獻而懇懇敷奏不禁前席流涕嘗曰吾與他大臣有異從容陳達於燕蠖中而不欲以直截犯顔是豈外人所知蓋公之志不激不隨納約引道自丙子以後外務蒡午彌綸應接不顧衆咻之論惟塼心於安 社稷而時事日棘殷憂泯棼所以屢去其位往來山墅暮年西河之痛益無意於世矣親撰侑文有曰蓍龜云亡有疑誰咨砥柱己頹有危誰持此雖百世之下君臣間知遇孰不興感乎天之生公將以綏靖我邦而居召保之職享召保之壽爲國家祈天永命厚望者存今焉己矣惟有後死之悲而己嗚呼銘曰

大獻制治相得其人疇若予采咨諏廷臣簡在 聖心內不避親維德與才見的知眞非常 寵命踰袞溫綸公乃忘軀寸丹質入告出宣救時拯民匪吐如衡

必均奈際艱虞齎志莫伸退而亦憂戀結逡巡憤窒未甦慦遺誰因中流失楫詒戚　重宸八鑑斯亡相舂不陳年齊涑水古今訢旻正直之好悲昔同寅一塵奄隔湖岑嶙峋

大匡輔國崇綠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總理軍國事務侍講院師原任　奎章閣提學南陽洪淳穆撰從子輔國崇祿大夫判宗正卿府事兼吏曹判書知 經筵春秋館事同知成均館事原任 奎章閣直提學侍講院左賓客五衛都摠府摠管載元謹書從子輔國崇綠大夫判宗正卿府事兼吏曹判書知 經筵春秋館事同知成均館事原任 奎章閣直提學侍講院左賓客五衛都摠管載冕謹篆

숭정기원후오갑신 팔월 일입

崇禎紀元後五甲申 八月 日立(1884年 高宗21年)

<이최응 신도비문 국역문>

이최응 신도비문

[두전] 영의정 흥인군 충익공 신도비명

유명조선국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영종정경부사 총리통리기무아문사 시강원사 흥인군 시충익공신도비명 병서

우리 임금께서 밤낮으로 걱정해서 매양 나라를 함께 할 이를 생각해서 널리 인재를 구했으니 알기를 깊이 하고 믿기를 독실히 하여 아침저녁으로 간언을 드릴 수 있는 자는 진실로 충익공 같은 이 없었으므로 드디어 복상으로 하지 않고 특명으로 세웠으나 정승에 들어간 지 아홉 해에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몸이 파리할 때까

지 한 이는 우리나라 왕족에는 오직 공 한 사람뿐이었다.

공의 휘는 최응이고 자는 양백이며 호는 산향이니 전주인이다. 선계가 왕족에서 나왔으니 할아버지 휘 진은 은신군으로 시 충헌이니 바로 장헌세자의 셋째 아들이고 아버지 휘 구는 남연군으로 시 충정이니 본래 인조대왕의 셋째 아들 휘요 인평대군 시 충경에서 나온 파이다. 휘 병원에 이르러 진사로 증 영의정이고 이가 충정공을 낳았으니 출계해서 충헌의 후사가 되었다. 충정이 네 아들을 낳았으니 공이 셋째로서 흥선대원군의 어머니 같은 셋째 형님이다. 어머니는 군부인 여흥민씨니 감역으로 증 우의정 휘 경혁의 따님이고 좌의정 시 문충 휘 정중의 후손이다.

공이 순조 을해 이월 십칠일로 태어나니 어려서부터 인후한 성품이 애연하게 흘러나와 베풀어주기를 기뻐하고 사람의 허물을 보면 반드시 덮어주고 또한 사랑하고 미워함을 말하지 않으니 당시에 나전의 그릇을 일컬었다. 기축년에 흥인부정이 되고 다음해에 도정으로 올라 봉군하고 연이어 올라 현록에 이르니 중형님 흥완군보다 높으므로 상소해서 사양한 뒤에 다시 받았다. 헌종 병신년에 충정공 상사를 만나서 능히 예법을 따라 문채로 꾸밈과 슬퍼함이 갖추어 지극하고 상복을 벗은 후에 동지상사에 임명되어 일의 재단과 몸가짐이 맑고 근엄하니 통역들이 공경하고 어려워했다. 갑자년에 지금 임금이 왕위에 오름에 판종정경이 되니 처지가 별다름으로 다른 조신들의 벼슬길을 따라 특별히 판돈령 호위대장과 태묘 남전과 상방이원의 태복과 제거에 오르고 갑술년에는 특별히 좌의정이 되고 영종정경에 올랐다. 그 다음해에 왕세자가 책봉되면서 스승이 되고 겨울에 영의정에 오르니 이로부터 잠깐 해직했다가 바로 다시 임명하기를 네 차

례나 하였다. 중추부와 돈령부에서 판사와 영사를 하고 그 사이에 과거도 주간해서 인재를 많이 얻기도 하니 문관이 아니면서도 붓을 잡게 된 것은 특례이다. 통리기무아문을 신설함에 명령해서 총리대신을 간섭하게 했고 도상으로서는 태묘와 주원·약원·역원·금위·훈국·무위영과 애경사도감에도 권차하였으니 상으로 내린 말이나 문표임자의 은전을 번더해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

임오년에 특별히 광주유수를 제수하였다. 6월 10일에 있었던 군난은 큰 변고이다. 훈련원 반졸들이 병기를 가지고 와서 공의 집을 에우니 때는 아직 새벽이었다. 공이 급히 침실에서 일어나 놀래고 분하게 여겨 기운이 막히었다. 운현궁으로 옮기었고 임금이 어의를 보내 약을 쓰고 간호하였으나 마침내 이 날로 돌아가니 향수가 68세였다. 부음이 알려지자 임금은 진도하고 조회를 멈추었으며 슬퍼하는 전교를 별도로 내리고 부의도 하후게 하사하며 가까운 신하를 보내어 지체하고 중관들에게 명령해서 상례를 치르게 하고 시장도 기다리지 않고 시호를 의론해서 효헌이라 했다가 또 특별히 전교를 내려 시호를 충익으로 고치니 몸을 위태롭게 해서 위를 받듦을 충이라 하고 사려가 깊고 원대함을 익이라 하였다. 때는 마침 시끄러움으로 다음 달 용산방에 장례지내고 갑신년에 대흥군 우정리 신좌원으로 옮기었다. 배위 증정경부인 안동권씨는 진사 희인의 따님이고 배위 증정경부인 연일정씨는 현감 명원의 따님이니 모두 자녀를 두지 못하였고 배위 정경부인 안동김씨는 만근의 따님이니 세 배위가 모두 공과 함께 옮겨 합폄하였다. 김부인이 1남을 낳았으니 재긍이니 예조판서로 시호가 헌간이며 나이 겨우 25세에 공보다 먼저 요서하여 소생이 없고 광흥령 희하의 아들 은용을 취해서 후사를 삼았다.

공의 모양이 야위고 음성이 낭랑하며 몸이 중인에 넘지 않으면서 옷도 이기지 못하는 듯하였다. 행동이 단아해서 선비의 기상이 있으니 밖으로는 비록 화락하지만 안으로는 실상 강직해서 확호불발하는 지조가 있었다. 항상 관록으로 봉양하지 못함을 평생의 통한으로 삼았고 형제친척들에게도 사랑과 공경을 지극히 해서 각각 그 도리를 다하여 삼가하고 겸손하니 일가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임금에게 알아주심을 받은 후에는 친밀하게 기대고 팔다리와 심복처럼 여기어 드디어 모든 책무를 위임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손수 편지를 내려 총애하니 공도 은총에 감격하여 보답하려는 생각이 깨나 자나 맺혀 있어 쉽고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한 몸은 치지도외하였다. 임금의 덕을 권면하고 민생을 구제하고 기강을 세우고 재물을 절제함은 모두 아름다운 도략과 방법으로 간곡하게 아뢰어 임금의 앞자리에서 눈물을 금하지 못하고 일찍이 말하되 나는 다른 대신과 더불어 다르다고 하여 조용하게 평상시에 진달하고 직접 적을 대면해서 간쟁하지 않았으니 이는 어찌 외인으로 알 바리오? 공의 뜻은 격동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도리로 이끄는 것이었다. 병자년 이후로는 외무가 몰려들자 얽어매고 응접함에 뭇 사람들의 의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사직을 편안히 하는 데에만 마음을 쓰지만 시대의 일은 날마다 급박해지고 걱정거리만 쌓이니 이 때문에 여러 차례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산과 들로 왕래하였다. 늘그막의 아들의 참적은 더욱 세상에 뜻이 없게 하였다. 임금이 친히 지은 제문에 이르되 길잡이의 인물 돌아갔다 하니 의문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으며 지주가 무너졌으니 위태로움을 누가 붙들리오? 하였으니 이는 비록 백세의 아래에서라도 임금과 신하의 만남을 누가 흥기하지 않으리오? 하늘이 공을 낳음은 장

차 우리나라를 편안케 하려 함이며 소보의 직책에 거하여 소보의 수명을 누림은 국가의 천명을 위해서 두터운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끝났도다. 오직 뒤에 죽는 자의 슬픔이 있을 뿐이다. 아! 슬프도다. 명에 이르되

큰 도략으로 정치를 마련하니 재상이 적임을 얻었구려.

누가 내 일을 도와줄까? 조정 신하들에게 자문하였도다.

임금의 마음에 간택되어 종친도 피하지 않았도다.

오직 덕과 재주가 분명함을 보고 참을 알았으니 비상한 은총이 넘치게 온화하였네.

공은 이에 몸을 잊었으니 단심은 귀신에도 질정하였다.

들어오면 고하고 나가면 베풀면서 시대를 구제하고 백성을 건지었네.

약하다고 넘보고 강하다고 뺏지 않으면서 저울과 같이 고르게 했네.

어려운 즈음을 만나 뜻만 갖고 펴지 못하였다.

물러와서도 걱정하니 생각에 맺혀 머뭇거리었네.

통분이 막혀 소생하지 못하니 하늘도 무심하였네.

중류에 돛을 잃어 임금께도 슬픔 끼치었구나.

사람의 거울이 없어지어 절구 소리도 멈추었으니

나이도 사마온공 같았으니 고금에 끝없이 하늘에 하소연하리.

정직한 좋은 풍도 저 옛날 힘쓰던 일 슬퍼하는데 한순간 문득 막혔으니 호서의 산만 높고 높아라.

조카 보국숭록대부 판종정경부사 겸 이조판서 지경연춘추관사 동지성균관사 원임규장각직제학 시강원좌빈객 오위도총부도총관 재면은 삼가 전자를 쓰다.

숭정기원후 五갑신 8월 일에 세우다.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총리군국사무 시강원사 원임규장각제학 남양 혼순목은 짓다.

조카 보국숭록대부 판종정경부사 겸 이조판서 지경연춘추관사 동지성균관사 원임규장각직제학 시강원좌빈객 오위도총부도총관 재원은 삼가 쓰다.

후손 자헌대부 의정부우참찬 겸 동지경연사 홍문관제학 종급은 삼가 기록한다.

(2) 조선국세자익위사시마증가선대부동중추사수명휘여정지묘

朝鮮國世子翊衛司洗馬贈嘉善大夫同中樞事水明諱汝鼎之墓

증정부인현풍곽씨부좌

贈貞夫人玄風郭氏祔左

公性金氏諱汝鼎字夏聖號水明齋也新羅 王子諱興光遯居光山伋鄉貫而爲始祖至麗代連襲八世平章事八本 朝諱遡文科司成爲公之八世祖生諱禮蒙文禮曹判書 諡文敬生諱性源文翰林成均司藝生諱白文進士叅奉生諱綱文翰林兩館提學郎公之高祖也曾祖諱宗忠禮賓寺直長祖諱友仁禮賓寺直長號梅谷考諱有憲軍資監判官號寒軒娶牧使扶餘徐士諶之女生公于 宣廟丁未正月十日資貌豊碩才德兼備不屑於切令文字受業於白江李敬輿之門眞知力行華聞日至師友薦除洗馬不就當時箋注之紛拏是非之顚倒多有就質而正焉且明經史泮儒之讀毛詩左傳者執冊考疑旌閭 贈嘉善大夫同中樞府事此固講明倫理承襲家稱公以先生性又至孝負米懷橘椎山漁水無傀於古人後蒙業而然也肅宗戊午十月十日卒窆于大興郡近東面其谷里負甲之原夫人僉正玄風郭渾之女祔公之墓生三男主桓楮而柱早卒桓

楷皆筮仕噫公之篤學懿行生未展布古宅文藻亦多遺落不亦根哉公之八世孫百鍊氏垉其略于遺蹟余以表其墓素以昧學縱不能當有感其後承墓先之志略叙其實以存不朽焉歲辛未仲春吉日嘉善大夫皇太子侍講院副簷事原任奎章閣直學士宜城李貞烈識

開國五百四十年辛未二月十九日立

八世孫 昌鍊 謹書

八世孫 烈鍊 周務

九世孫 濬日 監刻

<국역문>

공(公)의 성(姓)은 김씨 휘는 여정(汝鼎) 자(字)는 하성(夏聖) 호(號)는 수명재(水明齋)니 신라왕자 휘 흥광(興光)이 세상을 피하여 광산(光山)에 살아서 향관(鄕貫, 본관)을 삼아서 시조(始祖)가 되었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8대를 연하여 평장사(平章事, 현재의 장관급)가 배출되었다.

본조(李朝)에 들어와서 휘 소(遡)는 문과사성(文科司成)이니 공의 8대조요 휘 예몽(禮蒙)을 낳으니 문과 예조판서(禮曹判書)로서 시호(諡號, 죽은 후에 나라에 공이 많은 신하에게 공경하여 내리는 이름)가 문경공(文敬公)이요, 휘 성원(性源)을 낳으니 문한림(文翰林) 성균관(成均館) 사예(司藝, 정4품관)요, 휘 백문(佰文)을 낳으니 진사참봉(進士叅奉)이요 휘 강(綱, 백부(伯父) 백문(백문)에게로 출후(出后))을 낳아서 문한림군수(文翰林郡守)이니 곧 공의 고조(高祖)이다. 증조(曾祖)의 휘 종충(宗忠)은 예빈시 직장(禮賓寺直長, 국빈을 예우하는 일을 관장하는 부서의 종7품관)이요, 할아버지의 휘 우인(友仁)은 예빈시

직장으로서 호가 매곡(梅谷)이요, 고(考, 아버지)의 휘 유헌(有憲)은 군자감 판관(軍資監判官, 군수품을 비축 출납하는 종5품관)으로서 호가 한헌(寒軒)이니, 부여서씨 목사(牧使) 사심(士諶)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선조(宣祖) 정미(丁未, 1607년) 정월 십일에 공을 낳았다.

공의 용모가 풍석(豊碩)하고 재덕(才德)이 겸비(兼備)하되 과거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백강(白江) 이경여(李敬輿)의 문하에서 수학(受學)해서 참으로 알고 힘써 행하여 빛난 이름이 날로 들리매, 사우(師友)가 나라에 천거(薦擧, 추천)하여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세자궁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기관) 세마(洗馬, 정9품관)에 제수(除授)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 전주(箋注)의 분나(紛拏)한 것과 시비(是非)의 전도(顚倒)한 것을 선생에게 물어서 많이 바로잡았다. 또 경사(經史, 유학 경전의 역사)에 밝아서 반유(泮儒, 성균관의 유생)의 모시좌전(毛詩左傳)을 읽는 자가 책을 가지고 와서 질의(質疑)하여, 공을 선생으로 일컬었다. 천성이 또한 지효(至孝, 지극히 효성스러움)하여 부모를 위하여 쌀을 지고 귤(橘)을 품으며 산에서 나무하고 물에서 고기 잡는 등 옛사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였다. 뒤에 정문(旌門)의 은전(恩典)을 받았고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추증(追贈, 죽은 후에 품계를 높이는 것)되었으니 이것이 윤리(倫理)를 강명(講明)하고 가업(家業)을 승습(承襲, 이어받아 계승함)함으로써 그러한 것이다.

숙종(肅宗) 무오(戊午, 1678년) 시월(十月) 십일(十日)에 돌아가서 대흥군 근동면 기곡리(현재 예산군 대흥면 노동리) 갑좌(甲坐)의 자리에 안장(安葬)하였다. 부인(夫人)은 첨정(僉正, 종4품관)을 지낸 현풍(玄風) 곽혼(郭渾)의 따님으로서, 공의 산소에 합부(合祔, 합장)하였다.

3남을 낳으니 주(柱), 환(桓), 해(楷)인데, 주(柱)는 조졸(早卒, 일찍 죽음)하고 환(桓), 해(楷)는 다 서사(筮仕, 초사(初仕))하였다.

아! 공이 독실(篤實)한 학문과 맑은 행실로써 살아서 전포(展布, 널리 펼침)를 못하고 고택(古宅)의 문헌(文獻)이 또한 유락(遺落, 남지 않음)되었으니 어찌 한(恨)되는 일이 아니랴? 공의 8세손 백련(白鍊)씨가 그 약간의 유적(遺蹟, 남은 책이나 문서)을 안고 와서 나에게 그 산소에 표하기를 청(請)하니 내가 본디 매학(昧學, 우둔한 학문)으로서 비록 감당을 못하나 후손(後孫)의 모선(慕先, 선조를 사모하는 마음)하는 뜻에 느끼는 바가 있어 대강 그 사실을 서술하여 불후(不朽, 영원히 썩지 않음)의 자료로 삼는다.

세(歲) 신미(辛未, 1931년) 중춘(仲春) 길일(吉日)에 가선대부(嘉善大夫) 행(行) 황태자(皇太子) 시강원(侍講院) 부첨사(副詹事) 원임(原任) 규장각(奎章閣) 직학사(直學士) 의성(宜城) 이정열(李貞烈)은 지음

8세손 열연 주무

8세손 창련 삼가 씀

9세손 준구 감각(監刻, 돌에 새기는 것을 감독함)

(3) 광산김공진오지묘(光山金公振五之墓)

부인한양조씨부좌(夫人漢陽趙氏祔左)

공휘진오자경옥성김씨관광산상세유왕자공흥광시위시조지우여대팔

公諱振五字景玉姓金氏貫光山上世有王子公興光是爲始祖至于麗代八

세상계위평장사입우아 조유휘소문과제학생휘예몽진문예판 시문경

世相繼爲平章事入于我 朝有諱遡文科提學生諱禮蒙進文禮判 諡文敬

생휘성원진문사예 증이참생휘백문생원참봉계자휘강진문한림지제학
生諱性源進文司藝 贈吏叅生諱伯文生員叅奉系子諱綱進文翰林至提學
생휘종충진직장유휘여정관시마세습잠영시공지육세조야증조휘수성
生諱宗忠進直長有諱汝鼎官洗馬世襲簪纓是公之六世祖也曾祖諱垂聲
고휘하정비이씨유여토지덕 순묘병인삼월십오일생공어대흥군동면
考諱河貞妣李氏有女土之德 純廟丙寅三月十五日生公於大興郡東面
노동리제공천분심이심지돈후기상괴휘청개절속인선극지어의이약
蘆洞里第公天分愖異心志敦厚氣象魁諱淸介絶俗人鮮克知於義理若
기욕진수어괴리달여외피겁부독서궁리언충행독효양쌍친빙리설채서
嗜欲珍羞於魁利達如畏避恟夫讀書窮理言忠行篤孝養雙親氷鯉雪菜瑞
무시기애공형제의식음식유무공지순도규구가위세법천약가지이년칙
無時期愛恭兄弟衣食飮食有無共之循蹈規矩可爲世法天若假之以年則
성명개지차이기재 헌조병오십이월사일종우정침향년사십유일장우노
聲名豈止此而已哉 憲朝丙午十二月四日終于正寢享年四十有一葬于蘆
동리후록응봉하간좌원부인조씨부좌조씨즉한천부원군휘온지후원복
洞里後麓鷹峰下艮坐原夫人趙氏祔左趙氏卽漢川府院君諱溫之后元復
지녀야성행탁월사친지효십이세시할복이진득연하수급귀김문효양구
之女也性行卓越事親至孝十二歲時割腹以進得延遐壽及歸金門孝養舅
고병칙치우도천제산원이신대소천병초착빙득어당기불휘수욕하종이
姑病則致憂禱天祭山願以身代所天病草鑿氷得魚當其不諱雖慾下從而
상유융노구고하유청년상매우유신생유아고함애인통훼척골입이십여
上有隆老舅姑下有靑年孀妹又有新生乳兒故含哀忍痛毁瘠骨立二十餘
년건부정묘이월상묘통기혈루수구위지고수종우묘측개유여허지행호
年建夫丁卯二月上墓痛器血淚樹久爲之枯遂終于墓側豈有如許至行乎

재가위효녀적인위효부부사위열녀당시장보이백여인동성칭술정영계
在家爲孝女適人爲孝婦夫死爲烈女當時章甫二百余人同聲稱述呈營啓
품 태황제구년신미 특몽정려공유삼남이녀장남세하차세은차세한여
稟 太皇帝九年辛未 特蒙旌閭公有三男二女長男世夏次世殷次世漢女
적양주조진평차적연안이용석세은삼남오녀장성호출후세하차광호차
適楊洲趙鎭平次適延安李用錫世殷三男五女長成鎬出后世夏次珖鎬次
낙호출후세한녀적연안이입우안동권영주진주강신석안정나동찬전주
樂鎬出后世漢女適延安李入愚安東權寧周晋州姜信碩安正羅東燦全州
이용구즉기서야성호생사남장영덕차영익영두영준야광호생삼남장영
李容九卽其婿野成鎬生四男長泳悳次泳益泳斗泳濬也珖鎬生三男長泳
태차영상영주야낙호생삼남장영옥차영찬영석야영덕생이남달수철수
太次泳相泳周也樂鎬生三男長泳玉次泳璨泳石也泳悳生二男達秀哲秀
야영태자관수야내외손기지수십여개유차개비공지적덕누인지보야장
也泳太子冠秀也內外孫幾至數十餘皆幼此豈非公之積德累仁之報耶長
손성호욕각불후벌석걸명여불감이비기인사위지명왈호계응봉육정종
孫成鎬欲囬不朽伐石乞銘余不敢以非其人辭爲之銘曰芦溪應峰毓精鍾
기강유김공기간행의의겸효제부겸효열빙리채천감탁절자손번창선계
氣降有金公其間行義矣兼孝悌婦兼孝烈氷鯉菜天感卓節子孫蕃昌善繼
선술수호우천점우음경
善述受祜于天點佑陰驚
갑자이월이십구일 족손영식찬 장손성호 근서
甲子二月二十九日 族孫泳式撰 長孫成鎬 謹書

(5) 가방교건설자송덕비(佳芳橋建設者頌德碑)

건설년월일불명(建設年月日不明)

대흥면상중리가방교반

大興面上中里佳芳橋畔에있다

(6) 동상중수자송덕비(仝上重修者頌德碑)

(7) 광산후인김진오처한양조씨열녀비

光山后人金振五妻漢陽趙氏烈女碑

대흥면노동리

大興面蘆洞里 지금부터69年前建設

(8) 효자 박승휴지석비(孝子 朴承休之石碑)

광시면신대리 지금부터 68년전명정

光時面新垈里 지금부터 68年前命旌

(9) 열녀현풍곽씨지비(烈女玄風郭氏之碑)

광시면신대리 약팔십년전명정

光時面新垈里 約八十年前命旌

(10) 효자학생최필현지비(孝子學生崔弼賢之碑)

신양면서계양리 육십이년전명정

新陽面西界陽里 六十二年前命旌

(11) 효자학생최순공지비(孝子學生崔舜炕之碑)

신양면서계양리 지금부터 육십이년전명선

新陽面西界陽里 지금부터 六十二年前命旋

※더구나 본 면내에 산재하는 석비를 대흥면 상중리 길 곁에 모아 정리해 설치한 것이 31기(基) 있다. 다음과 같다.

(12) 영의정김공육영세불망비(領議政金公育永世不忘碑)

순치십칠년경자정월 일(順治十七年庚子正月 日)
(1660年 顯宗1年)

(13) 순찰사민공치상영세불망비(巡察使閔公致庠永世不忘碑)
경오시월일(庚午十月 日)(1870년 庚午 高宗7年)

(14) 현감권심선정비(縣監權淰善政碑)
숭정기원년 사월 일(崇禎元年 四月 日)(1628年 戊辰 仁祖6年)

(15) 좌영장정공동망무휼군졸영세불망비
(左營將鄭公東望務恤軍卒永世不忘碑)
건희삼십구년경진십일월 일입(康熙三十九年庚辰十一月 日立)
(1700年 庚辰 肅宗26年)

(16) 현감유몽학선정비(縣監柳夢鶴善政碑)
만력6년7월 일(萬曆六年七月 日)(1578年 戊寅 宣祖11年)

(17) 관찰사심공의신영세불망비(觀察使沈公宜臣永世不忘碑)
체연일념 석유유린 體捐一念 石猶有磷
민간불획 명불가늑 民間弗獲 名不可阞
동치사년을축십이월 일입(同治四年乙丑十二月 日立)
(1865年 乙丑 高宗2年)

(18) 군수구후완희청덕선정비(郡守具候完喜淸德善政碑)
정유십일월 일(丁酉十一月 日)(1897年 高宗 光武1年)

(19) 현감문익주선정비(縣監文益周善政碑)(1580年)

(20) 군수정후기영청백애민선정비(郡守鄭侯基永淸白愛民善政碑)
○성표대 손봉견폐 ○誠俵大 損奉蠲弊

심인후택 불현역세 深仁厚澤 不顯亦世
동치사년 을축십이월 일입(同治四年 乙丑十二月 日立)
(1865年 高宗2年)

(21) 관찰사심공상훈흥학애민선정비(觀察使沈公相熏興學愛民善政碑)
무자팔월 일(戊子八月 日)(1888年 高宗 25年)

(22) 군수송후일성청백선정비(郡守宋侯一成淸白善政碑)
임진삼월 일(丙辰三月 日)(1856年 哲宗7年)

(23) 군수이후인면흥학애민선정비(郡守李侯寅冕興學愛民善政碑)
갑오 사월 일입(甲午 四月 日立)(1894年 高宗31年)

(24) 군수심공재진선정비(郡守沈公載鎭善政碑)
(1781年 辛丑 正祖 5年)
읍견중막 제이영정 邑蠲衆瘼 濟以寧淨
민활천기 백세영사 民活荐飢 百世永死

(25) 군수안후영식청백애민선정비(郡守安候榮植淸白愛民善政碑)
신사유월 일(辛巳六月 日)(1881年 高宗18年)

(26) 군수심후의두청덕휼민선정비(郡守沈侯宜斗淸德恤民善政碑)
무인칠월 일(戊寅七月 日)(1878年 高宗15年)

(27) 수의이공범조흥학애민불망비(繡衣李公範祖興學愛民不忘碑)
무자팔월 일 일(戊子八月 日)(1888년 8월 高宗 25年)

(28) 관찰사이공건하영세불망비(觀察使李公乾夏永世不忘碑)
정유팔월 일입丁酉八月 日立(1897年 丁酉 高宗34年)

(29) 순찰사조공득림영세불망비(巡察使趙公得林永世不忘碑)

공시도전 분민주안토　　公始到田 分民酒安土
택균일도 선냉자토　　澤均一道 先冷慈土
(1885年 高宗22年)

(30 군수최후학승청덕선정비(郡守崔候鶴昇淸德善政碑)
거막구폐 유질환구 유화민안 구비천추
祛瘼球弊 維耋歡謳 儒化民安 口碑千秋
(1870年 庚午 高宗7年)

(31) 순상이공건하거사비(巡相李公乾夏去思碑)
숙덕규찬 혜정춘류(宿德奎燦 惠政春流
(1897年 丁酉巳 高宗34年)

(32) 호연초토사이공승우영세불망비(湖沿招討使李公勝宇永世不忘碑)
乙未七月 日(1895年 高宗32年)

(33) 군수이후창세애민청덕비(郡守李候昌世愛民淸德碑)
乙未七月 日(1895年 고종32年)

(34) 동돈령장공윤식영세불망비(同敦寧張公胤植永世不忘碑)
효토서자 혜준할권 孝兎書字 惠駿割券
송불지천 종옥수만 誦佛至千 種玉垂万
辛卯六月 日立(1891年 高宗28年)

(35) 군수이후정민영세불망비(郡守李候鼎民永世不忘碑)
辛卯十二月 日立(1831年 純祖31年)

(36) 상서정공주영유혜기념비(尙書鄭公周永遺惠紀念碑)
昭和二年丙寅十二月 日(1926년)

(37) 전주사윤상구씨달효비(前主事尹尙求氏達孝碑)

大正十三年甲子十一月 日(1924년)

대흥면동서리진흥회입

大興面東西里振興會立

(38) 대흥면장김공건식청덕기념비(大興面長金公建植淸德紀念碑)

大正十一年 三月 日立(1922년 壬戌)

(39) 군수정후동구청덕애민선정비(郡守鄭候東龜淸德愛民善政碑)

戊子五月 日(1828년 純祖28년)

(40) 대흥면장이공순규기념비(大興面長李公舜圭紀念碑)

昭和7년 5月 日(1932년 壬申)

(41) 유공재준송덕비(兪公在濬頌德碑)

昭和八年癸酉四月 日(1933年)

(42) 최등내영세불망비(崔等內永世不忘碑)

호장윤현점 이방김동수

戶長尹賢點 吏房金東洙

乙酉三月 日(1885年 高宗22年)

(43) 의정부좌의정충헌공부군묘갈명병서

(議政府左議政忠憲公府君墓碣銘幷書)

我叔父左議政忠憲公之葬法應立碑神道而公遺戒曰喪母奢祭母豊母求輓于人母請諡于朝母乞銘立碑但子弟桷記生卒 矣諸孤謹宇戒岡敢違願因 筵臣陳白有 旨賜諡則不敢辭乃者長胤觀察公在關西營治石將刻不碑而碣且命泰億曰爾其爲文母敢惑諡泰億起而拜曰所懼不文安敢有諡

惟我趙肇籍楊州鼻祖岑高麗 判中樞入我 朝有諱末生領中樞諡文剛厥

後代有簪紳六世而至諱擥 贈左贊成寔公曾祖祖諱存性 知敦寧諡昭敏考諱啓遠刑曹判書諡忠靖兩世俱 贈上相世濟忠勤爲時名臣妣申氏領議政文貞公欽女生五子卽第四忠靖公理寃獄有陰德得異夢而生公

公諱師錫字公擧號晩悔又號晩体或稱香山或禰蘿溪幼役偉有器度九歲賦喜兩詩曰蒼生喜兩來我喜公舅東進公奇之曰此宰相語遊場屋有盛名

庚子中進士壬寅擢大科由槐院歷注書丙午入史局爲檢閱至奉敎兼說書庚戌丁外艱販闋陞典籍歷兵曹郎兩司春防試士 于嶺南癸丑儐倭東萊入玉堂爲副校理獻納吏曹郎兼帶皆極選

甲寅 顯廟上貧以都監勞陞通政乙卯出莅水原府時宰忌公大得軍民必移授黃海監司實遠之也丙辰遞拜戶曹叅議丁巳遞承旨久處郊墅屢不赴除命秋拜江原監事戊午春以海梟時壇賑義倉編配高陽道臣以來至配不赦上責道臣特妨公俄又 特叙拜承旨遞爲忠淸水使尋以微文削職軍卒立碑思之己未 特敍擢拜京畿監事

庚申改紀首拜吏曹叅判兼守御使俄陞資憲充節使不果行以知中樞差儐使赴龍薦還辛酉陞正憲壬戌留守江都癸亥冬赴燕甲子還陞崇政丙寅陞崇祿又當書 玉冊陞輔國而故辭不書凡七年之間爲禮判者四戶判者二叅贊者四判尹者二都憲則八間爲知敦寧兼帶則 經筵史館揔府而禁府則至判事提調則槐院壽司 宗廟禁衛司僕医院譯院內贍歸厚而惑多累兼者

丁卯由史判拜右議政中流言去位 上洞燭基誣恩禮益篤戊午拜左議政盡誠召致乃巳己巳春遞拜判敦寧前之爲流言者情狀畢露洪致祥李師命等並首實伏幸寃誣悉白人情昏快尋拜領敦寧辛未又爲黨人所誣遂有固城之行此公之始末也

其在史局 顯廟以事竄七練臣又讀責爭執者 命史官勿書公曰君擧必書不敢廢 上益怒公猶不輟書 命罷職俄又 命勿罷自後 眷待多殊異公之受

知兩朝始此

其在臺閣請竄趙嗣基削點吳梃昌而李翔及尹公敬敎論相績被罪李公敏迪論事補外公竝爭之憲臣有以一日 啓被特罷者公曰 君上有過雖一日十啓可也臺閣論事豈有定例言甚激切人稱有諍臣風

其儐倭也 倭甞請移館熊川 朝廷不許倭跳出館至萊府騂喝前儐官不能禁公至則先責其違約欄出理曉而威懾之卒以計移館草梁南衅遂寢 顯廟每見公狀泰明該 嘉奬不己屬有海防盧 命選從臣今巡三南 上曰湖南尤重非趙某莫可其差遣之會以 國恤不果行

其在政院湖南人楊夢擧疏請追奪鄭松江官爵公 啓曰鄭澈伸寃復官餘五十年今宜痛斥此言右僚權瑎入對與玉堂吳始大等力攻公啓 上特召公問之公歷陳伸復事甚晰 上大悟嚴斥夢擧

公乞省墓則特給澆尊床 異恩也及其再入尤齊宋公方栫棘時議欲告 廟加罪公上疏痛陳黨人情狀疏到政院時相故啓遞之其爲宗伯値 翼陵昇遐疑文變禮斟酌而善處之又論禮得宜識者違之屢回灾陳戒請革弊政修舊章釖海防繕甲兵極論宮庄主第事又論戶布法不可行禁衛營當罷狀

其管守禦練卒峙糇軍情權然而刀避戒權遂出江都置廨列擨增船甲津蠲民役興文敎士民碑以頌惠 上亦賜馬褒之

在燕道聞 明聖王后訃日六哭白衣以行淸人始禁之卒乃感歎

爲憲長也執義韓泰東言事被削黜公與諫院官內劄爭之長本兵則振拔淹滯請托不行及爲吏判沈憂朝論携貳意慾調和保合將以建白施行末幾拜相拜之日屢 命加卜而終屢公事同 特簡公益奪勵圖酬

閔鎭周李秀彦等屢卜爲言公固己不安而流言闖生公自傷所遭不幸無復當世意旣力辭得遞出江榭轉向香山別墅及金萬重以流言聞公始陳疎籲寃辭極痛切 上開釋備至及

幸長陵再三 召公公席藁路次 上爲駐駕命百衣入謁 面諭勤摯又賜 批日卿之被誣不惟寡昧所知天地思神實所監臨諸大臣勤 上必致公公歸坡江及被重卜固辭不起則特遣都承旨任相元禮曹判書南龍翼墾諭勉出實旼世 異數也

會玄石朴公論近宗杭事遭 嚴旨去朝南相九万召相聖 斉乎之並栫棘北塞三司皆被譴擧朝夏恒者望公一人公旣迫於恩命又憂念國事乃昇疾入朝上卽賜對命兩官扶掖慰論甚至公極言抗之 特授隄擧宜丞收遷兩相竄謫宜函放釋縷縷陳白涕隨言零上賜荅溫諄而猶斬元從又言閔鎭周久廢金万重被竄皆以臣實不安又言二三大臣在野者宜加敦召自秋至冬登 對者五上劄者六而隨事盡言誠意懇篤其論兩相事不避煩復或遭 嚴敎而不上及兩相宥還言事諸臣收叙則公爲賀 聖德有光仍諸兩相甄叙時

張昭儀母棄屋轎入闕憲臣李益壽等逮治其奴公旣劄又對涕泣極諫語無廻避觀者竦然上亦改容謝之顯示悔意召益壽等褒其直憲史死者 命加卹典公又申戒願勿貳過 上優答之然前後所言多上所厭聞者人皆爲公危之間治妖僧呂還獄及朴萊貴獄專主平反無所枉濫

徽陵昇遐爲楶護使 因山畢歸竟遂決旣辭遞而時事大變公遭嚴旨出城胥 命久之還香山

聞成李兩賢將點文廟亨歎日我雖候罪不可不言上劄諫之嚴枇又下遂歸坡江我聞 坤位且傾草疏將乎之李尙公直要與公入叅 廷請公夜胃雨疾馳爭且 罷又以命上疏者逆律

論公初旣不得疏又不及於 送請痛寃悲泣無以自伸遂上劄請伏不匡之刑劄八十三日始命勿辭公自是痛恨欲無生長門宮詩以寓懷焉冬省墓于全義仍留經歲

庚午爲賀春宮冊禮輿在野諸相並到城外陳疏他相令入來於公上命勿待

罪公惶恐不敢入禮成歸坡江

翌年秋黨入嗾諸臺論公以不叅賀班爲案又謂與金淸城錫胄最善捏造罪名合啓請罷又請極邊遠竄　上初命中途付處因玉堂劄從之配固城是時三司並被權凶驅使獨執義李萬令挺立不從至從削點

固城地遠惡子弟憂泣公夷然笑曰吾愛　兩朝恩遇不能死於己巳天其假手於八乎在謫三年嘯詠自適神氣不損癸酉冬得風疾十二月二十四日卒于葛川寓舍享年六十二嗚呼痛哉疾命渚子曰我死必返儀全義又必葬湖中母遠先瑩諸孤奉喪還全義

甲戌三月葬于大興葛申亥坐　原三南人士赴早者至子百人惑有不知面而操文致哀者旣葬甫旬日　上赫然更化首　命復公官致祭又　命給三年廩俸臺臣白公寃論竄令者啓臺官洪重鉉金汝建李東根等　上亦是追梅愍悼之意焉

公風姿魁傑宇量淵宏　平居莊毅儼然若思思慮深遠人莫能窺測自在韋布己有公輔望及遭遇　兩朝感激　殊知殫竭忠智勞績茂著庚申以後身擔軍國重務一意奉公常戒盛簜未賞久處權要枚律己政先節用所莅庫慶亥羨以此黨人謨中公者按簿巧覔卒不得豪毛事

壬癸以來朝論漸岐淸域將栽抑年小之峻激者公曰不可求以鎭靖恐益潰裂公旦不能自安後果如公言淸域至作詩示悔人乃服公先見泊蒙

特擢入相思欲設施更張以裨世道不幸獲譙遜野未克展布素蘊及戊辰重入天心己變時象可愕公亦知其不可奈何而猶且有懷必陳盡誠匡救扶賢相抑寵宗培　有之氣杜　僭踰之漸正色直諫忠義激烈卒至顚沛而不悔此可以觀公之大節矣

至若孝友根於天性喪祭盡其誠敬慕父母老而不襄語及必流涕嗚咽嘗侍仲兄觀察公疾目不交賦者數月觀察公歎曰吾弟友愛至矣視諸侄如子遇宗

族有恩窮若者赴之如家養育而冠聚者甚多及公喪無服功緦者至數十人然此在公爲細節可略也

素嗜書手不釋券早以詞賦有名爲文長於論事章劄明暢　懇至有時文若于卷臧于

家夫人權氏安東大姓承旨鑊孫進士　賜承肯垕女也有淑德懿行忠淸公嘗稱佳婦公亦曰吾歷職內外數十年無大玷沔緊夫人是賴後公一歲生先公五十年始葬坡山終附于公墓

男泰老卽觀察公次泰耉原任吏曹判書次泰耆進士方任南平縣監女適學生尹宰觀察娶副提學尹敬敎女無子判書娶應敎李有相女生彦彬爲觀察使後娶縣監李觀成女生献彬顯彬女朴師儉金東赫余幼南平娶牧使沈益相女生漢彬女李夏宅余幼尹有繼子尙衡彦彬生營集女幼尙衡子女竝幼

小子幼而孤仰公如父癸酉中小試謁公于固域公曰不出四五年汝必登弟恨吾不能見是歲公棄子姪屋五年小子果登弟公言果驗而小子之痛益甚焉今當比筆哀不能文昔柳柳州爲其叔父墓版借宗人之言而紀之若吾叔父事行昭載國史赫赫照人耳目非若有殿中之潛徽雖不借人言宣看無嫌遂据實而爲之銘 曰掎

嗟叔父德宇宏碩輿人百誦譬公柱石顯廟哭公將以大用嗣王受之所托重伊何乃相公惟感勵益套忠亮嘉謨遠獻載賢經險有讒者口如蟊何人烏能害公適菑于身凡世姦憸迄可小戢胡彼黨人又復滃滃擠公嶺海自爲淂計天道好還曾不數歲朋邪奚益迸投荒裔所悲叔父抱匡　君衛賢抑倖防僭諤諤昌言有光汗靑雖有善毁曷掩公名小子文俚辭則匪私凡百後人尙考于玆

從子通政大夫禮曺叅議知製 敎泰億模

<충헌공 조사석 묘갈명 국역>

숙부의정부좌의정충헌공부군묘갈명

나의 숙부(叔父) 좌의정(左議政) 충헌공(충헌공, 조사석)의 장례를 치른 뒤에 법도상 응당 신도(神道)에 비(碑)를 세워야 하는데, 공(公)이 유언으로 경계하기를, "상사(喪事)를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 제사는 풍성하게 지내지 말고, 만장(輓章)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고, 시호(諡號)를 조정에 청하지 말고, 명(銘)을 남에게 청하여 비를 세우지 말 것이며, 다만 자제(子弟)가 생졸(生卒)을 대략 기록하면 된다." 하였으므로, 여러 아들이 삼가 경계를 지키고 감히 어기지를 못했다.

돌아보건대, 연신(筵臣)이 아뢰어서 임금이 교지(敎旨)로 사시(賜諡)하라는 명이 있으니, 이는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다. 지난번에 큰 아들 관찰공(觀察公, 조태로(趙泰老)이 평안도 감영(監營)에 있으면서 돌을 다듬어 행적을 새기려 할 때 비(碑)로 하지 않고 갈(碣)로 하고, 또 나 조태억(趙泰億)에게 명하기를, "네가 비문을 짓되 감히 조금도 넘치게 하지 말라." 하기에 내가 일어나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두려운 것은 문장력이 없는 것인데, 어찌 감히 넘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생각하건데, 우리 조씨(趙氏)는 관적(貫籍)이 양주(楊州)에서 시작하였다. 비조(鼻祖) 조잠(趙岑)은 고려(高麗)에서 판중추(判中樞)를 지냈고, 우리 조선(朝鮮)에 들어와서 조말생(趙末生)은 벼슬이 영중추(領中樞)요 시호는 문강(文剛)이다. 그 뒤로 대대로 높은 관리가 이어졌는데, 6대에 이르러 조남(趙擥)은 증(贈) 좌찬성(左贊成)이니 바로 공의 증조(曾祖)이고, 조부(祖父) 조존성(趙存性)은 지돈녕(知敦寧)으로 시호는 소민(昭敏)이며, 선고(先考) 조계원(趙啓遠)은 형조판서(刑

曹判書)로 시호는 충정(忠靖)인데 양대[兩世]가 상상(上相)에 함께 증직이 되었으며 대대로 충근(忠勤)을 이루어서 당대의 명신(名臣)이 되었다. 선비(先妣) 신씨(申氏)는 영의정(領議政) 문정공(文貞公) 신흠(申欽)의 딸로 다섯 아들을 낳았는데, 공은 바로 넷째이다. 충정공(忠靖公, 조계원)이 원옥(冤獄)을 다스리는 데 음덕(陰德)을 베풀어 기이한 꿈을 꾸고 공을 낳았다.

공은 휘(諱)가 사석(師錫)이고, 자(字)는 공거(公擧)이며, 호(號)는 만회(晩悔) 또는 만휴(晩休)인데, 혹은 향산(香山)이라 일컫기도 하고 나계(蘿溪)라고 일컫기도 한다. 어려서부터 준걸차고 당당하여 기국(器局)과 도량(度量)이 있었다. 9세 때 희우시(喜雨詩)를 지은 데 이르기를, "창생들은 비 오는 것을 기뻐하고, 나는 창생이 기뻐함을 기뻐하네[蒼生喜雨來 我喜蒼生喜]"라고 하였으므로, 공의 외숙 동회공(東淮公, 신익성(申翊聖))이 기이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이는 재상이 하는 말이다." 하였는데, 잇달아 과거 시험장[場屋]에서 성대한 명성이 있었다.

경자년(更子年, 1660, 현종원년)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고, 임인년(壬寅年, 1662, 현종3년)에 대과(大科)에 발탁되어 괴원(槐院, 승문원(承文院))을 거쳐 주서(注書)를 지냈다. 병오년(丙午年, 1666년 현종 7년)에 사국(史局)에 들어가 검열(檢閱)이 되었고 봉교(奉敎)·겸설서(兼說書)에 이르렀다. 경술년(庚戌年, 1670, 현종11년)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복(服)을 마치고 전적(典籍)에 오르고 병조랑(兵曹郎)과 양사(兩司, 사헌부와 사간원)와 춘방(春坊, 세자 시강원)의 벼슬을 거쳤으며, 영남(嶺南)에 가서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였다. 계축년(癸丑年, 1673, 현종14년) 동래(東萊)에 가서 왜인을 응접하였고, 옥당(玉

堂, 홍문관)에 들어가 부교리(副校理)·헌납(獻納)이 되어 이조랑(吏曹郎)을 겸대(兼帶)하였으니, 이는 모두 극선(極選)이었다.

갑인년(甲寅年, 1674, 현종15년)에 현종(顯宗)이 승하(昇遐)하였는데, 도감(都監)에서 노고(勞苦)한 공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에 올랐다 을묘년(乙卯年, 1675, 숙종원년)에 외직으로 나가 수원부사(水原府使)로 부임하였는데, 당시의 재상이 공이 크게 군민(軍民)의 마음을 얻는 것을 시기하여 황해감사(黃海監司)로 옮겨 제수했으니, 실은 멀리한 것이었다. 병진년(丙辰年, 1676, 숙종2년)에는 체차하여 호조참의(戶曹叅議)에 임명하고 이듬해 정사년(丁巳年, 1677, 숙종3년)에는 승지(承旨)로 갈았는데, 오랫동안 교서(郊墅)에 거처하며 여러 번 제수한 명에 따르지 않았다. 가을에 강원감사(江原監司)로 제수하였고, 무오년(戊午年, 1678, 숙종4년) 봄에 '황해감사 때에 의창(義倉)의 곡식을 마음대로 내어 진휼(賑恤)하였다'고 하여 고양(高陽)으로 편배(編配, 유배인(流配人)을 도류안(徒流案)에 기입함))하였는데, 마침 용서한다는 명이 있었으나 도신(道臣)은 배소(配所)에 가지 않았다고 하여 석방하지 않으니 임금이 도신(道臣)을 나무라고 공을 석방하였다. 얼마 있다가 특별히 서용(敍用)하여 승지(承旨)로 제수하였다가 체차하여 충청수사(忠淸水使)로 삼았는데, 얼마 안 되어 작은 말썽으로 삭직(削職)되었으나 군졸(軍卒)이 비석을 세워 사모하였다. 기미년(己未年, 1679, 숙종5년)에 특별한 서임으로 경기감사(京畿監司)에 발탁하여 제수하였다.

경신년(庚申年, 1680, 숙종6년) 개혁[改紀]에 맨 먼저 이조참판(吏曹叅判) 겸 수어사(守禦使)에 제수되고, 조금 있다가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에 올라 절사(節使)에 충원(充員)되었으나 가지는 못하고

지중추(知中樞)로 빈사(儐使)에 차임(差任)되어 용만(龍灣, 의주(義州))에 갔다가 돌아왔다. 신유년(辛酉年, 1681, 숙종7년)에는 정헌대부(正憲大夫)의 품계에 올랐고, 임술년(壬戌年, 1682, 숙종8년)에는 강화유수(江華留守)가 되었다. 이듬해 계해년(癸亥年, 1683, 숙종9년) 겨울에 연경(燕京)에 갔다가 갑자년(甲子年, 1684, 숙종10년)에 돌아와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랐고 병인년(丙寅年, 1686, 숙종12년)에는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올랐다. 또 옥책(玉冊)을 쓰고 보국(輔國)에 올랐으나 짐짓 사양하고 쓰지 않았다. 무릇 7년 동안에 예조판서(禮曹判書)가 된 것이 네 번이고 호조판서(戶曹判書)가 된 것이 두 번이며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된 것이 한 번이다. 참찬(叅贊)이 네 번, 판윤(判尹)이 두 번, 대사헌[都憲]이 여덟 번이고, 간간이 지돈녕(知敦寧)이 되었으며, 겸대(兼帶)로는 경연(經筵)·사관(史館)·총부(摠府)였고, 금부(禁府)에서는 판사(判事)에 이르렀고, 제조(提調)로는 승문원[槐院]·비변사[籌司]·종묘서(宗廟署)·금위영(禁衛營)·사복시(司僕寺)·내의원(內醫院)·사역원(司譯院)·내섬시(內贍寺)·귀후서(歸厚署)인데, 어떤 것은 여러 번 겸한 것이 많다.

정묘년(丁卯年, 1687, 숙종13년)에는 이조판서(吏曹判書)를 거쳐 우의정(右議政)에 제수되었는데, 근거 없는 말로 중상하는 자가 있어 직위를 떠나자, 임금이 무함(誣陷)임을 통촉하여 은총과 예우가 더욱 돈독하였다. 이듬해 무진년(戊辰年, 1688, 숙종 14년)에 좌의정(左議政)에 제수하여 성의를 다해 불러오게 하였지만 그만두었다. 기사년(己巳年, 1689, 숙종15년) 봄에 체직하고 판돈녕(判敦寧)에 제수하였다. 전에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의 정상(情狀)이 다 드러나, 홍치상(洪致祥)·이사명(李師命) 등이 아울러 사실을 말하고 죄를 받음으로써 억

울한 무함이 다 밝혀지자, 인정(人情)이 서로 상쾌하게 여겼다. 조금 있다가 영돈녕(領敦寧)에 제수되었다. 신미년(辛未年, 1691, 숙종17년)에 또 당인(黨人)의 무함을 받아서 마침내 고성(固城)으로 귀양 가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공의 시말(始末)이다.

공이 사국(史局)에 있을 때에 현종(顯宗)이 어떤 일로 일곱 간신(諫臣)을 귀양 보내고, 또 쟁집(爭執)하는 자를 견책(譴責)하고서 사관(史官)에게 그 사실을 쓰지 말라고 하자, 공이 아뢰기를, "임금의 거조(擧措)는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이므로 감히 폐지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더욱 노하였으나 공은 오히려 쓰는 것을 거두지 않자 파직하라 명하였다가 금방 또 파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그 뒤부터는 권애(眷愛)로 대우함이 많이 특이하였는데, 공이 양조(兩朝, 현종조·숙종조)에 알아줌을 받은 것이 이것에서 비롯되었다.

공이 대각(臺閣, 사헌부와 사간원)에 있을 적에 조사기(趙嗣基)를 귀양 보내고 오정창(吳挺昌)을 삭직해 내쫓자고 청하였다. 이익(李翊)과 윤경교(尹敬敎)공은 정승 허적(許積)을 논하다가 죄를 입었고, 이민적(李敏迪)공은 일을 논하다가 외직에 보임되었는데, 공이 이들에 대해 아울러 간쟁을 하였다. 헌신(憲臣)이 하루 동안에 두 번 아뢰다가 특별히 파직당한 자가 있었는데, 공이 말하기를 "임금[君上]께 허물이 있으면 비록 하루에 열 번을 아뢰어도 옳습니다. 대각(臺閣)의 관원이 일을 논함에 있어 어떻게 정례(定例)를 둔단 말입니까?" 하였는데, 말이 매우 격절하여 사람들이 쟁신(諍臣)의 풍도(風度)가 있다고 하였다.

공이 왜인(倭人)을 응접할 적에, 왜인이 일찍이 왜관(倭館)을 웅천(熊川)에 옮기기를 청하였으나 조정(朝廷)에서 허락하지 않자, 왜인이

왜관에서 뛰어나가 동래부(東萊府)에 이르러 전의 응접관을 공갈 협박하여도 관(官)에서 금지하지 못하였는데, 공이 도착하자 왜인에게 '약속을 위반하고 왜관을 함부로 나간 것'을 나무라며 이치로 타이르고 위엄으로 겁을 주었다. 갑자기 초량(草梁)의 남쪽 언덕에 왜관을 옮기려고 계획했다가 마침내 중지하였다.

현종이 공의 장계[狀秦]가 명백하게 갖춰진 것을 볼 때마다 가상하다고 칭찬하여 마지않았다. 때마침 해방(海防)에 불안한 일이 있자, 시종신(侍從臣) 중에서 선발하여 삼남(三南) 지방을 나누어 순찰하도록 명하면서 임금이 이르기를, "호남(湖南)은 더욱 중요하다. 조사석[趙某]이 아니면 안 되니, 그를 차임(差任)하여 보내어라." 하였으나, 마침 국상[國恤]이 나서 실행하지 못했다.

공이 승정원(承政院)에 있을 적에 호남 사람 양몽거(楊夢擧)가 정송강(鄭松江, 정철(鄭澈)의 관작(官爵)을 추탈(追奪)하기를 소청(疏請)하자, 공이 계사(啓辭)로 아뢰기를, "정철(鄭澈)은 억울함을 풀어주고 관작을 회복시킨 지가 50여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통렬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그를 두둔하는 동료인 권해(權瑎)가 입대(入對)하여 옥당(玉堂)의 오시대(吳始大) 등과 함께 공이 올린 계사를 힘을 다해 공격을 하자 임금이 특별히 공을 불러 그 일에 대해 물으므로, 공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관작을 회복시킨 사실을 낱낱이 매우 분명하게 진술하니, 임금이 크게 깨닫고 엄중하게 양몽거를 배척하였다.

공이 성묘(省墓)할 휴가를 청하니 특별히 무덤 앞에 놓을 제물을 내려 주었으니, 남다른 은전이었다. 공이 재차 조정에 들어가기에 미쳐서 우재(尤齋) 송공(宋公, 송시열(宋時烈))이 한창 귀양살이[栫棘]할

때였는데, 당시의 의논이 고묘(告廟)하여 죄(罪)를 더하려고 하자, 공이 상소(上疏)하여 당인(黨人)들의 정상(情狀)을 통렬히 진달하였다. 소(疎)가 정원(政院)에 도착하자 시상(時相)이 고의로 아뢰어 그 관직을 갈았다.

공이 예조판서가 되었을 때 익릉(翼陵, 숙종비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의 능호)의 승하(昇遐)를 만나 의심스러운 문구와 번역하는 예[變禮]를 참작하여 훌륭히 처리하였고 또 예를 논함이 마땅함을 얻었으므로, 식자(識者)들이 위대하게 여겼다. 여러 번 재변을 인하여 경계할 것을 진달하면서 폐정(弊政)을 혁파하고 구장(舊章)을 닦고 해방(海防)을 신칙하고 갑병(甲兵)을 수선하기를 청하였으며, 궁실의 전장(田庄)과 공주(公主)의 집을 지어주는 일에 대하여 극렬하게 논하였다. 또 호포법(戶布法)은 행하여서는 안 되고 금위영(禁衛營)은 마땅히 혁파해야 한다는 실상을 논하였다.

공이 수어청(守禦廳)을 맡았을 때는 병졸을 훈련시키고 양식을 저축하자 군사들의 정상(情狀)이 기뻐하였으나 병권(兵權)을 힘써 피하여 마침내 강화유수(江華留守)로 나가 관청을 두고 돈대(墩臺)를 나열하고 갑진(甲津)에 배를 증설하고 백성의 부역을 덜어 주며 문교(文敎)를 일으키니, 선비와 백성이 비를 세워 은혜를 칭송하였고, 임금이 또한 말을 하사하여 포상(褒賞)하였다.

연경(燕京)의 사신 길에 명성왕후(明聖王后, 현종비(顯宗妃)) 김씨의 부음(訃音)을 듣고서 날마다 여섯 차례 곡하는 예를 흰옷[白衣]를 입고 행하니, 청인(淸人)이 처음에는 금지하다가 끝에 가서는 감탄(感歎)하였다.

대사헌이 되었을 때는 집의(執義) 한태동(韓泰東)이 일을 말했다가

삭직되어 내쫓김을 당했는데, 공이 사간원 관리와 차자(箚子)를 함께 올려 다투었다. 병조판서가 되어서는 엄체(淹滯)된 자를 떨쳐 발탁하자 청탁(請託)의 풍습이 행하지 않았고, 이조판서가 됨에 미쳐서는 조정의 의논이 갈라질까 깊이 우려를 하여 조화롭게 보합하고자 하는 뜻을 임금께 건의하여 시행하려고 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정승에 제수되었다. 정승에 제수되는 날에 여러 번 더 복상(卜相)하라고 명하였으나 끝내 공을 뽑았으니, 일이 특별하게 간발한 것과 같았으므로 공이 더욱 분발하고 힘을 써서 성은(聖恩)에 보답하기를 도모하였다.

민진주(閔鎭周)와 이수언(李秀彦) 등이 여러 번 복상(卜相)한 것으로 말을 삼으니 공이 참으로 불안하였는데, 유언비어가 발생함에 미쳐서는 스스로 불행을 만난 것을 속상하게 여겨 다시는 당세(當世)의 뜻이 없었다. 힘써 사양해서 관직이 갈리게 되자, 강가의 정자[江榭]로 나갔다가 다시 옮겨 향산(香山)의 별장으로 갔다. 김만중(金萬重)이 유언비어로 상문(上聞)하기에 미쳐 공이 비로소 진소(陳疏)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사연이 아주 통절하였으므로, 임금의 용서해 줌이 갖추어 지극하였다.

장릉(長陵, 인조와 그 비(妃)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의 능호)에 거동할 때에 미쳐서 세 번씩이나 사관(史官)을 보내어 특별히 공에게 행전(行殿)에 나오라고 유시하였으나 공이 감히 행전에 나가지 못하고 길가[路次]에다 짚을 깔고 엎드려 있으니, 임금이 수레를 머물러 세우고 백의(白衣)로 들어와 알현하라 명하고는 면대하여 타이르기를 진지하게 하였다. 또 비답(批答)을 내리기를, “경이 무함을 당한 것은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천지귀신(天地鬼神)도 실로 굽

어 살피고 있다.” 하였다. 여러 대신(大臣)이 또 임금에게 권하여 공을 반드시 오게 하라고 권하였다. 공은 파강(坡江, 임진강)으로 돌아갔는데, 다음 해 봄에 거듭 복상(卜相)을 받았으나 고사(固辭)하고 사진(仕進)하지 않자 특별히 도승지(都承旨) 임상원(任相元)과 예조판서 남용익(南龍翼)을 보내어 간곡하게 타일러 힘써 나오게 하니, 실로 세상에서 드문 남다른 대우였다.

때마침 현석(玄石) 박공(朴公, 박세채(朴世采))이 가까운 종실 이항(李杭, 동평군(東平君))의 일을 논했다가 엄지(嚴旨)를 만나 조정을 떠나고, 상신(相臣) 남구만(南九萬)과 여성제(呂聖齊)가 간쟁하다가 다 북쪽 변방으로 귀양 가고 삼사(三司, 사헌부·사간원·홍문관)가 모두 견책(譴責)을 당하자 온 조정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모두 공이 한 번 입조(入朝)하기만을 바랐다. 공이 은총의 명에 절박하고 또 나랏일을 걱정스럽게 생각해서 7월에 병든 몸을 떠메어 와서 입조하니, 임금이 즉시 사대(賜對)를 하고 두 환관에게 명하여 부액(扶腋)하게 하고 위로하고 타이르기를 매우 지극히 하였다. 공이 “이항에게 특별히 제거(提擧)를 제수한 것은 마땅히 빨리 환수해야 하고 귀양 보낸 두 정승은 빨리 석방해야 마땅합니다.”라고 극언(極言)으로 진달하는데 눈물이 말을 따라 떨어졌다. 임금이 온화하고 자상한 답을 내렸으나 오히려 아뢴 대로 따른다는 윤허(允許)는 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민진주(閔鎭周)는 오래도록 버려졌고 김만중(金萬重)은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데, 모두 신(臣) 때문이오니 신은 실로 불안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전야(田野)에 있는 두어 대신(大臣)은 마땅히 돈독하게 부르셔야 합니다.” 하니, 가을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등대(登對)한 것이 다섯 번이고 상차(上箚)한 것이 여섯 번이었다. 이렇게 일

에 따라 말을 다하며 성의가 간곡하고 독실하였는데, 두 정승의 일을 논하면서 번거롭고 반복됨을 피하지 않았다가 귀양 간 제신(諸臣)을 거두어 서용하기에 미쳐 공이 성덕(聖德)에 빛이 있다고 하례를 하고 이어 두 정승을 서용할 것을 청하였다.

헌신(憲臣) 이익수(李益壽) 등이 '후궁(後宮)의 어머니가 옥교(屋轎)를 타고 대궐에 들어왔다' 하여 그 노복을 체포하여 치죄하자, 임금이 노하여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헌리(憲吏)를 엄히 고문하였는데, 공이 이미 차자를 올리고 또 입대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극간을 하되 말에 회피함이 없었으므로 지켜보는 자들이 모골(毛骨)이 송연(竦然)하였다. 임금도 얼굴빛을 고치고 사례를 하여 나타나게 후회의 뜻을 보이고, 이익수 등을 불러 그들의 곧음에 포장을 해 주고 고문을 받다 죽은 헌리에게 휼전(恤典)을 더해주라 명하였다. 공이 또 거듭 경계하기를, "원하건대, 두 번 과오를 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너그러운 답을 내려 주었다. 그러나 전후(前後) 말한 것이 임금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 것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공을 위해 위태롭게 여겼다.

그 사이에 요승(妖僧) 여환(呂還)의 옥사(獄事)와 박업귀(朴業貴)의 옥사를 다스렸는데, 오로지 죄를 가볍게 해 주는 것을 주장해서 잘못 남형(濫刑)한 것이 없었다.

휘릉(徽陵, 인조 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의 능호)이 승하하자 총호사(摠護使)가 되어 인산(因山)이 끝나자 돌아갈 뜻을 결단하고 이미 사직하여 갈렸는데, 시사(時事)가 크게 변하여 공이 엄한 교지를 받고 성밖에 나가 명을 기다린 지 한참 뒤에 향산(香山)으로 돌아갔다.

성우계(成牛溪, 성혼(成渾))·이율곡(李栗谷, 이이(李珥)) 두 분 현인

(賢人)이 장차 문묘배향(文廟配享)에서 축출된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기를, "내가 비록 죄를 기다리고 있으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차자(箚子)를 올려 간하자, 엄한 비답(批答)이 또 내려지므로 다시 파강(坡江)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안 되어 곤위(坤位, 왕비. 곧 인현왕후)가 또 기울어졌다는 말을 듣고 소(疎)를 초(草)하여 장차 간쟁하려 하다가 상신(相臣) 이상진(李尙眞)이 공과 함께 입참(入叅)하여 정청(庭請)하기를 바라므로, 공이 밤에 비를 무릅쓰고 말을 빨리 달려 연서역(延曙驛)에 도착하여 '처분(處分)이 이미 결정되어 정청(庭請)을 반일 동안 하다가 파하였고 또 명하여 상소(上疏)한 자는 역률(逆律)로 논(論)한다고 하였음'을 들었다.

공이 처음에 이미 상소를 하지 못하였고 또 정청에 미치지 못한 것을 원통히 여겨 슬피 울었으나 스스로 뜻을 펼 길이 없자 마침내 차자(箚子)를 올려 엎드려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형벌을 청하니, 차자가 들어간 지 13일 만에 비로소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공이 이때부터 통절하고 원통하게 여겨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므로 '장문궁시(長門宮詩)'를 지어 자기의 회포를 담았다. 겨울에 전의(全義)로 성묘(省墓)를 가서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해를 보냈다.

경오년(庚午年, 1690, 숙종16년)에 춘궁(春宮)의 책봉례(冊封禮)를 하례하기 위하여 재야(在野)한 여러 상신(相臣)들과 아울러 성밖에 이르러 진소(陳疏)했는데, 다른 상신들에게는 모두 들어오게 하고 공에게는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명하는 데 그치므로, 공이 황공하여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예가 끝나자 파강(坡江)으로 돌아갔다.

다음 해 가을에 당인(黨人)이 여러 대관(臺官)을 사주하여 축하 반열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죄안(罪案)으로 만들고, 또 '청성부원군(淸

城府院君) 김석주(金錫胄)와 가장 잘 지낸다'고 하면서 죄명(罪名)을 날조하여 합계(合啓)로 파직(罷職)을 청하였고, 또 가장 먼 변방에 귀양 보내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처음에는 중도부처(中道付處)하라 명하였다가 옥당(玉堂)의 차자(箚子)를 따라서 고성(固城)에 유배(流配)하였다. 이때에 삼사(三司)가 모두 권흉(權凶)들의 구사(驅使)를 받았으나 유독 집의(執義) 이만령(李萬齡)만은 곧게 서서 따르지 않다가 삭출(削黜)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고성(固城) 땅은 멀고 거친 곳이므로 자제(子弟)들이 우려하여 울었으나, 공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두 조정의 은혜로운 대우를 받았는데, 기사년(己巳年, 1689, 숙종15년)에 죽지 못했으므로, 하늘이 사람에게 손을 빌린 것인가?" 하였다. 귀양살이 3년 동안에 시가(詩歌)를 읊으며 마음내키는 대로 지내어 정신과 기운이 손상되지 않았었는데, 계유년(癸酉年, 1693, 숙종19년) 겨울에 풍질(風疾)을 얻어 12월 24일에 갈천(葛川)의 귀양 살던 집에서 죽으니, 향년이 62세였다. 아! 슬프다. 병이 위독해지자 여러 자식들에게 명하기를, "내가 죽거든 반드시 전의(全義)로 널을 운반하여 장사지내되 반드시 선영(先塋)에서 먼 곳에 하지 말라." 하였는데, 여러 자식들이 상차(喪次)를 받들고 전의(全義)로 돌아갔다.

이듬해 갑술년(甲戌年, 1694, 숙종20년) 3월에 대흥(大興)의 갈신(葛申) 해좌(亥坐) 언덕에 장사를 지냈는데, 삼남(三南)의 인사(人士)로 조문 간 자들이 1천백여 인에 이르렀으며, 더러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서 제문을 가지고 와서 매우 슬퍼하는 자도 있었다. 장사지내고 겨우 열흘이 되었는데, 임금이 빛나게 경화(更化)를 하고서 맨 먼저 공의 벼슬을 복원하라 명하고 치제(致祭)를 하였으며, 또 명

하여 3년간의 녹봉을 주라 하였다. 대신(臺臣)이 공의 억울함을 아뢰고, 합계(合啓)한 대관(臺官)인 홍중현(洪重鉉)·김여건(金汝鍵)·이동근(李東根) 등을 귀양 보낼 것을 논하자, 임금이 또한 추회(追悔)하며 슬퍼하는 뜻을 보였다.

공은 풍자(風姿)가 괴걸(魁傑)하고 기우(氣宇)와 국량(局量)이 깊고 넓었다. 평소에 씩씩하고 굳세며 엄연함이 생각하는 듯하고, 생각이 깊고 멀어서 사람들이 엿보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위포(韋布)로 있을 때부터 이미 공보(公輔)의 인망(人望)이 있었는데, 현종·숙종 두 임금과 조우(遭遇)하기에 미쳐 남다르게 알아주는 데 감격하여 충성과 지혜를 다하였으므로, 노고와 업적이 성대하게 나타났다. 경신년(庚申年, 1680, 숙종6년) 이후로 몸소 군국(軍國)의 중대한 책무를 지고서 한 뜻으로 공사(公事)를 받들되 항상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경계하여 일찍이 오래도록 권요(權要)에 처해 있지 않았고, 더욱 자신의 몸을 단속하는 데 엄히 하였다. 정사(政事)를 하되 절용(節用)을 먼저 하여 부임한 곳마다 창고가 가득 차 넘쳤으므로, 이 때문에 당인(當人)으로 공을 죄에 빠뜨리기를 도모하는 자가 장부를 조사하여 교묘히 흠집을 찾으려 하였으나 마침내 털끝만한 일도 찾아내지 못했다.

임술년(壬戌年, 1682, 숙종8년)·계해년(癸亥年, 1683, 숙종9년) 이후로 조정의 의논이 점점 갈라져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이 연소하고 준절 과격한 자들을 억누르려 하니 공이 말하기를, “옳지 않다. 진정(鎭靖)을 구하려다가 더욱 궤열(潰裂)될까 두렵다.” 하고, 공 또한 스스로 편안히 여기지 못하더니 나중에 과연 공의 말처럼 되자 청성 부원군이 시를 지어 후회함을 보이기까지 하였는데, 사람

들이 공의 선견지명에 탄복하였다.

마치매 특별히 발탁되어 입상(入相)함에 이르러서는 모든 시설을 경장(更張)하여 세도(世道)를 도우려 생각하였으나, 불행하게 비방(誹謗)을 당하고 전야(田野)로 물러났기 때문에 본디 쌓았던 포부(抱負)를 펴지 못했다. 무진년(戊辰年, 1688, 숙종14년)에 이르러 거듭 입상하기에 미쳐서는 임금의 마음이 이미 변하여 당시의 상황이 경악할 만하였으므로 공 또한 어찌할 수가 없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생각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여 정성을 다해 바로잡아 구제해서 어진 재상을 구원하고 총애받는 종실(宗室)을 억누르며 충직(忠直)한 기운을 배양하고 참유(僭踰)한 조짐을 막고서 정색(正色)을 하고 직간(直諫)을 하여 충의(忠義)의 마음이 격렬(激烈)했으므로 마침내 전패(顚沛)함에 이르고 말았으나 후회하지 않았으니, 여기서 공의 대절(大節)을 볼 수가 있었다.

효우(孝友)의 마음에 이르러서는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상사(喪事) 때와 제사(祭祀) 때에 정성을 다하였고, 부모를 사모하는 마음은 늙어서도 줄지 않아서 말이 부모에 미치면 눈물을 흘리며 오열(嗚咽)하였다. 일찍이 중형(仲兄) 관찰공(觀察公, 조귀석(趙龜錫))의 병을 시중들 적에 눈을 붙여 잠을 자지 못한 것이 여러 달이었는데 관찰공이 탄식하기를, “내 아우의 우애가 지극하도다.” 하였다. 여러 조카들 돌보기를 자기 아들처럼 하였고 종족(宗族)을 대우하되 은혜로움이 있었으므로 궁고(窮苦)한 자들이 그에게로 달려가기를 자기 집에 가듯이 하여 양육해서 시집보내고 장가들인 것이 매우 많았다. 그리하여 공의 상사(喪事)에 복(服)이 없으나 소공복(小功服, 다섯 달 동안 입는 복(服)과 시마목(緦麻服, 석 달 동안 입는 복)을 입은 자들이 수십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공에게 있어 세절(細節)이 되므로 대강만 말한다.

공은 본디 책 읽기를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일찍이 문장[詞賦]을 잘 짓기로 유명하였는데 문장을 하되 논사(論事)에 능하여 소장(疏章)과 차자(箚子)를 하면 분명하고 시원하며 간곡하고 지극하였다. 시문(詩文) 약간 권이 집에 소장되어 있다.

부인(夫人) 권씨(權氏)는 안동(安東)의 대성(大姓)이다. 승지(承旨) 권확(權鑊)의 손녀이며, 진사(進仕) 증(贈) 승지(承旨) 권후(權垕)의 딸이고, 승지 최유해(崔有海)의 외손녀이다. 숙덕(淑德)과 의행(懿行)이 있었으므로 충정공(忠靖公, 조계원)이 항상 아름다운 며느리라고 일컬었고 공도 또한 "내가 내외 관직을 수십 년 지냈으나 큰 더럽힘이 없었던 것은 바로 부인의 도움이었다."고 하였다. 공보다 1년 뒤에 태어나 5년 먼저 죽었는데, 처음에 파산(坡山)에 장사지냈다가 나중에 공의 묘에 부장하였다.

아들 조태로(趙泰老)는 바로 관찰공(觀察公)이고, 다음 조태구(趙泰耉)는 원임(原任) 이조판서(吏曹判書)이며, 다음 조태기(趙泰騎)는 진사인데 지금 남평 현감(南平縣監)을 맡고 있다. 딸은 학생(學生) 윤재(尹宰)에게 시집갔다. 관찰공은 부제학(副提學) 윤경교(尹敬敎)의 딸을 맞았는데 아들이 없고, 판서는 응교(應敎) 이유상(李有相)의 딸을 맞아 조언빈(趙彦彬)을 낳았는데 관찰공의 후사가 되었고, 후취(後娶)는 현감(縣監) 이관성(李觀成)의 딸인데, 아들 조헌빈(趙獻彬)·조현빈(趙顯彬)을 낳았으며, 딸은 박사검(朴師儉)·김동혁(金東赫)에게 각각 시집갔고 나머지는 어리다. 남평 현감은 목사(牧使) 심익상(沈益相)의 딸을 맞아 아들 조한빈(趙漢彬)을 낳았으며, 딸은 이하택(李夏宅)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어리다. 윤재(尹宰)는 계자(繼子) 윤상형(尹尙衡)이 있다. 조언빈은 조영집(趙榮集)을 낳았고 딸은 어리다. 윤상형은 자녀가 모두 어리다.

나 소자(小子)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공을 우러러보기를 아버지처럼 여겼다. 계유년(癸酉年, 1693, 숙종19년) 소시(小試)에 합격하고 고성(固城)에 가서 공을 뵙자 공이 말씀하기를, "4, 5년을 나가지 않아 너는 반드시 등제(登第)할 것인데 내가 볼 수 없어 그것이 한스럽다." 하셨는데, 이해에 공이 아들과 조카를 버리셨고 그 뒤 5년 만에 소자가 등제하였으니, 공의 말씀이 과연 징험되어서 소자의 마음이 더욱 아프다.

지금 붓을 적셔 (묘갈명을 쓰려 하니) 슬픔에 문장을 이룰 수가 없으니, 옛날 유유주(柳柳州, 당대(唐代)에 유주자사(柳州刺使)로 있던 유종원(柳宗元))가 그 숙부(叔父)의 묘판(墓版)을 기록할 적에 실은 종인(宗人)의 말을 빌린 것이었는데, 나의 숙부의 사행(事行)은 국사(國史)에 환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혁혁하게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비추고 있어서 유전중(柳殿中)의 드러남이 없던 것과 같지 아니하니, 비록 남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의당 혐의스러울 것이 없을 듯하다. 마침내 사실을 근거하여 명(銘)을 만들었는데, 명은 다음과 같다.

아! 숙부님은 덕스러운 기우(氣宇)가 매우 컸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칭송하기를 나라의 기둥과 주춧돌에 비유하였네. 현종(顯宗)이 공을 그릇으로 여겨 장래에 크게 쓰려고 하였는데, 숙종(肅宗)께서 그를 받아 의탁한바 오직 무거웠네. 의탁한 바의 무거움이 무엇이었는가? 장수요 정승일세. 공이 오직 감격해서 더욱 분발하여 충성을 하

였네. 아름답고 원대한 계책으로 경륜을 도왔네. 참소하는 자의 입이 있어 물여우가 사람을 엿보듯 하였네. 어찌 공을 해할 수 있으리오? 마침 몸에 재해를 입혔네. 무릇 세상의 간사한 자들이 지금에야 조금 그치게 할 만한데, 어찌하여 저 당인(黨人)은 또다시 좋지 않은 짓을 하는가? 공을 영남의 바닷가로 밀어내고서는 스스로 계책을 얻었다고 하였네. 천도(天道)가 좋게 돌아온 것은 일찍이 몇 해가 되지 않았네. 붕당의 사악함이 무슨 이익이 있을까? 모두 다 먼 변방으로 물리쳐 추방했네. 숙부에 대해 슬픈 것은 원통함을 안은 채 돌아가신 것이네. 관직을 회복시키고 치제(致祭)를 명하였으니, 생각하건대 또한 무엇을 더 미치겠는가? 공의 몸은 재액을 받았으나 공의 덕은 더렵혀지지 않았네. 임금의 잘못을 바루고 어진 이 호위하였으며 임금의 총애받음을 억제하고 참람됨을 막았네. 곧고 곧은 훌륭한 말은 역사에 빛을 발하네. 비록 잘 헐뜯는 자가 있더라도 어찌 공의 이름을 가리랴? 소자의 문장은 촌스러우나 말만은 사정을 둔 것이 아니네. 무릇 수많은 후인(後人)들은 이 묘갈명에서 상고하기 바라네.

종자통정대부예조참의지제 교태억모

<대흥향토지에서>

응봉면(鷹峰面) 내에 건립된 것

(1) 유명조선국증자헌대부의정부좌참찬겸지경
有明朝鮮國贈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知經
연의금부춘추관사세자좌빈객오위도총관완영
筵義禁府春秋館事世子左賓客五衛都摠管完寧
군행통정대부형조참의이공묘갈명병서

君行通政大夫刑曹叅議李公墓碣銘幷序

오리중유순덕군자왈이공휘목자자요향당일구언기장자시양녕대군휘
吾里中有純德君子曰李公諱茦字子繇鄉當一口言其長者始讓寧大君諱
제실 공정대왕원자양덕불사위주태백어공상거위육대시생함양군휘
禔實 恭定大王元子讓德不嗣爲周泰伯於公上距爲六代是生咸陽君諱
희생호산군휘현생진안부정휘영남생봉사휘희년생제능참봉휘세량구
諦生湖山君諱鉉生鎭安副正諱永男生奉事諱希年生齊陵叅奉諱世良俱
유봉증재가승시호산유장윤보안부정휘수남자첨지중추부사휘희손무
有封贈載家乘始湖山有長胤保安副正諱壽男子僉知中樞府事諱希孫無
후이참봉공후지참봉공취비안동김씨참판주지여이만력계유생공미약
后以叅奉公後之叅奉公娶媲安東金氏叅判澍之女以萬曆癸酉生公未弱
관연점발해중을사사마임자석갈등제이자궁배전적갑인정내외간정사
冠連占發解中乙巳司馬壬子釋褐登第以資窮拜典籍甲寅丁內外艱丁巳
감강진현계해입위낭기성갑자분문공주 행재환배전라도사을축차동지
監康津縣癸亥入爲郎騎省甲子奔問公州 行在還拜全羅都事乙丑差冬至
사서장겸지평부해조경병인춘복 명정묘호 가강도유내첨정제옥천군
使書狀兼持平浮海朝京丙寅春復 命丁卯扈 駕江都由內瞻正除沃川郡
수복배제용정전봉상고만승첨추계유제영월군수을해형조참의병자이
守復拜濟用正轉奉常考滿陞僉樞癸酉除寧越郡守乙亥刑曹叅議丙子以
후퇴거면천장댁지경진추유형조수평창군이임오육월고종우임소득년
後退居沔川庄宅至庚辰秋由刑曹守平昌郡以壬午六月考終于任所得年
칠십공순순근미상유질언체색평거정목불욕견지어세여인교차기장후
七十公恂恂勤未嘗有疾言遞色平居靜穆不欲見知於世與人交搓其長厚

무소차별인리음기화시여제질평논고금인멸부급사이해후당여하동
無所差別隣里飮其和時與第姪評論古今人滅否及事利害後當如何洞
활무체연곤관무화인무유규기중자이시환불통달부침어하위가승석재
豁無滯然悃款無華人無有窺其中者以是宦不通達浮沈於下位可勝惜哉
공비남원윤씨호조판서휘자신여성질연색여공합덕생일자대사헌만우
公媲南原尹氏戶曹判書諱自新女性質淵塞與公合德生一子大司憲曼羽
의조정견시중임구어연명불대궐시유자진사증이녀적사인송광엄지평
儀朝廷肩時重任狗於年命不大厥施有子進士增二女適士人宋光淹持平
민종도기소생구유공지감강진불영이 조명시사지기현도헌공방년십사
閔宗道其所生俱幼公之監康津不佞以 朝命視師之其縣都憲公方年十四
문과기취출이유아주전정지항체성인대지감금아독불사상유말경기공
文科己就出而侑我酒轉眐之項遞成人代之感今我獨不死莱楡末景紀公
둔석양가개야명왈인방한여모무치부기척벽소득호리의유공불긍부
窀穸良可漑也銘曰人方嫺餘模務馳夫己尺壁所得毫釐懿維公不矜不
지아안기구불섭우기작위개다참좌이고명도현질숙적기기유자극가이
持我安其驅不躡于歧爵位豈多叅佐以庫名塗顯秩孰逖其機有子克家敭
역당시주윤적수토임소비임존지록토후혈심기구역여행로조흠동주이
歷當時珠淪赤水土林所悲任存之麓土厚穴深其丘睪如行路條欽東州李
민구찬파평윤재경서
敏求攢坡平尹載慶書
숭정후칠십년계사팔월증손석복입
崇禎後七十年癸巳八月曾孫錫福立

(2) 중대광문하시중찬성도선생응지묘
重大匡門下侍中贊成都先生應之墓
단양군부인단양우씨부좌
丹陽郡夫人丹陽禹氏祔左
경신십이월 일
庚申十二月 日
중대광문하시중찬성청송당도선생신도비명병서가의대부행이조
重大匡門下侍中贊成靑松堂都先生神道碑銘竝書嘉義大夫行吏曹
참판겸동지 경연성균관의금부사규장각직제학 시강원검교보덕
叅判兼同知 經筵成均館義禁府事奎章閣直提學 侍講院檢校輔德
여흥후인 민병승 찬
驪興后人 閔丙承 撰

유학풍천후인 임영편서 유학십사세손병택근전고려지옥사야 병절사
幼學豊川后人 任英編書 幼學十四世孫秉澤謹篆高麗之屋社也 秉節死
의유약포목제선생우유두문동칠십이충신중대광문하시찬성도선생응
義有若圃牧諸先生又有杜門洞七十二忠臣重大匡門下侍賛成都先生應
기일야개공이잠영세가소사공민종자중망자당세자기기이후조시경극
其一也盖公以簪纓世家少事恭愍宗資重望者當世自己己以後遭時冏極
회적구원둔우홍주지노은동이노은위호개용노연로해지의야소거옥패
晦跡邱園遯于洪州之魯隱洞以魯隱爲號盖厲魯連路海之義也所居屋敗
불폐풍 일갈의소식유시불부면이연불이위의식자손물사거학이보전성
不蔽風 日葛衣蔬食有時不敷面怡然不而爲意識子孫勿事擧學以保全性
명차왈아동자라이래전상석교간유명세자저이사장시습어양예전설사

命且曰我東自羅以來專尙釋敎間有名世者抵以詞章侍習於襄禮全設事
체사대부행백일즉길이말면속이삼명야자백상당유연이귀동인득견목
體士大夫行百日卽吉以末免束夷三名也自白上黨遊燕而歸東人得見穆
씨전서급주반공가례시지유성리삼당시칙포목제선생최기우저자야여
氏全書及朱反公家禮始知有性理三當時則圃牧諸先生最其尤著者也汝
등면주거중립불의칙도기유성인입도의희연원지정대견식지탁책여피
等面做去中立不倚則度幾有成人立道矣噫淵源之正大見識之卓茉如彼
고후래조변고이부시기채수흥일목쟁선가야상방물은우장서별서정일
故後來遭變故而不矢其採雖興日目爭先可也嘗防物隱于長瑞別墅呈一
절이자능치위안신지지실자황야급위포은피해한아말득소이환생불여
絶以子陵治爲安身之地實自況也及圍圃隱被害恨我末得所而歡生不如
사시사처완백세지하늠연유생기홍무이십오년임신태조대왕흘흥지초
死詩詞凄惋百世之下凜然有生氣洪武二十五年壬申太祖大王訖興之初
특하신원지명이제저고교월명년이조봉대부전의소감소불부우명년이
特下伸寃之命以諸邸故交越明年以朝奉大夫典醫少監召不赴又明年以
선절장군흥위위좌령장군소불부이경창주일백칠십십석사불수우명년
宣節將軍興威衛左領將軍召不赴以京倉朱一百七十十石賜不受又明年
이용양위좌령장군소우명년이보장군호용순위사간대장군급중정대부
以龍驤衛左領將軍召又明年以保將軍虎勇巡衛司揀大將軍及中正大夫
사빙감정존병불부방상간일융이공유매상급상기왈복이무사적부숙조
司氷監正存竝不赴方上看日隆而公愈邁上及上幾曰僕以無似賊夫夙遭
가국지우죄영악적난용복재원간함원은병오정마청령욕합연무지이일
家國之禍罪盈惡積難容覆載元間含寃隱病五情摩淸寧欲溘然無知而一
루불절구연세월백천두문병적이위투치지대하행금자신설전조피무지

縷不絶苟延歲月白天杜門屛跡以爲投鹵之代何幸今者伸雪前朝被誣之
적원사심감격이제복념종세개세윤어려조신우등제어왕씨역직이지주
積寃私心感激而第伏念宗世旣世狁於麗朝身又登弟於王氏歷職以至主
문하시중찬성위질위광이불행국파군망인당금일불능지구주읍사율수
門下侍中賛成委質爲匡而不幸國破君亡忍當今日不能殞軀晝邑辭栗首
양이약감심영이이삼기제명의론의강상절의불인화망여서복태불의지
陽而若甘心荣利二三其諸名義論矣綱常絶矣不忍禍亡余瑞復跆不義之
과원종광무시득수자능지지원부사감찰특련애고지정함수록용지명비
科願從光武時得遂子陵之志願俯賜鑑察特憐哀苦之情函收綠用之命俾
천명종수해추지분동귀초목지부태조가기절이촉단서청송당삼자병어
賤命終守海堅之分同歸草木之腐太祖嘉其節以蜀緞書靑松堂三字竝御
제절구이총지왈애간청송절정간수이마한강천인상상설부증마기우교
製絶句以寵之曰愛看靑松絶貞幹手以摩寒崗千仞上霜雪不曾磨旣又敎
왈도응지절실무새어고인오불인탈기지인칙기군사군미천포우사불수
曰都膺之節實無愧於古人吾不忍奪其志因敕其郡賜郡米千苞又辭不受
영묘신미서행송경사제수비특서왈승국충신시난비제공당일용회지본
英廟辛未西行松京賜祭竪碑特書曰勝國忠臣是難非諸公當日用晦之本
의이소이위백세충신열사지심자미유감의공초휘유자자예성주인이임
意而所以慰百世忠臣烈士之心者靡有感矣公初諱兪字子藝星州人以臨
치후휘초위상조유휘미좌백제부인유절행사재삼강행실록유휘진부원
淄侯諱稍爲上粗有諱彌佐百濟夫人有節行事載三綱行實祿有諱陳府院
군식주팔백항유휘순전리상서시생휘사박상서시생휘유덕종부판서성
君食珠八百項有諱順典理尙書是生諱思朴尙書是生諱有德宗簿判書星
산군시공지고조야증조휘효안문하시중조휘홍정벽상공신삼한삼중대

山君是公之高祖也曾祖諱孝安門下侍中祖諱洪正壁上功臣三韓三重大
광국문하시중고휘길부대광보국숭록대부문하첨의찬성사홍무경신종
匡國門下侍中考諱吉敷大匡輔國崇祿大夫門下僉議贊成事洪武庚申從
태조시왜유공기사유투서지변위간흉소구함뢰시중정윤공우인열력매
太祖詩倭有功己巳有投書之變爲奸凶所搆陷賴侍中靖尹公禹仁烈力枚
득면비정경부인연안차씨방어월파종노여안동권씨부만호가봉녀화초
得免妣貞敬夫人延安車氏防禦月坡宗老女安東權氏副万戶可封女禍初
이의자종공이지장좌대흥현북이삼가리쌍유좌항쌍부유림석각고려충
以義自終公履之藏左大興縣北而三街里雙乳左亢雙祔有林石刻高麗忠
신유묘갈서려조작호개종유훈야형성주운천사군부인단양우씨랑정평
臣有墓喝書麗朝爵號盖從遺訓也亨星州雲川祠郡夫人丹陽禹氏郎靖平
공녀거사남일녀장남면차사담차사민차운봉녀적이영상사면봉정대부
公女擧四男一女長男勉次思湛次思敏次雲峯女適李寧商思勉奉正大夫
내자시직장취철성이씨판윤민여생사남장경호조대부녹원종공신 전
內資寺直長娶鐵城李氏判尹岷女生四南長慶好朝大夫綠原從功臣 典
이읍차순자봉열대부삼례찰방차의호차려손사직사심승지취파평윤씨
二邑次順孖奉烈大夫叅禮察訪次義好次慮孫司直思諶承旨娶坡平尹氏
판윤홍녀생일남승빈청백리사민생일남능문과운봉취달성서씨낭장사
判尹弘女生一男承濱淸白吏思敏生一男能文科雲峰娶達成徐氏郎將思
달녀이격척열행유왈죽지서생일남근생원내외노현이하불서록안동각
達女以格尺烈行有曰竹之瑞生一男根生員內外魯玄以下不書綠桉東閣
기백공흥두문제현유제명록우유사특사신지편해동보감이야은길재청
記白公興杜門諸賢有題名綠又有私特史臣之編海東寶鑑以冶隱吉再靑
송당도응롱암전주현곡원천석제기기절야은시왈비직경현이달서종래

松堂都膺籠巖全澍玹谷元天錫第其氣節冶隱詩曰匪直驚弦伊達逝從來
소절즉청송매헌시왈근세전절지무수유견청송치미부이제공지현와상
素節卽靑松梅軒詩曰近世全節知無數惟見靑松治薇夫以諸公之賢瓦相
추양여차칙선생지절의비차이가지의유세월변천지헌유송이후지상논
推讓如此則先生之節義鄙此而可知矣雖歲月變遷之獻遺送而後之相論
자필유이상상기전형위간기소편세기시범십삼사작녹제일성아조설이
者必有以想像其典型爲間氣所便世其詩凡十三辭爵祿第一誠兒曺說二
가청존십일어천백수약가한비여영전쇄옥괴설이진기광기외견종백불
可請存十一於千百雖若可恨譬如零全碎玉愧設以塵其光氣外見終百不
린위세지기보야오호선생재성조태래지일궐약일인수문칙부귀광영의
磷爲世之奇寶也嗚呼先生在聖朝抬來之日厥若一人脩門則富貴光榮宜
불하어반부제인이고내자찬심암두문절적전아인기전전옥백경불능하
不下於攀柎諸人而顧乃自竄諶岩杜門絶跡全我人紀戔戔玉帛竟不能下
기지개비맹자소위대장부자호증자왈역대절이불가탈야군자흥인군자
其志豈非孟子所謂大丈夫者乎曾子曰暘大節而不可奪也君子興人君子
인야암선생기서기야부석은지망차우동이사기자휘자거지부자병칭삼
人也菴先生其庶幾也夫昔殷之亡此于凍而死箕子徽子去之夫子竝稱三
인이시예지공지거포은지사적수부동기심지뇌낙광결기정충후측달기
仁以是例之公之去圃隱之死跡雖不同其心之磊落光潔其情忠厚惻怛其
송미시유이야도자하야자정이기인자헌윤선생우하구언일공입이손탕
送未始有異也道者何也自靖而己人自獻尹先生又何求焉日公立耳孫傷
우순택석환문명어여일오조지절지행이신도상궐현문차위자손지치고
禹舜澤碩煥問銘於余日吾祖之節之行而神道尙闕顯刎此爲子孫之恥故
감암여불능기족이유양대열시시영구연세곤도미삼강두절병자지간방

敢諳余不能旗足以揄揚大烈侍示永久然世袞道微三綱斁絶丙子之懇放
시언지여자가위지소무 이 시설야오지기경발인다의탁명위자하이흘사
是焉至如子可謂知所務이 是設也吾知其警發人多矣托名爲莉何以訖辭
명왈군신대윤천경지위예운진충시왈취의우만피소인여사군재구이어
銘曰君臣大倫天經地緯禮云盡忠侍曰取義禹晩彼宵人與事君哉苟利於
기무소불위어혁찬성정생려수기재공양천화미회방기논상아강예복명
己無所不爲於赫贊成挺生麗秀其在恭讓天禍靡悔邦其論喪我岡医僕明
입차중위위아심측재피해곡유함기곡입사미타유여격일추영부용춘산
入此中爲爲我心惻裁彼海曲有函其谷立死靡他有如激日秋永芙蓉春山
미개아오탄우간우육편피운관경원적성조자시여고교자우정재홍지교
薇愾我寤歎于澗于陸扁彼雲關經遠跡聖朝咨時予故交子于旌在洪之郊
아유호작오미불취하인탈야비수기지사호청송천향불말고명사신재지
我有好爵五微不就何忍奪也俾燧其志賜號靑松天香不沬顧命使臣載之
차각유탁기절산고두명시역유본집의이생존각정서화정주례기변만수
車阁有卓其節山高斗明是亦有本集義而生尊閣程書畵旌朱禮機變萬殊
동견대체기기배도색우우간후천불멸계우아인유혁부봉대흥지원익익
洞見大體其氣配道塞于雨間後天不滅啓佑我人有侖斧封大興之原翼翼
말운재수영석아작명장비고천억
末雲載樹寧石我作銘章俾告千億
경신십이월 일
庚申十二月 日
유사십오손 진철 상령 상필
有司十五孫 鎭哲 相領 相弼

<국역문>

도응신도비

무릇 국가와 민족에 바친 절의는 일월처럼 떳떳하여 인륜대도(人倫大道)와 민족활로(民族活路)를 길이 밝혀 왔다. 고려의 사직(社稷)이 바뀔 때 충절을 지키고 의리(義理)에 목숨을 바친 삼은(三隱)과 72현(賢)이 있으니 중대광문하시중찬성사(重大匡門下侍中贊成事) 도공(都公) 응(膺)은 그 중의 한 분이시다. 공은 누대잠영(累代簪纓)의 세가(世家)로서 젊을 때 공민왕(恭愍王)을 섬겼으며 높은 지위(地位)와 명망(名望)으로 당세(當世)에 드날렸으나 무진화변(戊辰禍變) 이후로 망국(亡國)의 한(恨)을 품고 마지막까지 절의(節義)를 지켰지만, 자세한 기록(記錄)이 산일(散佚)되어 사서실기(史書實紀)와 가장(家狀)을 바탕으로 그 행적(行蹟)의 대강을 약술하려 한다.

공의 초휘(初諱)는 유(兪)며 자(字)는 자예(子藝)요 호(號)는 노은(魯隱)으로 성주인(星州人)이시다. 상조(上祖)는 임치후(臨淄侯) 휘(諱) 계(稽)이고 휘 미(彌)는 백제(百濟)의 정승(政丞)이며 그 부인(夫人)은 절행(節行)이 높아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강행실록(三綱行實錄)에 올라 있다. 휘 진(陳)은 고려태조(高麗太祖)의 공신으로 정승에 이르고,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으로 봉(封)해지니 이로부터 성주(星州)를 관향(貫鄕)으로 삼았다.

휘 순(順)은 전리상서(典理尙書)요 휘 충박(忠朴)은 상서(尙書)며 휘 유덕(有德)은 종부판서(宗簿判書)로 성산군(星山君)에 봉하니 공의 고조(高祖)이시다. 증조 휘 효안(孝安)은 문하시중칠곡부원군(門下侍中漆谷府院君)이고 조 휘 홍정(洪正)은 벽상공신삼한삼중대광보국문

하시중칠곡부원군(壁上功臣三韓三重大匡輔國門下侍中漆谷府院君)이며 고(考) 휘 길부(吉敷)는 대광보국숭록대부문하첨의찬성사(大匡輔國崇祿大夫門下僉議贊成事)로 성산부원군이시다.

홍무(洪武) 무진(戊辰)에 태조와 함께 왜적을 토벌하여 대공을 세우는 등, 충성을 다했으나 기사년(己巳年)에 간신배의 무함(誣陷)으로 참변을 당하였다. 비 정경부인(貞敬夫人) 연안차씨(延安車氏)는 방어사(防禦使) 월파(月波) 종노옹(宗老翁)의 딸이고 계비 안동권씨(安東權氏)는 부만호(副萬戶) 가봉(可封)의 딸인데 가화(家禍)를 만났을 때 절의를 지키며 자결하였으니 실로 부부의 충열(忠烈)이 가즈런하다 하겠다.

공은 화변(禍變) 이후 모든 것을 버리고 홍주(洪州) 노은동(魯隱洞)에 은거자적하며 자존에게 훈계하되 과거(科擧)에 임하지 말고 성명(性命)을 보저하라 당부했고 불교숭상(佛敎崇尙)과 사장전습(詞章傳習)을 삼가고 가례(家禮)와 성리학을 준거(準據)하여 중도(中道)를 따라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 하고 일깨웠다. 공은 장단(長湍)에 은거하는 목은(牧隱)을 방문하여 시 한 수로써 충절의 간절한 뜻을 전하였고 포은(圃隱)의 피살 소식에 접하여 통한의 시를 읊되 살아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토로하였으니 그 고절(高節)은 후세에 길이 빛날 것이다.

태조가 등극하자 특별히 신원의 명을 내리고 경창미(京倉米) 170석과 수차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일체 사양하였다. 태조 2년부터 5년에 걸쳐 조봉대부전의소감(朝奉大夫典醫少監)을 이어 의장군흥위위좌령장군(宜將軍興威衛左領將軍) 및 용양위좌령장군(龍襄衛左領將軍) 보공장군호용순위사간대장군(保功將軍虎勇巡衛司揀大將軍) 중직대부

사빙감정(中直大夫司氷監正) 등을 내리는 대로 사절하되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명분과 의리에 가득 찬 전문(箋文)을 올려 오히려 왕을 감동시켰다. 왕이 그 절의를 높이 여겨 촉단(蜀緞)에 금자(金字)로써 청송당(靑松堂)이라 사호(賜號)하고 시로써 찬양하되

애간청송절 정간수이마 한강천인상 상설부증마

愛看靑松絶 貞幹手以摩 寒崗千仞上 霜雪不曾磨

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도응의 절의는 실로 옛사람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차마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다 하고 그 고을에 칙명(勅命)하여 군미(郡米)를 주게 하였으나 결코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청절(淸節)은 한송(寒松)에 비할 것이다.

공은 일찍부터 뜨거운 충절이나 떳떳한 윤강(倫綱)을 교시(敎示)한 시문(詩文)을 많이 지었으나 시 13수와 사작록전(辭爵祿箋) 1편(一篇), 계아조설(誡兒曹設) 2편만이 전하니 애석할 뿐이다. 이는 창해유주(滄海遺珠)와 같이 적으나마 많은 것을 능가하는 보배로서 때로 세파에 휩쓸렸어도 그 광채와 기운은 천지에 드러나고 말았다. 공의 묘소는 예산 응봉면 지석리 쌍유형좌혈의 유좌(酉坐)에 쌍봉으로 모셔졌고 순조 무진년 운천서원(雲川書院)에 이어 두문동서원(杜門洞書院)에 배향되었고 청송당실기가 있으며 국가가 전기 왕지와 록패(祿牌)를 문화재 보물 제724호로 지정하고 보조하여 연산에 보호각을 건립하였다. 군부인 단양우씨는 청평공(晴平公) 인열의 딸로서 4남 사면(思勉)·사심(思諶)·사민(思敏)·운봉(雲蜂) 등과 1녀를 두었는데 모두 현달하였다.

영조가 신미년에 송경으로 행차하여 단을 모아 제사하고 두문동에 비를 세워 승국충신금언재(勝國忠臣今焉在)라고 지어 썼으니 공을 비

롯한 제충신을 기리고 위로함이 그만큼 극진하였다. 동각기(東閣記)에서 공과 야은의 기절이 두문동 제현에 머리됨을 역설하고 야은도 공의 고절이 청송과 같다고 하였는데 매헌마저 공과 야은을 가장 높여 음영하였다니 그 절의가 이처럼 찬연하였다. 실로 부귀와 영화를 던져 버리고 지조대로 은거하기란 지극히 어렵고 값진 일이다.

공은 바로 맹자가 말한 대장부요, 증자가 이른 군자요, 공자가 일컬은 삼인(三仁) 중의 하나라 하여 마땅하겠다. 돌아보건데 공이 고난 속에 대절(大節)을 세워 후손에게 광명을 드리우니 하늘의 뜻으로 그 유덕(遺德)이 되살아남이 아니리오.

어느 날 공의 후손인 덕희가 졸자에게 비문을 청하니 사양하지 못하고 또한 이로써 이 시대의 전범지표(典範指標)를 삼으리라 하여 불문임을 무릅쓰고 그 생애를 요약하여 명으로 대하련다.

역사(歷史) 위에 절의덕행(節義德行) 길이길이 떨치니
일월처럼 떳떳하여 대도활로(大道活路) 밝혀오네
충절과 의리만은 군신간의 대륜(大倫)이니
두문동(杜門洞) 72현 청송당이 뛰어나네
대대로 빛난 가문 루대잠영세가(累代簪纓世家)러니
높은 벼슬 장한 이름 하루아침 티끌이네
고려사직 기울어져 보국(輔國)하려 나간 몸이
무함(誣陷)으로 화변(禍變) 만나 앙천통곡(仰天痛哭) 물러났네
망국(亡國)의 한을 품고 두문불출 서맹(誓盟)하니
어명(御命)의 부귀영화 홍모(鴻毛)같이 가볍다네
남부러운 관직으로 다섯 번 불렀으되

전문(箋文)으로 굳힌 사절(辭絶) 국왕이 감복하네
고아청일은거생활(高雅淸逸隱居生活) 이학으로 다스리며
가풍을 엄히 하고 동지 찾아 울었다네
하늘 두고 새긴 시문(詩文) 비바람에 흩어지니
창해유주(滄海遺珠) 바른 정신(精神) 오늘에야 생동하네
불사이군(不事二君) 매운 고절 천지에 가득하니
고금의 군신백성 유덕(遺德)을 찬송(讚頌)하네
빈빈(彬彬)한 자손들이 묘비 새겨 현창(顯彰)하니
고려 충신 그 참뜻을 천만세에 기리리라

서기 1991년 11월 10일
국립충남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청주후인 사재동 찬
강릉후인 김동연 서(江陵后人 金東淵 書)

<응봉면지에서>

(3) [두전] 대사헌완원군이공신도비([頭篆]大司憲完原君李公神道碑)

유명조선국가선대부사헌부대사헌완원군이공신도비명병서보국숭록
有明朝鮮國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完原君李公神道碑銘幷序輔國崇祿
대부판중추부사겸홍문관대제학지경연춘추관성균관사세자좌빈객조
大夫判中樞府事兼弘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賓客趙
경찬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우의정겸영경연사감춘추관사허목전
絅撰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許穆篆
공휘만자지만국지동성야년이십사등무진상제사 인효금삼조소력내외

公諱曼字志曼國之同姓也年二十四登戊辰上第事 仁孝今三朝所歷內外관유미이현유비이거계위가선봉위완원작위대사헌수근일갑자이종사官由微而顯由卑而鉅階爲嘉善封爲完原爵爲大司憲壽僅一甲子以終嗣자진사증봉공상장지우대흥현선영북록좌계향정지원기 사반궤우경子進士增奉公喪葬之于大興縣先塋北麓坐癸向丁之原旣 事返机于京근근술공계출행치장주모실류연쇠마래복불녕지문왈유집사지오부斤斤述公系出行治章 奏母失纍然衰麻來伏不佞之門曰惟執事知吾父감이불후오부은집사불녕어시폐석위조이언왈방금학사대부독고이달敢以不朽吾父恩執事不佞於是敝席爲弔而言曰方今學士大夫篤古而達사자하한자호사지내이막이막중현각속제기사지노혁의개비로혁증동辭者何限子胡舍之乃以莫以莫重顯刻屬諸幾死之老革矣豈非老革曾同선대부천지서색지고재고오견마지치하등경계여신정쇄흉궤궤무비안先大夫遷之西塞之故哉顧吾犬馬之齒何等境界歟神精鎖凶憒憒無比安능자력문자간황선대부불후사업해대타인언진사군유집불치수수왕래能自力文字間況先大夫不朽事業奚待他人言進士君維執不置數數往來위례차치가상이거삼년어차의불녕감기성지시열기상이독공세소칭오爲禮且置家狀而去三年於此矣不佞感其誠至試閱其狀而讀公世所稱吾동주태백양령대군칠세손야재전이호산군소평공휘현 성묘조좌리공東周泰伯讓寧大君七世孫也再傳而湖山君昭平公諱鉉 成廟朝佐理功신야유휘영남진안부정유휘목희년참봉사유휘세량증참찬문과참의 증참臣也有諱永男鎭安副正有諱湑希年奉事有諱世良贈叅贊文科叅議 贈叅찬완령군소평공장자휘수남보안부정유휘희손문과첨추무사취완능위贊完寧君昭平公長子諱壽男保安副正有諱希孫文科僉樞無嗣取完陵爲후시내공지고증조약고야양영지지대유인지공우유성공위인세수이정

後是乃公之高曾祖若考也讓寧之支代有人至公尤有聲公爲人細瘦而精
채사인자동자시출어중관아섬자장식여불식문기소위함칭국기급조계
彩射人自童子時出語中窾雅摻自將識與不識聞其所爲咸稱國器及遭癸
해중흥협예사과매발여망명예애울발인랑서상진육부경오배정언계유
亥中興挾藝射科每發如望名譽藹蔚發軔郞署翔盡六部庚午拜正言癸酉
천사서간유좌막반자지제을해배지평시상응천견유인성자녀대신침기
遷司書間有佐幕半刺之除乙亥拜持平時上應天譴宥仁城子女臺臣寢其
명공여조수익강대수합정동계장순상미유시구피탄연식자위지병자이
命公與趙壽益姜大遂合鄭桐溪將順上美由是俱被彈然識者韙之丙子以
예랑노서상 상찰기유병노친특령개지이수야기세동배수찬동동료상답
禮郞老書狀 上察其有病老親特令改之異數也其歲冬拜修撰同同僚上劄
답출공수언여적결호난특급서용 상피지남한공이모병혁부득부근명
劄出公手言與敵結好難特及西聳 上避之南漢公以母病革不得負勤明
년과조모간우태안도중제제우배수찬승교리개헌납언사여속의지이시
年果遭母艱于泰安島中制除又拜修撰陞校理改獻納言事與俗議之異時
완령출재평창임오배기막분구친제조종천지통갑신재흘상금이장령소
完寧出宰平昌壬午拜畿幕奔救親瘠遭終天之痛甲申才訖祥琴以掌令召
공체읍이사왈무상소신죄대악적육년지내부모구망즉금고신지도유재
公涕泣而辭曰無狀小臣罪大惡積六年之內父母俱亡卽今孤臣之道唯在
효이어충이기수상일 소소범이천여언유미호기언지야총지방본지전
孝移於忠而己遂上一 疏疏凡二千餘言有味乎其言之也總之邦本之顚
연야훈귀지태횡야고굉지비인야희배반미객사야할염분이주가야소이
連也勳貴之太橫也股肱之非人也餙盃盤媚客使也割鹽盆利主家也溯而
상급 승여한실왈완세오이불도대환야심거구중소친유환관궁첩야착

上及 承輿閑失曰翫細 娛而不圖大患也深居九重所親唯宦官宮妾也鑿
착언지불피 상가납차장지수탁치용후인이위공지차소명여가의이술
鑿言之不避 上嘉納且奬之遂擢置龍喉人以爲公之此疏明如賈誼而術
불소사조경여이근간가병상의의국이창편사양야 상비왈이언론정직
不踈辭祖敬輿而懃懇可竝上醫醫國而倉扁斯讓也 上批曰爾言論正直
식견고명고 특용초탁기무용사을유유좌부배황해감사시시해서기심
識見高明故 特用超擢其無庸辭乙酉由左副拜黃海監司是時海西饑甚
조운조체객사상형제폐여위공고교본표이변이통소진심우재황정여판
漕運阻滯客使相衡諸弊如蝟公考較本剽以變以通所盡心尤在荒政輿判
도지민성휘쟁시비공언재진기도지재휼경비지금논자도지불능출기견
度支閔聖徽爭是非公言在賑饑度支在恤經費至今論自度支不能黜己見
이여인선야판축지이자신거전지원자식특여사이병술팔월승 소참회
而輿人善也版築之夷者新遽傳之怨者息特餘事耳丙戌八月承 召叅會
맹연승가선차유준 명질만가환정해배지신사아수관서절도안주칙정
盟宴陞嘉善且有浚 命秩滿可還丁亥拜知申事俄授關西節到安州則鄭
적명수사주자수각어첩구욕전위사공견명수이리면절지명수참복차시
賊命壽使酒恣脽却御帖詢辱錢慰使公見命壽以理面折之命壽慚伏此時
서민박부추수이공세마부독피사가학이연아사실우이효지공일승이법
西民剝膚推髓以供貰馬不獨彼使苛虐而然我使實尤而效之公一繩以法
선자아사서민대희이적형장협명수교악무압공불소대명수첩무조정거
先自我使西民大喜李賊馨長挾命壽交惡無壓公不少貸命壽輒誣朝廷祛
공서얼동배간장무자유예참관찰령남공위정이기교화위무학궁일신경
公西臬冬拜諫長戊子由禮叅觀察嶺南公爲政以幾敎化爲務學宮一新經
술사장빈빈언군정성지민세지배경자솔개상문경장이귀정일여해서시

術詞章彬彬焉軍政城池民稅之倍經者率皆上聞更張而歸正一如海西時
유가상자제민규환위하기축동이우윤피 소도개병참겸비국당상입시
有加詳者齊民叫驩爲賀己丑冬以右尹被 召道改兵參兼備局堂上入侍
진왈영남인재부고자조종조뢰지금수불급고십실충신불가무야영남지
進曰嶺南人材府庫自祖宗朝賴之今雖不及古十室忠信不可誣也嶺南之
물중지대최어팔로민막역배어팔로원성명지가의언차왈구현진충자고
物衆地大最於八路民瘼亦倍於八路願聖明之加意焉且曰求賢進忠自古
인주오매여갈자단어목혼주랑유사묘시가구야공지주어유직유풍상허
人主寤寐如渴者但魚目混珠稂莠似苗是可懼也公之奏語有直有諷上虛
기이청좌우지찬탄측목칙상반경인청구왕자지적아자중왜정역지표한
己以廳左右之贊歎側目則相半庚寅淸九王者指摘我咨中倭情域池漂漢
삼사위사문사칙파기명수야공여노협대사개기시안사동래수야당시아
三事爲査問使則巴祈命壽也公與盧協對査盖其時按使東萊守也當時我
자지득실공실매매자급사발중구노노화차불 측함귀공이재공응변상이
咨之得失公實昧昧者及事發衆口呶呶禍且不測咸歸公異哉公應辯詳而
불차일언절이불실일사명수불감경힐좌우제재개탄선변여불녕소좌여
不差一言切而不失一事命壽不敢更詰左右諸宰皆歎善卞如不佞所坐輿
공이명수장노아중기기휘구지눌무여하기후문외정지의풍파변실상공
公異命壽莊怒我中其忌諱久之訥無如何其後聞外庭之議風波變實狀公
의하리금부주당배홍양우유대탄천령변신묘청사래왈이노무죄 조정
意下理禁府奏當配洪陽又有臺彈遷寧邊辛卯淸使來曰李盧無罪 朝庭
용청사기공차정주연위아배황해감사공진정걸면 온비불허재사내체
用淸赦起公差定州延慰俄拜黃海監司公陳情乞免 溫批不許再辭乃遞
추강도유후지 명우하공우이전후죄적사 상특사인견왈경무일하의익

秋江都留後之 命又下公又以前後罪積辭 上特賜引見曰卿無一瑕宜益
면신 명공지임이윤탁동안우위치치전함일여도사행종리임진노협제
勉新 命公之任以尹鐸董安于爲治治戰艦一如陶士行綜理壬辰盧協除
정주견효공이동죄벌이사 상어시대빙진전엄교정원유사임사지신불
定州見効公以同罪罰異辭 上於是大憑震電嚴敎政院唯使任事之臣不
안기직이모역불가번언환기소공수부득기입대비진보장사심밀과만묘
安其職李某亦不可煩言還其疏公遂部得己入對備陳保障事甚密瓜滿廟
당청잉계사동사각실화공대죄 교왈화유악속어경하손공사년강도구
堂請仍癸巳冬史閣失火公待罪 敎曰火由惡俗於卿何損公四年江都區
화무여강도은거도중록교안자불식정자공이위친상사장출어하택재수
畵無餘江都隱居島中錄校案者不識丁字公以爲親上死長出於何擇材秀
재가교자풍학량거병사과이송독미일년비변공진지본재갑오천병참미
才可敎者豊學粮居丙舍課以誦讀未一年丕變公眞知本哉甲午遷兵叅未
급입 조전호남관찰동서남북유 명종지자비공야시호남우기민교주사
及入 朝轉湖南觀察東西南北惟 命從之者非公耶時湖南又饑民交走死
무적공즉상장구지책 상개종지을미조의이산성급해도설험유중신이
無吊公卽上賑救之策 上皆從之乙未朝議以山城及海島設險遺重臣李
후원심지공후후원왕도상제도형세대솔전위강도향원야 계미회흥양
厚源審之公後厚源往圖上諸島形勢大率專爲江都響援也 啓未回興陽
유정석지옥기일월지명불능무의도신완기사공내좌삭탈귀호장가식자
儒丁晳之獄起日月之明不能無疑道臣緩其事公乃坐削奪歸湖庄家食者
이재정유서제금성현감미부천평안병사무술동이배관찰공당서얼자삼
二載丁酉叙除錦城縣監未赴遷平安兵使戊戌冬移拜觀察公當西臬者三
의자견서로이해무유치수고고성갈여불급역불면중중산지협경자유공

矣刺見西路利害無遺錙銖膏枯醒暍如不及亦不免中中山之篋更子由工
참수호서절시일국동기호서위최여갑오지호남무이공우국애민성야불
叅授湖西節時一國同饑湖西爲最與甲午之湖南無異公憂國愛民性也不
이루굴루치위회위혐갈심황정취칙범부한지유법유시호서민의세무전
以屢詘屢跱爲悔爲嫌竭心荒政取則范富韓之遺法由是湖西民意歲無轉
구 학자우우문강이귀계묘이호참충부연사환유마주범청국대금석류매
溝 壑者又扞文岡而歸癸卯以戶叅充赴燕使還有馬走犯淸國大禁石硫買
자공인시해직공상이양친몰어간과제구재천토위주야침통금행석부이
者公因是解職公嘗以兩親沒於干戈際久在淺土爲晝夜沉痛今幸釋負以
기간즉모천폄우대흥지구복호구공수종하면지예곡읍최통여시상자자
其間卽謨遷窆于大興之舊卜好丘公雖從下緬之禮哭泣摧痛如始喪者子
제친척갱간불득득질미적일연관사갑진추칠월이십이일야문공 지졸망
弟親戚更諫不得得疾未積日捐館舍甲辰秋七月二十二日也聞公之卒亡
론사대부원근차석불기지중외이서배함왈재량신망의국실충신의오호
論士大夫遠近嗟惜不己至中外吏胥輩咸曰才良臣亡矣國失忠臣矣嗚呼
공이한한고신무암혈기사지명무금장허사지조이일조섬수촌지관서영
公以哻哻孤身無嵒穴奇士之名無金張許史之助而一朝摻數寸之管書盈
척지지토진충지명주한상견지만년제세천부족언야공소진언부지기기
尺之紙吐盡忠志明主恨相見之晩年除歲遷不足言也公所進言不知其幾
이유일불찰납자호개인지소난 공지소이인지소추공지소피험조간난여
而有一不察納者乎盖人之所難 公之所易人之所趨公之所避險阻○難如
시탄도반근착절유인회회 효묘지총우공출어제신우자고야경인지사상
視坦途盤根錯節游刃恢恢 孝廟之寵遇公出於諸臣右者固也庚寅之査上
특유나중인특지부김구해어명수차가이관군신의초장신풍지국위주사

特遺羅中人特地部金求觧於命壽此可以觀君臣矣初張新豊持國爲主司
탁공문제일기소취자독문호재장가위유인윤지감자재공어타술역불습
擢公文第一其所取者獨文乎哉張可謂有人倫之鑑者哉公於他術亦不習
이능진기극무관칙불비명농복납자성개유시출불간인일호이교시폐운
而能臻其極無官則不鄙明農伏臘粢盛皆由是出不干人一毫以矯時弊云
공외왕부룡원부원군윤공자신즉 명선간훈현신야구거도지정명민묘
公外王父龍原府院君尹公自新卽 明宣間勳賢臣也久居度支精明敏妙
적심논자위공혹사기구운공립조수십년급병양이지섬특저불지고지인
籍甚論者謂公酷似其舅云公立朝數十年急病讓夷之摻特著不知古之人
하여야소수지어군부자역가위광세사자수지불여위지이품년우불영불
何如也所受知於君父者亦可謂曠世事者誰之不如位止二品年又不永不
극구온세소도자전광석형어호희희부인문화유씨첨지중추겸내승희성
克究蘊世所覩者電光石炯於乎嘻戱夫人文化柳氏僉知中樞兼內乘希成
지녀후공팔년이몰천공묘합장우기향지신록생일남이녀남증문과부윤
之女後公八年而歿遷公墓合葬于己向之新麓生一男二女男增文科府尹
여송광엄도사조몰차민종도판서증초취감사이진녀생일남일녀남석복
女宋光淹都事早歿次閔宗道判書增初娶監司李袗女生一男一女男錫福
진사녀홍서공재취진사조사항녀생이남사녀석지석조생원녀우덕구참
進士女洪叙功再娶進士趙嗣恒女生二男四女錫祉錫祚生員女禹德九叅
봉녀남수현문장현감녀한종설진사녀홍사보측실녀김몽성민종도생삼
奉女南壽賢文壯縣監女韓宗說進士女洪嗣輔側室女金夢晟閔宗道生三
남삼녀남언량급제언상진사언광진사녀이효근정언이후한종석진사석
男三女男彦良及第彦相進士彦光進士女李孝根正言李邱韓宗奭進士錫
복유남용하구하하석지유남서하진사명하밀하서자달하구하유일남주

福有男龍河龜河河錫祉有男瑞河進士命河密河庶子達河龜河有一男柱
경위장방후역유육명하유삼남밀하유일남병유명왈양영지주루공루향
擎爲長房后亦有育命河有三男密河有一男竝幼銘曰讓寧之胄屢公屢鄉
지우완능후우소평유공지봉소평시륜공지수재약벌우진약차우육하물
至于完陵后于昭平維公之封昭平是綸公之受才若筏于津若車于陸何物
부제국지시공모별려게서중공서남중공남황류좌서고건우함발빈필예
不濟國之試公母別厲揭西重公西南重公南荒類左鋤枯乾右函發賓必豫
전연필기상자기실군공칭기대배지기엄홀도도고담강도민호유타공지
顚連必起上藉其實群公稱器大拜指期奄忽滔滔顧瞻江都民號儒唾公之
파병효충시조삼조진췌일명만세후지군자위공필체어호유아증왕고도
欒柄孝忠是操三朝盡瘁一瞑萬世後之君子爲公必涕於乎唯我曾王考都
헌공거가행의입조사적유불가민몰어세자용주조선생기서차명이왕고
憲公居家行誼立朝事蹟有不可泯沒於世者龍州趙先生旣叙且銘而王考
구년국사미황이엄홀선군탄력어삼대묘갈지역유의미취불초손용하거
九年國事未遑而奄忽先君殫力於三代墓碣之役有意未就不肖孫龍河居
항미해수어상병지여근구재역시모수석우묘중간팔십여년내외자손지
恒靡懈遂於喪病之餘僅鳩財力始謀竪石于墓中間八十餘年內外子孫之
유생유망급유료유작첨록여우
有生有亡及有料有爵添錄如右
숭정기원후백이십오년 임신십월 일입
崇禎紀元後百二十五年 壬申十月 日立
증손 용하 근서
曾孫 龍河 謹書(1752年)

<국역> 완원군 이만 신도비

[두전] 대사헌완원군이공신도비(大司憲完原君李公神道碑)

유명조선국가선대부사헌완원군이공신도비명병서

有明朝鮮國嘉善大夫司憲完原君李公神道碑銘幷序

보국숭록대부 판중추부사겸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경연춘추관 성균관사 세자좌빈객 조경은 짓다.

輔國崇祿大夫 判中樞府事兼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經筵春秋館 成均館事 世子左貧客 趙絅 撰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겸 영경연사감 춘추관사 허목은 전자를 쓰다.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右議政兼 領經筵事監 春秋館事 許穆 篆

공의 휘는 만(曼)이고 자(字)는 지만(志曼)이니 나라 임금과 같은 성씨이다. 나이 24세에 무진(戊辰)에 장원급제해서 인조 효종을 이어 금상까지 세 임금을 섬기니 역임한 바 내직외직이 작은 데로부터 나타나고 낮은 데로부터 놓아져서 계는 가선에까지 오르고 봉군으로는 완원군(完原君)이 되고 벼슬로는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으나 향수는 경우 환갑을 살고 돌아갔으니 아들 진사 증이 공의 상사를 받들어 대흥현의 선영 북쪽 기슭 계좌 정향한 언덕에 장사 지내고 일이 마치자 궤연을 서울로 모시고 급급히 공의 선계와 행실 상소문 등을 기술해서 빠뜨리지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상복을 입은 채 나의 집에 찾아와서 엎드려 이르되 “오직 어르신네만이 우리 아버지를 아시니 감히 우리 아버지를 썩지 않게 하는 일로 어른께 번거롭게 합니다.”

하니 내가 이에 자리를 피해 위문을 하면서 말하되 “지금 학문하는 사대부들이 옛것을 돈독히 배우고 글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대 어찌 버리고 이에 막중한 비문을 거의 죽어가는 늙은이에게 부탁하는가?

이 늙은이 일찍 선대부께서 서쪽 변방으로 귀양 갈 때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마는 나의 미천한 나이가 어느 지경인가? 정신이 쇠망해 흩어짐을 견줄 데 없으니 어찌 능히 문자의 일에 스스로 힘쓸 수 있겠으며 더구나 선대부의 썩지 않는 사업이 어찌 다른 사람의 말을 기다리겠는가?“ 하였으나 진사군은 고집을 마지않고 자주 왕래하며 예의를 갖추고 또한 가장을 두고 간 지가 이제 3년이나 되었다.

내가 그 정성의 지극함에 감동해서 시험 삼아 그 가장을 열람하고 읽으니 공은 세상에서 일컫는 우리 나라의 태백이라 할 수 있는 양녕대군의 7세손이다. 두 번 전해서 호산군 소평공 휘 현은 성묘조의 좌리공신이다. 휘 영남은 진안부정이고 휘 희년은 봉사이고 휘 세량은 증참판으로 완흥군이고 휘 목은 참의로 증참찬 환영군이다.

소평공의 장자 휘 수남은 보안부정이고 휘 희손은 문과 첨추로 아들이 없어 완흥군을 취해서 후사를 삼았으니 이가 공의 고조 증조 조부와 아버지가 된다. 양녕의 후손이 대대로 인물이 있었으나 공에 이르러 더욱 명성이 있었다. 공의 사람됨은 가늘고 야위었지만 정채가 사람에게 쏘았으며 동자 때로부터 말을 하면 이치에 맞으며 아담한 지조를 스스로 지키니 아는 이나 모르는 이가 그 하는 바를 보고 모두 나라의 인재라 하였다. 계해년 중흥을 만나서는 문예를 가지고 과거 응시해서 늘 합격하니 명예가 성대하였다.

남서에서 출발해서 6부를 다하고 경오년에 정언이 되고 계유년에 사서로 옮겼고 사이에 막좌 반자의 제수도 있었다.

을해년에 지평이 되니 이 때 임금이 하늘의 재앙을 인해서 인성군의 아들딸을 풀어주는데 사헌부의 신하들이 그 명령을 잠재우자 공은 조수익 강대수와 더불어 정등계에 합력해서 임금의 뜻을 순응하니 이 때문에 모두 탄핵을 입었으나 아는 자들이 아름답게 여겼다. 병자년에 예조낭관으로 서장관에 차출되었는데 임금이 그 병들고 늙은 어버이 있음을 알고 특령으로 고치게 했으니 특이한 은전이다.

그해 겨울에 홍문관수찬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차자를 올리니 차자의 글이 공의 손에 이뤄졌으니 말하되 "적과 화친을 맺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서쪽으로 나가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되니 공은 어머니 병환 때문에 고삐를 잡고 따르지 못하였다. 다음 해에 과연 어머니 상사를 태안반도에서 만나고 상제가 끝나자 또 수찬이 되었다가 교리로 오르고 헌납에 옮기어 일을 말하니 풍속의 의론과 다름이 없었다. 이때 완령은 평창에 부임했는데 임오년에 경기도 막좌가 되어 모친 병환에 달려가서 구원하다가 영결종천의 애통을 만나고 갑신년에 겨우 상복을 끝내면서 장령으로 부르니 공이 울면서 사양하기를 "볼 것 없는 작은 신하가 죄가 크고 악이 쌓여 6년 내에 부모가 함께 돌아갔으니 지금 고신의 도리로서는 오직 효도를 충성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하고 드디어 상소를 올리니 상소가 모두 2000자가 넘었다. 그 말을 음미하여 볼 만하니 총괄하면 나라의 근본이 넘어지려 함이고 공신과 귀척이 너무 횡행함이고 팔, 다리 노릇하는 신하들이 적당한 사람이 아니고 음식을 갖추어 객사에게 아첨함이 소금밭을 베어내어 주인집에 유리하게 함이다.

거슬러 올라가서 위로 임금의 잘못을 말하되 “작은 재미를 즐기고 큰 걱정을 도모하지 않으며 구중궁궐에 깊이 거처하니 친한 바는 오직 내관과 궁첩들뿐이다.” 하여 착착한 말이 회피함 없으니 임금도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또한 권장하면서 발탁해서 비서대열에 두었다. 사람들은 이르되 공의 이 상소문은 밝기가 가의와 같으면서 방술이 엉성하지 않고 글 솜씨는 경여를 이었으니 간곡함이 높은 의원과 같아서 나라를 의료하면 창편도 여기에는 양보하리라 하였다. 임금의 비답에 이르되 “너의 의론이 정직하고 식견도 고명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러 발탁하였으니 사양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좌부승지로 있다가 을유년에 황해감사가 되니 이때 황해도에 기근이 심하고 뱃길도 막히고 객사들이 서로 함협해서 모든 폐단이 모여들었다. 공은 본표를 고찰해서 변하기도 통하기도 하니 마음을 다하는 바가 오직 황정에 있었다. 호조판서 민성휘와 더불어 옳고 그름이 다투는데 공의 말은 기민을 구제함에 있고 호판은 경비를 줄이자는 것이었으니 지금까지도 의혼하는 사람들이 호판이 자기 소견을 버리고 남의 착함을 더불어 주지 못한다고 한다. 성이 무너진 것을 새롭게 하고 급한 역말의 원망하는 자를 휴식시킴은 공의 나머지 일이다. 병술년 팔월에 임금의 부름을 받아 회맹하는 잔치에 참예하고 가선대부에 올랐다가 또한 뒤따라 명령을 내려 만기되면 돌아오라고 하였다.

정해에 지신사가 되고 조금 있다가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안주에 이르니 역적 정명수가 술을 먹고 행패하여 임금의 편지도 물리치고 전위사에게 욕설을 자행하거늘 공이 명수를 보고서 사리로 타일러 꺾으니 명수가 부끄러워하고 굴복하였다. 이때 서쪽의 백성들은 살을

깎고 골수를 뽑아 세마를 공급하니 저쪽의 사신들만 가혹해서가 아니라 우리 측의 사신들도 실상 본받아 그러하였다.

공은 일체 법도대로 다스려서 먼저 우리 측 사신부터 바로잡으니 서쪽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 역적 이형장은 정명수를 끼고서 악한 짓을 서로 도와 끝이 없거늘 공은 조금도 덮어주지 않으니 명수가 문득 조정에 무고해서 공을 서도감사에서 교체시키었다.

겨울 대시간이 되고 무자년에는 예조참판으로 영남을 관찰하니 공이 정치를 함은 교화로써 일을 삼아 학궁을 일신하니 경학과 문장이 빈빈하게 배출되었다. 군정이나 성지나 민세들이 국법에 어긋났으면 모두 위로 올리어 다시 고치고 수정해서 바르게 함을 황해도에 있을 때와 같이 하여 때로는 더 자세히 한 것도 있으니 백성들이 환호하며 하례하였다.

기축년 겨울에 우윤으로 들어와서 이르되 "영남은 이재의 창고라 조종조에서부터 힘입었으니 지금은 비록 옛날에는 못 미치지만 열 집만 사는 마을에 충신이 있다는 말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영남의 산물이 많고 땅이 큼은 팔도에서도 가장 먼저하며 백성들의 폐막도 팔도보다 곱이나 되니 원하옵건대 임금께서는 마음을 더 쓰소서." 하고 또 이르되 "어진 이를 구하고 충성을 나오게 하되 옛날부터 임금들이 목마른 것처럼 하는 자가 어목을 구슬인 줄 알고 가라지를 곡식으로 알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하였다.

공이 아뢰는 말이 정직함도 있고 풍자도 있으니 임금이 몸을 비워 듣고 좌우에서는 감탄과 질투가 서로 섞이었다.

경인년에는 청나라 구왕이라 하는 자가 우리 자문 중에서 왜정과 성지와 표한에 대한 세 가지 일을 지적해서 사찰을 하니 나오는 사

신은 파기와 정명수이다. 공이 노협과 더불어 사찰에 대하는데 그때 안찰사는 동래수였으니 당시의 우리 자문의 득실을 공은 실상 캄캄하게 모르는 일이었다. 사건이 나타남에 뭇 입들이 시끄러워 화가 장자 불칙한데 모두 공에게 돌리니 이상하도다.

공은 웅대 변론을 자상히 해서 한마디 말도 어긋나지 않고 절실해서 한 가지 일도 잃지 않으니 명수가 감시 다시 힐난하지 못하고 좌우에 있던 여러 재상도 모두 감탄하였다. 나 같은 사람은 앉아 있는 자리가 공과 달랐는데 명수가 성내거늘 내가 그의 숨기는 바를 꼬집으나 오래도록 어둔해서 어찌할 수 없었다. 그 후에 바깥의 의론을 듣고 풍파가 실상을 변경시켜 마침내 공은 감옥에 들어가니 의금부에서 홍성으로 유배시키고 또한 대간의 탄핵이 있어서 영변으로 옮겼다.

신묘년에 청나라 사신이 와서 이르기를 이만과 노협은 죄 없다 하므로 조정에서는 청나라의 사면을 따라 공을 기용해서 정주 연위사에 차용하고 황해감사를 시키니 공은 실정을 아뢰어 사면을 요하였는데 비답으로 허락하지 않자 재차 사양하여 체직되었다.

가을에 강화 유수의 명령이 또 내려오니 공은 전후에 걸쳐 죄가 쌓였다고 사양하였다. 임금은 특별히 불러 보시어 이르되 경은 하나의 하자도 없으니 새로운 명령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공은 임소에 가니 윤탁과 동안우의 정치하는 방법으로 다스림을 하고 전함을 다스리되 일체 도사행의 방법과 같이 하였다.

임진년에 노협이 정주에 부임했다가 탄핵을 받으니 공은 죄는 같고 벌이 다르다고 사양하였다. 임금이 이에 천둥번개를 빙자해서 승정원에 엄격한 전교를 내리되 “누가 일을 맡은 신하들로 하여금 그

직무에 편안치 못하게 했는가? 이 모두 번거로운 말을 하지 말라." 하고 그 상소를 돌리니 공은 임금을 뵙고 변방 보장하는 일을 아뢰기를 정밀하게 하였다. 임기가 다함에 묘당에서 그대로 맡겨두자고 청하였다. 계사년 겨울에 사각(史閣)에서 불이 나니 공은 죄를 기다렸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화재는 악속(惡俗)에 연유하였으니 경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는가? 공은 4년 동안 강화도에서 구획을 남김이 없었다. 강도에 은거하였는데 강도에서 교안에 기록된 자들도 정(丁)자를 모르니 공은 생각하되 윗사람에게 친근하고 어른 위해 죽는 도리가 어디에 나오겠는가? 하고 촌수재(村秀才)로 가르칠 만한 자들을 선택해서 학량을 풍요하게 하고 병사(兵舍)에 거처하면서 외우고 읽음을 일과로 삼아 1년도 안 되어 크게 변했으니 공은 참으로 근본을 아는 것이다.

갑오년에는 병조참판으로 옮겨 미처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호남의 관찰사로 바꾸니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오직 명령대로 따른 자가 공이 아니겠는가? 이때 호남이 또 흉년 들어 백성들이 서로 도망하여 죽어도 위문도 없었다. 공은 즉시 진구(賑救)하는 방책을 올리니 임금도 모두 이제 따랐다.

을미년에는 조정 의론이 산성과 바다 섬에 요새지 설치하는 일로 중신 이후원을 보내어 살피게 했다. 공은 이후원보다 뒤에 가서 여러 섬의 형세를 그림으로 올리니 대저 오로지 강화도의 구원을 위함이었다. 그 아룀의 비답이 내려오기 전에 흥양의 유생 정석의 옥사가 일어나니 해와 달 같은 밝음도 의심이 없을 수 없었다. 도신(道臣, 도백을 말함)이 일을 완화시켰으니 공은 여기에 좌죄해서 벼슬이 삭

탈되고 시골로 내려와서 생활한 지 두 해 만에 정유년에는 서용되어 금성현감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평안병사로 옮겼다.

무술년 겨울에 관찰로 옮기었다. 공은 서쪽 지역의 관찰이 된 것도 세 번이나 되었다. 서쪽 지역의 이해를 분명하게 보고 조금도 빠뜨림 없이 마른 데는 기름을, 시든 데는 깨어남을 베풀어 힘이 못 미칠까 염려하였으나 또한 중산의 상자에 맞춤을 면치 못하였다.

경자년에는 공조참판으로 말미암아 충청감사가 되니 이때 온 나라가 흉년이 들었으나 충청도가 가장 더해서 갑오년의 충청도 흉년과 다를 바가 없었다.

공의 나라 걱정과 백성 사랑은 천성이었다. 여러 차례 굽히고 여러 차례 곤욕을 치뤄 뉘우치거나 혐의하지 않고 흉년 구제의 정사에 마음을 다해서 범중엄 부필·한기의 남긴 법도를 따랐다. 이로 말미암아 충청도의 백성들은 마침내 구렁에 구른 자가 없었으며 또한 문서로 속이는 것을 막고 돌아왔다. 계묘년에는 호조참판으로 청나라 가는 사신에 충원하였고 돌아옴에 종자 중에 청나라에서 크게 금지하는 석류를 사 온 자가 있어서 공이 이 때문에 해직되었다.

공은 일찍이 두 어버이가 난리 중에 돌아가시어 임시 매장되어 있음을 밤낮으로 침통하였는데 이제 짐을 벗었으니 그 틈을 타서 곧 대흥에 있는 좋은 언덕으로 옮겼다. 공은 비록 면례하는 길에서도 울고 애통함을 초상을 만난 자같이 하니 자제와 친척들이 서로 간해도 듣지 않았고 병을 얻어 며칠 안 되어 돌아가니 갑진년 추 7월 22일이었다. 공이 돌아감을 듣고 사대부는 말할 것도 없으며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 모두 슬퍼하고 아까워함을 마지않았다. 서울이나 지방의 아전들도 모두 이르되 “재주 있고 어진 신하가 없어졌네. 나라가 충

신을 잃었네." 하였다.

아! 슬프도다. 공은 침체해 있는 의로운 몸으로 숨은 선비라는 기이한 명예도 없고 김장허사 같은 귀족의 도움도 없이 하루아침에 조그마한 붓대를 잡고 한 자나 되는 종이에 충성의 뜻을 토했으니 밝은 임금이 서로 만남이 늦음을 한했으며 해마다 벼슬을 내리고 올려줌은 말할 것도 없다. 공이 진언한 바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있는가? 대저 남들에게 어려운 일은 공의 쉬운 것이고 남들이 추창하는 바는 공의 피하는 일이로다. 험하고 막히며 어려운 일을 공은 평탄한 길로 보았으며 힘들고 거센 일에도 공은 시원하게 해냈으니 효종 임금이 공을 총애해서 모든 신하들보다 특별히 함은 이 때문이었다.

경인년 사찰에 임금이 특별히 나중인을 보내서 호조의 돈을 가지고 정명수에게 풀어주기를 구했으니 여기에서 그 임금과 신하를 알 수 있도다. 애당초 신풍부원군 장유가 고시관이 되어 공의 글을 제일로 뽑으니 그가 취한 바가 홀로 그뿐이리오? 장유는 참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직감이 있다 하겠도다. 공이 다른 기술에도 익히지 않아서 세시복납의 제사 물품이 다 여기에서 나왔으며 남에게 조금도 요구하지 않아 시대의 폐습을 바로 잡았다 한다.

공의 외할아버지 용원부원군 윤공 자신은 바로 명조 선조 때에 공로 있는 어진 신하이니 오래 호조에 있으면서 정명하고 민첩해서 소문이 자자했다. 의론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공이 그 외할아버지를 닮았다 한다. 공이 조정에 나선 지 몇 십 년에 백성의 병폐에 급히 하고 스스로 양보하는 지조가 특별히 나타나서 옛날 사람만 못하지 않았으며 임금에게 알아주심을 받은 바도 또한 세상에 드문 일이었으

니 누구만 못하리오마는 벼슬이 2품에 그쳤으니 수명도 길지 못하여 쌓은 바를 다 쓰지 못하였으나 세상에서 본 바는 번개 빛이나 들불에 비하겠도다.

아! 슬프도다. 부인은 문화유씨니 첨지중추로 내승을 겸직한 희성의 따님이니 공보다 8년 뒤에 돌아갔고 공의 묘소를 옮겨 해좌 사향한 새 산에 합장하였다. 1남 2녀를 낳았으니 남에 증은 문과로 부윤이고 사위에 송광엄은 도사니 일찍 돌아갔고 다음은 민종도니 판서이다. 증의 초취는 감사 이진의 따님이니 1남 1녀를 낳았으니 석복은 진사이고 사위는 홍서공이다. 재취는 진사 조사항의 따님 2남 4녀를 낳았으니 남에 석지와 석조는 생원이고 사위에 우덕구는 참봉이고 사위에 남수현은 문과 장원으로 현감이고 사위에 한종렬은 진사이고 사위에 홍사보이며 측실의 사위는 김몽성이다.

민종도가 3남 3녀를 낳았으니 남에 언량은 급제하고 언상은 진사이고 언광도 진사이며 사위에 이효근은 정언이고 이후와 한종석은 진사이다. 석복은 아들 용하와 귀하가 있고 석지 아들 서하는 진사이고 명하와 필하이고 서자는 달하이다. 귀하가 1남이 있으니 주경인데 장방의 후사가 되었고 또 기른 아이가 있었다. 명하가 3남이 있으며 필하도 1남이 있으니 모두 어리다.

명에 이르되 양녕대군의 후손에 공과 경이 많이 있었으니 왕릉군에 이르러 소평공의 후사 되었네 공의 봉군은 소평을 이은 것이며 공의 재주 타고남은 나루에 뗏목이고 육지에 수레였으니 무엇인들 건너지 못하랴!

나라에서 공을 시험함은 어렵고 쉬움 구별 없었으니 서쪽이 중요하면 서쪽에 남쪽이 중요하면 남쪽에 했으니 거친 무리 왼쪽에서 다

스리고 마른 물건 오른쪽에 적시었네.

좋은 일에 반드시 참예하고 넘어지는 사람 반드시 일으켜 세웠네. 임금도 그 실천에 의뢰했고 군공들도 인재라 일컬었네. 정승에도 곧 오를 텐데 갑자기 떠나셨으니 강화도 쳐다보며 백성들 부르짖고 선비들도 탄식하였다.

공의 잡은 바는 충성과 효도가 근본이니 세 임금 섬기어 힘을 다하다가 눈 한 번 감으니 만세처럼 멀어졌구나. 후세의 군자들 공을 생각하면 반드시 눈물 흘리리라

아! 우리 증조할아버지 대사헌공의 집에서 행한 의와 조정에서의 사적을 세상에 인물시키지 못할 것이 있어 용주 조 선생이 이미 서술하고 또 명도 지었으나 할아버지께서 구 년 동안 국사에 힘쓰다가 겨를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아버지께서도 삼대 묘갈의 역사에 힘을 다했지만 마음만 있었고 성취하지 못하니 불초한 손자 용하가 늘 게으르고 희미하여 드디어 초상 치르고 병든 나머지에 겨우 재력을 모아 비로소 묘소에 비석 세움을 도모하니 중간 80여 년 동안 내외 자손들이 죽은 이도 있고 태어난 이도 있으며 과거와 벼슬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기록하노라.

종손 용하는 삼가 쓴다.

숭정기원후 125년 임신 증손 용하(崇禎紀元後壬申曾孫龍河)는 삼가 쓰다.

소재지 :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응봉면지에서>

(4) 전평택현감 장공계환주휼시덕비

(前平澤縣監 張公啓煥周恤施德碑)

무술삼월 일 북면입(戊戌三月 日 北面立)

(5) 전응봉면장이공봉주기념비(前鷹峰面長李公鳳周紀念碑)

신유십일월 일입(辛酉十一月 日立)(1921年)

리무칠재연봉대세　　莅務七載捐俸貸稅

관혜겸공휼궤주궁　　寬惠兼公恤匱賙窮

경뢰안시차편석　　境賴安視此片石

사염퇴영혜명용　　辭恬退永憓銘佣

(6) 응봉공입보통학교기성회장백중현기념비

(鷹峰公立普通學校期成會長白重鉉紀念碑)

소화십일년오월 일입(昭和十一年五月 日立)(1936년)

(7) 임공병기(林公炳冀)

연천흥학 자혜보시　捐賤興學 慈惠普施

지존유몽 주빈막궁　志存牖蒙 周貧鄚窮

평길궁행 첨일난기　平吉躬行 僉日難忌

곽제○공 견석기공　廓齊○公 堅石紀功

오가면(吾可面) 내에 건립된 것

(1) 암행어사홍공철주영세불망비(暗行御史洪公徹周永世不忘碑)

상체국사 일당환구　上體國賜 一塘還旧

하념민명 천강귀정　下念民命 千襁歸正

년계춘수 자자요석　年季春水 字字樂石

공택부갈 여송물체　公澤不渴 輿頌勿替

숭정기원후오정묘 사월 일입(1927년)

崇禎紀元後五丁卯 四月 日立(1927년)

(2) 김공지태혜휼기념비(金公智泰惠恤紀念碑)

천자순수 위공위례 애차궁민 호징급기

天姿醇粹 爲公爲禮 哀此窮民 戶徵及期

타고난 자품이 순수하고 공을 위하여 또는 사를 위하여
이 곤궁한 서민들을 불쌍히 여겨 호세의 납기가 돌아오면

성도원관 능적능산 방호경계 납완무계

性度愿款 能積能散 方呼庚癸 納完無計

성품도 삼가고 관대하였다. 능히 쌓기도 하고 능히 헤쳐주기도 하였다.
말하면 다 들어주었다. 모두 다 납부하고 말이 없었네

일시자비 여씨상휼 어휴성덕 전석삼척

一施慈悲 呂氏相恤 於休盛德 鐫石三尺

한결같이 자비를 베풀어서 옛날 남전여씨의 구휼 정신 이은
아! 아름다운 성대한 덕택이어서 석 자쯤 되는 돌에 공덕을 새겨

강제여리 범공고의 비야감지 소시무강

康濟閭里 范公高義 俾也敢志 昭示無彊

여러 마을을 편안히 구제하였네. 옛날 범여공의 높으신 의리로다.
우리 둘이 감히 잊을 수 있을까 밝게 보여 주기를 한없이 하려 하네.

소화십년 삼월 일 오가면민일동(1935年)

昭和十年 三月 日 吾可面民一同(1935年)

(3) 전면장임명호씨치적기념비(前面長任命鎬氏治績紀念碑)

관면십재 증민안돈　管面十載 烝民安頓

사사공평 일경징청　事事公平 一境澄淸

누누보폐 건교육영　累累補弊 建校育英

외외성명 인문개명　嵬嵬成名 人文開明

대정십오년 팔월이십일 오가면민일동

大正十五年 八月二十日 吾可面民一同(1926年)

(4) 충신효자가의대　　忠臣孝子嘉義大

부동지중추부　　夫同知中樞府

박신흥지려　　朴信興之閭

병술 사월 일(丙戌 四月 日)

(5) 근목우희대공영세송덕비(根木宇喜大公永世頌德碑)

일유인인 대명유하 자성온후 우희주휼

日有仁人 大名維何 姿性溫厚 尤喜周恤

재피홍성 근목발책 수행청평 재로송성

在彼洪城 根木發策 操行淸平 載路頌聲

미발한름 몽은궁절 서래활불 편석감어

米發漢廩 蒙恩窮節 西來活佛 片石堪語

화거제향 부면예유 남도자항 영권불망

火擧齊鄉 夫免翳桑 南渡慈航 永圈不忘

소화십일년 이월 일입(昭和十一年 二月 日立)(1936年)

(6) 국사보감시현공남규기념비(國賜洑監視玄公南奎紀念碑)

협찬장무 노불탄약　協贊掌務 勞不憚若

감시주력 단이수적　監視注力 剸理隨適

우이부침 경가필뢰　雨而不浸 耕稼必賴

한이부적 비군이숙　旱而不滴 非君伊孰

병자 사월 일입(丙子 四月 日立)(1936年)

(7) 국사왕수리계이사오공시영공덕비

(國賜塘水利稧理事吳公始泳功德碑)

장리보사 부과경감　掌理洑事 賦課輕減

사무불광 부역공평　事無不匡 赴役公平

적폐소진 손기익중　積弊消盡 損己益衆

몽리증왕 공덕가송　蒙利增旺 功德可頌

소화십일년 오월 일(昭和十一年 五月 日立)(1936)

(8) 국사보계장권공영섭기념비(國賜洑契長權公寧涉紀念碑)

유국사보 장계총할　維國賜洑 長契總轄

백세은택 석화합책　百世恩澤 惜畵合策

진막조거 일공일노　陳瘼條祛 日功日勞

안차가색 함송근석　安此稼穡 咸頌勤石

병자 사월 일입(丙子 四月 日立)(1936년)

덕산면(德山面) 내에 건립된 것

(1) 현감이후성한청덕애민선정비(縣監李候聖漢淸德愛民善政碑)

강희사십이년 구월 일입(康熙四十二年 九月 日立)(1703年)

(2) 전면장김건식기념비(前面長金建植紀念碑)

장면방재 진재복생 간선진력　長面方載 賑災復生 幹旋盡力

무민소지 구막함희 안집유리　無民所지 救瘼咸喜 安集有理

임성우적 사약자극 애각보적　任城優績 事若刺戟 愛刻寶蹟

수토우미 사여달사 영시래이　水土尤美 辭如脫屣 永示來○

(3) 종칠위훈칠등(從七位勳七等)

천월성길송덕비(川越誠吉頌德碑)(가와고에세이기찌)

공인차경 담인업무 관후소작 公人此卿 擔人業務 寬厚小作

시적기저 폐백개량 국부초요 施績旣著 廢佰改良 窮蔀稍饒

전발지방 궐공여사 송덕일경 展發地方 厥功如斯 頌德一境

진시열요 민점하기 성일근비 塵市熱鬧 泯點何己 成日勤碑

소화십일년사월십구일 입(昭和十一年四月十九日 立)(1936年)

(4) 현감이후명준청덕영모비(縣監李侯命俊淸德永慕碑)

만력삼십구년이월 일입(萬曆三十九年二月 日立)(1611年)

(5) 현감박후준양영세불망비(縣監朴侯竣陽永世不忘碑)

도광이십육년병오오월 일입(道光二十六年丙午五月 日立)

(1846年)

(6) 군수신후석유영세불망비(郡守申候錫游永世不忘碑)

동치칠년무진삼월 일입(同治七年戊辰三月 日立)(1868年)

(7) 관찰사김공응근영세불망비(觀察使金公應根永世不忘碑)

함풍십일년사월 일입(咸豊十一年四月 日立)(1861년)

(8) 군수김후재학영세불망비(郡守金候在鶴永世不忘碑)

함풍십일년십월 일입(咸豊十一年十月 日立)(1861)

(9) 현감민후치납영세불망비(縣監閔候致訥永世不忘碑)

도광십칠년정유칠월 일입(道光十七年丁酉七月 日立)(1837年)

(10) 관찰사심공의신영세불망비(觀察使沈公宜臣永世不忘碑)

도광십칠년정유칠월 일입(道光十七年丁酉七月 日立)(1837年)

(11) 군수조후의승영세불망비(郡守趙候義升永世不忘碑)

동치십이년이월 일입(同治十二年二月 日立)(1873)

(12) 군수이후택호영세불망비(郡守李候宅鎬永世不忘碑)

광서육년경진오월 일입(光緖六年庚辰五月 日立)(1880)

(13) 군수오후윤영애민선정비(郡守吳候胤泳愛民善政碑)

불허민감 래하기모 不許民歛 來何其暮

읍차전연 귀하식속 邑此顚連 歸何式速(1878年)

(14) 관찰사남공일우영세불망비(觀察使南公一祐永世不忘碑)

갑신오월 일입(甲申五月 日立)(1884年)

(15) 군수조공연승비(郡守曺公演承碑)(1863年)

(16) 김공갑수비(金公甲秀碑)

(17) 홍주초토사이공승우비(洪州招討使李公勝宇碑)(1894年)

(18) 백공충기비(白公忠基碑)

(19) 송만공비(宋滿空碑)

(20) 인무배기념비(印茂培紀念碑)

(21) 덕산군수조공두환비(德山郡守曺公斗煥碑)(1894年)

(22) 이근엽불망비(李根曄不忘碑)

봉산면(鳳山面) 내에 건립된 것

(1) 충장공이씨신도비(이의배)(忠壯公李氏神道碑)(李義培)

(2) 문목공신도비(조극선)(文穆公神道碑)(趙克善)

(3) 조야곡신도비(조극선)(趙冶谷神道碑)(趙克善)

(4) 이취암신도비(이흡)(李醉庵神道碑)(李洽)

신암면(新岩面)내에 건립된 것

(1) 완당선생묘표(阮堂先生墓表)(金正喜)

正祖在宥右文崇儒冠絶百王於是碩學之士蔚然中興磊落相望若燕巖淵泉雅亭貞蕤茶山杞園其尤也先生有大焉承諸賢之後恢弘展拓爲振古

之通儒嗚呼何其盛也先生諱正喜字元春號阮堂又號秋史我慶州之金胄于新羅卿相于高麗麗季有諱自粹號桑村魁科任至都觀察使逮鼎革自盡以樹大節八傳而諱弘郁號鶴州以文章政事稱

孝宗時以黃海道觀察使抗疏訟姜嬪寃忤旨遘禍後因兩宋文正言復其官肅宗朝褒　贈吏曹判書諡文貞於先生爲七世祖高祖諱興慶領議政諡靖獻忠厚公正有古大臣風曾祖諱漢蠹尙　英祖第二女和順翁主封月城尉諡貞孝淸愼文雅貴不離士貞孝公喪主絶水漿而殉　英祖書揭靈筵曰誠淺莫回嘉示隨貞 正祖特命旌之曰烈女祖諱頤柱右叅贊 贈左贊成諡靖憲德學俱優朝野倚望考諱魯永禮曹叅判妣貞夫人南陽洪氏縣令諱大顯女先生實叅判公季弟吏曹判書酉堂諱魯敬長子而入爲嗣本生妣　贈貞敬夫人杞溪兪氏郡守諱駿柱女妊二十四月而生先生 正祖丙午六月三日也

六歲書春書帖于門貞蕤朴公見而異之訪於酉堂公而見先生大加稱歎曰堂以學勢名世吾將敎而成之　純祖己巳成進士冬從酉堂公使于燕時翁覃溪方綱阮芸臺元以間也鴻博名位俱隆一見先生莫逆也辨論經旨旗鼓當不肯相下乃以石墨書樓百架秘籍餉之於是昔之深資於父師者又左右逢原矣如吳蘭雪朱佰韓葉東卿翁星原李心莽曹玉水朱野雲李墨莊洪介亭金宣園近園諸名士皆慕與之交推以通儒厥後碑帖畵軸詩箟文卷相屬無虛歲芸臺撰經解爲卷千四百十三經校勘記經籍纂詁等書皆巨怯也當世諸大家莫之見特先寄先生草本覃溪卒時寄筆記一部精審四部書及詩義書法者又嘗摹寄歐陽文忠黃文節公像爲先生曰壽以二公生日亦在六月也諸名士亦於六月三日瀝酒作節爲圖而寄之申紫霞見覃溪燕室不留一物惟挂先生書數聯而己其重如此己卯擢第歷注書翰林奎章閣待制議政府檢詳　經筵春坊玉

堂諫院憲府常帶知製敎間爲御史湖西丁亥通政拜承旨遷輔德大司成吏禮兵三曹叅議

憲宗丙申嘉善除兵曹叅判己亥叅判刑曹庚子獄起辭連先生先是權威害酉堂公讜論竄于島四載始宥還猶不饜且疾先生剛正滋欲置之死至是誣以浸異學犯不軌駭機蒼黃禍在不測先生擧止如他日從容對簿辨析峻整雖捃摭無所執卒追奪酉堂公官爵投謫先生濟州濟絶島也海鉅又常多風人涉恒旬月先生方解舟忽大風濤以霹歷舟中人皆襄魄先生擬然坐柁頭有詩高詠聲與風濤相上下因擧手指點曰篙師力挽柁向此舟乃疾朝發夕至濟亦異矣居濟九年益間適溫書訓迪州人人文大開

哲宗辛亥權相國敦仁駁議　宗禰之禮忤權戚竄連山先生坐主使遷北靑先生談笑手整書簏而行壬子宥還居果川酉堂公墓下五年而卒先生胚胎異稟天分過絶人甫弱冠貫徹百氏若山海之崇深及麗澤于中士學士大夫之間深涉請代文化之原流則其磅簿汪洋非常人所崖略也晩年反約在十三經尤邃易禮而巧古汀今實事求是特漢宋之平務歸於義理之精盖先生之爲經其諸異乎人之爲經矣其與世寫諧至遭竄遂亦與由焉

先生嘗題載笠小照云覃溪云嗜古經芸臺云不肯人云亦云兩公之言盡吾平生胡爲海天一笠忽似元祐罪人古歡姜瑋以閔杞園遺囑過海謁先生而請學焉先生喟然曰子不見我乎治經效如此學此究何用噫其自道也于天地之文律歷之數字之聲均以至道釋典藏金石譜錄皆快摘窈微書法又極古今之變矣嘗謂濟人曰某日當大風且拔屋宜防之至時果然象胥齎時憲歷來先生暫閱恠之曰中氣其錯序乎雲觀請正欽天監燕人覺之人有得一小刀以獻先生以錢七千賞之曰古切玉刀也後托門人金奭準售諸燕購書萬卷大內有硯適水自給無庸注命先生審之先生曰是蛇也烹之如其言人咸詫之先生笑曰坐諸君小讀書爾先生不慾以著述名至焚稿者再今刊行于世者卽吉光片羽

也

先生以哲宗丙辰十月十日甲午卒葬于禮山龍山先塋枕庚之原二夫人坿焉韓山李氏學生羲民女文敬公台重曾孫禮安李氏學生秉鉉女文正公柬玄孫俱賢而無育子族兄泰喜子商懋生員司果側室男商佑學官司果二女適李敏夏趙瓊熙以再從兄商黙子翰濟爲嗣文科承旨學官一男悳濟三女適申肅朝李義道宋淳一承旨以本生兄有濟子沂元爲嗣進士進士六男石煥歸嗣本生台煥同煥容煥絅煥國煥

先生孝友天出事父母諸父母至誠無少間酉堂公之竄也先生慟不欲生夜必泣祝天下寐寒暑一衣不易至宥還乃己晚亦載笠執燭而跣夜伏闕門外籲還官爵者屢矣丁巳始得其請而先生己前卒矣方彌留時仲氏亦病先生扶將朝夕其所而診之疾旣革猶門仲氏試藥否單心君國不以禍福少撓其精忠明白之氣可以簿日星而貫之金石在濟時　憲廟命書進扁帖中有紅豆時帖先生以爲紅豆之義終涉華藻附以少題寓箴諷之意而曰旣以書進有可以言進者知而不言亦所不敢其不變所守類此好奬掖後進多祓濯而振起者風儀邁爽氣度安和與人言藹然各得其歡及夫義利之際議論如雷霆劍戟人無敢格者仲氏諱命喜字性元號山泉亦賢而博先生時籍咨劄

噫世途故險笮先生之不見容固宜然其不容於世卽脫羈馽而專于學也

天於先生厚矣身否而道亨詘於一時而信於千秋亦可以無憾矣先生之沒今八十有二年矣墓石尙未具道人士醵金助之進士訪得司果公所斲埋碑版屬承烈記其陰顧不能任則惟述門人閔相國奎鎬所爲傳及聞於宗黨長老者謹而書之如此噫是何足爲先生之槩也

後學宗人承烈撰幷書

김정희 묘비문

[전면대자] 완당선생 경주김공 휘 정희 묘

정조가 왕위에 있으면서 문학을 높이고 선비를 숭상하니 백왕보다 뛰어났다. 이에 석학의 선비가 성대하게 일어나 앞뒤로 서로 바라보였으니 박연암·홍연천·이아정·박정유·정다산·민기원이 가장 우뚝하였는데 선생은 더 큰 것이 있었으니 여러 선현들의 뒤를 이어 넓고 크게 개척해서 옛날에도 드문 통한 선비가 되었으니 아! 어찌 그렇게도 성대한가? 선생의 휘는 정희(正喜)이고 자는 원춘이며 호는 완당이고 또한 추사라고도 한다. 우리 경주김씨가 신라에서 시작해서 고려에는 재상을 지냈고 고려 끝에 휘 자수는 호 상촌으로 장원급제해서 벼슬이 도관찰사에 이르고 조선조가 혁명함에 스스로 자결해서 큰 충절을 세웠고 8대를 내려와서 휘 홍욱은 호 학주니 문장정사로 일컬었다.

효종 때에 황해도관찰사로 상소해서 강빈(姜嬪)의 원한을 풀어주자고 말하다가 임금의 뜻에 거슬려서 화를 만났다. 뒤에 양송문정(兩宋文正)의 말로 인해서 그 벼슬을 회복하고 숙종조에는 포창해서 이조판서를 증직하고 시호는 문정이었으니 선생의 7대조가 된다. 고조의 휘는 홍경이니 영의정으로 시호가 정헌이고 충후공정해서 옛날 대신의 풍도가 있었다. 증조의 휘는 한신이고 영조의 따님 화순옹주에게 장가들어 월성위에 책봉되고 시호가 정효니 청신하고 아담하여 귀하게 되어서도 선비에 떠나지 않았다. 정효공의 상사에 옹주가 미음도 끊은 채 하종하니 영조가 영연에 쓰기를 "정성이 얕아서 돌릴 수 없으니 너의 따라간 정절을 아름답게 여기노라." 하였고 정조가 특명으

로 정문하여 열녀라 하였다 할아버지의 휘는 이주로 우참찬으로 증좌찬성이고 시호가 정헌이니 덕망과 학문이 함께 넉넉하여 조야에서 의지했고 아버지 휘 노영은 예조참판이고 어머니 정부인 남양홍씨는 현령 휘 대현의 따님이다. 선생은 실상 참판공의 막내 아우 이조판서 유당 휘 노경의 장자로 입계해서 계사가 되었다. 본생 어머니는 증정경부인 기계유씨로 군수 휘 준주의 따님인데 임신한 지 24개월 만에 선생을 낳았으니 정조 병오년 6월 3일이다.

여섯 살 때 춘첩(春帖)을 써서 문에 걸었는데 정유 박공이 보고 다르게 여겨 유당공을 찾아 선생을 보고 크게 칭찬하며 말하되 "마땅히 학문과 예술로 세상에 이름이 날릴 만하니 내가 장차 가르쳐서 성공시키겠다." 하였다. 순조 기사년에 진사가 되고 겨울에 유당공을 따라서 중국 연경에 가니 옹담게 방강과 완운대 원이 세상에 드문 박학으로 명망과 벼슬이 함께 높았는데 선생을 한 번 보고 막역간이 되었으니 경서의 뜻을 변론함에 깃발을 서로 내리지 않을 만하였다. 이에 석묵서루의 백가비적으로 주니 여기서부터 전날에 부사에게 깊이 배운 바와 또한 좌우로 서로 만나게 되었다. 오난설·주백한·섭동경·옹성원·이심암·조옥수·주야운·이묵장·홍개정·김의원·근원 등 여러 명사들이 다 사모해서 사귀고 싶어 했으며 박통한 선비로 추대하고 그후로 비첩과 화축과 시통과 문권을 서로 이어 교환해서 빈 해가 없었다. 운대는 경해를 지었으니 1,400권이고 13경 교감기와 경적찬고 등의 글이 모두 큰 저술인데 그 당시 여러 대가들도 본 이가 없는데 특별히 먼저 선생에게 초본을 보냈고 담계가 돌아갈 때 필기 일부와 정심사부서와 시의서법을 보냈고 또한 일찍이 구양문충공과 황문절공의 초상을 모방해서 선생의 생일의 축수를 하였으니 두 분

의 생일이 또한 6월에 있기 때문이었다. 여러 명사들도 또한 6월 3일에 술을 뿌려 대를 만들고 그림을 해서 보냈다. 신자하도 담계의 거실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오직 선생의 글씨 몇 폭만 걸려 있을 뿐임을 보았다 하였으니 그 존중을 받음이 이와 같았다. 기묘년에 급제에 올라 주서와 한림과 규장각대제와 의정부 검상과 경연·춘방·옥당·사간원·사헌부에 역임하고 늘 지제교를 겸임하였으며 사이에 호서지방의 어사도 하였다. 정해년에는 통정으로 승지가 되고 보덕과 대사성과 이조·예조·병조의 참의를 두루 지냈다.

헌종 임금 병신년에는 가선으로 병조참판이 되었다. 기해년에는 형조참판이 되고 경자년에 옥사가 일어나니 선생에게까지 연루되었다. 이에 앞서 권신 척신들이 유당공의 곧은 의론을 방해해서 섬으로 유배시켰다가 4년 만에 비로소 풀려 돌아왔는데 오히려 미워함을 마지 않고 또한 선생의 강직을 미워해서 더욱 죽는 형벌로 다스리고자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함하기를 이단의 학문에 빠지고 역모에 가담했다 하여 놀라운 기미가 복잡하여 앙화가 헤아릴 수 없었다. 선생은 거동이 평일과 같고 조용히 문서를 대하여 변석함이 정연하니 아무리 얽어 넣으려고 하지만 잡을 것이 없었으나 마침내 유당공의 벼슬을 빼앗고 선생을 제주도로 귀양 보내니 제주는 지극히 먼 섬이라 바다가 크고 또한 항상 바람이 많아서 사람이 건너가려면 항상 열흘 이상 한 달이 걸리었다. 선생이 막 배를 띄우자 갑자기 큰 바람과 파도에 뇌성벽력도 함께 하니 배를 탄 사람들이 모두 넋을 잃었는데 선생은 응연히 뱃머리에 앉아서 시를 높은 소리로 읊으니 그 소리 풍랑과 함께 오르내리었다. 인하여 손을 들어 가리키며 말하되 "사공은 힘껏 돛을 잡아당겨 이쪽으로 향하게 하라" 하니 배가 빠르게 움

직여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제주도에 이르렀으니 또한 이상하도다. 제주도에서 9년을 살면서 더욱 한가로워 글을 연구하고 고을 사람을 가르치니 문명이 크게 열리었다.

철종 신해년에 권정승 돈인이 종이의 예문을 논박하다가 권신 척신에 거슬려서 연산으로 유배되고 선생은 주사에 좌죄되어 북청으로 옮기니 선생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손수 서책을 정돈하며 떠났다. 임자년에 풀려서 돌아오니 과천의 유당공 묘소 아래서 살다가 5년 만에 돌아갔다. 선생은 특이한 자품으로 태어나서 천품이 남보다 뛰어났고 겨우 20여 세에 백가서를 관통하니 산과 바다같이 높고 깊었다. 중국 가서 학사대부들 사이에서 강마하며 청나라 문화의 원류를 더듬고 섭렵하니 그 방박지고 왕량함은 보통 사람으로서 따를 바가 아니었다. 만년의 요약된 공부는 13경에 있었으며 더욱 주역과 예학에 밝았다. 옛것을 고증하고 지금에도 참고하여 실지의 일에 옳음을 찾았으며 한나라와 송나라의 학문에 공평함을 잡아 의리의 정밀한 데로 돌아가기를 힘쓰니 대저 선생의 경학연구는 다른 사람들의 경학공부와 달랐도다. 세상과 합하지 못하여 유배 추방을 만남도 또한 연유가 있을 것이다.

선생이 일찍이 대립소조에서 쓰기를 "담계는 옛 경서를 즐기었다 했고 운대는 남이 말하는 대로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하였으니 '두 분의 말이 나의 평생을 다한 말이다. 어찌해서 바다 하늘의 한 삿갓이 갑자기 원우의 죄인과 같이 되었는가?' 하였다. 고환 강위는 민기원의 부탁으로 바다를 건너 찾아가서 선생을 뵙고 배움을 청하니 선생이 탄식하며 이르되 "그대는 나를 보지 못하는가? 경서를 다스리는 효험이 이와 같으니 이를 배워서 끝내 어디에 쓰겠는가?" 하

였으니 아! 스스로의 표현이로다. 천문지리와 율력산수와 글자의 성운과 도교 불교의 경전과 금석보학에 이르기까지 모두 깊고 은미한 곳까지 파고들었고 글씨 쓰는 법도 예와 이제의 변화를 지극히 하였다.

일찍이기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어느 날 큰 바람이 불 것이며 집도 넘어질 것이니 방어를 잘해야 한다 하였는데 그 시간에 이르러 과연 그러했다. 아전이 시헌력(時憲曆)을 가지고 왔거늘 선생이 잠깐 열람하고 괴이하게 여겨 이르되 중기(中氣)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하니 운관에서 흠천감에게 요청해서 바로잡자고 하니 중국 사람들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의 조그마한 칼을 얻어서 드리니 선생이 돈 7천냥으로 값 주며 말하되 "옛날의 구슬을 자르는 칼이다." 하고 뒤에 문인 김석준에게 부탁해서 중국 연경에 가서 팔으니 서책 몇 만 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 대궐 내에 연적이 있어 물이 스스로 나오는데 물이 흘러나오지 않자 선생에게 명령해서 살펴보니 선생이 이르되 이는 뱀이라 하니 살펴본 즉 그 말과 같았으며 사람들은 모두 자랑하니 선생이 웃으면서 말하되 "앉아 듣거라. 제군들이 글을 많이 읽지 못했도다." 하였다. 선생은 저술로 이름나기를 원하지 않아서 원고를 사른 지가 두 차례나 되었으니 지금 세상에 간행된 것은 바로 한 부분에 불과하다.

선생이 철종 임금 병진 10월 10일 갑오로 돌아가서 예산 용산 선영 경좌한 언덕에 장사지내고 두 부인도 합부하였다. 한산이씨는 학생 희민의 따님이고 문경공 태중의 증손이며 예안이씨는 학생 병현의 따님이고 문정공 간의 현손이니 모두 어질되 소생은 없으므로 족형 태희의 아들 상무로 아들을 삼으니 생원으로 사과이다. 측실 남의

상우는 학관으로 사과이며 이녀는 이민하·조경희에게 시집갔고 재종형 상묵의 아들 한제로 아들을 삼으니 문과로 승지이다. 학관의 일남은 덕제이며 삼녀는 신숙조·이의도·송순일에게 출가했다. 승지는 생가의 형님 유제의 아들 기원으로 아들을 삼으니 진사이다. 진사는 6남을 낳았으니 석환은 본생으로 돌아갔고 태환·동환·용환·경환·국환이다.

선생은 효도와 우애가 하늘로부터 타고나서 부모와 여러 숙부모를 섬김에 지성으로 해서 조금도 사이가 없었다. 유당공이 유배될 때 선생은 애통해서 살고자 하지 않았으며 밤에는 반드시 울면서 하늘에 축원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추위나 더위나 한 가지 옷으로 바꿔 입지 않았고 돌아옴에 이르러서야 그만두었고 늦게도 삿갓을 쓰고 촛불을 가지고 발을 벗은 채 밤에 궁궐 밖에 엎드려 벼슬을 돌려 내리기를 하소연하기를 여러 차례 하였다. 정사년에 비로소 그 청원을 얻었는데 선생은 이미 앞서서 돌아갔다. 바야흐로 병환이 머물러 있을 때 중씨도 병이 들었는데 선생이 아침저녁으로 그곳에 가서 부축해 드리고 진찰했으며 병이 이미 위급함에도 "중씨의 약을 시험했느냐?" 하고 물었다. 한 마음으로 임금과 나라를 위해서는 화복으로 인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니 그 정충명백한 기상은 가히 해와 별에도 닿고 쇠와 돌에도 관철한다 할 것이다. 제주도에 있을 때 헌종 임금이 편첩을 써 내라고 명령한 데에 홍두시첩이 있었다. 선생은 홍두의 뜻이 마침내 꾸미는 글이라 해서 조그마한 발문을 써서 풍자하는 뜻을 부치니 말하되 "이미 글씨로 올리니 말로 올릴 만한 것이 있습니다. 알면서 말하지 않음은 또한 감히 못하는 일입니다." 하였으니 지조를 변하지 못함이 으레히 이와 같았다. 후진을 권장하기를

좋아해서 발탁해서 일으킨 자가 많았고, 풍채가 뛰어나고 도량도 화평해서 사람과 더불어 말하면 화기애애하여 각각 그 기뻐함을 얻었다. 무릇 의리냐 이욕이냐 하는 즈음에는 의논이 우레와 창칼 같아 사람들이 감히 막을 자가 없었다. 중씨의 휘는 명희이고 자는 성원이고 호는 산천이니 또한 어질고 박학하여 선생이 때로는 의지하고 자문도 하였다.

아! 세상의 길이 참으로 험악해서 선생이 포용을 보지 못했다. 진실로 의연히 세상에 용납되지 못했지만, 곧 굴레를 벗고 학문에만 전념하였으니 하늘이 선생에게 후하게 해 준 것이로다. 몸은 비색했지만 도는 형통하고 한 때에 굽히었으나 천추에 폈으니 또한 서운함이 없을 만하도다. 선생이 몰한 지가 지금 82년이 되었는데 묘소에 비석을 아직도 갖추지 못해서 지방 선비들이 돈을 거두어 도와주므로 진사가 사과공이 깎아서 묻어놓은 빗돌을 찾아서 승렬에게 그 뒤에 기록하게 하니 능히 해낼 수 없으므로 오직 문인 민정승 규호가 지은 바 전기와 집안 어른들에게 들은 것들을 기술해서 삼가 쓰기를 이와 같이 하니 슬프도다. 이것이 어찌 선생의 개요가 되리오?

후학 종인 승렬은 짓고 쓰다.

<충남문화유적총람>에서

신례원(新禮院) 근처에 건립된 것

(1) 현감이후도근청백휼민선정비(縣監李侯度謹淸白恤民善政碑)
기묘시월 일입(己卯十月 日立)(1879年)

(2) 현감김후노응영세불망비(縣監金侯魯應永世不忘碑)

공마혁폐　貢馬革弊

빙부급통 교목복춘　氷夫急痛 橋木復春

세재도광이년계춘입(歲在道光二年季春入)(1822年)

(3) 현감이후규문애휼선정비(縣監李侯揆文愛恤善政碑)

자혜일심 견세이폐　字惠一心 蠲歲而弊

잔사신찬 영세명폐　殘寺辛○ 永世銘肺

건융육년신유삼월입향천사(乾隆六年辛酉三月立香泉寺)

(4) 현감이후동우영세불망비(縣監李侯東宇永世不忘碑)

인공덕 성추인 궁검신　仁公德 城推인 躬檢愼

답실각 효화속 수렴일　踏實脚 孝化俗 樔廉日

방수제 애부영　　枋修提 愛腑永

촉흥학 근지석 계사시월 일입(蜀興學 勤之石 癸巳十月 日立)

(1893年)

(5) 현감이후세구덕휼민영세불망비(縣監李侯世亀德恤民永世不忘碑)

송유아정○ 적○전재　頌儒雅政○ 赤○錢在

조약 창생합박　　樔礿 蒼生合迫

공 이진이혜 인덕유자　公 以賑以惠 仁德有自

아활아시 현상구궐　　我活我諡 賢相○厥

숭정후정축삼월 일(崇禎後丁丑三月 日)(1637年)

4. 기타(其他)

1) 석기(石器)

삽교면 신리(新里) 수암산중(秀岩山中)에서 1933년(昭和8) 옛날 솥(鼎)을 습득(拾得)했다. 봉산면 당곡리(唐谷里) 조제원(趙濟元) 집에서

보존(保存) 중이다.

2) 분묘(墳墓)

(1) 영의정(領議政) 이산해(李山海) 묘(墓) : 대지동면(大枝洞面) 화산(華山)에 있다. 호 아계(號鵝溪) 지금 대술면이다.

(2) 판부사(判府事) 신계영(辛啓榮) 묘
대지동면(大枝洞面) 소기현(蘇機峴)에 있다. 지금 대술면 아산과 예산 군계(郡界)다.

(3) 목사(牧使) 이양생(李養性) 묘
술곡면(述谷面) 증산(甑山)에 있다. 지금 대술면이다.

(4) 부제학(副提學) 김구(金絿) 묘
두촌면(豆村面) 종경리(宗敬里)에 있다. 지금 신암면 종경리다.

(5) 처사(處士) 이사검(李思儉) 묘
두촌면(豆村面) 종경리(宗敬里)에 있다. 지금 신암면이다.

(6) 정언(正言) 민회현(閔懷賢) 묘
입암면(立巖面) 호암산(虎巖山)에 있다. 지금 신암면이다.

(7) 판서(判書) 박홍우(朴弘佑) 묘
금평면(今坪面) 당북리(堂北里)에 있다. 지금 예산면이다.

(8) 승지(承旨) 박안제(朴安悌) 묘
술곡면(述谷面) 돈사리(頓寺里)에 있다. 지금 대술면이다.

(9) 참의(叅議) 정양제(鄭兩濟) 묘
금평면(今坪面) 당북리(堂北里)에 있다. 지금 예산면이다.

(10) 영의정(領議政) 김흥경(金興慶) 묘

입암면(立巖面) 용산리(龍山里)에 있다. 지금 신암면이다.

(11)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藎) 묘

지금 신암면 용산리에 있다. 화순옹주(和順翁主) 부(祔)

(12) 완당(阮堂) 김정희(金正喜) 묘 : 지금 신암면 용산리에 있다.

(13) 흥인군(興仁君) 이최응(李最應) 묘

대흥면 교촌리(校村里)에 있다.

(14) 영의정(領議政) 조정(趙挺) 묘 : 신양면에 있다.

(15) 영의정(領議政) 도응(都應, 이름이 미상(未詳)) 응봉면에 있다.

(16) 이희열(李希烈) 묘 : 대흥면 노동리(芦洞里)에 있다.

(17) 영의정(領議政) 김이교(金履喬) 묘

대흥면 금곡리(金谷里)에 있다.

(18) 판서(判書) 이산보(李山甫) 묘

광시면 장신리(長信里)에 있다.

(19) 영의정(領議政) 조태억(趙泰億) 묘 : 대흥면 대률리에 있다.

(20) 영의정(領議政) 조익(趙翼) 묘 : 신양면에 있다.

(21) 영의정(領議政) 조사석(趙師錫) 묘 : 신양면에 있다.

(22) 참판(叅判) 최익현(崔益鉉) 묘 : 광시면 신대리에 있다.

(23) 목사(牧使) 윤원구(尹元求) 묘 : 광시면 은사리에 있다.

(24) 장군총(將軍塚) : 광시면 구례리(九禮里) 황곡(篁谷) 뒤에 산기슭

에 있다. 씨명(氏名) 연대 미상(未詳)

(25) 가야산 기슭에 현록대부(顯祿大夫) 남연군(南延君) 겸(兼)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 이구(李球) 증(贈) 시충정공(諡忠正公)(대원군의 부(父)), 그 부인 려흥민씨(驪興閔氏)의 묘가 있다.

(26) 같은 대광국숭록대부(大匡國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 종정경(宗正卿) 흥녕군(興寧君), 이창응(李昌應) 시정간공(諡貞簡公)(대원군(大院君)의 큰형(長兄)), 그 부인 임천조씨(林川趙氏)의 묘가 있다.

(27) 같은 대원군의 차형(次兄)의 묘가 있다.

(28) 봉산면 시동리(侍洞里)에 조치곡(趙治谷) 선생의 묘가 있다.
조극선(趙克善) 시호 문목공(文穆公)

(29) 봉산면 봉림리(鳳林里)에 충장공(忠壯公)(諱義培) 이선생의 묘가 있다.

(31) 문목공(文穆公) 조극선(趙克善)의 묘는 봉산면 시동리에 있다.

3) 역원(驛院)

(1) 일흥영(日興驛) : 지금의 오가면 역리(驛里)라는 역이 폐하고, 현재 갱생부락(更生部落)으로 공려조합조직(共勵組合組織)을 한다.

(2) 무한성원(無限城院) : 현재 예산면 산성리(山城里) 무한천(無限川) 변에 있었으나 폐되었다.

(3) 고사원(古沙院) : 예산읍 동쪽 약 1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되었다.

(4) 신례원(新禮院) : 예산읍에서 북쪽으로 약 1리에 있고, 옛날 사객(使客)을 마중 나가던 장소다.

(5) 광시역(光時驛) : 광시면 광시리에 있고, 지금은 폐되었다.

(6) 가방원(加方院) : 대흥면 가방교(加方橋) 부근에 있었지만 지금은 원(院)은 폐되었다.

(7) 급천역(汲泉驛) : 예산면 동쪽 약1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되었다.

(8) 봉용원(峯聳院) : 덕산면 남쪽 반리(半里)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되었다.

4) 관액(關阨)

큰 고개 대치(大峙) 수덕사(修德寺) 고개는 덕산면 서남(西南) 약 2리(里) 반(半)에 해당되는 내포(內浦) 제읍(諸邑)의 인후(咽喉)로서 지세(地勢)는 약간 험(險)하다. 지금은 폐되었다.

5) 교량(橋梁)

(1) 역천교(驛川橋) : 예산읍내에서 서쪽 약 1리 반. 덕산 왕래(往來)에 있다.

(2) 종경리교(宗敬里橋) : 예산읍내에서 서북(西北) 약 1리 반. 신암면에 있다.

(3) 녹야리(綠野里) 석교(石橋) : 예산읍내에서 서쪽 약 1리 반. 홍성(洪城) 왕래(往來)의 통로(通路)다.

(4) 내천(柰川) 석교(石橋) : 대흥면에 있는 가방교(佳芳橋)다.

(5) 거변교(居邊橋) : 신양면에 있는 달천(達川)석교(石橋)이며, 지금은

하천이 이전되어 교량은 메웠다.

(6) 광시교(光時橋) : 나천(奈川) 상류에 있고, 홍성(洪城)과 청양(靑陽), 예산 3군(郡)의 경계에 있다.

(7) 삽교(揷橋) : 지금 삽교에 있고, 예산과 덕산 간의 통로다.

(8) 현화교(玄化橋) : 지금 삽교면에서 고덕면으로 바로 통하는 교량이다.

6) 제언천방(堤堰川防)

(1) 주교(舟橋) : 예산읍내에서 서쪽 20수 정(町), 역(驛) 근처에 있고 주위(周圍) 1,130척(尺)이라고 한다.

(2) 암하제(巖下堤) : 예산읍내에서 서쪽 십(十)몇 정(町)에 있고, 오랜 동안 건조해서 지금은 폐되었다.

(3) 원통제(元通堤) : 예산읍내에서 북쪽으로 약 10정(町)에 있고, 주위(周圍) 508척(尺). 지금은 건조해서 폐되었다.

(4) 종경제(宗敬堤) : 예산읍내에서 서북쪽 1.5리, 주위 760척(尺) 수심(水深)은 2척(尺)이다.

(5) 성북제(城北堤) : 예산읍내에서 서쪽 2리에 있고 주위 710척(尺), 수심(水深)은 2척(尺)이다.

(6) 판교제(板橋堤) : 예산읍내에서 서북2리에 있고, 주위 1,090척, 수심(水深)은 2척(尺)이다.

(7) 저지제(猪池堤) : 예산읍내에서 서북 1.5리에 있고, 주위 1,632척, 수심(水深)은 2척(尺)이다.

(8) 파교제(破橋堤) : 예산읍내에서 서북 2.5리에 있고, 주위 1,185척,

수심(水深)은 3척(尺)이다.

(9) 유등제(柳等提) : 예산읍내에서 서쪽 약2리에 있고 주위 2,403척 수심 약 3척이다.

(10) 왕자지제(王子池堤) : 예산읍내에서 서쪽 약1리에 있고, 주위 1,880척, 수심(水深)은 2척(尺)이다.

(11) 우가산제(于可山堤) : 예산읍내에서 서쪽 약1리에 있고, 주위 847척, 수심은 4척이다.

(12) 일흥제(日興堤) : 예산읍내에서 서쪽 약1리 몇 정(町)에 있고, 주위 1,217척, 수심(水深)은 2척(尺)이다.

(13) 전죽제(箭竹堤) : 예산읍내에서 서쪽 약1.5리에 있고, 주위 938척, 물이 건조되어 지금은 폐되었다.

(14) 아지제(阿池堤) : 예산읍내에서 서쪽 약1.5리에 있고, 주위 1,015척, 수심(水深)은 3척(尺)이다.

(15) 이지제(利池堤) : 예산읍내에서 서북쪽 약2리에 있고, 주위 1,015척, 수심(水深)은 6척(尺)이다.

(16) 장승포제(長承浦堤) : 예산읍내에서 남쪽 약1리에 있으며, 주위 680척인데 대흥면의 배수를 막는 피해가 있어서 파괴했다.

(17) 국사당보(國祀堂洑) : 예산읍내에서 서쪽 약 1.5리에 있고, 무한천 위 경결천(京結川) 일한산(日埰山) 월한산(月埰山) 부근에 있다.

(18) 좌이천보(左耳川洑) : 예산읍내에서 서쪽 약2리에 있다.

(19) 돌천보(乭川洑) : 예산읍내에서 동쪽 약1리에 있다.

(20) 성동보(城洞洑) : 덕산면에서 서쪽 약 20정(町)에 있고, 길이

450척, 폭이 6척 3방(方), 주위 연장(延長) 780척, 수심 4척이다.

(21) 저지제(猪池堤) : 덕산면에서 남쪽 약1리에 있고, 길이 450척, 폭이 5척3방, 주위 연장 990척, 물은 깊음.

(22) 국지제(國只堤) : 덕산면에서 남쪽 약1리에 있고, 길이 240척, 폭이 8척3방, 주위 연장 980척, 수심 4척이다.

(23) 저동제(猪洞堤) : 덕산면에서 동쪽 약2리에 있고, 길이 390척, 폭이 5척3방, 주위 470척, 수심 3척.

(24) 판교제(板橋堤) : 덕산면에서 동쪽 약 2리에 있고 길이 770척, 폭이 4척3방, 주위 1,050척, 수심 6척이다.

(25) 성방제(省坊堤) : 덕산면에서 약 1리에 있고, 길이 410척, 폭이 7척3방, 주위 1,100척, 수심 6척이다.

(26) 탄전제(炭田堤) : 덕산면 동쪽 약1리에 있고, 길이 700척, 폭이 6척3방, 주위 1,020척, 수심 3척이다.

(27) 저정제(猪井堤) : 덕산면 북쪽 약1.5리에 있고, 길이 400척, 폭이 7척3방, 주위 1,545척, 수심 6척.

7) 고목

(1) 예산군 내 고목 일람

수종(樹種)	소재지(所在地)	추정연령	비고
느티나무(櫸)	대흥면 상중리	300년	
상동	대흥면 동서리(면사무소)	250년	
상동	대흥면 동서리	250	
은행나무 공손수(公孫樹)	대흥면 교촌리(향교 앞)	350년	
느티나무(櫸)	대흥면 대야리(大也里)	260년	
상동	대흥면 지곡리(芝谷里)	380년	
상동	대흥면 탄방리(炭防里)	340년	
상동	대흥면 대율리(大栗里)	450년	
상동	대흥면 갈신리(葛申里)	460년	
두릅나무(楤)	덕산면 궁리	덕천가광(德川家光)때 정신옹주(貞愼翁主)가 직접 심은 것. 잎사귀 소리를 듣고 풍흉(豊凶)을 정하기도 했고, 난세(亂世) 때는 나무가 울었기도 했다고 한다.	

(2) 수덕치(水德峙)에 여섯 느티나무(六槐)가 있다. 나무 밑에 반석(盤石)이 있고, 옛날부터 유명하다.

제3장 사적(事蹟)

1. 임존성

사비성(泗沘城)이 함락(陷落)해서 의자왕(義慈王)은 이미 당(唐)나라에 항복하고 무왕(武王)의 조카 복신(福信)이 승려 도침(道琛)과 함께 의(義)를 주창하며, 주류성(周留城)에 농성해서, 왕자 부여풍(扶余豊)을 일본에서 맞이하여 왕으로 세우고, 병사들을 이끌어 당나라 장군 유인원(劉仁願)을 도성(都城:지금 공주)으로 급히 포위했기 때문에 더욱 당나라는 유인궤(劉仁軌)를 시켜 신라병(新羅兵)과 연합하고 이들을 응원(應援)했다.

복신들은 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포위를 풀고 후퇴하여 임존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상잠장군(霜岑將軍)이라고 칭했다.

후에 풍(豊)은 각종 유언비어(流言蜚語)와 중국어로 반문술책(反問術策)으로 현혹되어, 끝내 복신(福信)을 죽였다.

이것이 백제의 마지막 실책이며, 게다가 풍(豊)은 왕의 그릇이 아니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다.

흑치상지(黑齒常之)는 본 도(本道:충청도) 서부(西部) 사람이다. 키는 7척(尺)을 넘어 효용(驍勇)이며 모략(謀略)이 있었다. 의자왕(義慈王) 때에는 달솔(達率)의 관(官)으로 올라가, 풍달군(風達郡)의 장(將)도 겸임했다.

당나라 소정방(蘇定方)이 의자왕(義慈王)을 잡아 병사들을 풀어 경내(境內)를 크게 약탈(掠奪)했다. 상지(常之)는 십여 명의 부하와 도망쳐

산병(散兵)을 포취해서 임존성을 차지했다. 산은 원래 험악했으나 10일도 되지 않고 돌아오는 자들이 3만이 되었다. 소정방(蘇定方)은 이를 공격해서 돌파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200을 넘은 성을 회복했다.

다른 장군(別將)이 사타상여(沙吒相如)와 함께 복신을 응원했지만, 용삭중(龍朔中) 당나라 고종(唐高宗)에 사자(使者)를 보내 초론(招論)하는데, 형세가 좋지 않는 것을 헤아려서, 끝내 유인궤(劉仁軌)를 예강(詣降)했다.

지수신(遲受信)은 유인궤(劉仁軌)가 백강(白江)에 도달해서 일본원병(日本援兵)을 만나 사전(四戰)해서 다 승리하지 못했다. 풍(豊)은 고구려(高句麗)에 도주(逃走)했고, 왕자 부여(扶余) 충승(忠勝)과 충지(忠志)들은 일본 잔병(殘兵)들과 함께 항복했다.

혼자 지수신(遲受信)이 임존성이 위치가 험하고 성의 수비가 경고하고 식량도 있기 때문에 악전고투(惡戰苦鬪) 삼순(三旬)도 버티고 있었다가 성은 함락하고 결국 처자(妻子)도 버리고 고구려에 급히 도주했다.

후백제 견훤(甄萱)군이 이 성에 농성해서 반역을 꾀하여 고려(高麗) 태조(太祖)는 이것들을 다시 살확(殺穫)한 것이 3,000명이 되었는데, 지금 성 모습은 훼괴(毁壞)해서 유적만 있다.

2. 역탑리(驛塔里)

오가면 역탑리는 옛 한국시대의 통신기관이었던 이른바 역(驛)이 있었던 장소이며, 교통의 요소이자 이조(李朝) 시대(時代)에 있어서는 어사(御使)의 정한 숙박지이었던 정도로 군내의 은성지(殷盛地)였다.

이조(李朝) 말기, 어사(御使) 홍철주(洪徹周)가 예산에서 이 마을에

향하는 도중에 눈앞에 펼쳐진 넓은 원천(元泉) 옥야(沃野)를 바라보고 매우 칭찬하여 국사보(國賜洑=나라가 보를 만들어줌)를 촌민(村民)에게 하사하므로 수리(水利)의 편이 좋아졌다. 지금 신원(新院), 원천(元泉), 원평(元坪) 3개 리(里) 촌민(村民)들이 수리계(水利契)를 설치해서 이곳을 관리한다. 그 당시 촌민은 홍(洪) 어사(御使)의 공(功)을 기념하기 위해 비석을 건립했다. 춘풍(春風) 추우(秋雨) 수백년 지난 지금까지도 비문은 명료하며, 역탑리 한구석에 엄숙하게 서서 당시를 생각하게 한다.

3. 삽교(橋)

명(明)나라 조선(朝鮮)국사(國使)가 통과하므로 이 내[川]에 광대한 돌다리[石橋]를 건설하여, 이것을 삽교(揷橋)라고 했지만, 그 후에 스스로 무너져 석재(石材)는 물속으로 매몰했다.

4. 봉조원(奉詔院) 속칭 봉정리(鳳亭里)

중국 명(明)나라 남경(南京)시대에 명나라 조선국사가 통과하는데, 역졸(驛卒)과 역마(驛馬) 등 시종(侍從) 또한 여객(旅客)의 숙소로 사용한 원사(院舍=국사)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수도를 북경(北京)으로 이전하므로 원사(院舍)도 폐되었다. 현재 덕산면 신평리(新坪里)다.

5. 오페르트사건

천주교도가 대원군(大院君)에게 당한 참화(慘禍)에 대해서 보복(報復)을 염원하며 독일인 오페르트는 1868년 이태왕(李太王) 5년 5월

9일 아산만(牙山灣)에 입항, 다음날 아침 구만포(九萬浦)에 상륙, 즉시 무장해서 밤을 틈타 덕산면 옥계리(玉溪里)에 도착했다. 일행은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南延君)의 분묘(墳墓)를 발굴했다. 묘소(墓所)의 수위(守衛) 급(及) 가동민(伽洞民)은 기이(奇異)한 서양인 내구(來寇)로 놀라 도망갔다. 오페르트는 묘소를 발굴했지만 관구(棺柩)는 견고(堅固)해서 쉽게 개관(開棺)할 수가 없었고, 퇴각(退却)하는데 이용할 썰물 시각이 다가와서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도망쳤다.

6. 이산현(伊山縣)

이산현은 지금의 덕산(德山)이며 가야(伽倻) 동구(洞口) 밖에 있고, 백제 때는 마시산현(馬尸山縣)으로 후(後)에 의마장(義馬場)이라는 전설이 있다.

청안(淸安) 사람 판상(板商)하는 자가 무인(戊寅)년의 겨울에 갈질(葛疾)에 걸려 고덕(古德) 시장에서 죽었다. 소지(所持)한 말이 사흘 밤낮을 헤매며 그 시체를 지켰다. 기갈(飢渴)하면 가끔 마을에 들어가 짚을 먹고 물을 마시고 금방 또 시체 옆으로 돌아와 슬프게 울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호소하는 것 같아 마을사람이 처음 알고 가보니 시체는 판상(板上)에 있는데 오연(烏鳶)도 감히 울지 못하고 말은 끊임없이 높이 울었다. 여러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시장을 명칭해서 말하기를 의마장(義馬場)이라고 하였다.

7. 죽정(竹亭)

죽정은 지금의 고덕면(古德面)(원래 고산면(高山面))에 있다. 여러 채의 초가가 있었다. 이춘원(李春元, 호 구원(九畹))이 어렸을 때 이안눌(李安訥, 호 동악(東岳) 또는 학림(鶴林)이라는 자와 함께 이 죽정(竹亭)에서 만났다. 구원과 동악은 둘 다 당대의 유명한 시인이며 학림은 그림으로 유명했다. 구원이 학림에게 대나무 그림을 벽 가득히 그리게 하고, 구원과 동악도 각자가 일률(一律)로 어람해서 그 벽 위에 묘사했는데, 임랑(淋浪)의 반영해서 이것을 구경하는 자들은 모두가 절품(絶品)이라고 칭하고 죽정(竹亭)의 이름도 이것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은 없다.

8. 이왕직(李王職) 유적(遺蹟)

신암면(新岩面) 용궁리(龍宮里)의 산기슭(山麓, 면사무소에서 북서(北西) 약1리)에 있고, 이조(李朝) 영조대왕(英祖大王)의 차녀(次女) 화순옹주(和順翁主)의 분묘(墳墓)이며, 오직 인효(仁孝)와 정숙(貞淑)의 덕(德)은 생애를 통해 남편 월성위 김한신(月城尉 金漢藎)이 죽자 십 여일 간 한 방울의 물도 한 술의 밥도 먹지 않고 밤낮으로 통곡(痛哭)해서 드디어 순사(殉死)했다. 영조대왕(英祖大王)은 정열(貞烈)을 가귀(嘉貴)해서 정려비석(旌閭碑石) 등을 이곳에 건립해 줬다고 전해진다. 친필(親筆)의 각자(刻字)와 함께 현존한다.

9. 추사(秋史) 김완당(金阮堂)의 유적

신암면(新岩面) 용궁리(龍宮里)에 있다. 완당(阮堂)의 이름은 정희

(正喜), 자(字)는 완춘(阮春), 추사(秋史)라고 호를 썼다.

경주(慶州) 사람 유당(酉堂) 김노경(金魯敬)의 장자(長子)이며, 정조(正祖) 10년(1786년, 일본 천명(天明) 6년, 청나라 건륭(乾隆) 51년)에 출생하여 24세 때 아버지 유당(酉堂)이 청(淸)나라에 가는데 따라가서 외유(外遊)하고, 청조(淸朝)의 명현(名賢) 대유(大儒)와 학연(學緣)을 맺어 경의(經義)를 찾아가서 한묵(翰墨)을 읽는 등 역지(役地) 경학(經學)의 깊은 경지까지 도달했다. 청조(淸朝) 문화(文化)의 핵심을 잡았다. 귀국 후 학문은 대단히 진보했고, 경사(經史), 시문(詩文), 금석(金石), 서화(書畵)의 막힘이 없었고, 울연(蔚然)한 대가가 되어 새로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을 선포(宣布)하며, 반도(半島) 수백년 이래의 누풍(陋風) 일세(一洗)에 위대한 업적이라고 전해진다. 불행하게도 뜻밖에 기화(奇禍)로 남해(南海) 제주도로, 혹은 북선(北鮮) 북청(北靑)으로 유배의 비참을 보게 되었다. 그 탁월한 식견(識見)과 청풍(淸風) 고절(高節)과 더불어 나중에 식자(識者)의 사모(思慕)와 흠앙(欽仰)을 더하게 되었다. 벼슬은 병조참판(兵曹叅判)으로 마치고 철종(哲宗) 7년(1856년, 安政3년 咸豊6년) 과천(果川)에서 죽고 그곳에 매장됐다. 유적은 대부분 화재(火災)로 소실(燒失)했지만 여전히 마을 내에 직계(直系) 자손(子孫)이 현주(現住)하고, 많은 필적(筆跡) 편액(扁額)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귀조(歸朝) 당시에 청나라에서 지참(持叅)해서 이식(移植)했다는 백송(白松)이 있고 자손이 아직도 관리하고 있다.

제4장 전설(傳說)

1. 지세상(地勢上)의 변혁(變革)

1) 주교리(舟橋里)

옛날에는 무한천(無限川)의 지류(支流)로서 현재 읍내를 흐르는 하천의 물의 양이 풍부하며 범선(帆船)이 왕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주교(舟橋)를 놓아 교통의 편이를 꾀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역 부근이 주교리라고 이름이 붙었다.

2) 요도(蓼島)(外岩里)

현재 신촌(新村) 건너편에 있다. 반도(半島)의 모습을 하고 있고, 백제 때 죄인(罪人)을 많이 이곳에서 보냈고, 세월(歲月)을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3) 사직단(社稷壇)

현재 금오산 산기슭에 있고, 현감(縣監)이 1년에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농신(農神)에게 보은(報恩)과 감사(感謝)의 제전(祭典)을 올렸다고 한다.

4) 탑동(塔洞)

현재 천주교회(天主敎會)당의 뒷산이며, 신라시대에 많은 사찰이 있어서 스님들의 마을[僧村]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탑동(塔洞)이라고 전해왔다.

5) 물레방앗간 터

향천사로 가는 도로 편에 있다. 옛날 그 깊은 산중에서 흐르는 물량이 풍부해서 물방아의 회전(廻轉)이 충분했다고 한다.

6) 용제봉(龍祭峯)과 저정지(猪井池)

소재지(所在地)는 용제봉(龍祭峯), 삽교면 신리(新里) 덕산면과의 면계(面界)이며, 해발(海拔) 264m. 저정지(猪井池) 삽교면 신리

옛날 용(龍)이 승천(昇天) 도중(道中) 물 부족으로 인해 용제봉에 걸리고 멈췄던 것을 지방민(地方民)이 급수(給水)하고 또 제단을 설치해서 제사를 했던 곳. 용은 무사히 승천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수백 년 전부터 가뭄 때에는 전 덕산군수(德山郡守)는 상사(上司)의 명을 받아 자주 이곳 용제봉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그 때는 반드시 돼지를 저정지(猪井池) 물속으로 던져 죽이고 또한 그 물로 씻고 기우제(祈雨祭) 용의 물은 오로지 이 연못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이것들의 준비 등산 때 횃불잡이는 현재의 신리 주민을 사역(使役)했다. 그래서 덕산군이 폐지될 때 군수는 이 연못을 마을 공유로 해서 신리 주민에게 불하했다고 한다.

저정지(猪井池)는 1915년(일본 大正 4년) 지방비(地方費) 보조를 받아 통관(樋管) 및 일류언(溢流堰)을 신설하고, 동시에 제방(堤防)을 높이고 현재 부지(敷地) 면적(面積) 2.36정보(町步), 관개(灌漑) 면적은 31정(町)을 넘었다.

용제봉은 지금도 가끔 기우제(祈雨祭)를 하는 장소이다.

7) 배논(舟畓)

예산군 신암명 종경리(宗敬里) 남방(南方) 변두리에 있다.

신라 시대에 어느 승려가 석죽포(石竹浦) 방향을 바라보는데 금색 새 떼가 포(浦) 상공을 날아다녔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강변에 다가가서 조사해 보니 물 위에는 큰 돌배[石舟] 한 척이 웅장(雄壯)하게 떠 있고, 그 배 위에는 천불(千佛)이 정좌(靜坐)했었다. 승려는 그 불상(佛像)의 봉안법(奉安法)을 생각하다가 금오(金烏)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여 뒤를 따라가니 지금의 예산읍 뒷산 기슭 산 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날아 기슭 남쪽 밑의 낙엽 쌓인 곳에 멈췄다. 승려는 그 장소가 절의 부지에 적합하다고 깨닫고 우물을 찾는데, 금오(金烏)가 아래 땅의 낙엽을 헤치고 물을 마시고 있었다. 승려는 그 샘의 물을 마셔봤더니 매우 맛있어서 그곳이 우물의 적지(敵地)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후에 절을 향천사(香泉寺)라고 이름을 지었다. 승려는 절을 짓고 불상의 운반(運搬)을 걱정했다. 어느 날 안장(鞍裝)을 얹은 소 한 마리가 절 근처에 와서 그 소가 천불(千佛)을 운반했다. 그 돌배는 가라앉아 그 지명이 석주포(石舟浦)가 되고 후에 석진포(石鎭浦)로 되었다.

지금은 논[畓]으로 변하여 그 돌이 몇 년 전까지 파편으로 남아 있었고, 지금은 다 제거했는데도 아직도 석편(石片)이 나와 배논[舟畓]이라고 한다. 돌배가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종경(鐘磬) 소리가 났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종경리(鐘磬里)라고 했다.

8) 내천(奈川)의 위치 변경

옛날 광시면(光時面) 관음리(觀音里) 앞을 지나가는 것이 몇 년째 경과하므로 용두리(龍頭里) 방향으로 만류(灣流)했다고 한다.

9) 경결천(京結川)의 위치 변경

원래는 응봉면(鷹峰面) 후사리(後寺里) 앞을 지나가는 것이 지금은 해마다 대흥면 신속리(薪束里) 방향으로 침식되고 가까워진다고 한다.

2. 산하(山河) 제지(堤池) 바위[岩] 고목(古木)

1) 용바위[龍岩]

금오산 중턱에 있고 그 모습은 마치 용과 같아 옛날 그 밑에 작은 샘에서 용이 승천(上空)했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은 기우제(祈雨祭)를 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2) 고함(告喊) 감암(坎岩)

농학교(農學校)의 수원지에 있고, 그 주변 일대의 견고한 지반(地盤)을 만든다. 향천사의 3,053불(佛)을 안치할 때 돌배로 석진포(石津浦)에 도착(到着)하고 그곳에서 황소 한 마리로 현재 절까지 운반했다고 한다. 그때 소가 힘이 다해서 이 바위 위에서 소리를 내며 죽었다. 그래서 고함(告喊)이라고 한다.

3) 사당(祠堂)

금오산(金烏山) 정상에 있고 옛날 현감(縣監)이 봄과 가을 두 차례 진호신(鎭護神)에게 현내(縣內)의 평화를 기원해서 제사를 했던 곳이라 한다. 지금도 그 터가 있고 옛 흔적을 말하는 것만 같다.

4) 금오산(金烏山)

신라 문성왕(文聖王) 2년(840) 기미(己未) 때 보조국사(普照國師)가 당(唐)나라에서 3,053불(佛)을 석주(石舟)에 싣고 지금의 창소리(倉所里)에 왔을 때 금색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길안내를 해주고 유유히 산

깊이 날아가 지금의 금오산 산정에 앉았다고 한다. 그래서 금오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이름은 덕봉산(德峯山)이다.

5) 향천수(香泉水)

현재 향천사(香泉寺) 산 깊은 곳에 작은 샘이 있다. 금오(金烏)가 날아와 샘물을 마시고 항상 향기가 가득했다고 한다. 그래서 향천이 되고 그 샘은 지금도 향기가 나는 것 같이 느껴진다.

(6) Y암(岩)

용골산(龍骨山) 정상에 있다. 그 모습이 마치 Y 자 모양 같아 Y암이라고 한다. 이것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밑에서 바라보는 바위 모습이 승려가 가사를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꼭 비가 왔다고 한다.

7) 검혈맥(劍血脈)

향천리 문묘후원(文廟後園) 남쪽으로 달리는 작은 산이 있다. 옛날 이 산을 검혈(劍血)이라고 칭했다. 그 옛날에 예산읍내에 살인사건(殺人事件)이 많았다. 이것은 검혈(劍血)이 통해서라고 했다. 이곳의 지기(地氣)를 진정시키기 위해 산기슭 남단에 작은 돌 하나로 탑을 세워 산의 기운을 진정시키고, 그 기를 더 달래기 위해 밑으로 도살장(屠殺場)을 만들어 살기(殺氣)를 없앴기 때문에 항상 잔잔하다고 전해진다. 현재 특수촌(特殊村)이 있다. 또한 그 석탑은 현재 이동의원(伊東醫院) 마당[庭園]으로 옮겨 세워져 있다.

8) 열녀바위(烈女岩)

산성리(山城里) 암하리(岩下里) 제사공장(製絲工場) 뒤에 마치 병풍

같은 바위가 있고, 이것을 열녀암(烈女岩, 열녀바위)라고 한다.

이곳은 옛날 신라시대에 신동지(申東支)라는 대대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 집은 지금의 기와집이 있는 곳이라고 하고, 뒷산은 바위산으로 단단했고 바위 끝은 길게 뻗어서 맞은 산과 연속하며, 개울도 없고 물의 흐름도 없고 논밭도 없고 바위 동쪽 위에 큰 호수가 물을 채우고 있었다. 바위는 기름지고 늠름하며 절벽을 형성해서 푸른 하늘과 서로 비추었다. 호수는 사계절 중에도 봄의 신록과 가을의 단풍이 거울같이 비쳤다.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여서 풍광명미(風光明媚)로 소적벽(小赤壁)[8]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때 신(申)이라는 자의 집에서 호반(湖畔)의 바위 위에 정자를 짓고 흥학(興學)을 다했다. 하루는 그 젊은 남편이 학업(學業)한 후에 호반(湖畔)을 산책하는데 바람이 불어 쓰던 관이 바람에 날아가 호수에 떨어졌다. 젊은 남편은 그것을 집으려고 호숫가에 다가갔다가 발이 걸려 호수 속으로 떨어지고, 가련하게도 꽃 같은 젊은 남편은 익사하여 불귀의 호수 신이 됐다. 그 젊은 부인은 '부필종부(婦必從夫)'라고 말하고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다 호수에 투신, 순사했다. 이때부터 이 바위를 열녀바위라고 했다.

그 부모는 일시에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슬퍼하고 있을 때 어느 승려가 와서 말하기를 "이 집은 바위와 호수 때문에 불길(不吉)하다. 이것을 절개(切開)하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슬픈 나머지 신옹(申翁)은 당장 하인을 보내 건너편 산까지 뻗어 있는 커다란 바위를 절단해 버렸다. 호수는 폭포가 되어 순식간에 말라 버렸

8) 문헌(文獻)에 '고산(孤山)'은 하유단애장호하야 칭 소적벽(下有斷崖長湖稱 小赤壁)

다. 그 후 얼마 안 돼서 신가(申家)는 멸족되고 말았다.

그 산맥은 괘등혈맥(掛燈血脈)이라고 등불을 건 것과 같다고 하며, 등불에 기름(호수)이 없어지면 불은 꺼지는 것이다. 호수가 없으니 집안의 명과 운도 다하게 되었다.

9) 금오산(金烏山)

예산읍내 북방(北方) 약10정(町)에 있고 천안군(天安郡) 광덕산(廣德山)에서 맥이 왔다. 이것이 바로 예산의 진산(鎭山)이다.

10) 남산(南山)

예산읍내 남쪽 십 몇 정(町)에 있고, 지금은 보안림(保安林)으로 편입되어 울창(鬱蒼)한 소나무들이 사계절 풍치(風致)를 준다.

11) 향로봉(香爐峯)

예산읍내 북방(北方) 약 20정(町)에 있다.

12) 도고산(道高山)

예산읍내 북방(北方) 약1리(里) 반에 있고, 아산군(牙山郡)의 경계가 된다.

13) 무한산(無限山)

예산읍에서 서쪽 약 30정(町)에 있다.

14) 소기현(蘇機峴)

예산읍내에서 동북(東北) 약 2리(里) 몇 정(町)으로 아산(牙山)의 군계(郡界)에 있다.

15) 봉수산(鳳首山)

홍성(洪城) 오서산(烏棲山)에서 와서 대흥면(大興面) 서쪽 약 몇 정(町)에 있고, 대흥의 진산(鎭山)이다.

16) 사자산(獅子山)

대흥과 신양의 고개에 있고 대흥면의 동쪽 약 2리(里)에 있다.

17) 백월산(白月山)

대흥면 남쪽 약 2리(里)에 있다.

18) 금롱산(金籠山)

대흥면 서남(西南) 약 2리(里)에 있다.

19) 당산(堂山)

대흥면 동쪽 약 2리(里)에 있다.

20) 박산(朴山)

대흥면 동쪽 약 1리(里) 반에 있다.

21) 가차산(加次山)

대흥면에서 동북(東北)쪽 약 1리(里) 반에 있다.

22) 송림산(松林山)

대흥면 대률리(大栗里)에 있고 동북(東北) 약 2리(里) 거리다.

23) 비조치(飛鳥峙)

대흥면에서 동쪽 약 1리(里) 반의 장소에 있다.

24) 국사봉(國師峯)

대흥면에서 동쪽 약 2리(里)에 있다.

25) 팔봉산(八峯山)

대흥면에서 북쪽 약 1리(里)에 있다.

26) 고치(高峙)

대흥면에서 동쪽 약 3리(里)에 있다.

27) 차유현(車踰峴)

신양면 동쪽 약 1리(里)에 있다.

28) 비치(飛峙)

대흥면에서 서쪽 약 20정(町)에 있다.

29) 가야산(伽倻山)

덕산면에서 서쪽 약 1리(里)에 있다.

30) 팔봉산(八峯山)

덕산면에서 남쪽 약 십 몇 정(町)에 있고, 홍성군 오서산에서 왔다.

31) 상왕산(象王山)

덕산면에서 북쪽 약 1리(里) 반에 있다.

32) 덕숭산(德崇山)

덕산면에서 남쪽 약 1리(里) 반에 있다. 홍성군 오서산에서 왔다.

33) 대덕산(大德山)

덕산면에서 남쪽 약 1리에 있다.

34) 앵산(鶯山)

덕산면에서 북쪽 약 반리(半里)에 있다.

35) 대치(大峙)

덕산면에서 서남(西南) 약 2리(里)에 있다. 덕숭산에서 왔다.

36) 무한천(無限川)

예산읍내에서 서쪽 약 20정(町)에 있다. 즉 홍성군 려양천(驪陽川, 지금의 화성천(化城川))의 하류(下流)이며, 매년 여름 홍수 때에는 큰 뱀이 산에서 내려와 강바닥에 숨어 있다가 사람과 가축에 해를 끼쳤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37) 호두포(狐頭浦)

예산읍내에서 북쪽 약 2리에 있고, 즉 무한천의 하류(下流)다.

38) 내천(奈川)

대흥면 동쪽 약 7~8정(町)에 있고, 그 근원은 2개가 있고, 하나는 청양군 비봉면(飛鳳面, 원래 어호동(於乎洞))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청양군 화성면(化城面, 원래 여양현(驪陽縣))에서 나와 아산군(牙山郡) 돈곶항(頓串港, 정포(井浦))로 들어간다.

39) 경결천(京結川)

대흥면에서 동북(東北) 약 20정(町)에 있고, 즉 내천(奈川)과 달천

(達川)이 합류하는 곳이다.

40) 죽천천(竹遷川)

신양면 거변리(居邊里)에 있고 대흥면에서 동쪽 약 2리(里) 반에 있다. 근원은 청양군 운곡리(雲谷里, 원래 어사현(於士峴))에서 나와 경결천(京結川)으로 들어간다.

41) 달천(達川)

대흥면에서 동쪽 약 2리에 있다. 즉 대술면의 근원에서 내려온다.

42) 온천(溫泉)

덕산면에 있다. 남쪽 약 20정(町)에 있다.

43) 용연(龍淵)

덕산면에서 서쪽 약 1리 반에 있다. 가뭄 때 기우제를 하면 즉시 비가 내린다고 한다.

44) 화척탄(禾尺灘)

덕산면에서 동쪽 약 1리 반에 있다. 즉 삽교천의 하류다.

45) 정포도(井浦渡) : 덕산면에서 동쪽 약 3리에 있다.

46) 삽교천(揷橋川)

덕산면에서 동쪽 약 1리 반에 있다. 홍성군 금마천(金馬川)에서 내려와서 북쪽으로 현화교(玄化橋)로 들어가고 구만포(九萬浦)를 지나, 돈곶진(頓串津)에서 면천(沔川) 강문포(江門浦)에 들어간다. 덕산면에서 약 4리가 된다.

제5장 인물(人物)

(1) 박래성(朴來聲)

이조(李朝) 말기에 현재의 예산면 간양리(間良里)에서 태어나, 재능이 출중하며 학문에 뛰어났다. 그러나 관(官)에 오르지 못해 한탄해서, 일생(一生)을 부랑(浮浪) 생활로 지냈다고 한다. 게다가 힘도 세고 체격도 커서, 그의 위권(威權)은 보통사람들을 넘어 있었다고 한다. 어린아이들은 이 사람을 만나면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래서 간질환자(癎疾患者)에 박래성(朴來聲)이라고 쓴 종이를 붙이면 좋아진다고 한다. 이것으로 이 사람의 폭행(暴行) 정도(程度)가 얼마나 공포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2) 명현 김구(名賢 金絿)

이조시대광주인육칠세능속문부석류오작교시어개묘거세기지이십거
李朝時代光州人六七歲能屬文賦石猶烏鵲橋詩語皆妙世奇之二十擧
사마문필구절고관비왈퇴지작희지서치치유괴이십륙등 제지부제학
司馬文筆俱絶考官批曰退之作羲之書推置酉魁二十六登第至副提學
기묘동구사화찬해라내외난급방환추복려묘상중졸
己卯冬遘士禍竄海羅內外難及放還追服廬墓喪中卒

(3) 민회현(閔懷賢)

자이사려흥인이세실첩십륙세정모우궁부토성분거려삼년철필병진중
字李思麗興人二歲失帖十六歲丁母憂躬負土城墳居廬三年啜粥丙辰中
사마후거효겸배참봉전거호조좌랑등현량과탁배정언기묘폄환향리

司馬後擧孝兼拜叅奉轉居戶曹佐郎登賢良科擢拜正言己卯貶還鄉里

(4) 효자김맹(孝子金孟)

사적실전홍무경오(1390年) 정려비재읍내외암리

事蹟失傳洪武庚午(1390年) 旌閭碑在邑內外巖里

(5) 호장방맹천리종성신명감효정려재읍내향천리

戶長方萌千里終誠神明感孝旌閭在邑內香泉里

(6) 김륵(金勒)

정려사적실전

旌閭事蹟失傳

(7) 이개우(李開右)

정려사적실전

旌閭事蹟失傳

(8) 이사검(李思儉)

소고봉모효지모병도민상분모욕식연어득어무한천변인위효감소치정

小孤奉母孝至母病禱旻嘗糞母欲食鰱魚得於無限川邊人謂孝感所致丁

우로묘천문실효징위주부심환향리

憂盧墓薦聞實孝徵爲主簿尋還鄉里

(9) 직장 이문경(直長 李文卿)

사적재속삼강행실장령사공자정려재오원리

事蹟在續三綱行實掌令思恭子旌閭在吾元里

(10) 박충(朴忠)

부몰려묘삼년형 상불폐조석막기제량동거형제명묘국휼민상삼년만력

父歿廬墓三年兄 喪不廢朝夕莫其弟良同居兄弟明庙國恤民喪三年萬歷
계유(1573年) 정려재현내
癸酉(1573年) 旌閭在縣內

(11) 이구혁(郡守 鄭世翊)

년십칠모병단지추혈정즉시회소생사특명제직
年十七母病斷指追血旌卽時回甦生事特名除職

(12) 군수 정세익(郡守 鄭世翊)

모병단지획추감사계문
母病斷指獲瘳監事啓聞

(13) 정세량(鄭世良)

세익지제모병형제단지후연조부모상삼년철죽침토감사계문
世翊之弟母病兄弟斷指後連遭父母喪三年啜粥枕土監事啓聞

(14) 박신흥(朴信興)

모질사천어시치엄왕신흥연천호위자유수어부빙이탁귀이공지부조사
母疾思川魚時値嚴汪信興緣川號位者有數魚負氷而躍歸供而之父早死
유미복상금부사지년주갑수퇴복차어국기필소식급숙묘경종빈천침점
幼未服喪及父死之年周甲遂退服且於國忌必蔬食及肅廟景宗賓天枕苫
관문외주야호곡성복환가정처장토위단삭망북향배곡무신지변로무이
官門外晝夜呼哭成服還家淨處葬土爲壇朔望北向拜哭戊申之變老無以
부난급목욕축천일야호곡난평내기금상정묘명입충효문재오원리면천
赴難及沐浴祝天日夜號哭亂平乃己今上丁卯命立忠孝門在吾元里面泉
동리
洞里

(15) 효부 신씨(孝婦申氏)

진사이상빈처청년상부결의하종이유노고불인자재잉결노묘측불론
進士李尙貧妻靑年喪夫決意下從而有老姑不忍自裁仍結盧墓側不論
한서침처기중고석지하하칙생초동칙성빙이차성질이사고지성동시여
寒署寢處其中苦席之下夏則生草冬則成氷以此成疾而事姑城終始如之
일경불득종양선서조정려재대지동면내항리
一竟不得終養先逝朝旌閭在大枝洞面內項里

(16) 열녀 매읍덕(烈女 每邑德)

호장장중연녀야년이십삼부몰여자묘측삼년친제불상염장후부모욕탈
戶長張仲淵女也年二十三夫沒廬子墓側三年親祭不嘗塩漿後父母欲奪
기지이사자서수단발위니 조정려재현내면칠곡리
其志以死自誓遂斷髮爲尼 朝旌閭在縣內面七谷里

(17) 한씨(韓氏)

김건처야명정려재두촌면종경리
金建妻也命旌閭在豆村面宗敬里

(18)우씨(禹氏)

한홍조처야 조계해정려재현내암하리
韓弘祚妻也 朝癸亥旌閭在縣內巖下里

(19) 강씨(姜氏)

김태벽처야 부임몰이아위념강씨읍왈유조부모여의기결사호절후복
金泰壁妻也 夫臨沒以兒爲念姜氏泣曰有祖父母余意己決死號絶後復
소불식자진금묘조 정사정려재금평면관정리
甦不食自盡今庙朝 丁巳旌閭在今坪面觀正里

(20) 학금(鶴今)

정려사적실전

旌閭事蹟失傳

(21) 한문준(韓文俊)

성아정능속문인종조등제시방중외기역장주장흥남원삼군부사남경부

性雅正能屬文仁宗朝登弟時方重外奇歷長州長興南原三郡府使南京副

유수개유혜정문인오세만시왈 남호삼군속동무(주민)세칭보록관지문

留守皆有惠政門人吳世万詩曰 南護三郡俗東撫(州民)世稱寶錄官至門

하시랑평장사

下侍郎平章事

(22) 한취(韓就)

등진사제관지 문불성사이상고려조인

登進士第官至 門不省事以上高麗朝人

(23) 조진(趙振)

이조인 퇴계문인야관지판서저상제예초일권전평세

李朝人 退溪門人也官至判書著喪制禮抄一卷傳平世

(24) 효자이성만(孝子李成萬)

고려인야성만여기제순구지효부모사성만수부분순수모분각주애수삼

高麗人也成萬與其弟淳俱至孝父母死成萬守父墳淳守母墳各晝哀數三

년제의조칙제취형가모칙형취제가득일미불상회칙불상식사문정려

年制毅朝則弟就兄家暮則兄就弟家得一味不相會則不相食事聞旌閭

(25) 최승립(崔承立)

이조현종조이효사문정려

李朝顯宗朝以孝事聞旌閭

(26) 윤사성(尹思誠)

사인야이효지검행향리천문우조배관불취

士人也以孝支檢行鄉里薦聞于朝拜官不就

(27) 박원충(朴元忠)

효행정문재대흥군동일면탄방촌(금탄방리)

孝行旌門在大興郡東一面炭防村(今炭防里)

(28) 강씨(姜氏)

첨사박지영처야년십삼모병단지이연팔십여년사문복호

僉使朴枝榮妻也年十三母病斷指以延八十餘年事聞復戶

(29) 차명징(車命徵)

경징형제사인야이효행을사복호정묘사문정려

敬徵兄弟士人也以孝行乙巳復戶丁卯事聞旌閭

(30) 모만중(牟萬重)

사인야이효행사문정려

士人也以孝行事聞旌閭

(31) 최망회(崔望回)

양인야이효행벌오사문정려

良人也以孝行伐午事聞旌閭

(32) 전근금(田斤金)

양인야이효우사문정려

良人也以孝友事聞旌閭

(33) 권씨(權氏)

진사이성규처야이효행심리사문복호

進士李星規妻也以孝行審理使聞復戶

(34) 유수기(兪受基)

사인야이효행사문증지평

士人也以孝行事聞贈持平

(35) 열녀 곽씨(烈女郭氏)

고려조현풍인야년십구귀박근가이십삼근사질묘삼년복궐불귀목종효

高麗朝玄風人也年十九歸朴根家二十三根死疾墓三年服闕不歸木宗孝

양인남고종신사문정려

養仁男姑終身事聞旌閭

(36) 춘덕(春德)

사비야정려재군남이리

私婢也旌閭在郡南二里

(37) 황씨(黃氏)

학생박성망처야부사철죽삼년종신행소사문복호

學生朴成望妻也夫死啜粥三年終身行素事聞復戶

(38) 송씨(宋氏)

사인이시배처야부사호천일성이지폐면봉구이진선왕조사문정려

士人李時培妻也夫死呼天一聲而止閉眠封口而盡先王朝事聞旌閭

(39) 원씨(元氏)

통인공덕양처야부사무유복아시칠년유귀삼언아기오세면양기구욕급

通引供德樣妻也夫死撫遺腹兒侍七年有歸三言兒己五歲免懷其舅欲及
조개적열녀지차초불대칠세이음독사 헌종조병자사문정려
早改適烈女知此抄不待七歲而飮毒死 憲宗朝丙子事聞旌閭

(40) 이담(李湛)

자중구호정존제 중묘조인여퇴계선생상상우선왕복간찰다재퇴계집
子仲久號靜存齊 中庙朝人與退溪先生相相友善往復簡札多在退溪集
중이학행명어세관주대사간부학피을사화적양산행적재해동명신록거
中以學行名於世官主大司諫副學被乙巳禍謫梁山行蹟載海東名臣錄居
현북고산면
縣北高山面

(41) 이영원(李榮元)

자자선호용계종사학문사우사계김 선생구봉송익필시명우여종제구완
字子善號龍溪從事學文師友沙溪金先生龜峯宋翼弼詩名又與從弟九腕
공병칭여이동악김청음권석주제공상수창만자도양학제류소추중계해
公並稱與李東岳金淸陰權石州諸公相酬唱晩自蹈養學儕流所推重癸亥
개옥초이행의천어조징용지미취이졸사림분지유유고간행거현북고산면
改玉初以行誼薦於朝徵用之未就而卒士林憤之有遺槁刊行居縣北高山面

(42) 조극선(趙克善)

호야곡관지장령자초성지효부병기절단지출혈이진수득소묘산상실화
號冶谷官至掌令自初性至孝父病氣絶斷指出血以進遂得甦墓山嘗失火
장급분형향천통곡총양화멸인위지성소감급장유제현문위세명유 인
將及墳瑩向天痛哭忽兩火滅人謂至城所感及長遊諸賢門爲世名儒 仁
조조이학행피선효묘조특제대아출입괴악급기예궐졸연감질사지해어

祖朝以學行被選孝廟朝特除臺我出入怪幄及其詣闕猝然感疾死之解御상이의지명위사여송지기몰상진도의금관낭병령관비현묘조병오명정喪以衣之命衛士輿送之旣沒上震悼衣衾棺槨並令官庀顯廟朝丙午命旌려명년우이학행청백증이조참의

閭明年又以學行淸白贈吏曹叅議

(43) 한순(韓楯)

위인강개소유용력임진지란위남평현감문왜적유위급순솔군오백직향爲人慷慨少有勇力壬辰之亂爲南平縣監聞倭賊有危急楯率軍五百直向금산결진우량단산의종일교전세궁력진이사효묘조증직병조참의숙묘錦山結陣于梁丹山矣終日交戰勢窮力盡而死孝廟朝贈職兵曹叅議肅廟조정려우현북별나산촌

朝旌閭于縣北別羅山村

(44) 윤여익(尹汝益)

선묘지난시문열공조헌창의거여득첩어청주사절어금산숙묘증직지평宣廟之乱諡文烈公趙憲倡義擧旅得捷於淸州死節於錦山肅廟贈職持平

(45) 이의배(李義培)

자의백한산인생어만력병자기해등무과계해참정사훈력전라수사충청字宜伯韓山人生於萬歷丙子己亥登武科癸亥叅靖社勳歷全羅水使忠淸병사전라병사황해병사평안병사남병사봉한천군을해이승진사각재수兵使全羅兵使黃海兵使平安兵使南兵使封韓川君乙亥以承眞伺覺再授충청병사여이완풍상의선치마군과기예연진법이대변명년병자변경忠淸兵使與李完豊相議先治馬軍課技藝鍊陣法以待變明年丙子邊警쇄지공취병장부행재감사탈신첨마군공급수방근동오수천이가사속기

碎至公聚兵將赴行在監司奪新簽馬軍公急收傍近東伍數千以家事屬其
제작자주행강이청금조위계어과내친 부이착인간지공왈장임진사생
弟作自紬行纏以靑錦條爲繫於袴內親膚以着人間之公曰將臨陳死生
미가지타일원습욕이차위식수인병입죽산산성보문상왈조의충용개유
未可知他日原濕欲以此爲識遂引兵入竹山山城報聞上曰朝医忠勇豈有
여이의배자우위지차상기명일계향남한 군미반출졸우적병선봉장이
如李義培者于爲之蹉賞其明日癸向南漢軍米半出猝遇賊兵先鋒將李
차형이근영등개전사주환보죽산여경상좌병사허완우병사민영해진
次衡李根永等皆戰死遂還保竹山與慶尙左兵使許完右兵使閔泳偕進
광주지쌍령정족이진좌군실화군다소사삼진경요궤경적승세진군비장
廣州之雙領鼎足而陳左軍失火軍多燒死三陣驚僥潰敬賊乘勢進軍裨將
안삼오복인귀복진마청기공질지일사지차유유사이승마하지의처상입
安三五僕人貴卜進馬請騎公叱之日事至此惟有死耳乘馬何之衣處喪立
진전사적불기제장좌개망거독비장이억영노조축생재축생봉시아이공
陳前射賊不己諸將佐皆亡去獨裨將李檍營奴曹丑生在丑生奉矢俄而公
력진이부지수사지억축생변종사시정축정월삼일야기익월축생처왕전
力盡而仆地遂死之檍丑生變從死時丁丑正月三日也其翌月丑生妻往戰
장영득부시견공시체졸봉대이엄지귀고공지손한흥군왕시지칙면모발
場永得夫尸見公尸体猝蓬薹以掩之歸告公之孫韓興君往視之則面貌髮
무손좌복하급액간각대일전의상진피탈거독각하자주행전급청금조상
無損左腹下及腋間各帶一箭衣喪盡被奪去獨脚下自紬行纏及靑錦條尙
재수봉장어현북봉명동기후신사대신제중신진백연중상하교왈부자사
在遂奉葬於縣北鳳鳴洞其後辛巳大臣諸重臣陳白筵中上下敎曰父子死
절세소우유가추증의정녹용자손잉명정려

節世所罕有可追贈議政錄用子孫仍命旌閭

(46) 이목(李穆)

자명원의배지자갑자적괄거병반대가수공주공수내구이완풍서어적자
字明遠義培之子甲子賊适擧兵反大駕狩公州公隨內舅李完豊曙禦賊子
송도적함경사욕탐적정잠입성부적자집이고괄이병협강차이철과과슬
松都賊陷京師欲探賊情潛入城附賊者執以告适以兵脅降且以鉄撾撾膝
열완풍소재가불굴수살지사문상위지차도초증군곡판관이자여발귀증
閱完豊所在駕不屈遂殺之事聞上爲之嗟悼初贈軍哭判官以子汝發貴贈
호조판서봉한원군후인대신연달명정려
戶曹判書封韓原君後因大臣筵達命旌閭

(47) 이억(李億)

소유용력병자지난종이의배종남한미급성수십리우적력전이사사문
素有勇力丙子之乱從李義培從南漢未及城數十里遇賊力戰而死事聞
정려증병조참의재현동가좌촌
旌閭贈兵曹參議在縣東佳左村

(48) 박승휴(朴承休)

효묘조등제관지집의효우출천모병위독지시할지이구호종남한지일분
孝廟朝登第官至執義孝友出天母病危篤之時割指以救扈從南漢之日奮
신창의급지대고애훼감인리중인진원졸화위효자사문정려우현동장촌
身倡義及至大故哀毁感人里中人陳元卒化爲孝子事聞旌閭于縣東場村
면석곡리
面石谷里

(49) 박승건(朴承健)

승휴지제야여형대소과동방관지장령승휴지자상주승건지자세주개이
承休之第也與兄大小科同榜官至掌令承休之子常胄承健之子世胄皆以
효상문증관정려세이효경가칭지기현동장촌면석곡리
孝上聞贈官旌閭世以孝敬家稱之居縣東場村面石谷里

(50) 사과 이갑준(司果 李甲俊)

상모병할투단지득회소사문정려우현북별라산촌
嘗母病割骰斷指得回甦事聞旌閭于縣北別羅山村

(51) 이씨(李氏)

효자이갑준양여성지효미등부상구병양녀구단지출혈이진잉위회소사
孝子李甲俊兩女性至孝未等父嘗遘病兩女俱斷指出血以進仍爲回甦事
문급복거현북별라산촌
聞給復居縣北別羅山村

(52) 학생 신효(學生 申皜)

부처성지효모환급병여기처박씨구단지용혈병즉회소사문정려우현북
夫妻性至孝母患急病與其妻朴氏俱斷指用血病即回甦事聞旌閭于縣北
고현면
古縣面

(53) 좌랑 양만영(佐郎楊萬榮)

이효성출천숙묘조사문정려우대덕산면
以孝誠出天肅廟朝事聞旌閭于大德山面

(54) 학생 홍계성(學生 洪啓聖)

성효독지부모일시구질병지위급난작십지우할좌우복용혈의불구역혈

誠孝篤至父母一時遘疾並至危急乱斫十指又割左右服用血意不救亦血
진손명사문급복거현북대야곡
盡損命事聞給復居縣北大也谷

(55) 학생 박상주(學生 朴尙胄)

집의승휴지자부모병독삼단지일할흔출혈이구급조모상구혈감성후이
執義承休之子父母病篤三断指一割眼出血而救及遭母喪嘔血減性後以
효문증관지평
孝聞贈官持平

(56) 학생 성한익 생원 성운익 형제(學生成漢翼 生員成雲翼 兄弟)

성구지효기모병독형제할지이구잉득회소급부동지죽년포구질지구질
性俱至孝其母病篤兄弟割指以救仍得回甦及父同知壽年蒲九耋至遘疾
누차할지용혈혈진궐노견감기효역할지이진병소운익후이효증관좌랑
累次割指用血血盡厥咨堅感其孝亦割指以進病甦雲翼後以孝贈官左郎

(57) 충의 최준발 최준천 최준극(忠義崔俊發 崔俊天 崔俊克)

이일가삼형제 성효구독모병할지삼년려묘사문급복거현북외면
以一家三兄弟 誠孝俱篤母病割指三年廬墓事聞給復居縣北外面

(58) 이비(李秕)

의배지서자효우출천년재팔세문기부전망곡벽비호일여성인모병첩
義培之庶子孝友出天年纔八歲聞其父戰亡哭擗悲號一如成人母病輒
상분기모지남병영환야친호기교천리보행급기모사삼년철죽가유호
嘗糞其母之南兵營還也親護其轎千里步行及其母死三年鬻粥家有好
이호길위기모평일소기고매년성숙칙충읍이정천우묘향인문제조증
梨好吉爲其母平日所耆故每年成熟則忠泣而滴薦于墓鄉人聞諸朝贈

사복첨정

司僕僉正

(59) 노직(老職)

통정최경망 성지효부중영질병급지장절인도단지출혈적구 연명오일

通政崔景望 性之孝父重嬰疾病及至將絶引刀斷指出血滴口 延命五日

사문급복거현북외야면

事聞給復居縣北外也面

(60) 동지 이홍조(同知 李弘肇)

이효행저문급복거현동가좌촌

以孝行著聞給復居縣東佳佐村

(61) 학생 윤동우(學生 尹東雨)

성지효부영병질백약무효혹언인육최시묘약고잠할좌고두화갱이진부

性至孝父嬰病疾百藥無効或言人肉最是妙藥故潛割左股肚和羹以進父

병즉거사문급복거현서어운동

病卽去事聞給復居縣西於雲洞

(62) 학생 이준발(學生 李俊發)

성지효기모병상분단지주야읍도모사식생밀몽유일옹언왈합어가야산

性至孝其母病常糞斷指晝夜泣濤母思食生密夢有一翁言曰盍於伽倻山

구지경각직왕칙설봉산두막적소수총유일괴수출자암두약유지고자수

求之驚覺直往則雪封山頭莫適所授悤有一恠獸出自岩頭若有指告者數

삼과어암극득일봉과내취승허귀면진병회유이생선사급기모상방인유

三果於岩隙得一蜂窠乃取升許歸面進病回愈李生先死及其母喪傍人雖

어백주사엄목첩견이생피발반쇄지상사문여급미

於百晝乍掩目輒見李生被髮攀碎之狀事聞如給米

(63) 정부인 이씨(貞夫人李氏)

정현룡처부이강계판관전승북병사부처상이일순이씨민기무후언서상

鄭見龍妻夫以江界判官轉阱北兵使夫妻相離一純李氏愍其無后諺書上

소원위종부상특허왕종생일자즉언설야급부투종신행소족적불출문외

疏願爲從夫上特許往從生一子卽言說也及夫投終身行素足跡不出門外

사문정려우현북내대야면

事聞旌閭于縣北內大也面

(64) 이씨(李氏)

권라처헌납이흡지녀야년미이십상부삼년철죽종신행소사문정려

權邏妻獻納李洽之女也年未二十喪夫三年鬻粥終身行素事聞旌閭

(65) 어씨(魚氏)

학생리광주처부몰후식소몽자종신애훼일여거상사문급복

學生李光胄妻夫歿後食素蒙自終身哀毁一如居喪事聞給復

(66) 박씨(朴氏)

유제남처병자호란구졸지미급분피불수오욕투정이사사문정려

柳悌男妻丙子胡亂寇猝至未及奔避不受汚辱投井而死事聞旌閭

(67) 장씨(張氏)

강효민처병자병란피로매적불절구이사사문정려우현북고현내면

姜孝閔妻丙子兵亂被虜罵賊不絶口而死事聞旌閭于縣北古縣內面

(68) 윤씨(尹氏)

이여각지처윤공송황지증손녀삼십사조부상자액자루필미불진미경삼

李汝珏之妻尹公松煌之曾孫女三十四遭夫喪自縊者累弼糜不進未經三

년종지자진사문급복
年終至自盡事聞給復

(69) 최씨(崔氏)

이준걸지처부도심수사친이예기부병사칙역이자액종사사문정려우현
李俊傑之妻婦道甚修事親以禮其夫病死則亦以自縊從死事聞旌閭于縣
북고현내면
北古縣內面

(70) 사비유덕(寺婢有德)

이복룡지처병자로변피로불수오욕가적이사사문정여우현서촌
李福龍之妻丙子虜變被擄不受汚辱罵賊而死事聞旌閭于縣西村

(71) 사비재개(私婢再介)

성지효위양편모불귀기가모상구질할고상분급조모상삼년불여기부동
性至孝爲養偏母不歸其家母嘗遘疾割股嘗糞及遭母喪三年不與其夫同
처사문어여우현남대덕산
處事聞於閭于縣南大德山

(72) 이춘원(李春元)

선묘조등제관지참판호구완이문장명어세유문집거현북고산면지곡
宣廟朝登第官至叅判號九畹以文章名於世有文集居縣北高山面紙谷

(73) 이원익(李元翼)

춘원지손문과판서거현북고산면
春元之孫文科判書居縣北高山面

(74) 정현룡(鄭見龍)

무과관지북병사토왜유공승가의토호유공승정헌거현북내대야면

武科官至北兵使討倭有功陞嘉義討胡有功陞正憲居縣北內大也面

(75) 이여발(李汝發)

의배지손무과관지형판어장봉한흥군시정익공거현남대덕

義培之孫武科官至刑判御將封韓興君諡貞翼公居縣南大德

(76) 이기하(李基夏)

여발지자무과경형공조판서양국대장봉한흥군시정희공거현남대덕산

汝發之子武科經刑工曹判書兩局大將封韓興君諡貞僖公居縣南大德山

명사 시문(名士詩文)

(77) 제 영아계 이산해 객관시(題 詠鵝溪 李山海 客館詩)

백수서풍독의루고금인사진수수추산욕모수성원무한성변무한수

白首西風獨倚樓古今人事儘悠悠秋山欲暮水聲遠無限城邊無限愁

(78) 이순형시(李純亨詩)

설의당춘상미잔숭조화양양경한쇠옹자시수위지옥수하방진주반 우

雪意當春尙未殘崇朝和兩釀輕寒衰翁自是愁爲地玉手何妨進酒盤 又

심의오쇠기력잔장욕귀거내기한청산난수부용내기유고인임고반

甚矣吾衰氣力殘將欲歸去奈飢寒靑山亂秀芙蓉朶畿有高人任考盤

(79) 주부 박성건시(主簿 朴成健詩)

수의상월효미잔풍낙추강두각한뢰득전광산간흥준전료사울유반

授衣霜月曉未殘楓落秋江斗覺寒賴得顚狂山簡興樽前聊寫鬱攸盤

(80) 동악 이안눌시(東岳 李安訥詩)

여몽경회야미잔포산풍우현제한유거기만춘호수만죽총중일요반

旅夢驚廻夜未殘蒲山風雨縣齊寒幽居己滿春胡水萬竹叢中一遙盤

(81)

우일세오산관웅반병차과행화경우소풍엽착상다신세여정마년광사척

又一歲烏山館熊憐并此過杏花經兩少楓葉着霜多身世如旌磨年光似擲

준나감일석망창택저형파

埈那堪日夕望滄澤咀炯波

(82) 수찬이호윤시(修撰李好閔詩)

추입평림서기잔경장완벽수정한명조상마산적미로회수장천백오반

秋入平林署氣殘瓊漿椀碧水晶寒明朝上馬山賊嵋路囬首長天白烏盤

(83) 관찰사매계조위시(觀察使梅溪曹偉詩)

부서추안독화잔독미아번십지한수식용중시료재홀경동령용은반

簿書推案燭花殘牘尾鴉飜十指寒誰識冗中詩料在忽驚東嶺湧銀盤

(84) 관찰사안용시(觀察使安玩詩)

일구산수읍거잔일모황촌백옥한민막욕제제미득빈연불합성배반

一區山水邑居殘日暮荒村白屋寒民瘼欲除除未得賓筵不合盛杯盤

(85) 관찰사이숙시(觀察使李䎘詩)

가국손방설의최은근수기일지매호아병촉간소영세모금양위이개

佳菊損芳雪意催慇懃詹惟寄一枝梅呼兒秉燭看踈影歲暮襟壤爲爾開

(86) 좌랑 이욱 향천사만세루시(佐郎 李郁 香泉寺萬歲樓詩)

정생무계주여령암수비환의초정군로압형소양백일승한거원봉청인간

淨生無計住餘伶暗數悲歡依草亭群鷺柙迥疎兩白一僧閑去遠峯靑人間

박상음시객천상허명관주성위문시비하처정완공침취굴원성

薄相吟詩客天上虛名管酒星爲問是非何處定阮公沈醉屈原醒

(87) 이행민 신례원시(李行敏 新禮院詩)

천장고저사야통수수연양가범풍수운권조한심사부세공명일소중

千嶂高低四野通水樹煙兩賈帆風峀雲倦鳥閑心事浮世功名一笑中

(88) 조기석 각협헌상량문(趙祺錫 覺筴軒上樑文)

부사재반면해사지장퇴휘구중수첨동우지현폐기자평지향약승천언념

鳧寫再返憫廨舍之將頹翬構重修瞻棟宇之顯敝起自平地逈若昇天言念

현위지구공개록공관지루도매당기폐석황로지재영초창채황잉곽군지

縣衛之久空盖綠公館之屢徒梅堂己廢惜黃老之載營草刱采遑仍郭君之

이택거혐애이미정좌와유탄기증울이난통등수무소주초점측경일월지

移宅居嫌隘而靡定坐臥有歎氣增鬱而難通登睡無所柱礎漸側驚日月之

기주헌함수경개풍우지막폐사존윤흥지제용회즙수지규포토척기고수

己遒軒檻隨傾慨風雨之莫蔽肆遵輪興之制庸恢葺修之規鋪土拓基高數

인이저등연석성체정사방이지평수진농지미재시심시도선반수지묘예

仞而杵等鍊石成砌定四方而砥平輸秦儱之美材是尋是度選般倕之妙藝

위통위영사구수신녕론재력지비종금시석시지제작지굉의식목이용관

爲桶爲楹捨舊授新寧論財力之費從今視昔始知制作之宏宜拭目而聳觀

고게액이정호빙란결의편각사망지동명좌경심가상삼우지반피번금이

故揭額而定號凭欄決意便覺四望之同銘坐警心可想三隅之返披煩襟而

척열족이녕구작탐천이첨청개역취의자장줄구조거수양포양동소욱지

滌熱足以寧軀酌貪泉而添淸蓋亦取義玆將怵儒助擧修樣抛樣東霄旭遲

지숙무중묵좌시문현송향취미고처시유궁포량서일점요잠대색저포지

之宿霧中默坐時聞絃誦響翠微高處是儒宮抛樑西一點遙岑黛色低蒲地

괴유량뢰발석양무한란선제포양남시림추색정홍감부간협로인왕 래반

槐陰凉籟發夕陽無限亂蟬啼抛樑南柿林秋色正紅酣俯看恢路人往來半
시정○반하담포량북금초부용천장입귀몽유시심옥경단소표묘망신극
是征○半荷擔抛樑北金削芙蓉千丈立歸夢有時尋玉京丹霄縹緲望宸極
포량상즉월청풍혼일양야반선소 삼양성사군흉차각소혐포량하정반장
抛樑上卽月淸風渾一樣夜半仙簫 三兩聲使君胸次覺簫莢抛樑下庭畔薔
미화만가리속형서춘주장일확창학반한복원상량지후당기공고읍거막
薇花萬架吏束刑書春晝長一霎蒼鶴伴閑伏願上樑之後堂基鞏固邑居莫
안팔창청개화양조조능허지기문동벽광정절소원지성장일실지관한유
安八窓晴開華壤助助凌虛之氣門洞闢廣庭絶訴寃之聲將一室之寬閑囿
백리지순고공여시주소영이소우리은호산서당반이우흥
百里之淳古公餘詩酒嘯咏而消憂吏隱湖山庶儻伴而寓興

(89) 비판부제학김구비명(碑板副提學金絿碑銘)

有明朝鮮國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 敎兼經筵叅贊官春秋館提學藝文舘提學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修撰官修撰官 贈嘉善大夫 吏曹叅判兼弘文館成均館事 自菴金先生墓碑銘幷序公諱絿字大柔光州人己卯先賢傳所謂自菴金先生者也公天分絶高踐履又篤自少發墳力行其相與講究切磋皆一時善類 中廟方銳意文治作新一世而公及靜菴趙先生冲菴金先生爲上下所依重協心贊迪圖囮至治以堯舜君民與起文爲巳斯任始由槐院選入弘文館正字歷著作博士修撰校理旋拜吏曹佐郎卽薦正郎由司諫院獻納司諫掌樂院正復入弘文館應敎典翰直提學常兼藝文館應敎成均館司成賜暇湖堂陞拜承政院同副承旨遷左承旨移拜副提學俄而北門禍作卽己卯十一月十五日也公及靜菴冲菴一夜但下理先是南袞沈貞爲公議所棄積怒逞憾潛誣以大迸事匹測賴大臣鄭光弼力救分配有差流竄四出公杖流於開寧居數月加罪竄南海靜菴沖菴意末免加命嗚呼可慟也己士固有竭忠直道

進不得遭遇明主樂善好學退不得獨善其身困厄以歿地者矣若公忠足以結主知而黜於聖朝之世明足以保其身而意遭憸人之穽此又何哉嗟呼天道之不可必一至此歟公處絶島十三年始得量移臨陂又二年放還鄉里其謫也父母俱先歿至是奔哭父母墓絶而復甦欲伸追遂之情朝夕上塚涕淚所着草木盡枯以嘉靖甲午十一月十六日病不起享年四十七葬于禮山宗敬里子坐午向之原從先命也後五十七年當 宣庙朝特 贈吏曹叅判公文章寄杰高出魏晋旁及藝能審音律其拜樂正欲令正雅樂也十六傀漢城試二十中司馬二十六登文科其應司馬時也先生金慕齊爲考官極加賞歎秕其卷曰退之作羲之書遂擢置兩科國朝所罕也筆法强健自成一家世謂之仁壽體盖公之居仁壽坊故也後聞爲華人所購絶不書以此罕傳于世考諱季文大興縣監 贈左承旨祖諱性源成均館司藝 贈吏曹叅判曾祖諱禮蒙禮曹判書諡文敬公妣淑夫人全義李氏麗太師棹之後娶金海金氏萬戶震賢其考也克秉婦道合美毓慶生二男一女鎔早歿次曰鈞進士壯元長曰韞司諫院獻納次曰韐別坐以孝贈持平出繼鎔後女適順溪君安世復李思航生一男曰希容直長韞二男一女曰撥萬戶曰榥通政郡守女適尹德敬側出也韐生二男二女曰櫹縣監曰楗宣務郎女適縣令以營義次適僉知李晋亨安世復生四男三女曰夢益生員曰夢尹順陽君曰夢涉宣務郎曰夢尙通德女適士人申大根次適叅奉元士益次適主簿洪逈內外曾玄孫凡百餘人 幼學伯輝櫹之出也寔爲宗孫興順陽君及諸宗人晶賢墓刻手家狀屬金世濂曰 公沒己百餘年顯刻尙闕豈獨子孫之責也其在斯文欠缺亦大然則非子誰宣銘世濂辭不獲謹銘銘曰

道學之與文正寶倡拔第連茹君子道長

允矣先生造詣旣深瑣篪迭應其利斷金

敬義夾持惟正是悅行有憸易不改其轍

摯兇所嫉讒巧岡極危機猝駭爲鬼爲蜮

天之將喪哲人云凶投身絶域沒齒窮鄉
公議一定不待百年士林儒宗星斗于天
豊碑大篆用表厥坎刻旨無窮公則奚憾
皇明崇禎十三年庚辰十月 日立
四代孫順興後人安應鑑書
後學通政大夫成均館大司成知製敎金世濂撰篆

[전면대자]
통정대부 홍문관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홍문관제학 예문관제학 동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 자암 김선생 휘 구지 묘. 증정부인 김해김씨 부좌

[두전]
자암 김선생 묘비명
유명조선국 통정대부 홍문관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홍문관제학 예문관제학 동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 자암 김선생 묘비명 병서

공의 휘는 구요 자는 대유니 광산인이다. 기묘선현전에 이른바 자암(自庵) 김선생이다. 공은 천성이 순교하며 행실이 또한 돈독하였다. 어려서부터 발분역행(發憤力行)하며 그 서로 더불어 강구하고 절차한 이들이 모두 일시의 훌륭한 무리였다. 중묘조에 문치에 힘써서 한 세상을 일으키고 새롭게 함에 공과 정암(靜菴) 조선생·충암(冲菴) 김선생이 위아래로 의지하고 중히 여기는 바가 되어서 협심하고 도와서

지극한 다스림을 도모하고 돌이켜서 요순의 군민으로 사문을 흥기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임무로 생각했다. 처음에 괴원으로부터 뽑혀서 홍문관에 들어가 정자가 되었으며 저작·박사·수찬·교리를 역임하고, 곧 이조좌랑을 배수하고 정랑으로 옮겼다. 사간원 헌납·사간과 장악원정을 말미암아 다시 홍문관에 들어와 응교·전한과 직제학이 되어서 항상 예문관 응교와 성균관 사성을 겸하였다. 호당에 사가하고 승정원 동부승지에 올랐다가 좌승지로 옮기고, 부제학으로 배수하였다.

잠깐 있다가 북문에 화가 일어나니 곧 기묘년 11월 15일이었다. 공은 정암·충암으로 더불어 하룻밤에 모두 내려 취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곤(南袞)·심정(沈貞)이 공의에 버리는 바가 되어서 적노(積怒) 감정을 드러내어 몰래 역적이라고 모함해서 일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대신 정광필(鄭光弼)이 힘써 구함을 힘입어 나누어 귀양감에 차등을 두어 귀양 보냈는데 공은 개령으로 장류되었다. 몇 달을 지내고 죄가 더하여져 남해로 쫓겨 갔다. 정암·충암은 사형의 명을 면치 못하였다. 오호라! 가히 통곡할 뿐이로다. 선비는 진실로 충성을 다하고 도를 곧게 함이 있으니 나아가 밝은 임금에 착함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이를 만나지 못하고 물러나 홀로 그 몸을 착하게 하고 액곤으로 세상에 몰하는 것이다. 만일 공 같은 이는 충성이 족히 써 임금의 알아줌을 맺을 만하되 성명한 세상에서 내쳐졌고, 밝음이 족히 써 그 몸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마침내 모리배의 함정을 만났으니 이 또한 어찌 하리오?

슬프도다! 하늘의 도를 기필할 수 없음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도다. 공이 절도(絶島)에 처한 지 13년에 비로소 임피로 옮기고 또 2년에 향리에 방환되었다. 그 적소에 있음에 부모가 모두 먼저 죽어 이

에 이르러 부모의 묘에 달려가 곡했다. 끊어졌다 다시 소생해 추후에 죄를 벗고자 하는 감정이 조석으로 무덤에 올라 눈물을 흘린 곳에 초목이 모두 말랐다. 가정 갑오 11월 16일에 병들어 일어나지 못했으니 향년이 47이었다. 예산 종경리 자좌 오향의 언덕에 장사 지내니 선세 산소에 따른 것이었다. 그 후 57년에 선묘 조를 당해서 특별히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공의 문장은 기이하면서도 높지 아니하고 위진(魏晋)에서 나왔으면서도 곁으로 예능에 미쳐서 음율을 알아서 악정을 배수하여서는 명하여 아악을 바르게 하고자 하였다. 16세에 한성시에 장원했으며 20세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26세에 문과에 급제했다. 사마시에 응할 적에 선정 김모재(金慕齋)가 시관이 되었는데 자주 감탄하고 칭찬을 가하여 그 시권에 비답하여 이르길, "한퇴지의 지음이요 왕희지의 글이라." 하고서 드디어 발탁해서 두 장원으로 뽑았는데 국조에서 드문 바이었다. 필법이 강건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으며 세상이 인수체라 일컬었으니 대개 공이 인수방에 산 까닭이었다. 후에 중국 사람들이 사가는 바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끊고 쓰지 않아서 세상에 전해짐이 드물다.

고의 휘는 계문(季文)이니, 대흥현감이며 좌승지에 증직하고, 조의 휘는 성원(性源)이니 성균관 사예로 이조참판을 증직하고, 증조의 휘는 예몽(禮蒙)이니 예조판서로 시호는 문경공이다. 비 숙부인 전의이씨는 고려 태사 도(棹)의 후예다. 김해김씨를 취하니 만호 진현이 그 아버지이다. 능히 부도를 이어나가서 아름답고 경사스러웠다. 2남 1녀를 낳으니 장남 용(鎔)은 일찍 죽고, 다음 균(鈞)은 진사에 장원하고, 딸은 전력부위 이사항(李思航)에게 시집갔다. 균이 2남1녀를 낳

았는데 장남 온은 사간원 헌납이요 차남 협은 별좌인데 효로 지평을 증직하였고, 용에게 출계했다. 딸은 증 순계군 안세복(安世復)에게 시집갔다. 이사항이 1남을 낳으니 희용(希容)인데 직장이다. 온이 2남1녀를 낳았으니 발(撥)은 만호요, 황(榥)은 통정으로 군수요, 딸은 윤덕경(尹德敬)에게 시집갔는데 측실에서 나왔다. 협이 2남2녀를 낳았으니 숙은 현감이요, 건은 선무랑이요, 장녀는 현령 이영의에게 시집갔으며, 차녀는 첨지 이진형에게 시집갔다. 안세복은 4남3녀를 낳았으니 몽익은 생원이요, 몽윤은 순양군이요, 몽척은 선무요, 몽상은 통덕이다. 장녀는 사인 신대근에게 시집갔으며, 다음은 참봉 원사익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주부 홍형에게 시집갔다. 내외 증현손이 모두 백여인이다. 유학 백휘(佰輝)는 숙의 소생으로 이가 종손이 되는데 순양군으로 더불어 제종인이 산소에 비 세울 것을 도모해서 가장을 가지고 김세겸에게 부탁하여 말하길, "공이 죽은 지 이미 백여 년에 나타내어 각석함이 아직도 궐했으니 어찌 자손의 탓뿐이리오? 그 사문에 있어 결함이 또한 크도다. 그런즉 그대가 아니면 누가 마땅히 명하리오?" 하니 세겸이 사양하여 얻지 못하고 삼가 명하노니,

도학의 일어남은 문정공이 실로 비롯하였다.

띠를 뽑아 연하여 먹음에 군자의 도 자라도다.

미쁘도다. 선생이여! 조예가 깊었도다.

현인이 서로 응하여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끊는도다.

경과 의를 끼어 갖어 오직 정을 기뻐하였는도다.

행함에는 험하고 평탄함이 있었으나, 그 도는 고치지 아니한다.

군흉들이 미워하여 참소하고 모함이 그지없다.

위기가 마침내 놀래키어 귀신 되고 여우 된다.

하늘이 장차 망함에 철인이 죽어간다.
먼 지역 귀양 가고 궁향에서 종신한다.
공이 한번 정함에 백년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사람이 마루로 하고 하늘에는 북두칠성이라.
큰 비에 크게 새겨 그 무덤 표하노니
무궁한 뒷날에 새기어 보이나니 공이 어찌 유감이 있으리오.
황명 숭정 삼십년 경진 시월 일에 세우다.
四代孫順興後人安應鑑書
後學通政大夫成均館大司成知製敎金世濂撰篆

(90) 생원 허섬 묘비(生員 許銛 墓碑)

자언진양천대성고려문하문경공허홍지후야증조휘황사간원사간조휘
字彦晋陽川大姓高麗門下文敬公許洪之後也曾祖諱莫司諫院司諫祖諱
집지중추부사증시정간공문휘난음보참봉취종실덕인수녀가선갑오생
輯知中樞府事贈諡靖簡公文諱蘭蔭補參奉娶宗室德仁守女嘉靖甲午生
공유이기암총혜과인개관사사화담자택익다역학중병오사마인이재곡
公幼而岐巖聰慧過人旣冠師事花潭資澤益多力學中丙午司馬人以材哭
칭복거호서완정명수불희관달이주왈오병인육월경진이질졸우가형년
稱卜居湖西玩情明秀不喜官達以酒曰娛丙寅六月庚辰以疾卒于家亨年
사십삼공천성효우불행조손선기부형통재시년십이월장우예산사동묘
四十三公天性孝友不幸早損先其父兄痛裁是年十二月葬于禮山寺洞卯
좌유향입원종선실지용초배정윤녀역온양망족선공서생이남일녀장왈
座酉向入原從先室之龍初配鄭胤女亦溫陽望族先公逝生二男一女長曰
장차왈찬녀공후취정즉민춘난무후오천약조덕기창궐후야여융경
璋次曰瓚女紉後娶正卽閔春闌無後噫天若助德其昌厥後也歟隆慶

무진십일월 일입

戊辰十一月 日立(1568年)

(91) 월성위 김공 묘갈(月城尉 金公 墓碣)

御筆有明朝鮮國綏禄大夫月城尉兼五衛都摠府都摠管 贈諡貞孝金公之墓 和順翁主祔左望七之年抆涕以寫公諱漢藎字幼輔十三簡儀賓尙今上第二女和順翁主封月城尉階自順義大夫屢回慶覃恩歷陞至綏祿班齊三事嘗兼五衛都摠府副摠管濟用監提調公長身卽眸符彩襲人自幼英發敏悟既就傳不煩課督文義日就及錧于貳室則一切兢畏謙卑身不衣紬帛行不乘軺驕居處鞍馬不異寒士終日屛人客斷造請掩門自守嚴束隷屬絶無敢高聲街路侵及市廛事父母愛敬但至志物咸備母夫人嬰疾在牀而公養之殫誠秤水甘旨久而不澥守制于宗家所居湫陋而不少變祭尊非甚病必叅春秋必省墓行李肅然所過民人至今稱頌聞公喪或有流涕者上臨幸主弟令私覿而以方憂服力辭値忌日先期澡潔攝大小邦祭亦如之仲氏蚤世而其子弱敎誨眷愛無間己出叔氏末仕且貧月必繼栗凡有所需靡不曲副推以及於恤外家眷族媚吉凶之助不遺疎平居無所好唯書未嘗去手問與會心人語揚扢古今剖判利義利亹亹乎如河決泉湧或聞民憂政疵慨然傷歎若恫瘝之在己也嘗屢應製進詩且媚於八法屢書哀諡冊文篆印寶陵表春塘與澤宮試射反矢亦多前後賞賚頻繁其在朝班垂紳瑞笏肩背竦直見者肅然當公在疚日 上聞年少儀賓嬉笑聲誡之曰使月城在者爾輩豈如是耶其見重於上下如此噫以公地處其不囿於富貴己難矣況其文藻之彪炳才猷之敏達使之由甲乙平進則優可以羽儀朝右訏謨槐棘而局於邦制終不克施展一二天又閼其壽噫其惜哉公之先出新羅宗姓仍籍于慶州以高麗太師仁琯爲鼻祖麗末有諱子粹號桑村我朝徵以刑判不就立憘自麗至今冠冕相承高祖諱弘郁黃海觀察使以直言褒贈蒙宰諡文貞曾祖諱世珍金井察訪贈左贊成祖諱斗星成均生員贈

領議政考諱興慶領議政致仕歷事三朝有古大臣風妣昌原黃氏平市令夏英女秋浦文敏公愼之玄孫也公以戊寅正月四日疾卒臨終顧語後事甚治無怛化色請以化色請以伯兄之子頤柱爲後令旁人齊手斂足脩然而逝享年三十九翁主婉嫕貞淑性不喜金珠侈麗上親授小學列女傳通大義甫九歲遭孝章世子喪慟之若成人雖粥飮上未之御則不肯進其孝友篤至自幼己如此及出閤不挾尊貴一事母敢自專至誠事舅姑靡不用極公嘗怒一侍婢將加以重刑主乃下階進諫貌恭而言和公之疾且革主告以當下從旣屬纊却水漿不近口上親臨慰論又降御札懇勤而終不回涕泣對曰臣旣許身於人不能終孝於殿下矣謂頤柱曰昔人云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毁傷古所謂烈女者多自戕吾甚恥之吾當自盡兩全節孝而己如是者積十四日竟以是月十七日皐復壽亦與公同三月同啓靷官司備物合窆于禮山烏石山議政公塋右枕庚之原公及主之喪上俱卽臨哭親製文屢賜祭特諡貞孝大臣禮官以主之節行自古所罕合辭請施棹楔上下許返虞日又躬臨賜祭親書誠淺莫回嘉爾隨貞八字刻揭靈筵又御書墓表大字以賁之恩榮曠前可以輝映泉塗嗚呼閭巷匹婦或一時倉卒感慨引決者有之而亦不易多覯也況以王姬之貴秉志貞固如金石從容就義歷選千古未之聞焉噫斯可見我聖上家法之正禮敎之懿而公之平素所以儀刑者從可知矣吁其盛矣頤柱方爲奉事有三男長魯永餘幷幼公有側出二女長適南原尹周欽一未行不佞於公亦以公故一再覿每懷公雅趣淸儀不敢忘今公嗣子求不佞識墓不可以不文辭謹怐記之俾刻于石陰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致仕奉朝賀兪拓其述不肖男頤柱書

숭정기원후삼신사 월 일입

崇禎紀元後三辛巳 月 日立(1761年)

[전면대자]

유명조선수록대부 월성위 겸 오위도총부도총관 증시정효 김공지묘 화순옹주 부좌

공의 휘는 한신(漢藎)이요 자는 유보(幼輔)니, 13세에 의빈에 간택되어 지금 임금의 제2녀 화순옹주(和順翁主)에게 상(尙: 사기에서 나라의 공주나 옹주를 아내라 맞이할 때 이르는 말)하여 월성위(月城尉)에 봉하였다. 계직은 순의대부로부터 여러 차례 임금님의 넓으신 은혜로 두루 벼슬에 오를 것으로부터 벼슬이 반제 삼사에 이르고 일찍이 오위도총부부총관과 도총관과 제용감의 제조를 겸하였다.

공은 키가 크고, 눈동자가 맑으며 빛이 상서롭고 광채가 사람을 매혹시켰다. 어렸을 때부터 재기가 밖에 나타나고 총명하여 이미 스승에 나아가서 과독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문의가 날로 진보하여 부마가 되는데 미쳐서는 일체를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낮추어서 몸에 비단옷을 입지 않았다. 행함에 가마를 타지 않고 거처하는 것과 안장과 말이 한사와 다를 바 없었다. 종일토록 사람을 물리치고 객은 나아가 청하는 것을 끊고 문을 닫고 스스로 지키고 노비들에게 엄격히 단속하여 절대로 감히 거리 길에서 높이 소리치고 시장에 미침이 없게 하였다. 부모를 섬김에 사랑과 공경을 모두 지극히 하고 뜻과 물건이 다 갖추어졌다. 모부인이 질병에 걸려 침상에 있을 때 공이 봉양하기를 성심을 다하여 물의 달고 맛있는 것을 세심하게 헤아린 지 오래 되나 게으르지 않았다. 종가를 지켜 다스림에 비좁고 누추한 곳에 거하되 조금이라도 제사를 지내는 데 변함이 없었으며, 심한 병이 아니면 반드시 참석하였으며, 봄가을에는 반드시 성묘를 하였다.

짐 보따리가 소연하여 지나는바 백성들이 지금까지 칭송하였다. 공의 상사를 듣고 혹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었다. 임금이 사제에 임해서 사사로이 보려함에 부모의 상으로써 힘주어 사양하였다. 기일을 당하여 먼저 몸을 깨끗이 닦고 대소의 일을 관할하였다. 나라의 제사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중씨가 일찍 돌아가고 그 아들이 어리니 가르치고 돌보아 사랑함이 자기 자식과 사이가 없었다. 작은 아버지가 벼슬하지 아니하고 또한 가난하니 달마다 반드시 양식을 대어주고 모든 쓰이는 바가 있을 적에 곡진히 도와서 미루어 구휼하는데 미치지 아니함이 없었다. 외가 친족·인척에까지 길흉에 돕는 것이 성글고 천하다 하여 빠뜨리지 아니하였다. 평소에 거함에 좋아하는 바가 없고 오직 책만은 일찍이 손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간간이 마음으로 더불어 남의 말을 이해하게 되면 드러내 기뻐하고 고금에 의리를 분석함에 힘써서 마치 강물을 트고, 샘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았다. 혹 백성의 걱정과 정치의 잘못된 것을 들으면 개연히 슬퍼하고 탄식하여 상심하여 괴로워함이 자기에게 있는 듯하였다.

일찍이 여러 번 응제시를 올리고, 또한 팔법에 아름다이 해서 여러 번 애시(哀諡)와 책문을 쓰고 인보(印寶)와 능표(陵表)에 전서하였다. 춘당(春塘)과 택궁에서 시사하고 반시함에 또한 많이 전후에 상을 하사함이 빈번하였다. 그 조정에 있을 때에는 큰 띠를 내려뜨리고, 홀기를 바르게 잡고, 어깨와 등이 꼿꼿하여 바르니 보는 자가 숙연하였다. 공이 병들어 있었던 날에 임금께서 연소한 의빈들이 즐거이 놀면서 웃음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월성으로 하여금 있었더라면 너희들이 어찌 이와 같이 하겠느냐.”라 하였다. 그

상하에서 중함을 보임이 이와 같았다.

슬프다. 공의 처지가 부귀에 얽매이지 아니함이 이미 어렵거든 하물며 그 문장이 빛나고 재주가 민달하니 그로 하여금 차례대로 나갔더라면 넉넉히 가히 조정에 등용되어 공경들의 일을 도울 수 있었으나 나라의 제도에 국한되어 마침내 능히 한두 가지를 베풀어 펴지 못하고 하늘이 또 그 수를 주지 않았으니 슬프다. 애석하도다.

공의 선대는 신라의 종성에서 나와서 인하여 경주에 관적을 하고 고려 태사 인관(仁琯)으로 비조를 삼았다. 려말 휘 자수(子粹) 호 상촌(桑村)은 조선조에 형조판서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아니하고 충성을 세웠다. 고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벼슬이 서로 이어져 고조 휘 홍욱(弘郁)은 황해도 관찰사인데 직언으로 포상하여 총재를 증직하고 시호를 문정(文貞)이라 하고 증조 휘 세진(世珍)은 금정 찰방으로 좌찬성을 증직 받았다. 조 휘 두성(斗星)은 성균 생원으로 영의정을 증직하고 고의 휘 흥경(興慶)은 영의정으로 세 조정을 내리 섬겨서 옛 대신의 풍도가 있었다. 비 창원황씨는 평시령 하영(夏英)의 따님이시고, 추포(秋浦) 문민공(文敏公) 신(愼)의 현손이다.

공은 무인 정월 4일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임종시에 돌아보아 후사를 말함에 심히 다스려서 슬퍼하는 화색이 없게 하고 청하여 백형의 자식 이주로 후계를 삼고, 곁에 사람으로 하여금 손을 가지런히 하고 발을 거두게 하고 수연히 돌아가니 향년이 39세이었다. 옹주는 온순하고 정숙하며 성품이 금이나 진주 등 사치하고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았다. 임금께서 친히 소학과 열녀전을 주어서 대의를 통하였고, 겨우 9세에 효장의 세자상을 만나서 통곡하기를 마치 성인과 같이 하여 비록 죽을 마셔도 임금이 드시지 아니하면 드리기를 즐겨

하지 않으니 그 효우가 돈독하고 지극함이 어렸을 적부터 이미 이와 같았다. 대궐을 나갈 때는 존귀한 세도를 부리지 아니하고 일사라도 감히 스스로 오로지 하지 않고 지성으로 시부모를 섬김에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다.

공이 일찍이 노하여 한 시비에게 장차 중한 형벌을 가하려는데 옹주가 이에 계단으로 내력 간언을 올림에 모습을 공손히 하고 말을 화하게 하였다. 공의 병이 위급해지자 옹주가 마땅히 내려 좇을 것을 고하고 이미 임종하심에 물과 장을 물리치고 입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 임금께서 친히 임하시어 위로하여 달래시고 또 어찰을 내리셔서 간곡히 권하였으나 마침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려 대답해 말하기를 "신은 이미 남에게 몸을 허락해서 능히 전하께 효를 다할 수 없다." 하였다. 이주에게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몸과 머리털과 살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인지라. 감히 훼손하여 상하지 말라 하였는데 옛적에 이른바 열녀라 이른 자는 모두 스스로 해쳤으니 내 심히 부끄러이 하노라. 나는 마땅히 스스로 다하여 절과 효 양자를 온전히 할 따름이다."라 하였다.

이와 같이 하기를 14일을 지나서 마침내 그달 17일에 돌아가시니 수가 또한 공으로 더불어 같고 석 달 만에 함께 발인해서 관에서 물건을 갖추어서 예산 오석산 의정공의 무덤 오른쪽 경좌의 언덕에 합폄하였다. 공과 옹주의 상사에 임금께서 다 나아가 임하여 곡하시고 친히 글월을 지어 여러 차례 제사를 내리시고 특별히 시호를 정효(貞孝)라 하였다. 대신 예관이 옹주의 절행은 예로부터 드문 바라 해서 모두 말하여 정려를 베풀기를 청하니 임금께서 허락치 않으시고 반우하던 날에 또 몸소 임하시어 제사를 내리시고 친히 '성천막회가이

수정(誠淺莫回嘉爾隨貞)'이란 여덟 자를 각하여 영전 앞에 걸도록 내리셨다. 또 묘표 대자를 써서 여기에 지내시니 무덤 앞에 은혜롭고 영화로움이 황천길에 휘영하게 되었다.

오호라. 여항의 필부는 혹 일시 창졸간에 감개하여 자결하는 자가 있으나, 또한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하물며 왕의 따님의 귀함으로써 뜻을 잡음이 곧고 굳기가 금석과 같고 조용히 의에 나가서 천고를 지나도록 뽑더라도 이런 것을 듣지 못하였도다. 희라. 우리 성상의 가법의 바름과 예교의 아름다움을 가히 볼 수 있고 공의 평소에 가정 다스리던 법도를 가히 알 수 있다. 아, 그 성함이여!

이주는 바야흐로 봉사가 되고 세 아들을 두니 장자는 노영(魯永)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공은 측실에서 두 딸을 두니 큰딸은 남원 윤주흠(尹周欽)에게 시집갔고 하나는 시집가지 않았다. 불령이 공에게 또한 공의 일로 한두 번 뵙고서 매양 공의 아담한 취지와 맑은 태도를 생각해서 감히 잊지 못하더니 이제 공의 사자가 와서 불령에게 묘비를 기록하기를 구하니 가히 글 못하는 것으로써 사양할 수 없어서 삼가 비각을 비석의 뒤에 대략 기록한다.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중추부사 치사 봉조하 유척기 짓다.

불초남 이주 쓰다.

숭정 기원후 삼 신사년 월 일에 세우다.(1761)

(92) 김상국 육휼민시혜영세불망비(金相國 堉恤民施惠永世不忘碑)

서일본도개어기호지간이왕자병희지부지호피부역번배총어탄지지출
序日本道介於幾湖之間以王子兵燹之不至酷被賦役煩倍蓯焉殫地之出
유불능민무막거지낙구의상국김공비중의건백우조설행경대동춘추각

檜不能民無莫居之樂久矣相國金公裶衆議建白于朝設行京大同春秋各
일결미오두외무타부언이상서시방협찬규화이성기법편사민안도여고
一結米五斗外無他賦焉李尙書時昉協贊規畵以成其法便斯民安堵如故
희희이낙차비지소이입야오호만세불망비불위무조명왈흡민심아공전
熙熙而樂此碑之所以立也嗚呼萬世不忘碑不爲無助銘曰洽民心我公專
협민골아공택사지불예피지어석순치십칠년경자사월일 예산청양병립
浹民骨我公澤思之不隷被之於石順治十七年庚子四月日 禮山靑陽竝立
재신례로방보유
在新禮路傍補遺(1660)

(93) 집성사기(集成祠記)

회옹부자생어주정장자지후절충군언은휘경전이위만세지전칙소위집
晦翁夫子生於周程張子之後折衷群言殽揮經傳以爲萬世之典則所謂集
군현지대성자신불무의급부자투성학무전이언훤양사도회미이불창천
群賢之大成者信不誣矣及夫子投聖學無傳異言喧颺斯道晦味而不彰天
우아동진유배출추관계우루석분호분명리지공침침호염낙지서의지아
佑我東眞儒輩出抽關啓鐍縷析分毫分明理之功鋟鋟乎濂洛之盛矣至我
우암송문정선생칙광이대지천이명지원접고형지통근집제유지성울연
尤菴宋文正先生則壙而大之闡而明之遠接考亨之統近集諸儒之成蔚然
위백세지사종기공가위지의근래호중빈빈다학문지사함일구언왈회옹
爲百世之師宗其功可謂至矣近來湖中彬彬多學問之士咸一口言曰晦翁
공자후일인우암회옹후일인야후학지존상모범의막여양선생수입사어
孔子後一人尤菴晦翁後一人也後學之尊尙模範宜莫如兩先生遂立祠於
예산비곤리이타감진상부자북벽선생배좌편이집 성이위등의방앙지소

禮山飛鵾里以妥甘眞像夫子北壁先生配左扁以集成以爲謄依放仰之所
변출어의외개이위임봉미안차사재벽우실방유식내어발계사월일이건
變出於意外皆以爲仍奉未安且祠在僻隅宗妨游息乃於發癸巳月日移建
우관봉지하검계지상산수청려동부명개정의어학자지현송기하기보지
于冠峯之下黔溪之上山水淸麗洞府明塏正宜於學者之鉉誦其下幾步地
유현상벽언명지서제우사호록동지변숙위상사역기호재시역야언명관
有玄尙嬖彦明之書齊又似乎鹿洞之變塾爲庠斯亦奇乎哉是役也彦明管
기시락태수이오담백치력심근최징후성중윤혼회포이간공거구이문자
其始絡太守李墺담伯致力甚勤崔徵厚成仲尹焜晦甫李柬公擧俱以文字
상지개불가이무전야오호학궁자개저위저두참배이설재입시정이거시
相之皆不可以無傳也嗚呼學宮者豈但爲姐豆叅拜而設哉入是庭而居是
제자기필유갱장강한지사독기서미기훈분발용맹일언일동실이부자선
齊者其必有羹墻江漢之思讀其書味其訓憤發勇猛一言一動悉以夫子先
생위법연후서불부선초계후지지의가불면재
生爲法然後庶不負先招啓後之至意可不勉哉
숭정갑신후칠십일년갑오맹하기망
崇禎甲申後七十一年甲午孟夏旣望
후학안동권상하경식
後學安東權尙夏敬識(1714年)

제6장 명승지(名勝地)

1. 향천사(香泉寺)

예산읍에서 동북(東北)으로 약 2km 떨어진 금오산 기슭에 있다. 규모가 광대(廣大)했지만 임진(壬辰)의 난(亂)의 병화(兵火) 때문에 모조리 불에 타서 파괴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천불전(千佛殿), 극락전(極樂殿), 십층석탑(十層石塔)이 남아 있다. 그 중에도 천불전(千佛殿)은 옛날부터 삼천여 개의 불상(佛像)을 안치(安置)하고 연중 내내 기원하는 부녀자들의 내방(來訪)이 몇천 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경내가 아름다워 춘하추동 관람자(觀覽者)가 끊이지 않는다.

2. 예산신사(禮山神社)

시가(市街)의 서북(西北) 금오산 기슭 조망(眺望)이 절가(絶佳)한 지역에 있다. 그 경내는 고조광윤(高燥廣潤)하며 수십 넘은 계단에 이중(二重)의 신사 문[鳥居][9]과 등롱(燈籠)이 있다. 그리고 수십 보 북쪽에 채(蔡) 헌병(憲兵)의 위령탑(慰靈塔)과 충혼비(忠魂碑)가 있다.

3. 금오산(金烏山)

예산읍 북쪽에 있고 해발(海拔) 230m, 산 위에는 토성(土城) 터가 있다. 금오(金烏)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 본산(本山)의 이름이 되었

9) 鳥居(도리이) : 신사(神社) 정문이며 우리나라의 홍전문(紅箭門)과 같은 성격이다.

다고 한다.

산 정상으로 가면 전망 천리(千里)가 눈 아래 펼쳐진다. 동쪽은 멀리 뻗어 있는 계룡산(鷄龍山)을 바라보고, 북쪽으로는 광대한 평야를 사이에 두고 아산만(牙山灣)으로 집주(集注)하는 배 모습이 보이고, 서쪽은 무한천(無限川)의 철교(鐵橋)를 건너가는 기차의 하얀 연기(煙氣)가 백리(百里)만큼 길게 뻗치는 대자연의 미(美)를 맛볼 수가 있다.

4. 망원정(望遠亭)

계곡(溪谷)이 유수(幽遂)하며 시가(市街) 일대를 바라보는 절호(絶好)의 명승지이며, 사계절 찾아오는 객(客)이 적지 않고, 그래서 망원정(望遠亭)이라는 이름이다.

5. 무한천(無限川)

본군의 광시, 대흥, 응봉(鷹峰), 예산을 관류(貫流)하는 천으로 수량(水量)은 풍부하며 흐름은 완만하다. 수중에 어류(魚類)도 많고 청천(淸川) 백사(白沙)이며 양안(兩岸)에 버드나무[楊柳]의 맑은 파도가 따라준다. 연안(沿岸)은 곳곳에 절경(絶景)이 많다.

6. 용굴(龍窟)

예산읍내에서 북쪽 약 20정(町) 향로봉(香爐峯) 아래 바위 굴 사이에 깊은 구렁[淵]이 있어서 기우단(祈雨壇)을 꾸미는 곳이다.

7. 일산이수정(一山二水亭)

일산이수정연혁

一山二水亭沿革

임성동신양북격양촌산록임좌

任城東新陽北擊壤村山麓壬坐

조선와개일동육간

朝鮮瓦盖一棟六間

기유년삼월낙성

己酉年三月落成

전주이씨정간공후예휘문수호영산옹위청년

全州李氏貞簡公後裔諱文秀號永山翁爲靑年

교육구취종전건차정자야

教育鳩聚宗錢建此亭子也

이철수호일산옹대성학업후시문인부급자급

李哲秀號一山翁大成學業後時門人負笈者及

천인의

千人矣

갑술신사양년설백일장우차정자이오군유림

甲戌辛巳兩年設白日場于此亭子而五郡儒林

성집승행의

成集勝行矣

자차소래설한문사숙종사불절

自此侶來設漢文私熟從師不絶

임술춘령설국어강습소차정후시유조선총독

壬戌春令設國語講習所此亭後時有朝鮮總督
부학무국찬조금속후신양공립보통학교기초차정
府學務局贊助金續後新陽公立普通學校其礎此亭

<팔경>
八景
응봉초적 후경야
鷹峰撩笛 後景也
매봉에서 들리는 나무꾼의 피리소리는 늦가을의 풍경이요
독산귀운 하간야
獨山歸雲 夏間也
딴산에 모여드는 구름은 여름철 풍경이다
쌍탄취월 우후경야
雙灘翠月 雨後景也
두 갈래 여울물에 비치는 밝은 달빛은 비 개인 뒤의 풍경이요
용암어화 야간경야
龍巖魚火 夜間景也
용바위에 비치는 고기잡이 불은 한밤의 풍경이다
천동취우 한여경야
泉洞聚雨 旱餘景也
샘골에 몰아치는 소나기는 가뭄 끝의 풍경이요
월봉만하 조일경야
月峰晩霞 朝日景也
월봉산의 두터운 안개는 아침의 풍경이다

양촌토고 농시경야
壤村土鼓 農時景也
격양촌에서 비치는 풍물소리는 농사철 풍경이요
성안반조 석천경야
城岸返照 夕天景也
임존성에서 되비치는 햇빛은 석양의 풍경이라

판액동연유김정희추사공필적(일산이수정)
板額棟聯有金正喜秋史公筆蹟(一山二水亭)

8. 석문(石門)

덕산면에서 서쪽 약 2리(里), 가야산(伽倻山) 서쪽 정상(頂上)에 쌍암(雙岩)이 돌립(突立)하고, 석주(石柱)처럼 속에 부러져서 문을 만들고, 남쪽에 서 있는 기둥 밑에 다듬은 흔적이 있다. 게다가 현구(懸柩) 같아서 이것을 석문(石門)이라고 한다.

9. 와룡담(臥龍潭)

가야산 가엽봉(伽葉峯) 아래에 있다. 가야사(伽倻寺)의 서북(西北).
수환애애요완좌우벽창고중유소복포위소담자고칭용동
數喚崖崖窈宛左右壁蒼古中有小瀑布爲小潭自古稱龍洞
한칙도우차담애각김상서진규조죽천팔분와룡담삼자동애
旱則禱雨此潭崖刻金尙書鎭圭早竹泉八分'臥龍潭'三字東崖

신설소암명지왈와룡암
新設小菴名之曰臥龍菴

10. 석문담(石門潭)

덕산면 서쪽 7리에 있다. 기암(奇岩)이 상립하고 계류에 물이 고이고 물은 깊고 흰 석반(石盤)이 양암(兩岩)에 종립하고 한면에 각한 김죽천(金竹泉) 8분(八分) 석문담 3자가 있다.

11. 옥병계(玉屛溪)

덕산면에서 약 20정 한산기슭에 상왕산(象王山) 빛 거슬러 든든히 내려와 7~8리에 가야산(伽倻山) 수구(水口) 위에는 둥근 평평히 앉을 곳 그 아래 울창한 벽이 서서 평풍같이 수십 간(數十間)이 있고 그 아래 대가 있어 앉아 임류계류 끝에 있는 성담 예부터 전해오는 기생이 떨어져 그 못 이룸이 기암(妓岩)이다. 숙종조 병술년 판서 김진규(金鎭圭) 호 죽천(竹泉)이 살았는데 본 현을 사랑해 그 바위와 샘에 때때로 와 놀았는데 종일 노래하고 돌아와 팔분서 옥병계(玉屛溪) 3자로 각하고 푸른 벽 뒤에 또 주자(朱子) 수재대(水哉대(臺)) 3자를 본떠서 썼고 최고운(崔孤雲) 세이암(洗耳岩) 3자로 각하고 대방(臺傍) 또 집(集) 성청송(成聽松)이 쓴 주자(朱子) 촉포요금과옥계절백(燭抱瑤琴過玉溪絶白) 각입(刻立) 가야위호우명산(伽倻爲湖右名山)이 3처 암천(岩泉) 칭하며 호우승지(湖右勝地)라 하다.

12. 금탑운제(金塔雲梯)

덕산면 서쪽1리에 있다.

가야보응전(伽倻普雄殿) 뒤산록(後山麓) 정치(停峙) 유일 고대(高臺) 복여기국(伏如碁局) 그 중앙에 무너진 5층(層) 탑(塔). 위 머리는 동철(銅鐵)로 되고 네 모퉁이에는 현철(縣鐵)로 된 풍경(風磬)이 달려 있고 형체는 장대(壯大) 제도의 기교(奇巧) 있고 이와 다른 탑(異塔) 하나 동쪽변 돌계단 2,3층 계단 위에 양쪽 준복석수(蹲伏石獸) 한 쌍이 있다. 옛날 전하기를 만든 자는 뇌옹(瀨翁)이다.

지정 18년(1358년)

13. 덕숭산(德崇山)

덕산면 사천리(斜川里) 덕숭산(德崇山, 일명 수덕산(修德山))은 무수(無數)의 고적(古蹟)을 가지고, 풍광(風光)도 아름답기 때문에 유명하다.

산 전체가 기암(奇岩) 괴암(怪岩)과 울창(鬱蒼)한 노목(老木)이 덮고 청렬(淸冽)한 옥수(玉水)가 곳곳에 비폭(飛瀑)이 되어 이 사이를 점철(點綴)한다. 심산유곡(深山幽谷)의 묘미(妙味)가 참으로 필설(筆舌)로 다할 수 없고, 무한한 고색(古色)이 있는 백년 노송(老松)은 등림(登臨)의 묵객(墨客) 시인(詩人)이 찬탄(讚嘆)하며 멈춰서 떠나가기가 어렵다. 전망도 더한 북쪽 봉우리는 어쩌면 정상에서는 서쪽 방향에 황해(黃海)의 푸른 파도도 손에 잡힐 듯하다. 산중(山中)에는 수덕사와 정혜사(定慧寺)라는 두 고찰이 있고, 서로 풍부한 고고(考古) 자료(資料)를 소장(所藏)하여 관상(觀賞)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경로(經路)는 경남철도(京南鐵道) 삽교역에서 산기슭 근처까지 자동차로(소요시간 약 20분), 그리고 나서 약 23정(町)으로 중복(中腹)의 수덕사로 도착하고, 더 나아가서 정상 근처의 정혜사에 도달한다. 탐승(探勝)의 적지(適地)로서 소금강(小金剛)이라 불리는 것도 알 수가 있다.

14. 수덕사(修德寺)

덕숭산 중턱에 위치하는 신라(新羅) 문무왕(文武王) 5년(1260여 년 전), 원효국사(元曉國師)가 개산과 창건에 관했던 고찰이며, 1933년(소화(昭和) 8년) 일대 수리를 과하도록 경내 수덕사 대웅전(大雄殿)은 조선의 보물이며 고적(古蹟),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보존령(保存令)으로 인해 1936년(소화11) 5월 23일 보물로 지정 받았다. 그리고 요사이 건설해서 100명을 넘은 수용을 위한 여사(旅舍) 설비도 있다.

15. 정혜사(定慧寺)

덕숭산 중 수덕사의 위에 위치한다. 수덕사와 동시에 동사(同師)가 개산창건의 관계하고 1933년(소화8년) 경내에 높이 25척(尺)의 대관음석불(大觀音石佛)을 건립했다.

16. 덕산온천(德山溫泉)

덕산면 읍내리에서 서남(西南) 20여 정(町), 덕산(德山) 해미(海美)

선 3등 도로에 근접하고 명승지 덕숭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한다.

대정(大正) 15년(1926년) 서산(瑞山) 이기조(李基祚) 씨가 거비(巨費)를 투자하여 근대적인 욕장 설비를 갖추어 목욕객의 편의를 도모했다. 피부병에 가장 효능이 있다며 요즘 목욕객들이 증가해 간다.

17. 와룡담(臥龍潭)

가야산 중에 있고 반석(盤石)이 크게 펼쳐 있으며 중류(中流)의 폭포(瀑布)는 아래에 심연(深淵)을 만들어 죽천(竹泉) 김 선생의 조각(彫刻)이 있다. 기우제(祈雨祭)를 이곳에서 행한다.

18. 수덕암(修德岩)

덕산면 수덕고개(修德峴) 위에 있고 대문자(大文字) 조각이 있다. 연대 등 미상.

19. 용봉산(龍鳳山)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 단(壇)이 있다. 본군 군수(郡守)가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다.

20. 봉림리(鳳林里)

무이(武夷) 구곡천(九曲川)에 각석(刻石)이 있다. '와룡담(臥龍潭)' '선유암(仙遊岩)'이라고 새겨져 있다. 팔분(八分) 각석이며 이조(李朝) 숙종(肅宗) 시대 사람 죽천(竹泉) 김진규(金鎭圭)의 수적(手蹟)이라고

한다.

21. 천선대(天仙臺)

시동리(侍洞里) 천대산(天臺山) 위에 영화대(灵化臺)가 있다. 신라의 고적(古蹟)이라고 한다.(춘추(春秋) 시객(詩客)이 유맥(遊脉)하는 장소)

제7장 토지 주민 기타

1. 명가(名家)

대술면 한산이씨 : 영의정 이산해의 후예

大述面 韓山李氏 : 領議政 李山海의 後裔

대흥면 해평윤씨

大興面 海平尹氏

2. 고가(古家)

예산면 창영성씨 인동장씨

禮山面 昌寧成氏 仁同張氏

대흥면 전주이씨 진주강씨 밀양박씨 반남박씨

大興面 全州李氏 晋州姜氏 密陽朴氏 潘南朴氏

신양면 양주조씨 김해김씨

新陽面 楊州趙氏 金海金氏

광시면 파평윤씨 온양정씨 울산박씨 한산이씨

光時面 坡平尹氏 溫陽鄭氏 蔚山朴氏 韓山李氏

응봉면 나주정씨

鷹峰面 羅州丁氏

덕산면 제주고씨

德山面 濟州高氏

3. 정치가(政治家)

대흥면(大興面) 복신(福信) : 백제 시대의 종실(宗室)

대흥면(大興面) 도침(道琛) : 백제 시대의 스님(浮屠)

대술면(大述面) 이산해(李山海) 호 아계(鵝溪) : 이조시대의 영의정(領議政)

광시면(光時面) 이산보(李山甫) 호 명곡(鳴谷) : 이조시대의 문판서(文判書)

광시면(光時面) 정만석(鄭萬錫) : 이조시대의 영의정(領議政)

대흥면(大興面) 김이교(金履喬) : 이조시대의 영의정(領議政)

대술면(大述面) 이남규(李南珪) : 이조시대의 문승지(文承旨)

4. 학자(學者)

신암면(新岩面) 김정희(金正喜) 호 추사(秋史) : 이조시대의 대유자(大儒者)

광시면(光時面) 최익현(崔益鉉) 호 면암(勉庵) : 동상

봉산면(鳳山面) 이담(李湛) 호 정존재(靜存齋) : 동상

덕산면(德山面) 윤봉오(尹鳳五) 윤봉구(尹鳳九) 약 300년 전 사람

5. 군인(軍人)

대흥면(大興面) 흑치상지(黑齒常之) : 백제시대의 무장(武將)

대흥면 지수신(遲受信) : 동상

대흥면 사타상여(沙吒相如) : 동상

응봉면(鷹峰面) 조중장(趙中將) 명치20년(1887) 경 증곡리(曾谷里)

에서 태어나 9살 때 출향해 일본으로 건너가 후에 육군중장(陸軍中將)이라 하고 금유(今猶) 존명(存命)해서 경성(京城)에 살고 있다.

봉산면(鳳山面) 이의배(李義培) 충장공(忠壯公, 370년 전) : 군인정신이 훌륭한 삶으로 병자란(丙子亂)에 청주병사(淸州兵使)로서 전사(戰死)했다.

봉산면 채달점(蔡達點) : 만주사변(滿洲事變) 때 전사. 육군헌병(陸軍憲兵)

6. 효자(孝子) 열부(烈婦)

1) 야곡(冶谷) 조극선(趙克善, 약 370년 전)

봉산면 시동리 사람. 한학(漢學)이 높은 사람이고 효자였다. 봉산면 효교리(孝橋里)의 이름의 유래는 매일 마을 앞 다리에서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 봉산면 시동리(侍洞里)에는 효자각(孝子閣)이 있다. 부모의 묘를 3년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동리(侍洞里)라 불린다.

2) 양성이씨(陽城李氏) 열행록(烈行錄)

광산김공휘세하지처즉양성이공황길지녀야자미계시생장법가여덕순
光山金公諱世夏之妻卽陽城李公璜吉之女也自未笄時生長法家女德純
비년18귀우김씨지문미탕일삭어언고미관통용모역미친숙공홀병
備年十八歸于金氏之門未蕩一削語言姑未慣通容貌亦未親熟公忽病

혁여유불기내유촉어유인왈오유편모독노이제유치오죄관총천노신시
革廬有不起乃遺囑於孺人曰吾有偏母篤老二弟幼穉吾罪貫悤天怒神猜
방장결거오지부인정절심불○생의연칙오가사기무유내알자개자개인
方將訣去吾知夫人貞節心不○生矣然則吾家事機無遺乃步者豈者豈忍
명목야망수종권양아노모이종천년육아2제이성가도칙가위몰오영야
瞑目耶望須從權養我老母以終天年蚯我二弟以成家道則可謂沒吾寧也
혹가긍종부유인답왈견군자지용문군자지언수로인불인문야항위기처
惑可肯從否孺人答曰見君子之容聞君子之言雖路人不忍聞也況爲其妻
자호오당명골불망의물여선종자시상장지여곡읍지성순례이기비감지
者乎吾堂銘骨不忘矣勿廬善終自是喪葬之餘哭泣之聲循禮而己悲憾之
의불형어색완용유색위안노모온언화기무호유제문정옹목유약무사지
意不形於色婉容愉色慰安老母溫言禍氣撫護幼弟門庭옹睦有若無事之
가옹손능계우다편신지물솔질위후양육이사교훈이의사지성덕취부인
家饔飧能繼又多便身之物率姪爲後養育以思敎訓以義使之成德取婦人
문례의질질사의이이규정화낙조응가문개불창대일일유인위자여귀왈
門禮意秩秩思義怡怡閨庭和樂早應家門豈不昌大一日孺人謂子與歸曰
오팔여가위삼십육재의시상소천욕천문부지유언양고종년무부효지명
吾八汝家爲三十六載矣始喪所天欲踐汶父之遺言養姑終年無不孝之名
육여성인무불도지언시역효차자의혹역불실신어여고야오역종부의가
育汝成人無不道之言是亦孝且慈矣或亦不失信於汝考耶吾亦從夫矣家
내개이위예담의후수일상지부묘성기형역이귀어급기자왈오알후지예
內皆以爲例談矣後數日上之夫墓省其瑩域而歸語及其子曰吾알後之禮
여여고동광가야익일종용자정언형년오십이오호고금개유여차부인호
與汝考同壙可也翌日從容自靖焉享年五十二嗚呼古今豈有如此夫人乎

효이불필위열열이난이성효효열양전자유유인일인이기현재효부대재
孝而不必爲烈烈而難以成孝孝烈兩全者唯孺人一人而己賢哉孝婦大哉
열녀가위효열병행이불상패야재
烈女可謂孝烈竝行而不相悖也哉
임술 삼월 십오일
壬戌 三月 十五日
족손 영식 근찬
族孫 永式 謹撰

3) 완당(阮堂) 김정희(金正喜) 선생전(先生傳)

김완당(金阮堂) 이름은 정희(正喜), 자는 원춘(元春) 호는 추사(秋史), 완당(阮堂). 경주(慶州) 사람이고 유당(酉堂) 김노경(金魯敬)의 장자(長子). 정조(正祖) 10년(天明 6년, 乾隆 51년, 1786년) 6월 3일에 태어났다. 24세 때 아버지 유당이 청나라에 사자(使者)로 갈 때 따라가서 연경(燕京)으로 들어가 담계(覃溪) 옹방강(翁方綱), 예대(藝臺) 완원(阮元)이라는 이대(二大) 대유(大儒)에게서 지우(知遇)를 받고, 경의(經義)를 이야기하고 한묵(翰墨)으로 말하며 여러 명현(名賢)들과 학연(學緣)을 맺고, 귀국한 후에 학자(學者)로 나아가서 경사(經史), 시문(詩文), 금석(金石), 서화(書畵)를 살폈다. 울연(蔚然)하게 대성(大成)했다. 혹시 하늘의 식견(識見)이 탁월(卓越)한 인물이 참으로 고결(高潔)한 청조문화(淸朝文化)의 핵심을 파악하고 경학(經學)의 당오(堂奧)로 도달해서 새로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을 반도(半島)에 선포(宣布)해서 수백 년 이래의 화풍(畵風)을 일신한다는 대공(大功)

에 이르러서는 완당(阮堂)은 참으로 그 제일인자(第一人者)라고 말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자주 가복(苛福)하게 나(羅)로 또는 제주도로 또는 북청(北靑)으로 유배(流配)의 쓴맛을 본다 하더라도, 그 청풍고절(淸風高節)은 유명해지고 흠앙사모(欽仰思慕)하는 사람들이 점점 무리가 증가한다.

철종(哲宗) 7년(安政 3년, 咸豊 6년, 1856) 10월 10일 과천(果川)에서 사망했다. 나이 71세.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 매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보(年譜)

① 황기(皇紀) 2446년/ 천명(天明) 6년/ 1786년/ 정조(正祖)10년 병오(丙午) : 6월 3일 신암명 용궁리에서 출생

② 황기(皇紀)2452년/관정(寬政)4년/1792년/정조(正祖)16년 임자(壬子) 7세 : 입춘첩(立春帖)을 쓰고 대문에 붙인 것을 박정유공(朴貞蕤公)이 그 재능을 보고 유당공(酉堂公(부친의 호) 김노경(金魯敬))을 찾아 완당(阮堂) 선생을 보고 아주 감탄해서 말하기를 장래에 학예로 명성을 올릴 것을 가르치고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③ 황기(皇紀) 2469년/ 문화(文化)6년/1809년/순조(純祖)9년 기사(己巳) 24세 : 진사(進士)가 되어 겨울에 유당공을 수행(隨行)하고 입연(入燕)

④ 황기(皇紀) 2470년/ 문화(文化)7년/순조10년 25세 : 3월 귀국

⑤ 황기(皇紀) 2479년/문정(文政)2년/ 순조(純祖) 19년 기묘(己卯) 34세 : 탁제(擢第) 역주서한림(歷注書翰林) 규장각(奎章閣) 대교(待敎) 의정부(議政府) 검상(檢詳) 경연(經筵) 춘방옥당(春坊玉堂) 간원(諫院)

헌부(憲府) 상○화(常○和) 지제교(知製敎) 어사호서(御史湖西)

⑥ 황기(皇紀) 2487년/ 문정(文政) 10년/ 1827년/ 순조(純祖) 27년 정해(丁亥) 42세 : 통정(通政) 승지(承旨)로 오르고 대사성(大司成) 이조(吏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삼조(三曹) 참의(叅議)

⑦ 황기(皇紀) 2496년/ 천보(天保) 7년/ 1836년/ 헌종(憲宗) 2년 병신(丙申) 51세 : 가선배병조참판(嘉善拜兵曹叅判)

⑧ 황기(皇紀) 2499년/ 천보(天保) 10년/ 1839/ 헌종(憲宗) 5년 기해(己亥) 54세 : 참판형조(叅判刑曹)

⑨ 황기(皇紀) 2500년/ 천보(天保) 11년/ 1840년/ 헌종(憲宗) 6년 경자(庚子) 55세 : 침이학(浸異學) 범불궤(犯不軌)의 죄명(罪名)으로 제주도로 유배(流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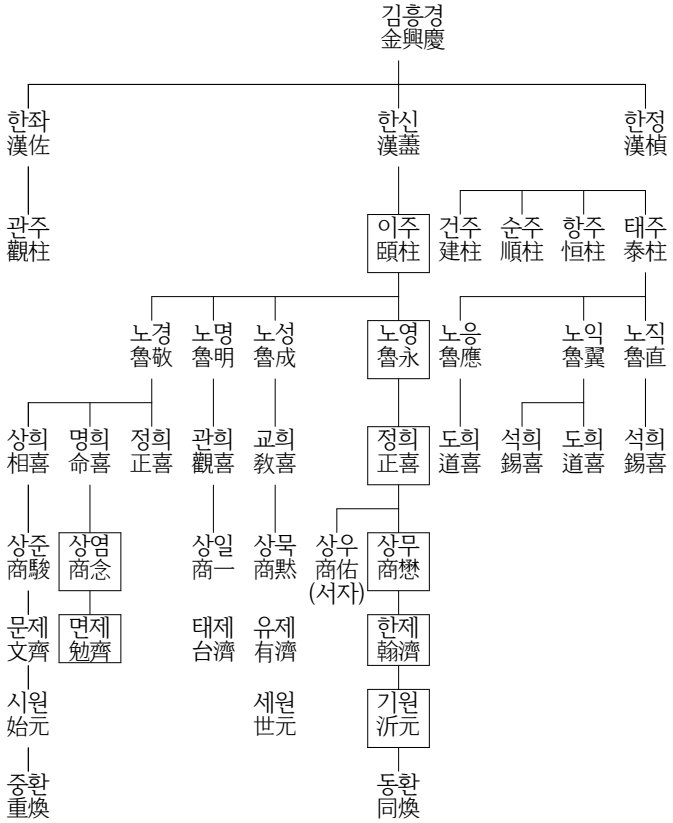
⑩ 황기(皇紀) 2509년/ 가영(嘉永) 2년/ 1849년/ 헌종(憲宗) 15년 기유(己酉) 64세 : 죄를 용서받고 제주도에서 귀환

⑪ 황기(皇紀) 2511년/ 가영(嘉永) 4년/ 1851년/ 철종(哲宗) 2년 신해(辛亥) 66세 : 권상국(權相國) 돈인(敦仁)이 예론(禮論)으로 인해 완당(阮堂)을 북청(北靑)에 옮기다.

⑫ 황기(皇紀) 2512년/ 가영(嘉永) 5년/ 1852년/ 철종(哲宗) 3년 임자(壬子) 67세 : 죄를 용서받고 귀환

⑬ 황기(皇紀) 2516년/ 안정(安政) 3년/ 1856년/ 철종(哲宗) 7년 병진(丙辰) 10월 10일 71세 : 과천(果川) 유당공(酉堂公)의 묘하(墓下)에서 사망. 나이 71세.(신암면 용궁리에 매장)

(2) 김완당 선생 계보(系譜)



※ □ : 계사(繼嗣)의 의미(意味)임.

(3) 소년시대

김정희 자(字)는 원춘(원춘), 호는 추사(秋史) 혹은 완당(阮堂)이라고 했다. 경주(慶州)의 명족(名族) 김씨, 모친 유(兪) 부인이 회임(懷

妊)한 지 24개월로 정조(正祖) 10년 병오(丙午) 6월 3일, 신암면 용산 월궁에서 고고의 소리를 울렸다. 아버지는 김노경(金魯敬) 자(字)는 가일(可一) 호는 유당(酉堂)이라고 한다. 순조(純祖) 5년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고, 관(官)은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이르렀다. 어머니는 유준주(兪駿柱, 진사(進士), 군수(郡守) 증(贈) 이조판서(吏曹判書))의 딸이며, 세 자녀를 낳았다. 장자는 즉 추사(秋史)인 것이다.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앵무봉(鸚鵡峯)의 산용을 바라보고 담력을 기르고 용산(龍山, 오석산(烏石山))의 화암사(華암寺)를 다니며 승려와 친하게 지내고, 범경(梵經)을 송(誦)하고 있었다. 그가 후년(後年) 초세일진(超世逸塵)의 풍운기격(風韻氣格)은 참으로 이때부터 길러진 것이었다. 향관(鄕關)을 떠나 경성(京城)의 장동(壯洞)에 있는 넓은 저택 내에서 살게 되고 나서는 경학(經學)을 연구하며 서예를 즐겼다. 나이 6세로서 춘서(春書)를 써서 문에 붙인 것을 박정유공(朴貞蕤公)이 보고 유당공(酉堂公, 부친) 김노경(金魯敬)을 찾아 완당(阮堂) 선생을 보고 아주 감탄해서 말하기를 장래에 학예로 명성을 올릴 것을 가리키고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의 첨품불군(天稟不群)의 재학(才學)은 머지않아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가 인정하게 되고, 즉 일진(一進)해서 표면 무대의 경지(境地)를 열었다. 초정(楚亭)은 당시 가장 뛰어난 달식(達識)의 선비였고, 청조문화(淸朝文化)에 대한 최대한 이해자이며, 자기 자신의 신지식(新知識)을 마땅히 할 만큼 해서 천재아(天才兒)를 교무(敎舞) 격려(激勵)했다. 초정(楚亭)의 3번 입연(入燕)한 경험에서 얻은 북경(北京) 학단(學壇)의 소식을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이야기해서 젊은 추사(秋史)의 마음을 미칠 듯이 설레게 했다. 초정(楚亭)이 제3차 입연(入

燕)에서 돌아왔을 때는 추사(秋史)는 26세의 소년이었다. 초정(楚亭)은 이 소년을 통해 제2의 자기를 되살리려 한 것이었다.

추사는 이조 500년 말기에 얼마 안 되는 영물(英物)이었으며, 특히 청조학(淸朝學)의 유예(遺詣)에 이르러서는 거의 필주(匹儔)를 보지 않는데, 이렇게 있게 한 최초(最初)의 지도자는 참으로 박초정(朴楚亭)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추사는 일찍 동속(東俗)의 취미(臭味)를 탈각(脫却)하고 있었다. 그해에 둘러싼 동인(東人)의 거의 모두는 그에 있어서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다. 구전하기에 "나의 동(東)쪽에 어울릴 선비가 없다. 참으로 교제를 중국의 여러 선비들에게 맺어서, 그것으로 옛날 인정(人情)을 위해 죽는 의(義)로 삼자." 그래서 그는 시 하나를 구음(口吟)했다.

개연기별상 사해결지기
慨然起別想 四海結知己
여득계심인 가이위일사
如得契心人 可以爲一死
일하다명사 운이불자기
日下多名士 輓羨不自己

(4) 입연(入燕)

① 수행(隨行) 입연(入燕)

순조(純祖) 9년 10월에 동지(冬至) 겸 사은정사(謝恩正使)의 판중추(判中樞) 박종래(朴宗來) 부사(副使)의 이조판서(吏曹判書) 김노경(金魯敬), 겸장령(兼掌令) 이영순(李永純) 등 일행의 입연대(入燕隊)는

유유(愈愈) 경성(京城)을 출발하고 북상(北上)했다. 전부터 입연(入燕)의 기회를 학수고대하던 젊은 추사는 의기(意氣) 밝게해서 연행의 행렬(行列)에 참가했던 것이다. 추사는 그때 24세.

반도(半島)의 기린아(麒麟兒) 김추사(金秋史)가 첫걸음을 연도(燕都)로 표했을 때 깊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산처럼 위연(威然)한 성벽(城壁)과 광대화려(廣大華麗)한 궁전(宮殿)의 누각(樓閣) 류가 아니라, 그의 지적(知的) 욕구(欲求)를 충실(充實)하기에 충분(充分)한 석학(碩學)의 홍유(鴻儒) 그 사람이었다.

동국(東國)의 사원(使遠)이 유일한 즐거움으로 한 각소(各所) 견학(見學)은 추사(秋史)에게는 일종(一種)의 아희(兒戱)와 같았다. 그는 먼저 몇 명을 방문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때 박초정(朴楚亭)이 교환(交歡)한 여러 명류(名流)는 하세(별세하세)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성산(星散)해서 연경(燕京)에 머무른 자가 10명을 넘지 않은 것 같다.

② 그 중에도 청조학단(淸朝學壇)의 최로(最老)인 옹담계(翁覃溪)가 특히 완운대(阮芸臺) 조옥수(曺玉水)들은 건재(健在)해서 미리 초정(楚亭)에게 듣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입연(入燕)의 목적(目的)도 역시 참으로 여러 명류(名流)와의 오심계(晤心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諸家) 역방(歷訪)에 모든 힘을 다 썼다. 먼저 조옥수(曺玉水)를 방문하여 조(曺)와 김(金)의 양배(兩輩)가 아니면 오류(五柳) 함서(含書)사(肆)에서, 아니면 법원(法源)에서 학문을 논(論)하고 문(文)을 담(談)하여 서로 매우 환(歡)을 얻어 양자(兩者)의 교정(交情)은 몹시 흥취(興趣)가 풍부했다.

③ 옹담(翁覃)을 방문

추사(秋史)가 연(燕)에 있는 동안에 가장 심취되어 있었고, 가장 감격(感激)한 것은 옹담계(翁覃溪)와 완운대(阮芸臺) 그 2대(大) 경사(經師)였다. 특히 담계(覃溪)에서는 이간(異竿)의 권우(眷遇)를 받고, 간절(懇切)함이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다. 석묵서루(石墨書樓)의 보고(寶庫)를 열고 백가비적(百架秘籍)을 내놓고, 추사(秋史)의 호학심(好學心)을 마음껏 만족시켰던 것이다.

78세의 근시(近視) 노인 옹(翁)은 단신(短身) 정한(精悍)이며, 기백(氣魄) 종횡(縱橫)한 추사(秋史)를 보고는 해동(海東)에 역시 영물(英物)이 있었다. "경술문장(經述文章), 해동제일(海東第一)"의 감정보증의 딱지를 붙였다.

추사도 역시 그의 이상(異常)할 만한 간정(懇情)과 애착(愛着), 탁월(卓越)한 학문(學問)에 감격해서 수언(隨言) 갈행(渴行)의 마음을 바쳤다. 담계(覃溪)는 늙음을 잊고 추사(秋史)는 어린 것을 잊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정을 나누고 예기(豫期)한대로 면목(面目)을 다했다. 이 회견(會見)으로 청나라와 조선의 문화교섭사상(文化交涉史上) 특필(特筆)해야 할 가치(價値)가 있다. 추사가 기록한 화도사(化度寺) 진본(眞本)에 접해 보면, 그 묵(墨)이 녹색(綠色) 융(絨)이 아닌가 할 기쁨은 이것으로 인해 깊이 구법(歐法)을 완미(玩味)하고, 담계(覃溪)의 구법(歐法)에 깊이 찬동(贊同)하며, 한편 동국(東國)에서의 고려(高麗) 말(末) 이래의 서법(書法)을 쓰고, 마지막에는 이조(李朝) 서인(書人)의 무식(無識)을 웃고 있다.

④ 완당대(阮堂臺) 방문

옹담계(翁覃溪)를 역방(歷訪)해서 학덕(學德)을 경도(傾倒)한 추사는

더한 완운대(阮芸臺)를 방문해서 심하게 감화(感化)되었다. 완운대(阮芸臺)는 경학(經學)의 대사(大師)이며 청조문화(淸朝文化) 완성(完成) 선양(宣揚)에 대한 일대(一大) 보호자(保護者)로서 당시(當時)의 제일인자(第一人者)였다.

추사는 운대(芸臺)가 소지(所持)한 명저(名著)[수(隨)=독서루(讀書樓)의 7경(經) 맹자(孟子) 고문(考文)]를 연도(燕都)에서 처음 볼 수가 있었다. 조선학인(朝鮮學人)이면서 이 명저(名著)를 보는 자는 아마 추사로 하여금 효시(嚆矢)라고 해야 하며, 이 서(書)가 그의 고학(古學) 연구(硏究) 상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운대(芸臺)는 추사에 대하여 순순히 공학연경(攻學硏經)의 방침(方針)을 설(說)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정상(事實精詳)을 지(旨)로 해야 함을 간유(懇諭)한 것이었다. 그냥 경의(經義)뿐만 아니라 남북(南北) 서파론(書派論), 북비남첩론(北碑南帖論)과 같은 운대(芸臺)가 자신이 있는 지론(持論)도 더한 추사(秋史)가 경청(傾聽)한 내용이다. 강남(江南)의 여러 명류(名流)는 해동(海東)의 김추사(金秋史)의 이름을 연모해서, 사신(使臣)의 매개(媒介)와 서찰(書札)의 왕래(往來)를 통해 경의(經義)를 담(談)하여, 문묵(文墨)을 말하고, 청선(淸鮮) 문화교류의 찬연(燦然)한 장면(場面)을 전개(展開)하고 있다.

⑤ 제(諸) 명사(名士)의 역방(歷訪)

추사는 옹완(翁阮)의 경사(經師) 조옥수(曹玉水) 외에 여러 명류(名流)와 교환(交歡)한 나머지 학연(學緣)을 맺고 있다. 이묵장(李墨莊) 오난설(吳蘭雪) 주야운(朱野雲) 이필암(李必奡) 김의원(金宜園) 근원형제(近園兄弟)

토산(土産)의 수(數)는 붓[필] 벼루[연] 서적(書籍) 기타(其他)

(5) 완당(阮堂)이라고 호(號)하며 담연제(覃揅齊)라고 호(號)한다.

추사는 귀국 후 항상 연산(燕山)의 교우를 그리워하며 옹담계 완예대에게 경사(經師)에 대한 경앙의 마음을 유유깊이 시문으로 서찰로 거담 녹완(擧覃綠阮)의 집정(執情)을 가지고 담계를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의미로 보담제(寶覃齊)라고 호하여, 완예대의 '완(阮)'을 칭해서 완담(阮覃)이라고 호하고, 결국은 담계의 '담(覃)'과 예대제의 호인 벽경당(擘經堂)의 벽(擘)을 배합해서 '담벽제'라고 호해서 양 경사 앞으로 보내어 친진(親疢)하는 것 같은 기분을 풍기고 있었다. 특히 담계에 대해서는 치모(馳慕) 간절한 마음을 견디기 힘들고, '화사치야잉몽상입수미기작도(畵思恥夜仍夢想入鬚眉幾作圖)'라고 읊고 그 친구 전자하(田紫霞)를 담계에게 소개할 때는 '자하전배섭모리입중국괴경위관오부지기천만억이불여견일소제노인야(紫霞前輩涉莫里入中國塊景偉觀吾不知其千萬億而不如見一蘇齊老人也)이다'라고까지도 칭찬하는 정도였다.

추사는 담계가 가장 조하하는 조선(朝鮮)의 고비(古碑)의 탁본(拓本)을 비롯한 고본(古本) 서화(書畵), 기물(器物)류, 그리고 일본의 고서화(古書畵)에 이르기까지 통신사(通信使)의 입연(入燕)마다 대단히 즐겁게 해서 담로(覃老)를 위로하고 동시에 반드시 곁들어 드리고 그 보위해서 장수를 기원하고 있었다. 특히 담계가 80수진(壽辰)을 맞이했을 때에는 환희를 못 견디고 스스로 불경(佛經)을 정사(淨寫) 기정(寄呈)해서 멀리에서 하의(賀意)를 표했다. 담계도 역시 젊은 추사를

“해동(海東) 제일(第一)의 통유(通儒)로서 애권(愛眷)이 해당되지 않았다. 공사의 귀국에 기록한 것을 보면 자착(自着)을 비롯해서 석묵서루(石墨書樓) 중의 진완(珍玩)을 아낌도 없이 선물해 오고, 추사의 연찬(硏鑽)에 이바지하고, 추사의 생신(生辰)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추사와 같은 8월에 주로 선현(先賢) 중에서 특히 구양(歐陽) 문충공(文忠公)을 선택하여 그 초상을 그리고, 담계는 이에 제목으로 해서 그 아들 성원(星原)에게 칭찬해서 선물로 했다고나, 양자 사이에 전개한 정의(情誼)가 두터운 것은 완전히 감탄할 수밖에 없다.

(6) 제주도(濟州道)로 유배되고, 북청(北靑)으로 유배되다

① 제주도로 유배 가다

청선(淸鮮) 문화교류(文化交流) 사상(史上) 제일인자(第一人者)인 추사(秋史)는 아버지 유당공(酉堂公) 당론(讜論)으로 인해 섬으로 유배되고 4년으로 유환(宥還)된 뒤에도 또 그 여향(餘響)이 없어지지 않고, 항상 추사(秋史)를 기흘(齮齕)해서 마침내 이학(異學)에 빠지지 않고 불궤(不軌)를 저지른다고 해서 헌종(憲宗) 6년 제주도(濟州道)의 귀양길을 밟았다. 해로(海路)는 항상 강바람이 불고, 대강 순월(旬月)이 필요하지만 추사(秋史) 쪽에 배를 풀자 갑자기 대풍(大風) 파도(波濤)가 일어나 배 안에 사람 모두 창연(蒼然)하고 있는 데에 추사는 응연(凝然)해서 침두(枕頭)에 앉아 시(詩)를 고영(高詠)하고 방위를 가리키고 “키잡이[篙師]는 키[拕]를 확실히 잡고, 배를 이곳으로 향하라.”고 외쳤는데, 배는 쏜살같이 아침에 출발하고 저녁에 도착해서 섬사람들은 모두가 놀랐다고 한다. 제주도에 9년 있으면서 독서(讀書) 운필(運筆)로 섬사람의 훈유(訓諭)를 즐기고 인문(人文)이 크게 열

렸다고 한다.

<작은 이야기>(小話)

○ 추사(秋史)는 글씨를 쓰고는 문 앞에 높은 데에 걸어놓고 산책에서 돌아올 때 재빨리 일별(一瞥) 관상(觀賞)해서 마음에 들은 것은 대나무의 일단(一端)을 공공(空孔)에 놓고 밀봉(密封)해서 모았다가 모두 바다에 흘려 내렸다고 한다. 그 ○언(○언) 국외까지도 흘러갔다고 전한다.

○ 대내(大內)에 연적(硯滴)이 있는데, 항상 물을 대지 않아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추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뱀이다. 이를 삶을 때 그 말과 같아." 사람들 모두가 놀랐는데, 추사가 웃으며 말하기를 "제군(諸君)들은 여전히 독서부족이다."

○토공(土工)이 담을 수리 중에 소도(小刀)를 얻었다. 추사는 이에 돈 7천 전(錢)을 상주고 말하기를 "옛날 절옥도(切玉刀)다. 후에 소상(小常) 김석준(金奭準)이 입연(入燕)했을 때 지참(持叅)해서 각서(各書) 수만(數萬) 권과 교환(交換)해서 지참(持叅)했다."라고.

○ 추사의 정부인(貞夫人)은 남편(男便)과 천리(千里) 고도(孤島)로 서로 떨어져, 작고했을 때 고별식(告別式) 후 영관지(靈棺地)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때 추사가 보낸 시(詩)를 올렸더니 가볍게 떠났다고 한다.

욕장말모소명사
欲將末姥訴暝司
아사군생천리외
我死君生千里外
말세부부이지위

末世夫婦易地爲
사군금일아심지
使君今日我心知

② 북청(北靑)으로 옮겨지다

탐라(耽羅)에서 유환(宥還)돼서 금방 철종(哲宗) 신해(辛亥), 권상국(權相國) 돈인(敦仁)이 예론(禮論)을 인해 견부(見付) 북청(北靑)으로 천(遷) 당할 때 66세. 남동생도 역시 백수(白首)로 추사(秋史)의 손을 잡고 비호(悲號) 통곡(痛哭)하는 것을 추사도 끄덕이면서 안색(顔色)을 바로잡고 말하기를 "자네들의 독서(讀書) 부족자(不足者) 때문에 생긴 일이다."고 말하며 담소(談笑)해서 손에 서록(書籠)을 가다듬고 가서, 다음에 임자(壬子)에 유환(宥還)해서 과천(果川)의 유당공(酉堂公)의 묘하(墓下)에 살고 5년으로 하세(下世)했다. 향년(享年) 71세였다.

(7) 완당(阮堂) 문집(文集)

완당(阮堂) 김정희(金正喜)는 이조(李朝) 500년간에 순치(馴致)된 고고(枯槁) 편벽(偏僻)한 동취(東臭, 동쪽 냄새)가 분분(芬芬)한 학단(學壇)에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신학(新學)을 불어놓고 일대(一大) 생면(生面)을 전개(展開)하고, 해동(海東)의 천지(天地)가 더욱 생기(生氣)의 맥(脈)이 있다는 것을 알린 위대한 존재였다. 경사(經史), 천산(天算), 금석(金石), 시문(詩文), 서화(書畵)에서의 탁월(卓越)한 식견(識見)과 비할 데 없는 조예(造詣)라고는 참으로 이조(李朝) 포유(布有)의 통유(通儒)라고 칭(稱)해야 한다. 림랑(琳浪) 비적(秘籍), 특히

청유(淸儒)의 신저(新著)의 풍부(豊富)한 수장(收藏)과 함께한 자재(自在)한 활용(活用)과에 이르러서는 완전(完全)히 완당의 단장(壇場)이며, 어떤 사람의 추수(追隨)도 허락하지 않았다. 참으로 볼 때 그를 가도간의 석학(碩學) 홍유(鴻儒)의 세계에 있어서도 고○웅시(顧○雄視), 치빙고상(馳騁翺翔), 작연(綽然)해서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사실(事實) 완당(阮堂)만큼 청유(淸儒)에서 탄위경모(歎喟敬慕)하게 한 동인(東人)은 없었다. 고아(高雅) 발속(拔俗) 천고(千古)의 동인(東人)을 벗어난 동인(東人)이었다. 완당은 71세의 생애 중에 잘 생각하고 잘 썼다. 그러나 그는 이른바 저서(著書)를 잘하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술작(述作)을 가지고 엄정(嚴正)한 시간으로서 준열(浚烈)한 비판(批判)을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작물(作物)에 대해서도 극히 예리한 내관(內觀)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러 서(書)를 쓰고 억지로 이를 세상(世相)에게 평가를 받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가 예민(銳敏)한 학자적(學者的) 양심(良心)이 쉽게 용서하지 못했다.

"작은 인물의 '자칭(自稱)'이 평상시에서의 저술(著述)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싶으면 이러한 문자(文字) 변천고(便千稿, 원고를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장부초(醬瓿醋) 자구(薺俱)에 불가(不可)라는 것은 없다. 즉 명(命)해서 차거(扯去)할 심도(心禱)를 이기지 못하고"라고는 완당(阮堂)이 심우(心友) 권이제(權彛齊)에게 그 성운변(聲韵辨)을 선물했을 때의 말이었다. 그는 루루(屢屢, 여러 가지) 수고(手稿)를 일괄(一括)로 불살랐다는 것도 전해졌던 것이다.

오로지 가장 완당(阮堂)을 경모(敬慕)하여 완당(阮堂)을 연구하려고 한 예(禮) 있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극(極)히 많았다. 문제

(門弟)이거나 아니거나, 그 단간(斷簡) 영묵(零墨)까지도 길광(吉光)의 우습양(宇習樣)에게 간구했다. 그 절실(切實) 열렬(熱烈)한 욕구(欲求)가 마침내 완당이 죽은 후에 관해서 유저(遺著)의 출판(出版)이 되어서 나타났다.

(1) 완당(阮堂) 척독(尺牘)

(2) 담연제(覃揅齊) 시고(詩藁)

(3) 완당집(阮堂集)

(4) 완당선생 전집(阮堂先生全集)

(8) 완당 유적(遺蹟)

① 백송(白松)

완당이 중국에서 돌아올 때 백송나무 묘목(苗木)을 가지고 돌아와 조선(祖先) 김흥경(金興慶)의 묘지 앞에 심었다. 나뭇가지는 고아(高雅)하고 껍질은 흰색을 띠고, 중국과 북경(北京) 교외(郊外)에서 경견(敬見)할 수는 있어도 조선(朝鮮) 내에서는 드물다. 어르신들에게는 춘추(春秋, 어른들 연세의 경칭의 의미도 있음)계절에는 지팡이를 짚는 사람들이 많다.

② 소봉래(小蓬萊)의 석자(石字)

화암사(華巖寺) 뒤의 산봉(山峰)으로 이어가는 남단(南端) 암벽(岩壁)에 새겨진 것으로 예산평야(禮山平野)를 일망(一望) 지호지간(指呼之間)을 바라보고 조망(眺望)이 절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봉래(蓬萊)를 인연으로 새겨진 것이다.

③ 시경(詩境), 천축고선생택(天竺古先生宅)의 석자(石字)

화암사(華巖寺) 뒷산 암벽에 새겨 있는 것으로 완당 선생의 취미의 탁월(卓越)함을 또는 불교(佛敎) 신자(信者)로서의 당시(當時)를 나타낸다.

④ 시경루(詩境樓), 무량수각(無量壽閣), 농상실(農祥室), 일금육경(一琴六經), 우학산인서실(友鶴山人書室)의 편액(扁額), 시경루(詩境樓), 무량수각(無量壽閣)은 화암사(華巖寺)에 있고, 다른 것은 자손(子孫) 집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당의 필적(筆蹟)이 가진 묘(妙)를 충분히 맛볼 수가 있다.

⑤ 인장(印章)

석판(石版) 20여종(種), 자손(子孫) 집에 소장(所藏)하고 있다. 서예가(書藝家) 완당(阮堂)의 당시(當時)를 나타낸다.

⑥ 필적(筆蹟)

다수(多數)의 필적(筆蹟)은 화재(火災) 때문에 오유(烏有)로 돌아갔지만, 제주도(濟州道)에서의 서한(書翰) 기타(其他) 2~3통(通)의 서(書)를 소장(所藏)한다.

4) 김한신(金漢藎) 정효공(貞孝公)과 화순옹주(和順翁主)

김한신(金漢藎)의 자(字)는 유보(幼輔), 영의정(領議政) 김흥경(金興慶)의 아들이고, 김추사(金秋史)의 증조(曾祖)가 된다. 나이 13세 때 의빈(儀賓)으로 간(簡)해서 영조(英祖)의 둘째 딸 화순옹주(和順翁主)

와 결혼해서 월성위(月城尉)로 봉(封)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발(英發)해서 과지(課智)를 기다리지 않고 문의(文義) 날마다 승진되었다가 부마(駙馬)가 되고 나서는 처신하기도 공근(恭謹) 엄정(嚴正)이며 그 생활태도는 실사(實士)와 같았다.

화순옹주(和順翁主)도 어렸을 때부터 유순하고 정숙(貞淑) 완예(婉嫕)하여 성효(性孝)하며 화려(華麗)를 좋아하지 않고, 영조(英祖) 부모에게 소학(小學) 및 열녀전(烈女傳)을 교수(敎授)받아, 그 대의(大義) 명분을 견지했다.

김한신(金漢藎)은 영조(英祖) 34년 무인(戊寅) 정월(正月) 4일에 질병(疾病)으로 죽었다. 향년(享年) 39세였다. 남편을 보낸 옹주(翁主)는 한 방울의 물도, 밥 한 알도 입에 대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통곡(慟哭)한 지 십여 일이 되고, 영조(英祖)가 친히 마음을 위유(慰諭)에 임(臨)하고 어찰(御札)을 내리고 간권(懇勸)하시는데도 결국은 돌아보지 않고 제읍(啼泣)해서 말하길 "신(臣)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서(몸을 남에게 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전하(殿下)에게 효성을 다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주(頤柱) 말하기를 고인(古人) 가르침에 '신체발부(身體髮膚)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일부러 훼상(毁傷)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옛날부터 열녀(烈女)라는 자는 많았지만 모두 자아(自我)로 나는 아주 이를 부끄러워한다"고 말하며 권유(勸諭)했지만 효과도 없이 14일 후 동 정월 17일 결국 순사(殉死)했다. 특시(特諡) 정효(貞孝) 후(後) 자손(子孫)은 정열(貞烈)의 비(碑)를 세울 것을 영조(英祖)에게 청했는데, 영조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친필(親筆)로 '성전영회가이수정(誠錢英回嘉爾隨貞)'의 8문자를 하사하여 영연(靈筵)으로 올리고 또 묘표(墓表)의 큰 글자를 어필(御筆)로 하사했다.

영조(英祖) 무인(戊寅) 3월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앵무봉(鸚鵡峯) 밑에 동록(東麓)으로 합장(合葬)한 후, 정조(正祖)의 특명(特命)으로 인해 이를 열녀(烈女)로 정(旌)해주셨다. 지금도 자손(子孫)의 문전(門前) 높이, 그때 각자(刻字)가 어제(御制) 찬연(燦然)히 옛날을 말하고 있다.

문택환려김(門宅煥閭金)

特命旌閭	上之七年癸卯二月十二日	지 옹 화 신 김 효 익 관 도 총 위 겸 성 부 록 녀 문 주 순 배 한 공 정 증 총 부 도 오 위 월 대 수 열 之 翁 和 藎 金 孝 謚 管 都 摠 衛 兼 城 夫 祿 女 門 主 順 配 漢 公 貞 贈 摠 府 都 五 慰 月 大 綏 烈

비문(碑文) (앞에 있으므로 생략)

5) 김자암(金自庵)과 용연(龍硯)

(1) 김자암(金自庵)

김자암은 중종조(中宗朝)의 부제학(副提學) 김구(金絿)의 호이며, 관직(官職) 이력(履歷)은 별지(別紙) 교지(敎旨)와 같다.

조선(朝鮮) 서가(書家) 사명류(四名流)의 한 사람이다. 사명류란 안평대군(安平大君), 양봉래(楊逢萊), 한석봉(韓石峯), 김자암(金自庵) 4명이다.

자암은 18세 때 이미 용문(龍門)으로 올라가 그 활동 모습은 당시(當時) 조야(朝野)에 찬연(燦然)한 빛을 발(發)하고 전도(前途)는 무한(無限)한 청춘(靑春)인 자암(自庵)도 이판(吏判) 남곤(南袞)의 흉모(凶謀)에 말려들어 척도(斥島) 남해(南海)에 13년, 유환(宥還) 후 3년으로 죽었다. 향년(享年) 47세였다.(중종(中宗) 29년, 갑오(甲午) 10월 27일 졸(卒)

자암(自庵)은 또 학자(學者)로서 문집(文集) 1편에 서첩(書帖) 2책(冊) 홀(笏) 2개(중 1본은 상아(象牙) 길이 45cm, 폭이 6cm이다.), 용연(龍硯)과 함께 신암면(新岩面) 종경리(宗敬里)의 자암(自庵)의 14세손 김면익(金冕益) 씨가 이것을 소장하고 있다.

부(附) 남곤(南袞)의 적모(迹謀)라고는 궁내(宮內)의 감나무에 빽빽이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고 쓴 것이다. 이것은 조정암(趙正庵)을 말하는데, 모두 모략이라고 한다.

(2) 용연(龍硯)

중종왕(中宗王)이 자암(自庵)에게 하사(下賜)하신 것이다.

세로 32~33cm, 가로 21cm의 직사각형이다.

중앙의 먹을 갈기 위해 물을 모으는 원형의 왼쪽에는 매화, 오른쪽에는 대나무, 위에는 구름 사이의 달, 아래에는 해변(海邊)의 어옹(漁翁) 모두가 부조(浮彫)로 각각 그 특색(特色)을 유연(幽然)하게 표현(表現)하여 보는 사람을 뭐라 말할 수도 없는 선욕(羨慾)을 일으킨다.

이 용연(龍硯)은 명조(明朝)에서 이조(李朝)로 보내온 단용계(硏龍溪)로 조선에서 유일한 것이라 한다.

김추사가 연갑(硯匣=벼룻집)을 만들어 김유경(金有慶) 용곡(龍谷)이 연명(硯銘)을 만든다.

한(韓) 판서(判書) 덕후(德厚) 작(作), 연명(硯銘). 임산(임산) 임헌매(林憲脢) 작 연명(硯銘), 중종(中宗) 때 조정암(趙正庵) 광조(光祖), 김충암(金冲庵) 정(淨)과 김자암(金自庵)은 도의(道義)의 친구로서 왕실(王室)에 잘보임으로 인해 중종이 총애하고 이것을 내려 받았다.

(3) 전설(傳說)

옛날부터 용연(龍硯)은 물을 넣지 않아도 먹을 갈면 물이 저절로 나온다는 말이 전해지고, 물속에 담그면 형태가 변한다고 해서 운반(運搬)할 때도 해상(海上), 수상(水上)을 통(通)한 적이 없다고 한다.

물이 자연(自然)스럽게 나오게 하려면 수중(水中)에 당분간 가라앉도록 해야 하는데, 전기(前記)의 이유로 실험(實驗)을 못 한다고 한다.

부(附) 용연(龍硯)은 자암(自庵)의 남동생이 이것을 분실(紛失)하여, 몇 대 행방불명(行方不明)이었는데, 김추사가 어느 시장(市場)에서 이것을 발견(發見)하고 이를 자암의 벼루라고 판정(判定)하여, 추사는

약 2개월 이것을 소장하다가 자암(自庵)의 후손(後孫)에게 건네줬다고 한다.

(4) 교지(敎旨)

증자헌대부이조판서겸지경연의금부사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지춘추관성균관사 세자좌빈객오위도총부부총관행통정대부홍문관부제학

知春秋館成均館事 世子左賓客五衛都摠府副總管行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

지제교겸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김구증시문의공자

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金絿贈諡文懿公者

건융십이년팔월초구일

乾隆十二年八月初九日(1747年)

도덕박문 왈문

道德博文 曰文

과경선성 왈의

過景善性 曰懿

7. 저명(著名)한 산물(産物)

- 구(舊) 예산지방에서 산출(産出)하는 것: 복령(茯苓, 한약재), 미나리[着芹], 게[蟹], 땅콩[落花生], 무[大根]
- 구 대흥지방에서 産出하는 것: 선어(鮮魚), 게[蟹], 지황(地黃, 한약재), 황령(黃苓, 한약재), 창출(蒼朮, 한약재), 택사(澤瀉, 한약재), 무[大根], 마참나무[眞木], 밤[栗]
- 구 덕산지방에서 산출(産出)하는 것: 선어(鮮魚), 미궐(薇蕨=고비고사리), 황백(黃柏, 한약재), 게[蟹], 칠기(漆器), 첨과(甛瓜=참외)

8. 특이한 풍속습관(風俗習慣)

본 지방은 백제(百濟) 이후의 명지(名地)로서 주위(周圍)에는 수려(秀麗)한 청산(靑山) 옥계(玉溪)가 곁에 있고, 오랜 시대의 추이(推移)와 함께 융륭(隆隆)한 문화(文化)의 발전(發展)을 해왔던 곳이어서 인심(人心)이 온후(溫厚)하며 건실(健實)한 기풍(氣風)이 저절로 생긴다.

지금 그 장단(長短)을 열기(列記)하면 아래와 같고 별로 특이(特異)한 풍속(風俗) 습관(習慣)은 보지 못한다.

1) 장점(長所=長點)라고 인정하는 점

- 공동(共同) 일치(一致)의 정신(精神)이 있다.
- 가족제도(家族制度) 엄연(嚴然)히 조선(祖先) 숭참(崇參)의 마음이 강(强)하다.

- 장상(長上)의 서열(序列)이 올바르고, 경로(敬老)의 미풍(美風)이 있다.
- 농촌(農村) 아동(兒童)이라서 일반적(一般的)으로 질박(質朴) 강건(剛健)이다.
- 조식(粗食) 조의(粗衣)를 견디는 기풍(氣風)이 있다.
- 작업(作業)에서는 순종(順從)하다.
- 인보(隣保) 상조(相助)를 한다.
- 조야(粗野)한 순진(純眞)이다.
- 침착(沈着)하며 고무(藁務)를 한다.

2) 단점(短所=短點)로 인정하는 점

- 장혼제(葬婚祭)의 경우에는 형식(形式)을 중요시하며, 특히 조혼(早婚)의 경향이 있다.
- 남녀(男女) 아동교육(兒童敎育)을 차별(差別)한다.
- 의뢰심(依賴心)이 많고 진취적(進取的) 기상(氣象)이 부족하다.
- 위생(衛生) 사상(思想)이 부족하며 미신(迷信)에 빠지기 쉽다.
- 봉사적(봉사적) 정신(精神)과 지구심(持久心), 경하(經河) 사상(思想), 시간관념(時間觀念)이 부족하다.
- 동작(動作)이 완만(緩慢)하다.
- 계급(階級) 사상(思想)이 강(强)하다.
- 미성자(未成者)의 음주(飮酒) 흡연(吸煙)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以上)

비매품(非賣品)

◯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도서관(圖書館)

1937년 3월 31일 발행(發行)

예산군(禮山郡) 교육회(敎育會)

편집(編輯) 겸 발행인(發行人) 오가사와라 야스시게(小笠原 安重)(당시 예산군 교육회장이며 예산공립농업학교 교장으로 1935년 4월 1일 부임)

발행소(發行所) 예산군(禮山郡) 교육회(敎育會)

인쇄소(印刷所) 예산군 대흥공립보통학교(大興公立普通學校)

부록

예산군지(1937. 3)

※원본은 우철(右綴)로서 원본의 순서를 살려서 뒤쪽에서부터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寄No. 71434

昭和十年三月三十日發行
禮山郡教育會
編輯兼發行人 小笠原安運
發行所 禮山郡教育會
印刷所 大興公立普通學校

非賣品

朝鮮總督府圖書館

受入 檢査 司書 第次

推定 ¥.500

○粗食粗衣ニ甚ヘル傾向アリ

○作業ニ従順ナリ

○隣保相助ヲナス

○粗野ナル純朴ナリ

○沈着ニシテ業務ヲナス

2. 短所ト認ムル点

○葬婚祭ノ場合ハ形式ヲ重ンジ殊ニ早婚ノ風アリ

○男女児童教育ニ差別ス

○依頼心多ク進取的氣象ニ乏シイ

○衛生思想ニ乏シク迷信ニ陷リ易シ、

○奉仕的精神持久心経済思想時間観念等乏シイ

○動作緩慢ナリ

○階級思想強シ

○未成者ニシテ飲酒喫煙ノ風アリ

以上

七、著名ナル産物

○四禮山地方ヨリ産出スルモノ

茯苓、鰕、若芹、落花生、大根、

○四大興總方ヨリ産出スルモノ

鮮魚、蟹、地黄、黄芩、蒼朮、澤瀉、大根、眞朮、栗

○四德山地方ヨリ産出スルモノ

鮮魚、薇蕨、蔓菁、鰕、漆蕨、甜瓜

八、風俗習慣

本地方ハ百濟以后ノ名地ニシテ周圍ニ秀麗ナル青山玉溪ヲ添ヘ永ラク時代ノ推移ト共ニ隆々タル文化發展シナン未ル所ナレバ人心温厚ニシテ健實ナル美風自ラ生ズ

今ソノ長短ヲ列記スレバ左ノ如クニシテ別ニ特異ナル風俗習慣ヲ認メズ

長所ト認ムル点

○共同一致ノ精神アリ

○家族制度嚴然トシテ祖先崇拜ノ念強シ

○長上ノ序正シク敬老ノ美風アリ

○農村兒童ニシテ一般ニ質朴剛健ナリ

P2

水ガ自然ニ顕ハレル様ニスルニハ水中ニ暫ク沈トヲ要スルモ前記ノ理由デ実験ニ出来ヌト云フ

附 龍觀ハ自庵ノ孫之ヲ紛失シ数代行方不明ナリシヲ今秋史或ル市場ヨリコレヲ發見シ之ヲ今自庵ノ視ナリト判定シ秋史紛ニ代ヲ因之ヲ蔵シテ自庵ノ子孫ニ渡シタリト云フ。

教旨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経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学藝文館大提学知春秋館成均館事 世子左賓客立衛都總府副摠管行通政大夫弘文館副提学知製教兼経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金祖淳贈諡文懿公者

乾隆十二年八月初九日

通德博問 曰文
溫景善性 曰懿

P1

ヲ藏ス

附 南袁ノ函諺ニハ宮内ノ柳ノ木ニ咨デ定俗爲王ト書シタルモノナリ此レハ趙正庵ノコトナレド省約セレタリトス

二、龍硯

中宗王ノ自庵ニ賜送シタルモノナリ

形ハ縱三一寸横二一糎ノ長方形、

中央ノ墨スル所小水ヲ溜ル所ハ丹彩ニシテ向ツテ左ハ梅右ハ竹上ハ雲間ノ月下ハ海邊ノ漢翁何レモ浮彫リニシテ各々其ノ特色ヲ幽然ト現ハ見ルモノアレテ何トモ言ヘメ妙趣ヲ與ヘサセル

此ノ龍硯ハ明朝ヨリ李朝ニ送リタル翼龍硯ノモノニシテ全鮮ニ只一品ナリトス。

金秋史硯匣ヲ作リ、金有慶(雜谷)硯銘ヲ作ル、

韓判書德厚作硯銘、林山林憲晦作硯銘、中宗ノ時趙正庵(光祖)金沖庵(逸)ト金自庵ハ道義ノ友ニシテ主客ニ同扶シタルヲ以テ中宗龍シテ之ヲ賜フ。

傳說

昔カラ龍硯ハ水ヲ注ガストモ墨ヲスレバ水自ラ出スト言ヒ傳ヘ、水中ニ浸セバ硯ノ上ニ変化ヲ出ダルトテ運搬ノ際モ今マデ海上、水上ヲ通モタルコトナシトス。

[illegible]公[illegible]出ニ女長適[illegible]氏ニ嫁スル一家欽一家行不倦於公無以公故一再[illegible]
主[illegible]公祖[illegible]題請儀不敢忘今公嗣子[illegible]不[illegible]誠基不可以不文辨謹稱紀之俾
刻于右陰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致仕奉朝賀　俞拓基述

不肖男　頤在書

崇禎紀元後三辛巳月　日立

一、金自菴ト龍硯

金自菴トハ中宗朝ノ副提学金諫ノ号ニシテ官職履歴ハ別紙教旨ノ通リナリ

朝鮮書家四名流ノ一人ニシテ四名流トハ「安平大君、楊達茉、蓂石峯、金自菴ノ四人ナリ

自菴ハ年十八歳ニシテ既ニ龍門ニ登リ其活動振リハ當時朝野ニ燦然タル光リヲ放チ前途無限ナリシ青春自菴モ吏判南袞ノ凶謀ニ陥ヒ込マレテ北島南海ニ十三年流謫後三年ニシテ死ス、享年四十七ナリ

（中宗二十九年甲午十月二十七日卒）

自菴ハ又学者ニテ文集一編壽階二冊家ニ本（甲一本ハ家牙、長廿四寸五糎幅六糎ナリ）龍硯ト共ニ新岩面朱敬里自菴ノ十四世孫金晃益氏之

鼎祖麗夫有諱子燁號桑村戎輒徵以刑判不就之燁自麗至今冠冕相承高
祖諱孟尊貢祖諱斗星戒切生員　贈領議政考諱[illegible]慶獻議政致仕歷享三
贈左贊成祖諱斗星戒切生員　贈領議政考諱[illegible]慶獻議政致仕歷享三
朝有古大臣風祖昌原黃氏平市令夏笑女秋浦文敏公愼之玄孫也公以戊
寅正月四日疾卒臨終顧語後事甚治無世化色請以伯兄之子頭柱爲後令
房人奉手斂至牖然而逝享年三十九倫主婉嫕貞淑性不喜金珠侈麗　上
親授小學烈女傳通大義甫九歲遭　孝章世子喪慟之若成人雖粥飲　上
未之御則不值進其孝友爲至自易己如此及出閣不擇尊貴一事毋敢自專
至誠事舅姑靡不用極公嘗怒一侍婢將加以刑主乃下階進諫親慕而言和
公之疾回革主告以當下從既屬續邦水族不近口上親慰諭又　降御札慰
勸而終不回後迨謂曰臣既許身於人不能終考於　殿下矣謂頭柱曰昔人
云身達發膚受之父母不敢毀傷古所謂烈女者多自我吾甚恥之吾當自盡
而全其孝而已如是者積十四日竟以是月十七日卓復壽薨興公同三月同
啓翔宮到倫物合受方祝山烏和山讀政公瑩右拾庚之孫公及主之喪　上
俱即臨哭　親製之優賜祭特謚貞孝夫人禮官以主之節行一回古所罕今
[illegible]禮葬　上下新迎喪日又　親臨賜祭　親書誠以莫四嘉而區貞字
刻鴻筆遂文　御書墓表大字以貞之　恩榮隆前可以輝映泉壤嗚呼閨巷
匹婦或一時爲烈感動決而有之而而不易多觀也況以　主姬之貴家法
貞固如金石從容就義歷選千古未之聞焉嗟歎可見我　聖上家之禮教之
恣而公之平生所徵刑者從可知矣所其國矣顧柱方爲奉事有三男長睿永

碑文

公諱漢蓋字幼卿十三尙儀賓尚今　三第二女和順翁主封月城尉階自順
義大夫歷回　慶軍亞歷陞至綾綿班齊　三臺賞兼五衛都摠府副總管都總
管侍用監提調公長身朗眸符彩襲人自　英姿敏悟既就傅不煩課苛文義
日就及館于試室則一切須是言事皆不衣紬帛行不乘軺轎居處鞍馬不異
寫士終日屏人杏斷造請掩門自守最素豪屬絕無敢高聲行路侵及市廛事
父母及敬姐至孝姊或病之人每嚴在側而公義之至誠祈水甘旨　久而
不解常倒于床或所居蹴而不少及終夢兆是病中冬春秋公扁墓行孝著
然所過民人至今称頌聞公長或有流涕者　上臨幸主奉令祖覲而以方憂
眼力昏傷晨日先期孫課屬大小　邦祭無如之仲氏蚤世而其子孫教誨眷
寂無間之然於民未仕且貧用必經京凡所需靡不曲副推以及於恤外家
眷族嫡吉凶之助不遺踐平居無如唯青未嘗去手開與會心人語揚抗古今
訓利義要々手如玲決泉湧或聞民憂政病愀然傷歎若恫瘝之在己也嘗屢
應製進詩至廻於八法屢書哀謚冊文篆印賓　陵表春瘡與澤宮試射及矢
亦多前後賞賚頻繁共在朝班無紳端笏有肯綮直見者者然當公在疚日
上御年方盛宮嬪嬖聲誠之四使月城在者用輩豈如是耶其見重於上下
如此噫以公地處共不图於當責已難矣況安文逞之彪炳天猷之敢虛使之
由甲乙平進則優可以列保朝右許謨摹縣而局於　邦制終不克施展一二
天又廟莫壽嗇其稱誠公之先出新羅京姓仍籍于高丹以商麗太師仁琯爲

今尚公子孫ノ門前高ク今猶ノ初学御制遂然ト昔ヲ語ツテ居ル、

門 忠烈閣 命

門生順配漢公贈右議政府都正五尉同大殺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漢蓋貞孝公ト和順翁主

一、貞孝金公ト和順翁主

金漢蓋字幼輔領議政金興慶ノ子ニシテ全慶史ノ曾祖ニ當ル年十三ニシテ儀賓ニ簡スレ英祖ノ第二女和順翁主ニ尚シ月城尉ニ封セラレ幼ヨリ英発課習ヲ待タズシテ文義日ニ進ンダ駙馬トナッテカラハ身ヲ持スルニ恭謹厳正デ其ノ生活ブリハ宮士ト異ラナカッタ和順翁主モ幼ヨリ柔順貞淑ニシテ性孝華麗ヲ喜バズ英祖親ヨリ小学及烈女傳ヲ教授サレ其ノ大義ヲ通ジタリ

金漢蓋ハ英祖三十四年戊寅正月四日ニ疾卒シ享年三十九ナリ夫ヲ喪ッタ翁主ハ一滴ノ水一粒ノ飯モ口ニセズ晝夜慟哭スルコト十余日ニ至リ英祖親ヲ慰諭ニ臨ミ又御机ヲ除テ懇勅セラルヽモ終ニ顧ミズ憔悴シテ曰リ臣既ニ身ヲバ人ニ許シタルモノナレバ殿下ヲ奉侍盡ス能ハズ顔柱口ノ古人ノ教ヘテ身體髮膚ハ父母ヨリ受ケタルモノナレバ敢ヘテ毀傷スルヲ得ズ」ト云ヒ、昔ヨリ烈女ト謂フモノ多カリシモ皆自我セリ吾甚タ之ヲ恥スト云ヒ勸メタルモ効ナク十四日後合正月十七日遂ニ殉死セリ特諡貞孝後子孫ハ貞烈ノ碑ヲ建テンコトヲ英祖ニ請ヒタル所英祖之ヲ許サズ親筆「誠貞英烈嘉爾直貞ノ八字ヲ賜ヒ靈筵ニ掲ケ又墓表ノ大字ヲ御筆デ賜リタリ英祖戊寅三月禮山郡新岩面龍宮里鸚鵡峯下東麓ニ合葬ス後正祖特命ヲ以ッテ之ヲ烈女ト旌ス給ヒ

88

(4) 詩境楼、無量壽閣 晨祥室、一琴文経、友鶴山人書室ノ扁額 詩境楼、無量壽閣ハ華嚴寺ニ他ハ子孫ノ家ニアリ、イヅレモ阮堂筆蹟故ノ妙ヲ味フニ足ル。

(5) 印章 石判ニ十余種、子孫ノ家ニ蔵ス、書家阮堂ノ當時ヲ偲ブニ足ル

(6) 筆蹟 多数ノ筆蹟ハ火災ノ際烏有ニ帰セタルモ済州島ヨリ一書翰其ノ他二、三通ノ書ヲ蔵ス

併ンナガラ苟モ阮堂ヲ敬慕シ阮堂ヲ研究セントスル種ノ人々ハ此ノ種ノ人々ハ極メテ多カッタ門弟タルト否トヲ問ハズ其ノ断簡零墨ヲサヘ吉光ノ片羽様ニ需メテ止マナカッタ。其ノ切実熱烈ナル欲求が遂ニ阮堂歿後ニ於テ遺著ノ出版トナッテ現レタノデアル。

一、阮堂尺牘
二、覃揮斎詩藁
三、阮堂集
四、阮堂先生全集

八、阮堂遺蹟

(1) 白松

阮堂支那ヨリ帰鮮ノ際白松ノ苗ヲ持帰リ祖先全興廣ノ墓地ノ前方ニ植ヘタリ、樹枝高雅ニシテ反面白色ヲ帯ブ。支那北京郊外ニ散見マルモトヲ得リモ鮮内ニハ稀レニテ春秋ノ候ニハ枝ヲ垂タモノ多シ。

(2) 小逢萊ノ石字

華岩寺裏山峯續キ南端岩壁ニ刻シタルモノニシテ禮山平野ヲ一望指手ノ間ニ望ミ眺望絶可ナルヲモッテ支那ノ逢萊ニ因ミ刻シタルモノナラン。

(3) 詩境、天籟ハ先生ノ石字

華岩寺裏山岩壁ニ刻シタルモノニシテ阮堂先生ノ趣味ノ卓越セル亦仰敬ニ堪ヘテ当時ヲ偲ブコトヲ得

玩堂金正喜ハ李朝五百年間ニ則致サレタ枯槁偏僻家臭芬々タル学壇ニ実事求是ノ新学ヲ吹込ンデ一大生面ヲ展開シ海東ノ天地猶ホ生氣ノ脈々タルモノアルヲ知ラシメタ。偉大ナ存在デアッタ、経史、天算、金石、詩文書画ニ於ケル卓越セル識見ト比類ナキ造詣トハ正ニ李朝亦有ノ通儒ト稱マデ。琳琅秘籍、珍ニ清儒新著ノ豊富ナル收藏ト共ノ自在ナル活用ト=ヨッテハ今ノ玩堂ノ擅場デ何人ノ追隨モ許サヌ所デアッタ、誠ニ馳騁翰墨縱然トシテ彼ヲ嘉道間ノ碩学鴻儒ノ間ニ置イテモ顧盼雄視、恥ジザル程デアラウ、事実玩堂ホド清儒ニシテ敦喝敬慕セシメタ東人ハナカッタノデアル高雅拔俗卓識千古東人離レシタ東人デアッタ玩堂ハ七十一歳ノ生涯中能ク青ヘヌ能ハ青クタ、併シナガラ彼ハ所謂若書底ノ人物デハナカッタヤウデアル、他人ノ述作ニ対シテ厳正ナ時トシテ汲烈ナ批判ヲ下スヲ憚ラヌ小岡時ニ己ノ作物ニ対シテモ極メテ鋭イ内観ヲ持ッテ居タ。

蓋シ書ヲ着シテ敢テ之ヲ世ニ問フガ如キハ彼レガ鋭敏ナル学者的良心ノ怒号ニ抗サベル術デアッタ。不人間ノ平生ニ於ケル著述ヲ以テ自ラ見スヲ欲セズ醤瓿醋甕倶ニ不可ナルナレ、即チ命ジテ拉去スル必禱ニ勝ヘズトハ玩堂ガ必反推尋者ニ與ノ聲詢辨ヲ贈ッタ時ノ言葉デアッタ。彼ハ屢々手稿ヲ一抱シテ火ニ投ジタトサヘ傳ヘラレタデアッタ。

ナリ。ヒトシ五五

の六内ニ硬病アリ常ニ水ヲ注ガナイトモ水絶エズ、秋史四ノ是蛇ナリ

之ヲ烹シタル所其ノ言ノ如ク、人皆驚キタル所秋史笑ッテ曰ク請君

ハ尚讀書不足ナリト云フ

又土竹ガ恒ヲ修理中一小カヲ得タリ、秋史ハ之ニ錢七千ヲ償シテ曰ク

昔ノ切玉刀ナリ、後小常金粟準ガ入燕ノ際持參シ各書數萬卷ト交

換持參セシモノ云フ

秋史ノ貞夫人ハ主人ト千里孤島ニ相離レテ下世シ告別式後靈柩也

ヨリ離レズ、此ノ時秋史ノ送リタル詩ヲ掲ゲタル所輕ク離レタルト

云フ

飯勝天姥訴瞑司　我死君生千里外

來世夫妻易地為　使君今日我必知

北青ニ還ナル

(2)

既羅ヨリ病歸南モナク哲宗辛亥權相國敦仁ガ禮論ヲ以テ見付北青ニ

歸サル時六十六歳矣モ亦白首ニシテ秋史ノ手ヲ握リ悲哀痛哭スルヲ

秋史之ヲ顧テ顏色ヲ正シテ曰ク君等ノ讀書不足言ノナス樣チリト云

ヒ談笑手ニ書畫ヲ鬱ヘテ行キ翌壬子歸還、実川ノ文酉堂公墓下ニ居ト

シテ五年ニシテ下世ス、享年七十一ナリ。

ニ展開シタ情誼ノ厚キ全ク以テ感歎ノ外ハナイ

六、濟州島ニ流サレ、北青ニ流サル

(1)

濟州島ニ流サル

清鮮文化交流史上ノ第一人者デアル秋史ハ又臨堂公讜諭ヲ以テ島ニ流サレ四年ニシテ赦還サレタル後モ猶其余響消ヘズ絶エズ秋史ヲ齎齎シ遂ニ異学ニ侵リズ不軌ヲ犯ストシテ憲宗六年濟州島ノ謫路ヲタトフタ海路ハ常ニ風強クテ一渉ニ命脈ヲ要スル所秋史方ニ舟ヲ解クヤ俄カニ大風浪起リ舟中ノ人皆蒼然トシテ居ル所ヲ秋史ハ凝然トシテ枕頭ニ坐シ、持ヲ高旅ニテ方角ヲ指シテ「篤師ハ抱ヲシッカリ握リ舟ヲ此ニ向ケ」ト叫ンダ所何ハ矢ノ如ク朝出発シテタニ至リ島人皆驚キタリトシタ居濟九年讀書運筆島人ノ訓諭ニ親ミ人文大イニ開ケタリトシタ。

八、詩

○秋史ハ字ヲ書ハテハ門前ノ高麦ニ掛ケ散歩帰リテニット一瞥観賞シテ氣ニ入ルモノハ少ノ一端ヲ空孔ニ入レテハ密封シテ集メタモノヲ岩海ニ流シタト云フ。其ノ古言國外ニマデ流レタリト言ヒ傳フ。

○閔松園、秋史ヲ拜謁シテ学ヲ願ヒタル所秋史喝然ト四ツ五ツ生始終之効ハツイニ此ニ至ル、君ノ学トハ此レ何ヲ為サントト欲スルモノナ

土産ノ数ハ筆硯書籍其他

五、阮堂ト號シ覃揮斎ト號ス

秋史ハ帰東後常ニ燕山ノ交友ヲ懐ヒ翁覃溪、阮芸台ニ経怛ニ対スル景仰ノ念愈々深ク詩文ニ書礼ニ夢覃敲阮ノ挈情ヲ慕セ覃溪ヲ賓トスルノ意ヲ取ッテ賓覃斎ト号シ、阮芸台ノ「二」字ヲ取テ阮堂ト号シ、果テハ覃溪ノ覃ト芸台斎号タル揮経堂ノ「揮」トヲ配合シテ覃揮斎ト号シ、宛テ両経師ニ親炙シテ居ルカ、如キ氣分ヲ漂シテ居タ、殊ニ覃溪ニ対シテハ恥慕切々ノ情ニ堪ヘガタク、晝思夜想、夢想入寐、層幾作図ト誠ジ其ノ友由紫霞ヲ覃溪ヲ紹介スル時ナドハ紫霞前輩、歩兵ヲ三八中國塊景、偉觀、吾不知其千萬億而不如見一蘇斎老人也」トマデ礼賛シタホトダッタ。

秋史ハ覃溪ノ最モ好ハ翔鮮古碑ノ拓本ヲ始メトシテ古本書畫器物ノ類サテハ日本ノ古書畫ニ至ルマデ購使ノ人来毎ニ携ヒ帰ッテハ覃老ニ慰メ且ツ少ズ上品ノ朝鮮入貢ヲ携ヘテ其ノ保衛長壽ヲ禱リテ居タ。

殊ニ覃溪ノ八十壽辰ヲ迎ヘタ時ニハ歓喜ニ堪ヘズ自ラ佛経ヲ浄写奇呈シテ遥ニ賀意ヲ表シタ覃溪モ本若キ秋史ヲバ海東第一ノ通儒トシテ愛着到テナルナリ貢使ノ帰国ニ託シテハ自着ヲ始メ石墨書稜中ノ珍玩ヲバ惜氣モナク贈來シテ秋史ノ研鑽ニ資シ秋史ノ生辰ヲ祝ハンガ為メニハ秋史ト同ジク八月ニ生ヒ先賢ノ中カラ特ニ歐陽文忠公ヲ選ンデ其肖像ヲ描キ覃溪之ニ題シ其子星泉之ニ贊シテ贈物トシタリト両者ノ間

李黑莊、吳蘭雪、朱野雲、李公拳、金豈園、近園之才

(6)

秋史ノ病望達成

秋史ハ華燕僅カ二三旬、而カモ其ノ間ニ於ケル、彼ノ倍躍ハ自覺マシキモノデ翁氏ニ經師ヲ始メ数多ノ碩學名士ヲ歴訪シテハ經義ヲ叩キ翰墨ヲ談ジ清祕ノ法書ヲ窺ヒ痕跡ノ奇籍ヲ玩ビ積年ノ素願ヲ十分ニ果スヲ得只管彼等ノ殊遇ニ感激シ眷愛ニ感喜シタ

秋史ハ予期以上ノ影響ヲ收獲ヲ端緒ヲ、大ナル抱負ヲ懷キ欣然トシテ還國シタ小河自ラ生色アリ學壇為メニ活氣ヲ呈シタ、時ハ絶徊十年春三月デアッタ。

(7)

帰國大成

帰來後モ學的関係ハ連結サレ色々導イテ呉レタ。

秋史ハ竟ニ學壇ノ最高峯ニ達シタカ世途艱険、身軀窮厄ニ遭ヒ貧羅孤島海外居ニ至リタカ知ラヲ海外ニ於メテ絶ノ秋史攻学淵源又翁氏ニ経師ニ在ル

附 覃溪ハ晩終前經史百集詩義書画ノ精奇ラメル一部ヲ秋史ヲ送リ又欧陽文忠黄文節公像ヲ摹シテ寄ス二公ノ生日亦六月ナルヨル請白士亦六月三日ニハ酒ヲ瀝シ節ヲ作リ図ヲ為シテ之ヲ寄セタリト云フ。

中柴震入燕ノ際覃溪ノ蘇室ヲ見ルヤ請所空ナレド惟先生ノ書一幾掛ケテアルヽ。

ヲ果シタ。此ノ會見ニテ清舜文化交渉史上、特筆スベキ價値ヲ持ッテ居ル。

(4) 元秋史ノ化度寺眞本ニ接シテハ其墨緣ノ緻カラヌヲ欣ビ之ニ依ッテ深ク歐法ヲ玩味シ、覃溪ノ欧法ニ深キヲ贊シ、轉ジテ東國ニ於ケル麗末以來ノ書法ヲ敍シ、最後ニ李朝書人ノ無端ヲ笑ッテ居ル。

阮堂臺ヲ叩ク

翁覃溪ヲ歷訪シテ學德ヲ傾倒シタ秋史ハ又阮芸台ヲ叩イテ異狀ノ感化ヲ受ケタ。阮芸台ハ經學ノ大呼デアリ、清朝文化ノ完成宣揚ニ対スル一大保護者トシテ當時ノ第一人者デアッタ。

秋史ハ芸臺ノ所持セル名著『讀書樓ノ七經孟子考文』ヲバ燕都ニ於テ始メテ見ルコトガ出來タ。朝鮮ノ學人ヲ以テ此ノ名著ヲ見タ者ハ恐ラク秋史ヲ以テ嚆矢トスベキデ此ノ書ガ彼ノ古學研究上ニ大ナル力トナッテ働イタコトハ云フマデモナイ。芸臺ハ秋史ニ對シテ又絢イ

(5) 諸名士ノ歷訪

シテ攻學研經ノ方針ヲ說キ實事求是事實精詳ヲ旨トスヤキヲ盈論シタノデアッタ。唐ノ經義ノミナラズ、南北書派論、北碑南帖論ノ如キ、芸臺得意ノ持論モ亦皆秋史ノ頓聽シタ所デアル。江南ノ諸名家ハ海東金秋史ノ名ヲ慕ヒ、使臣ノ帶介、書札ノ往來ニ依ッテ、經義ヲ談ジ、文墨ヲ說キ、清舜文化交流ノ燦然タル場面ヲ展開シテ居ル。

秋史ハ翁阮ニ經師、曹玉水等ノ外ニモ亦幾多ノ名流ト交歡シ、學緣ヲ結ンデ居ル

知的欲求ヲ充実スニ足ルベキ碩学鴻儒其ノ人デアッタ。
東國ノ使遠カ唯一ノ衆ンミトシタ名所見物ハ秋史ニ取ッテハ一種ノ
娯戯ニ等シカッタ。彼ハ先ヅ何人ヲ叩クベキカヲ考ヘタ。
其所朴楚亭ノ交歓シタ諸名流ハ或ハ下世、或ハ星散シテ京ニ留ッテイ
ル者僅カ十ヲ越サヌ様デアッタ。

(2) 其ノ中デモ清朝学壇ノ最老デアル翁覃溪、殊ニ阮芸臺、曹玉水等ハ建在シテ夙ニ楚亭カラ耳聞シ企慕シテ居タ所デアリ、入燕ノ目的モ亦実ニ諸名流ノトノ面晤心契ニ在ッタノデ諸家歴訪ニ全力ヲ傾ケ盡シタ。先ヅ曹玉水ヲ訪問シ、金両堂ハ或ハ五柳居書肆ニ於テ或ハ琉璃廠ニ於テ学ヲ論ジ、文ヲ談ジ相得テ歓甚シク而者ノ交情ハ頗ル芳趣ニ富ンデ居タ。

(3) 翁覃ヲ叩ク

秋史ガ在燕中ニ於イテ最モ傾倒シ最モ感激シタノハ翁覃溪ト阮芸台ノ二大経師デアッタ。分ケテモ覃溪カラハ異等ノ眷遇ヲ受ケ親切到ラザルナシ、石黒書楼ノ寶庫ヲ開イテ百余秘籍ヲ出シ秋史ノ好学心ヲバ心ユクバカリ満足サセテ呉レタノデアル。

七十八歳ノ近視老翁ハ短軀猜悍、気魄縱横ノ青年秋史ヲ見テハ海東猶ホ此ノ英物アリヤ「経述文章海東第一」ノ折紙ヲ付ケタノデアッタ。秋史モ亦彼ノ異常ナル親情愛眷ト、卓越セル学問ニ感激シ、随喜渇仰ノ念ヲ捧ゲタ。覃溪ハ老ヲ忘レ、秋史ハ少ヲ忘レテ、心心相契シ予期ノ而目

デアッタ。秋史ハ李朝五百年来、絶エテ無クシテ僅ニ有ル英物デ特ニ清朝学ノ遺詣ニ至ッテハ、殆ド其ノ匹儔ヲ見ナイカクアラシメタ最初ノ指導者ハ実ニ朴楚亭其ノ人デアッタノデアル。秋史ハ乳ニ東俗ノ臭味ヲ脱却シテ居タ。彼年取リマク東人ノ殆ドスベテハ、彼ニ取ッテ餘リニ馬鹿ダシク見エタノデアッタ。謂ヘ巴ク我ガ東交ハルベキ士無シ、将ニ交ヲ中国ノ各士ニ結ビ以ッテ古人情ノ為ニ死スルノ義ニ效ハン」斯クテ彼ハ一首ヲ口吟サンダ。

慨然起別想
如得契此人
四海結知己
可以為一死
四下多名士
艶美不自己

四入燕

(小)

隨行入燕

純祖元年十月ニ冬至兼謝恩正使ノ判中樞朴宗末副使ノ吏曹判書金魯敬、兼掌令ノ李永祐等ノ一行ノ入燕ハ愈々京城ヲ発シテ北上シタ。豫ネテヨリ首ヲ題ケテ入燕ノ機会ヲ待ッタ若キ秋史ハ意気昂然トシテ燕行ノ列ニ加ハッタノデアッ。秋史時ニ二十四才。半島ノ麟麟児金秋史カ第一歩ヲ燕都ニ印シタ晴保ノ彼ノ心ヲ動カシタモノハ山嶽然タル城壁ヲ擡ヘ華麗ナ宮殿楼閣ノ類デハナイテ寧ロ

三、少年時代

金正喜字ハ元春、號ハ秋史又ハ阮堂ト稱ス　慶州ノ名族金氏、母ノ俞夫人農淵二十四年ニシテ正祖十年丙午六月三日新岩面龍山里ニ於テ産ル。父ハ金魯敬字ハ可一、酉堂ト號ス　純祖二年文科ニ及第シ、官ハ戶曹判書ニ至ル。　母ハ俞氏、進士、弼宗、贈吏曹判書ノ女ニシテ三子ヲ産ム、　長子邵平秋史デアル、　幼ニシテ神童ト異リ、日夕鷄鳴峰ノ山巷ヲ跳メテハ身體ヲ練リ、龍山（烏石山）ノ巷岩寺ニ通ウテ僧侶ニ親シミ甚ク經ヲ誦シテ居タ。後年ノ超世逸塵ノ風韻、氣宿ハ実ニ此ノ時カラ培ハレタノデアッタ。御園ヲ出ッテ京城ノ壯洞ニ在ル廣大ナ邸内ニ居住スルヤウニナッテカラハ經學ヲ研メ、書道ニ親シク年六才ニシテ春書ヲ書キ門ニ貼リタル所ヲ朴貞蕙公其ノ要ナルヲ見テ酉堂公ヲ訪ヒ先生ヲ見テ大イニ稱歎ヲ加ヘテ曰ク、之ヲ堂奥ニモッテ世ニ出タン、吾敢ヘテ成功セシメントヲ云ヘリトアリ、　彼ガ天稟不群ノ才学ハ間モナク楚亭孔奇歎ノ認ムル所トナッテ茲ニ一進展ノ境ヲ開イタ。楚亭ハ當時ニ於ケル最モ優レタ達識ノ士デアリ、清朝文化ニ対スル最大ノ理解者デ自家ノ新知識ヲ頒ケ盡シテ、天才兒ヲ教育啟發シタ。楚亭ガ三度入燕ノ經驗ヲ得タ丸京學壇ノ諸兒ヲ手ニ取ル如ク物語ッテハ若干秋史ノ心ヲ狂フバカリニ躍ラシタ。　楚亭ガ第三次ノ入燕ヲ試ッタ時ハ秋史ハ二十六才ノ少年デアッタ。楚亭ハ此ノ少年ヲ通シテ其一ノ自己ヲ藏ラシメヤウトシタノ

皇紀二五〇九　嘉永二年　憲宗五年（己酉）六四才
皇紀二五二　嘉永四年　哲宗二年（辛亥）六六才

皇紀二五二　嘉永五年　哲宗三年（壬子）六七才
皇紀二五二六　安政三年　哲宗七年（丙寅十月十日七二才

罪ヲ許サレテ濟州島ヨリ陽川
權相國敦仁ガ（禮論ヲ以テ臣堂
ヲ北青ニ遷ス
罪ヲ許サレテ歸リ
果川西堂公ノ墓下デ死ス年七
十一（新岩面龍宮里ニ葬リ

二、金臣堂先生系譜

金興慶
- 漢蓋
  - 廟往
    - 晉員
      - 錫喜
    - 晉賢
      - 通喜
      - 錫喜
    - 晉永
      - 正喜
        - 商濟
          - 翰濟
            - 所忠
              - 同煥
        - 商佐 庶子
    - 晉彦
      - 道喜
    - 晉成
      - 教喜
        - 商默
          - 有降 世元
    - 晉明
      - 徽喜
        - 商一
          - 始濟
    - 晉敬
      - 正喜
      - 命喜
        - 商益
          - 勉濟
            - 相喜
              - 商敏
                - 文濟
                - 始元
                - 重煥
- 漢佐
  - 觀往
- 漢恭往
  - 恒往
  - 順往
  - 健往

□ハ継嗣タルヲ意味ス

皇紀二四六九　文武六年　純廻九年（定）　二才
皇紀二四七〇　文武七年　純廻十年（庚子）　三才
皇紀二四七九　文武二年　純廻二年（己巳）　三四才

皇紀二四八七　文武十年　純廻十七年（丁亥）　四二才
皇紀二四八六　天保七年　憲宗二年（丙申）　五一才
皇紀二四九九　天保十年　憲宗五年（己亥）　五四才
皇紀二五〇〇　天保十一年　憲宗六年（庚子）　五五才

則チ西堂公（父君敬ノ號）ニ於
ネ陸皇先生ヲ見テ大イニ感
歎ヲ加ヘテ曰ク將來學藝ヲ
以テ名ヲ世ニアゲン吾コレ
ヲ教ヘテ成功セシメントス
ト言フ。
進士ニナル冬テ日西堂公ニ
隨行入燕
三月歸國
擢第
優注書翰林　奎章閣　侍制
議政府　僉祭　經筵　春秋
三堂　諫院　憲府　常平和
製敎　衛史崩西
通政　承旨ニ陞ル又司諫
吏禮　兵ニ當參議
嘉善俸ニ當參判
參判刑曹
（後異學　犯不孰）ノ罪名ニ以
テ濟州島ニ流謫ス

阮堂金正喜先生傳

金阮堂名ハ正喜字ハ元春祖史ト號シ又阮堂トモ號ス　慶州ノ人　酉堂金魯敬ノ長子　正祖十年(乾隆五十一年)六月三日生ル年二十四ニシテ父酉堂ノ清ニ使スルニ隨ヒテ入燕シ星湖翁方綱　臺阮先生大儒ノ知遇ヲ得　經義ヲ叩キ　翰墨ヲ談ジ　諸名賢ト学緣ヲ結ビ帰東ノ後　学大イニ進ミ　經史詩文金石書画遂ハザルナク　蔚然トシテ大ヲ成セリ若シ天ハ其人ノ卓越せる人物ノ南還ナルに真ニ清朝文化ノ　核心ヲ捉へ　經学ノ堂奥ニ詣リ　新ニ実事求是ノ学ヲ半島ヲ宣布シテ数百年来ノ陋風ヲ一掃セルノ大功ニ至ツテハ　阮堂ハ正ニ其ノ主一人者ト謂ハザルベクヲズ不幸ニシテ憂々奇禍ニ羅リ　或ハ済州島ニ或ハ北青ニ流謫ノ途シ書メタリト雖モ其ノ清風高節愈々頌し欽仰恩慕ノ表登ヲ報キヲ加フ哲宗七年(咸豊七年)十月十四日果州ニ歿ス年七十一

忠清南道禮山郡新岩面龍宮里ニ葬ル

年譜左ノ如シ

年譜

皇紀二四四六	天明六年	正祖十年(西暦) 六月三日	新岩面龍宮里ニ於テ生ル
皇紀二四五二	寛政四年	正祖十六年(一七九二) 七才	春喜ヲ書イテ門ニ貼リタレヲ朴貞蕤公ガ其ノ異ナルヲ

曰吾八次家爲三十六載矣始衰所天欲踐汝父之遺言養姑終年無
不孝之名前汝成人無不道之言是亦孝母慈矣或亦不失信於汝爲
耶吾亦從此從夫矣家內皆以爲例談矣後數日上之夫墓省其塋域
而愕語及其子曰吾死後之經與汝考同擴而也翌日從容自靖焉享
年五十二嗚呼古今豈有如此夫人乎孝而不安爲烈乎而難以成孝
孝烈兩全者唯彌人一人而已哭我孝婦大成烈女可謂孝烈并行而
不相悖也哉

壬戌三月十五日

族孫 永式謹撰

6. 孝子烈婦

1. 谷遷克善略ニ七〇五前

鳳山面倩阿里ノ人煖學ノ高イ人ニシテ親孝行者デアル。

鳳山面孝爲里ノ名アルハ毎日半途許進ムヤウニ部落ノ前ノ橋ノ處デ親ノ帰リヲ待ッテイタノデ斯ノ名アリタリ

鳳山面倩阿里ニハ孝子閭アリ親ノ墓ヲ三年間并ッテイタノデ倩阿里ト斯ノ名アリ

2. 陽城李氏烈行録

光山金公諱世夏之妻即陽城李公横吉之女也自末笄時生長法度女德純備年十八帰于金氏之門未萬一朔語言姑未嘗逆容親亦未親熟公忽病革處有不起乃遺囑於婦人曰吾有偏母寡老一弟幼稚吾罪貫忍天怒而猶方將訣去吾知夫人貞節必不苟生矣然則吾家事機無遺乃已死者豈忍瞑目耶望須從權養我老母以終天年育我一弟以成家道則可謂没吾亭也或可肯從否婦人答曰見君子之容聞君子之言雖路人不忍聞也況爲其妻者乎吾當銘骨不忘矣勿慮善終自是喪葬之餘哭泣之聲絕而已悲慟之意不形於色婉容愉色慰安老母溫言和氣撫護幼弟門庭雍睦而若無事之家雖能繼又多便身之物率經爲後養者以恩教訓以義使之成德敦婦人門禮意然乃忍羨怡怡閨庭初受是教門豈不昌大一日婦人謂子與婦

大興面　金慶高　李朝時代ノ領議政
大述面　李南珪　李朝時代ノ文承旨

4. 學者

新岩面　金正喜　号秋史　李朝時代ノ大儒者
之時面　崔翼鉉　号勉庵
鳳山面　李湛　号静存斎
德山面　尹鳳五　略三〇〇前ノ人
〃　尹鳳九　〃上

5. 軍人

大興面　黒齒常之　百濟時代ノ武將
〃　遲受信　〃上
〃　沙比相如　〃上
鷹峰面　趙中將　明治二十年度雲谷里ニ生シ九歲ノ時出鄉シ內地ニ渡リ後陸軍中將ニアレリトイフ今猶存命シテ京城ニ住ム由シ
鳳山面　李義信　忠壯公　三七〇年前軍人精神ノ格遵シタル人ニシテ丙子亂ニ清卅兵使ニテ戰死シタリ
〃　恭達鑿　瑞卅事變ノ時戰之　陸軍憲兵

土地ノ住民及其他

八 名家

大遂面 韓山李氏
大興面 海平尹氏

領議政李山海ノ後裔

九 古家

禮山面 昌寧成氏
大興面 全州李氏

仁同張氏

新陽面 密陽朴氏
光時面 楊州趙氏

晉州姜氏

坡平尹氏

番南朴氏

鷹峰面 蔚山朴氏
德山面 高氏 丁氏

全海金氏

溫陽鄭氏

韓山李氏

十 政治家

大興面 全 大遂面 光時面 全

碧信 趙深 李山海 李山甫 号鴻漢 号鴻谷 鄭萬鎰

百濟時代ノ宋室
百濟時代ノ浮屠
李朝時代ノ領議政
李朝時代ノ文判書
李朝時代ノ領議政

7P

20.

鳳林里武陵洞九曲川ニ刻石アリ

「臥龍潭」「仙遊岩」ト刻ミアリ

八分刻石ニテ李朝肅宗時代ノ人竹泉金鎮圭ノ手蹟ナリト云フ

21.

天仙台

侍洞里天台山上ニ天仙台アリ　新羅古蹟ナリト云フ

「春秋詩客遊賞スル所」

78

15. 定慧寺
崇德山中修德寺ノ上位ニ位スル修德寺ト同時同師ノ開山創建ニ係
昭八年境内ニ高サ二十五尺幅十五尺ノ大觀音石佛ヲ建立ス

16. 德山溫泉
德山面邑内里ヲ距ル西南二十余町德山港奥線三等道路ニ近接シ
名勝地德崇山ノ東麓ニ位ス
大正十五年端山李基祥氏巨資ヲ投ジ近代的浴場設備ヲ備ヘ浴客
ノ便ヲ図ル皮膚病ニハ最モ効能アリトシ近時浴客頓ニ増加シ
ツアリ

17 卧竜潭
伽倻山中ニアリ盤石天然ニシテ中流落布ハ下ニ深淵ヲ作リ竹泉
金魚生ノ彫刻アリ、祈雨祭ヲ此處ニテ行フ。

18. 壽徳岩
德山面修德峴上ニアリ大字ノ彫刻アリ年代等未詳

18. 龍鳳山
祈雨祭壇アリ太祖寺ノ祈雨祭ヲ行フ所ナリ

13.

德崇山

德山面斜川里德崇山(一名修德山)ハ無數ノ古蹟ヲ藏スルト風光ノ絶佳トニ依リ有名ナリ

全山奇岩怪石ト鬱蒼タル老木ニ蔽ハレ清冽ナル玉水隨所ニ瀑ヲ成シ深山幽谷ノ妙趣ニ筆舌ニ盡シ難ク無限トナリテ此ノ間ヲ縫綴ス深山幽谷ノ妙趣ニ筆舌ニ盡シ難ク無限ノ古色ヲ含ム百年ノ老松ハ登路ノ墨客詩人ヲシテ讚嘆佇立ス去ル能ハサラシム 展望亦北鮮稀ニ山頂ヨリハ西方黄海ノ碧波モ手ニ取ルカ如シ山中ニ修德寺定慧寺ノ兩古刹アリ共ニ豊富ナル考古資料ヲ藏シ觀賞スベキモノ妙ナルラス

經路ハ京南鉄道楊柳驛ヨリ山麓迄自動車ヲ通シ(所要時間約二十分)夫レヨリ約二十三町ニシテ先ヅ修德寺ニ到リ更ニ進ミテ山腹程近キ定慧寺ニ達ス、探勝ノ適地トシテハ金剛ト稱セラルルモ亦所以ナキニ非ストス

14.

修德寺

德崇山ノ中腹ニ位ス新羅文武三年(一千二百六十余年前)元曉國師ノ開山創建ニ係ル古刹ニシテ昭和八年一大修理ヲ加フ寺内修德寺六雄殿ハ朝鮮宝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ニ依リ昭和十一年五月二十三日宝物ノ指定ヲ受ク尚本近設ニ係ル百余名收容ノ旅舍設備アリ

古中有小瀑布為小潭自石縫龍洞ノ旱則禱雨于此潭崖刻金尚書鎮
圭吳竹泉ノ分「臥龍潭」三字潭東崖新設小菴名之曰臥龍菴

10

石門潭

德山面西約一里半南岩壁立陰森潭邪白石盤庇西岩隙立一向刻
金竹泉八分「石門潭」三字

11

玉屏洞

在德山面西約二十町一麓自家王山逶迤而來有七八里為御帳水口
上頭則圓平而經其下蒼壁削立如屏序不可數十間屏下有台可坐眺
流溪流至此成潭古傳妓隆與潭名曰妓歡書廟朝兩戒判書金優圭号
竹泉謫居本縣愛此岩泉有詩東遊終日復朱子水哉臺三字崔孤雲遊
目岩三字刻之臺傍又集成慈孤所書朱子燭龍燈琴過玉屏絶句刻之
御帳為湖石名山而此三處岩泉亦稱湖右勝也

12

金塔雲磴

在德山面西一里四解等雨後少晴停時有一南崖狀如塔局其中又
設塔五層上頭則以銅鐵為骨四隅鐵索垂長髣髴体之狀大制度之
奇巧與凡塔有異塔下東崖設白磴二十三層磴上兩傍躋狀石獸一雙
古傳遠此者懷翁乃在壁亞三十八

。金竹亭ニ貞簡公後裔諱文秀号永山翁為青年教育鳩聚泉鈴莲此亭子也

。李詣房号一山翁大成学業後時門人員笈者及於千人矣

。甲戌菁已両年設白日場于此亭子而五邦儒林盛集勝行矣

。自此伯未設漢文私塾從師者不絶

。壬戌春令設國語講習所于此亭後時有朝鮮總督府学務局賛助金

。積後新陽公立普通学校共礎于此亭

八景

鷹峰樵笛　　獨岩暮雲　　渡灘漁唱　　龍岩漁火

泉洞聚雨　　月峰晩霞　　遠村土鼓　　城崖夕照

。板頻棟聯有金正喜秋史公筆蹟

8.

石門

後山面ヨリ西南二里伽倻山西還頂上ニ巨岩突立シテ石柱ノ如ク中ニ折テ門ヲナシ南邊ノ立石下ニ削リタル痕アリテ恰モ懸瀑ノ如シ故ニ之ヲ石門ト云フ。

9.

臥龍潭

伽倻山伽葉峯ニアリ　下距伽倻寺西北数咫崖尾窈窕左右石壁蒼

4、望遠亭
渓谷幽邃且ツ市街一帯ヲ望ミ絶好ノ勝地ニシテ　四季曲水ノ客
少カラズ依ツテ望遠亭ノ名アリ

5、無限川
本郡ノ北時・大興ヲ峰渡山ヲ貫流スルモノニシテ　水量豊富ニシ
テ流レ緩カナリ　水中魚族多ク清川白砂ニシテ両岸ニ楊柳清波
ヲ添フ　沿岸至ル所絶景多シ

6、龍窟
渡山屋内ヨリ北約二十町　香爆峯下　岩穴ノ間ニ深淵アリ　祈雨
壇ヲ設クルコトアリ。

7、一山三水亭
新陽面ニアリ竹邊川ト建川トノ合流セル所ニアリソノ沿革左ノ
如シ　一山二水亭沿革
○往城史新陽北整食下ル竜ニ当
○朝鮮王蓋一頃六間
○乙酉年三月落成

五、名勝地

1、西泉寺

禮山邑ヲ距ルニト東北約二粁金烏山麓ニアリ、寺内ハ寺地佛閣其ノ規模廣大ナリシモ、壬辰ノ乱ノ兵火ニ遇ヒ悉ク焼滅サレタリ、サレド今尚千佛殿極樂殿十層ノ石塔残存セリ、中ニモ千佛殿ハ古今稀有ナル三千余佛ヲ安置シ年中ヲ通シテ祈願ノ婦女ノ来訪数千ニ達スルノミナラズ境内ハ山水ノ美ヲ美ネ春夏秋冬四季ヲ通シ観覧者後ヲ絶ザルナリ。

2、禮山神社

市街ノ西北金烏山麓、眺望絶佳ノ地域ニアリ、其ノ境内ハ高燥廣濶ニシテ数十余ノ階段ヲ二重ノ鳥居及燈籠アリ尚数十歩北方ニ蔡蔡兵ノ慰霊塔及忠魂碑アリ。

3、金烏山

禮山邑ノ北ニアリ海抜二三〇米、山上ニハ土城ノ跡アリ金烏ノ棲息セタル傳説ニヨリテ本山ノ名アリト稱セラル、山ノ頂上ニ至レバ眺望千里眼下ニ横ハル東ハ遥カ延リトシテ聳エタツ鷄龍山ヲ眺メ北ハ廣漠タル平野ヲ隔テ牙山湾ニ集注セル船影ヲ認メ西ハ無限川ノ鉄橋ヲ渡ル汽車ノ白煙百里ニタナビク大自然ノ美ヲ味フニ可ナリ

祝之於石順治十七年庚子四月日禮山青陽并立在新禮院路傍

補遺

集成祠記

晦翁夫子生於周程張子之後折衷群言敲揮經傳以為萬世之典則所謂集群賢之大成者信不誣矣及夫子歿聖學無傳異言喧聞斯道晦昧而不彰天佑我東儒輩出相關啓鑰綴於分毫明理之功錄々乎濂洛之盛矣至我尤菴宋文正先生則擴而大之闡而明之之遠接考亭之統近集諸儒之成蔚然為百世之師宗其功可謂至矣近未聞中樞々多學問之士咸一口言曰晦翁孔子後一人尤菴晦翁後一人也後學之尊尚模範亞莫如而先生遂立祠禮山飛鵝里以安甘棠像夫子北壁先生配左扁以集成以為瞻依放仰之所變出意外皆以為仍奉未安且祠在僻隅廣妨游鬼乃於癸巳月日移建于冠峯之下黔溪之上山水清麗洞府明塏正宜於學有之鉉誦其下幾步地有玄尚廟彥明之書齋又似乎庶洞之變壓為庠斯亦奇乎哉是役也彥明管其始終太宇李塤踴伯致力甚勤崔徵尊成尹焜晦甫李東公舉俱以文字相之皆不可以無傳也嗚呼學宮若豈但為姐豆泰拜而設哉八是庭而君是齊若其必有莫擂江漢之思讀其書味其訓憤發勇猛一言動悉以夫子先生為法然後斯不負先招啓後之至意可不勉哉崇禎甲申後七十一年甲午孟夏既望後學安東權尚夏敬識

所謂烈女者乎凶我吾甚恥之吾當自盡而全節孝而已如是積十
四日竟以是月十七日卓復寿亦與公同三日同啓靷官司備物合
空于禮山烏石山議政公瑩石棹庚之原公及主之喪上俱即臨哭
親製文屢賜祭特謚貞孝大臣禮官以主之節行亞古所宰合辭請
施棹綴上不許遂震怒又將面賜祭親書誠淺莫回嘉甫所賞八字
揭刻靈筵又御書表大字以奬之恩榮曠前可以輝暎泉塗嗚呼閨
巷匹婦或一時倉卒感慨引決者有之而亦不易多覯也況以王姬
之貴秉志秉節固如金石從容就義歷遂千古未之聞焉噫斯可見
我聖上家法之正禮教之彰公之平素所以儀刑者從可知矣呼其
盛矣哉顯柱方為奉事有三男長嘗永餘并幼公有側出二女長適
南原尹周欽次行不佞於公以故一再覲每懷公雅誼清儀不敢忘
也公嗣子求不佞誌墓不可以不文辭謹撰述之俾刻于石陰大匡
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致仕奉朝賀俞拓基述不尚男顯柱書
崇禎紀元後三辛巳三月四立

92

金相國　墳恤民施惠永世不忘碑

序曰本道介於湖嶺之間以王子安樂之不至酷被賦役煩倍萩焉
璋地之出稽不祖民無莫居之樂久矣相國金公排衆議建白于朝
設行京大同春秋各一結米五斗外無他賦焉李尚書時昉撰贊頌
畫以成其法便斯民安堵如故熙熙而樂此碑之所以立也嗚呼萬
世不忘碑不竭無助銘曰洽民心我公專恢民膏我公澤思之不擇

慨然傷歎若恫瘝之在己也嘗屢褒進詩媚於人法屢書哀謚冊
文篆印寶茂春塘與澤宮試射及矢亦多前後賞賚類繇其在朝班
鉞稱端芳扇背疎匝兒若書然當公在疾四上聞年少儀容嬉笑天声
誠之曰便因城在商爾軍豈如是耶其奧重於上下如此喪公也
虜其不固於富貴已難矣況其文藻之麗炳才猷之敏達使公
乙平進則優可以冊儀朝右許讀楷韓而局於邦制總不克施之由耶
二天又開其壽喪其惜哉公之光出新羅宗姓乃籍于慶州以高麗一
太師仁琯為鼻祖麗末有諱子將辨桑村我朝徵為刑判不就立營溢
因麗至今官見相承高祖諱孔都黃海觀察使以冒言褒贈家宰溢
文與書祖諱世珠金井察訪贈左贊成祖諱斗星成均生員贈領議溢
政考謚夏頌議政致仕歷三朝有古大臣風姿昌原黃氏平市
令英夏女秋浦文公鎮之孫也公以代宦正月四日疾卒臨終
顧語後甚治無恤心色請沙汀兄子踵柱為後令傍人齊手飲足脩
然而逝享年三十九翁主嫉妬與性不喜金珠奢麗上親接小學
烈女傳通大義甫九歲遭孝章世子喪勸之若成人雖粥飲上未之敢
御製不肯進其孝友篤至因幼己如此及出閣不挾尊貴一事毋
卿至誠事舅姑雖不用極公當然一待婢僕加以重刑主乃下階
因專褒而昌姑公之家旦軍主吉以當下從既屬纖水漿不近口上
進御製勸慰諭又降御札總勸而終不回淚辺對曰臣既許身於人不能
終孝於厥下矣謂顧柱曰苗人三弁体髮膚受之父母不敢毀傷
古

酒旨妖丙寅六月庚辰以疾卒于家享年四十三公天性孝友不幸
早孤先其父兄痛戒是年十二月葬子禮山寺洞卯坐酉向之原從
先室之兒初配鄭氏女亦溫陽望族先公逝生二男一女長曰璋次
曰瓚女新後娶正郎閔春蘭無後嗚天若助德其昌厥後也歟隆慶

91

戊辰十一月四之
月城尉金公墓碣銘 李有明 朝鮮國綾陵大月城尉兼五衛都摠
管贈諡貞孝金公之墓 私順翁主祔左塋亡之年故弟以寫
公諱[illegible]盡字紹[illegible]十三簡儀廣尚今上第二女和順翁主封月城尉
階自順義大夫歷慶尊恩歷陞至嘉孫班齊三司常兼五衛都摠
府副摠管將用並授調公長身部眸符彩襲人自幼英發敏悟既就
傳不煩課誦文義四徙及能于貳室則一切競畏諫早弁不衣紬帛
行不束輪居廣袖扁不異寒士約四辟人客斷造詣掩門內守嚴
遠駑屬絕無敢高聲街路侵及市廛事父母敬順至志物咸備母
夫人嬰疾在床而公養之彈誠祥水甘旨久而不離守制于宗家所
居湫陋而不少變常黃悲其病必亦哀怒溢墓行李蕭然所過民人
至今稱頌醇公喪或有流涕者上臨牽主弟今私觀而以方要服方
餅植忌四先蝴深墨擂大小邦祭亦如之仲氏蚤世而其子孫教誨
度無間已出叔氏未任且貧月必繼粟凡有所需靡不曲副推以及
於物外家養族姻吉凶之助不遺踈孑居無所好惟書未嘗去手間
與會心人語揚扢古今剖義析釐〻乎如向決泉渙或聞民覆政剛

廣出二男一女長曰韞司諫後獻納次曰鞈別坐以孝贈特平出繼
儲後女適順溪君安世復李思航生一男曰希容亟長韞生二男一
女曰榱萬戶曰視通政邵弁女適尹德敬側出也鞈生二男二女曰
補縣監曰楗宣務女適縣令李榮義次適僉知李晉亨世復生四男
三女曰夢益出寅曰夢元順陽君曰夢游宣務曰夢尚通德女適士
人甲大根次適參奉元士益次適主簿洪迥內外實玄孫凡百餘人
幼學伯輝構必出也寔爲宗孫與順陽君及諸宗人屬堅墓刻手家
狀屬金世濂曰公歿已百餘年顯烈尚闕賞獲子孫之責也其在斯
文欠缺亦大然則非子誰宜銘世濂辭不獲謹銘〃曰道學之興文
王實倡技苑連茹君子道長允矣先生造詣既深頊荒迭興其利斷
金敬義來持惟正是悅行有愆夷不改其轍群兇所嫉謀巧罔極危
機幹駭爲鬼爲域天之將喪哲人云亡投身絕域沒齒窮鄉公謫一
定不待百年士林攸宗星斗于天豈碑大篆用表厥坎刻昧無窮公
則無憾皇明崇禎十三年庚辰十月日之四代孫順興後人安應鎰
書後學通政大夫戍均館大司成知製教金濂撰篆

90

生員 許鏘 莫逆

序爲晉陽川大姓高麗門下文敬公許洪之後也曾祖韓萱司諫
祖諱輯知中樞府事贈益靖簡公文諱翼芝補參奉娶宋室德
仁宋女嘉靖甲午生公幼而岐嶷聰慧過人既冠師事礼潭資潭益
夏力學中內午司馬人以材器稱卜居湖西玩情明夏不喜官達以

諫館成均
堂樂茂正復八
門禍炉即已卯十一月十五日也公及靜
南衣沈貞為公議所棄積怒逞憾潛誣以大逆事匿測賴大臣鄭光
弼力救分配有差流竄四出公狀流於閑寧居數月加罪竄南海靜
菴沖菴竟未免加命嗚呼可慟也已士固有竭忠冒道進不得遭遇
明主樂善好學退不得獨善其身困厄以殁地者笑若公忠足以結
主知而默於聖明之世明足以保其身而竟遭憸人之害此又何哉
嗚呼天道之不可必一至此歟公處絶島十三年始得量移陶陂又
二年放還鄉里其論也文毋俱先殁至是奔哭文毋墓絶而復甦欲
伸追逐之情朝夕上塚淚所着草木盡枯以嘉靖甲午十一月十
六日竟不起享年四十七葬于禮山京敬里子坐午向之原從先也
後五十七年當宣廟朝特贈吏曹參判公文章奇杰高出魏晉旁
及藝能審者律其拜衆正欲今正雅衆也十六魁溪城試二十中同
焉二十六登文科英廟時也先生金慕齋為考官極加賞歎北地
其卷曰退之作義之書遂擢置丙科國朝所年也筆法褒貶自成一
家世謂之仁聲義氣公之居仁義於故也後聞為李人所譖絶不書
以此罪傳于世考諡李文大興縣監贈左詠旨祖諱性原成均館司
藝贈吏曹參判曾祖諱禮義禮曹判書謚文敬公妣淑夫人安義李
氏麗太師棒之後娶金海金氏萬戶震賢其考也克東婦道合美鍾李

而定辨侯樵夫意便覺四望之局鉅些警心可想三隅之逸披煩樵而滌熱足以寧軀酌貪泉而添清蓋亦取義於將拔搢助舉修楔拋楔東霄旭遲々宿霧中默坐時聽絃誦響翠微高處是儒宮拋楔西一點遙分黛色低南地槐陰亦穎發夕陽無限亂蟬啼拋楔南柿林秋色正紅酣俯看快路八往來半足征驢半肩擔拋楔北金削芙蓉千丈立歸夢有時尋玉京丹霄縹緲望底極拋楔上卯月清風渾一樣夜半仙簫西三整便看皆次覺甫奏拋楔下庭畔蕾薇孤簡架吏東刑書春晝長一變蒼鶴伴閑伏頹上楔之後堂基肇固色居奠安八公晴閑華表所之氣寶門洞闢廣庭絕新宛之聲狀一堂之宛成圖百里之淳古公餘詩酒嘯咏而消度更隙閑山厥倘佯而獨與

碑板副提學金祿碑銘

有明朝鮮國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教兼經筵春秋館提學藝文館提學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修撰官贈嘉善大夫吏曹參判弘文館成均館事金先生墓碑銘并序公諱祿字大柔光州人己卯先賢傳所謂自菴金先生者也公天分絕高踐履又篤自少發憤力行其相與講究切磋皆一時善類中庸方銳意文治作新一世而公及靜菴趙先生沖菴金先生為上下所依向慨心資迪圖回至治以究舜君民興起斯文為己任由槐陰遂入弘文館正字歷著作博士修撰校理旌拜吏曹佐郎薦正郎由司諫陰獻納司

一區山水邑居殘四暮荒村白屋饑民殯欲除々未得賓遊不合盛
杯盤

85. 觀察使 李翻 詩
佳菊猶芳雪意催慇懃誰寄一枝梅呼兒秉燭看踈影歲暮懷為
爾開

86. 佐郎 李郁 香泉寺萬歲樓詩
浮生無計住緣岭暗數悲歡依草亭群鷺柳迴疎西白一僧閑去遠
峯青人間傳相吟詩客天上空名管酒星為問是非何處定阮公沉
醉屈原醒

87. 李行敏 新禮院詩
斗嶂高低四野通水樹煙雨賈帆風留雲倦鳥閑心事浮世功名一
笑中

88. 趙祿錫 覺奕軒上梁文
覺奕軒上梁文
鬼謀再返憫厥舍之將頹覺構重修瞻棟宇之顛敝起自平地迤若
旱天言念縣衙之久空蓋緣公館之屢徒梅賞已廢惜黃老之載營
草刺未逞仍郭君之移宅居嫌隘而靡定坐卧有歎氣增聲而難道
登曉無所往從南側為日月已道軒檻隨傾慨風雨之莫敵肆遊輪
奐之制庸恢葺修之規鋪土拓基高數仞而杵筭鍊石成砌定四方
而砥平確素隴之美材是尋是度逆般倕之妙藝為桶為楹檜舊授
新寧論財力之費從今視昔始知制作之宏宜拭目而聳觀故揭額

76. 李穡詩
雪意當春尚未殘 宸朝和雨釀輕寒 衰翁自是愁為地 玉手何妨進酒盤

77. 主簿 朴成健詩
甚矣吾衰氣力殘 將欲歸去奈倒寒 青山乱秀秀芙蓉 采幾有高高人任考盤

78. 東岳李安訥詩
旅夢驚迴夜未殘 蒲山風雨繁齊寒 幽居已隔春湖水 萬竹叢中一逕盤

79. 又
一叢島山館 熊醬并此過杏花 經西少楓葉 着霜多身世如旅 摩年光似擲梭 那堪日夕望滄澤 直烟波

80. 佩樂李好閔詩
秋入平林暑氣殘 玻璃椀裏水晶寒 明朝上馬山我崔路 回首長天白鳥盤

81. 觀察使 梅溪曹偉詩
簿書堆案燭花殘 牘尾稽離十指寒 誰識兀中詩料在 忽驚東嶺湧銀盤

82. 觀察使 安玑詩

粥糜不進未絀三年終至自盡事聞給復

69. 崔氏 李佐傑之妻婦道甚修事親以禮其夫病死則亦以自縊從死事聞旌閭于縣北古縣內面

70. 寺婢有德 李福龍之妻丙子雪後被擄不受汚辱罵賊而死事聞旌閭于縣西村

71. 私婢再介 性至孝篤養偏母不嫁其家母嘗遘疾劇股嘗糞及遭母喪三年不與其夫同房亦旌閭于縣南八德山

72. 李春元 宣廟朝登第官至僉判張九畹以文章名於世有文集居縣北高山面紙谷

73. 李元翼 春元之孫文科判書居縣北高山面

74. 鄭光龍 武科官至北兵使壬戌有功陞嘉義討胡有功陞正憲居縣北內大也面

75. 李汝發 義培之孫武科官至刑判御將封韓興君謚貞翼公居縣南大德

76. 李基夏 汝發之子武科經刑工曹判書兩局大將封韓興君謚貞僖公居縣南大德山

名士詩文

71. 顯 詠檀溪 李山海 客館詩

白首西風獨倚樓古今人事盡悠悠秋山欲暮水聲遠無限城邊無限愁

60. 同知 李弘肇 少孝行著聞給復居縣東佳佐村

61. 學生 尹東炳 性至孝父嬰疾百藥無効或言人肉最良 ~~女~~藥 故潛割左股肉和羹以進父病即去事聞給復居縣西於雪洞

62. 學生 李俊發 性至孝其母病嘗糞斷指晝夜泣禱母思食生蔬 夢有一翁言曰盍於伽倻山求之驚覺直往則雪封山頭莫適所搜 忽有一怪獸出自岩頭若有指告者數三果於岩隙得一蜂巢乃取 并許歸而進病回愈李生先死及其母喪傍人雖於白晝不掩目輒見李生被髮擗之狀爭聞如給米

63. 貞夫人李氏 鄭見沅妻夫以江界判官轉陞北兵使夫妻相離一紀李氏惡其元后訪書上疏願為送夫上特許往返生一子即言孫也及夫歿終身行喪足跡不出門外事聞旌閭于縣北內大也面

64. 李氏 權遲妻獻納李浚之女也年未二十喪夫三年獻粥終身

65. 行素事聞旌閭 李光胄妻夫歿後食素蒙白終身衣毀一如居喪事聞

66. 奧氏 給復 朴悌男妻丙子胡亂寇猝至未及奔避不受污辱投井而死

67. 朴氏 事聞旌閭 姜孝閔妻丙子兵亂被虜罵賊不絕口而死事聞旌閭于縣

68. 尹氏 北古縣內面 李世珏之妻尹公松煌之曾孫女三十四遭夫喪自縊者累

51. 李氏孝子李甲俊兩女性至孝其未笄父嘗遺病兩女俱斷指出血以進仍為回甦事聞給復居縣北別羅山村

52. 學生申鼎夫妻性至孝母患急病與其妻朴氏俱斷指用血病即回甦事聞旌閭于縣北古縣內面

53. 佐郎楊萬榮以孝誠出天青廟朝事聞旌閭于大德山面

54. 學生洪啓聖誠孝篤至父母一時遘疾並至危急亂斫十指又割左右服用血貪不救亦血盡殞命事聞給復居縣北大也谷

55. 學生朴尚胄執義承休之子父母病篤三斷指一割服出血而救及遭母喪嘔血滅性後以孝聞贈宮侍平

56. 學生成濠翼生貧成雲翼兄弟性俱至孝其母病篤兄弟割指以救仍得快甦及父同知璿年蒲九老至遺疾累次割指用血々盡厥

57. 忠義崔俊發崔俊天崔俊克以孝贈官佐郎一家三兄弟誠孝俱篤母病

58. 李旺割指三年廬墓事聞給復居縣北外面義培之庶子孝友出天性祿八方聞其父戰亡哭擗悲號一如成人母病輒嘗糞其母之南兵營還也親護其轎午里步行及其三年歡粥家有好梨好吉為其母乎日所者故每年成熟則忠

59. 老戚通政崔景望性之孝父重疾病及至將絕引刀斷指出血滴口述命五日事聞給復居縣北外也面

汝而適薦于墓鄉人聞諸朝賜司僕僉正

穩羽生並從死時丁丑正月三日也其翌日田生妻往戰場求得夫
尸見公尸体粹遂落ッ掩之歸告公之孫韓與君從視之則面貌顏
無損反腹千及腹間危帶一箭衣長盡被奪去觸脚下白紬行纏及
者錦條尚在遂奉葬於縣北鳳鳴洞其後孝已大臣諸重臣陳白遂
中上千敎曰父子死節世所罕有可逆贈議敎錄用子孫仍命旌閭

46. 李楊 字明遠義塔之子甲子賊逆擧兵及大駕解公州公隨內舅
李完豐 曙徽 賊子私都賊陷京師公欲探賊情入城附賊者執以
告遂ッ兵發見ッ鐵檻々縛同囚豐所在莫不屈遂殺之事聞上
為之嗟悼初贈崇敦判官以子汝後貴贈戶曹判書封韓原君後因
大臣遂達命旌閭

47. 李穆 素有勇力丙子之亂從李義塔從南陝來及城數十里遇賊
力戰而死事聞旌閭贈兵曹參議任縣東佳佐村

48. 朴承休 孝廟朝登第官至執義孝友之天母病危篤之時割指ッ敎
庵渡南陝之日奮身倡義及至大故哀毀感人里中人陳元卒化為
孝子事聞旌閭于縣東楊村面石谷里

49. 朴承健 承休之弟也與兄大小科同榜官至掌令承休之子尚胄
承健之子世胄皆ッ孝上聞贈官旌閭世ッ孝敎家梅之居縣東場
村面石谷里

50. 司果李甲俊 當母病割服斷指得回甦事聞旌閭于縣北別羅山
村

設上[illegible]
清白贈吏曹參議

45 44

韓楫 [illegible]人懷[illegible]既
[illegible]相[illegible]軍五百[illegible]
而死[illegible]
尹沙益 [illegible]
[illegible]山[illegible]贈職[illegible]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35. 烈女 郭氏 高麗末 玄風人 七歲十九歸朴根 根二十三 根死 居
墓三年服闋不歸本家 孝養仁男姑 終身事聞旌閭
36. 春德 私婢也 旌閭在郡南八里
37. 貴氏 慶氏 貴氏 貴也夫死 嫁 三年終身行喪事聞復戶
38. 宋氏 士人李時偕妻也 夫死呼天一聲而止 開眼封口而盡失壬
朝事聞旌閭
39. 元氏 通引供總 總也夫死 搗遭殺 兇徒七年 有 歸三 多兇已五
才免 保其身 欲及早改適 然女知此 抄不 綺七才而 欲 盡死 憲宗
朝 旌閭
40. 李陞 字仲久 [illegible] 中 顧 朝人與退溪先生相 友善 後復
[illegible] 梁山行 [illegible] 東 [illegible] 縣北 [illegible] 山面 [illegible] 大司 [illegible] 學 [illegible] 已 福論
41. 李榮元 字 [illegible] 龍 [illegible] 學問 [illegible] 改 [illegible] 先生 [illegible] 宋 [illegible]
詩名 又與 [illegible] 與 東 英 金 [illegible] 險 [illegible] 洲 [illegible] 公相 酬 [illegible]
[illegible] 為 [illegible] 流 [illegible] 交 改 [illegible] 初 [illegible] 於 [illegible] 徵 [illegible] 之 未 [illegible]
而 [illegible] 士 林 [illegible] 之 [illegible] 利 [illegible] 縣北 [illegible] 山面
42. 趙克孝 [illegible] 官 [illegible] 初 [illegible] 至 [illegible] 又 [illegible] 絕 [illegible] 與 [illegible] 遂
遂得 [illegible] 墓 小 [illegible] 失 大 將 及 [illegible] 墓 [illegible] 天 痛 哭 忽 雨 大 滅 人 謂 [illegible] 誠 [illegible] 感
及 長 [illegible] 為 世 名 [illegible] 仁 祖 朝 以 學 行 被 [illegible] 廟 朝 特 [illegible] 我 [illegible]
入 [illegible] 及 其 [illegible] 御 喪 以 衣 之 命 [illegible] 與 [illegible] 之 說

20. 鶴今 旌閭事蹟失傳

21. 韓文俊 性雅正能屬文仁宗朝登第時方重外寄歷長州長興南原三郡府使南京副留守皆有惠政門人吳世万詩曰 一南樓三郡俗東擢一州民一世稱國錄官至門不佞郎平壤一事

22. 韓孰 登進士第官至州不省事 以上高麗人

23. 鄭振 孝行人 遷溪門人也官至判書著喪劇禮執一卷傳平世

24. 李成萬 高麗人也成萬與其弟得俱至孝父母死成萬守墓哭盡哀歲三年制祭祀則弟號泣哀慕則兄就和歌

25. 崔厚五 孝行興宗朝以孝事聞旌閭

26. 尹思誠 士人也以孝文樣行鄉里舊聞于朝科舉不能

27. 朴文忠 孝行旌門在大興郡長一面茂陵村人今家門里一

28. 姜氏 貧便 朴校宗室也年十三母病斷指以延八十餘年事聞復戶

29. 車命徵 敬徵兄弟士人也以孝行乙巳復戶丁卯事聞旌閭

30. 牟萬重 士人也以孝行事聞旌閭

31. 崔望曰 良人也以孝行代干事聞旌閭

32. 田汀金 良人也以孝及事聞旌閭

33. 權氏 婦士人李星煥妻也以孝行密陽復事聞復戶

34. 俞文甚 士人也以孝行事聞贈持平

11. 李高林 年十七之母病剜指進血旌閭時因生事聞特名除職

12. 鄭年 鄭世璜 母病剜指獲瘳並司諫聞

13. 鄭世良 世璜之弟年十四兄年剜指役連遭父母喪三年毀瘠枯土並司諫聞

14. 朴修賢 母病吳川吳時愼病篤修賢縱川鄭政有數奴負米而踰歸而供之父早死幼未服喪及女死之年國甲逃退服且於國忌必蔬食及南辰景宗賓天魂苦官門外晝夜哭成服逆家淨處年十五為望北向再哭戊申之後老無少數雖及沐浴祝天日夜号哭乱年乃已英面丁卯命之忠孝門在吾元里面泉洞里

15. 孝婦 申氏 進士李尚頌妻青年喪夫決意下從而有老姑不忍自裁仍結廬墓側不論寒暑報養其中苦辛之下夏則生草冬則或米少此或換而勿如之誠終始如一免不得終養先逝朝旌閭在大枝洞面內頌里

16. 烈女 尹邑德 尹長張仲淵女也年二十三夫歿廬于墓側三年親祭不嘗鹽漿殺父母欲奪其志少死自警遂斷髮為尼朝旌閭在縣內面七谷里

17. 韓氏 金達安妻也 旌閭在丘有面宗敎里

18. 高氏 韓孔祝妻也 朝哭夕旌閭在嚴千里

19. 姜氏 金敬鎭妻也 夫唱殺少兒為公善氏泣曰有祖父母父貧已決夫死歸絕後奚食曰盡決而朝了已旌閭在今呼日見正里

タト云フ　子供等ハ此ノ人ニ逢フト恐レテ逃去ル
ソレデ癲癇ノ病人ニ外來葦ト書イタ紙ヲ貼付ヒテヲ
グナホルト云フ　コレニヨッテ此ノ人ノ異行ノ程度
ノ恐レサガ察セラレルト云フ

2. 名賢　金緻　李朝時代光州人六七歲能屬文賦石榴鳥鵲橋詩
詩皆妙學世奇之二十學司馬文筆俱絶考官批曰退之作羲之書
推置面魁二十六登第至副提學己卯冬遭士禍竄海羅内外難及
放還追服廬墓喪中卒

3. 閔懷賢　字李恩驪興人二歲失怙十六歲丁母憂躬負土成墳居
廬三年啜粥丙辰中司馬後舉孝廉拜參奉轉居戶曹佐郎登賢良
科擢拜正言己卯貶還鄉里

4. 孝子　金亟　事蹟失傳洪武庚午旌閭碑在邑内外巖里

5. 戶長　方蔚　千里絶域神明感孝旌閭在邑内香泉里

6. 金勒　旌閭事蹟失傳

7. 孟閑右　旌閭事蹟失傳

8. 李恩儆　以孤奉母孝行母有疾晝嘗糞母欲食鯉泉得無根川邊
人謂孝感所致丁母憂喪獨居廬側孝微微至陳尋還鄉里

9. 直長　李文卿　初仕右續三綱行實學分恩恭于旌閭在咸元里

10. 朴忠　女歲慶安三年免役不爲朝夕奠共弟良田居見弟明廟國
恤民喪三年爲屠殺國旌閭在濟州

41. 達川
大興面ヨリ東約二里ニアリ即チ大述面ヨリ源ヲ發シタリ

42. 温泉
德山面ニアリ南約二十町ニアリ

43. 龍淵
德山面ヨリ西約一里半ニアリ旱天ノ時雨乞ヲスルト即時降雨スルト云フ

44. 赤尺
德山面ヨリ東約一里半ニアリ即チ揮橋川ノ下流ナリ

45. 井浦
德山面ヨリ東約三里ニアリ

46. 揮橋川
梗山面ヨリ東約一里半ニアリ洪城郡金馬川ヨリ來リテ北ニ流ギ九萬浦ヲ經テ碩津ヨリ湧川江門浦ニ入レリ

(ハ)

人物ニツキ

朴來聲

李朝末期ニ現間良里ニ生レ才能衆ニ秀デ學問ニ長ズ
然レ官ニ上ラザルニ歎ジ一生ヲ琴浪生涯デ暮シタト
其ノ上力モ强ク体格大ニシテ其ノ威權ハ衆人ヲシ

34. 鷲山

穂山面ヨリ北約半里ニアリ

35. 大穂峠

山面ヨリ西南約二里ニアリ　穂崇山ヨリ来レリ

36. 無限川

禮山邑内ヨリ西約二十町ニアリ即チ洪城郡驪陽川（今化城川）下流ニシテ毎夏洪水ノ際ニハ巨蛇山ヨリ来リ川底ニ潜在シテ人畜ニ害ヲ及ボシタリシガ今ハナクナレリ

37. 孤頸浦

禮山邑内ヨリ北約二里ニアリ即チ無限川ノ下流ナリ

38. 柔川

大興面東約八町ニアリソノ源ニツアリテ一ツハ青陽郡飛鳳面ヨリ（元於平洞）出テ一ツハ青陽郡化城面（元驪陽縣）ヨリ出テ牙山郡領中港（井浦）ニ入レリ

39. 京結川

大興面ヨリ東北約二十町ニアリ即チ柔川ト達川トノ合流スル所ナリ

40. 竹達川

新陽面居達里ニアリ大興面ヨリ東約二里半ニアリ源ハ青陽郡雲谷面ヨリ出テ（元於士峴）京結川ニ入レリ

24. 圖師峯
大興面ヨリ東約二里ニアリ

25. 八峯山
大興面ヨリ北約一里ニアリ

26. 高峠
大興面ヨリ東約三里ニアリ

27. 車踰峴
新阡面東約一里ニアリ

28. 飛峠
大興面ヨリ西約二十町ニアリ

29. 伽倻山
德山面ヨリ西約八里ニアリ

30. 八峯山
德山面ヨリ南約十數町ニアリ洪城郡烏棲山ヨリ來レリ

31. 象王山
德山面ヨリ北方約一里半ニアリ

32. 德嶽山
德山面ヨリ南約一里半ニアリ　洪城郡烏棲山ヨリ來レリ

33. 大德山
德山面ヨリ南約一里ニアリ

樓山邑内ヨリ東北約二里数町ニシテ牙山ノ郡界ニアリ

15 鳳首山 渤城島樓山ヨリ来リテ大興面ノ西約数町ニアリ大興ノ鎮山ナリ

16 獅子山 大興ト新陽トノ峠ニアリ大興面ノ東約二里ニアリ

17 白月山 大興面ノ南約二里ニアリ

18 金龍山 大興面西南約二里ニアリ

19 堂山 大興面東約二里ニアリ

20 朴山 大興面東約一里半ニアリ

21 加次山 大興面ヨリ東北約一里半ニアリ

22 松林山 大興面大興里ニアリ東北約二里ノ距離ナリ

23 飛鳥峙 大興面ヨリ東約一里半ノ所ニアリ

シマツタ。湖水ハ海トナリ見ル間ニ乾涸トナレリ　其ノ後
間モ無ク申家一族ハ全滅シテシマツタ
其ノ山脈ハ掛燈血脈ト云ソラ燈ノ掛ケタル様ナリト燈火ニ
ハ油一郎湖水一盞クレバ火消ニル湖水ナリバ家命　家運盡
リベキハズナリ
其ノ若今見ル如ク坊間ノ妻キ様ヲ見テハ當時ヲ追憶感慨ナ
ラザルモノアリキ「問バヤ遠キ世々ヲ……」

9. 金烏山
禮山邑内北方約十町ニアリ天安郡廣德山ヨリ脈來レリ
コレ即チ禮山ノ鎮山ナリ

10 南山
禮山邑内ノ南ナ数町ニアリ現ニ保安林ニ編入サレ鬱蒼松樹
四時風致ヲ添フ

11. 香爐峯
禮山邑内北方　約二十町ニアリ

12. 道高山
禮山邑内　北方約一里半ニアリテ牙山郡ノ境界ニナレリ

13. 無限山
禮山邑ヨリ西約三十町ニアリ

14. 歎機峴

屏風ノ如キ岩アリ之ヲ橋シテ烈女岩ト云フ
當所ハ遠キ新羅ノ昔東支ト云フ代々祐福ニ暮セルモノア
リキ其ノ家ハ今ノ瓦家ノアル處ナリト後ノ山ハ岩石ニテ固
メ岩先ハ長ク延ビ向ヒノ山ト連續シテ川モ無ク流レモ無ク
田畑モ無ク岩カラ東上ハ洋々タル大湖水ヲタヽヘテ井タ
岩肥枝々トシテ絶壁ヲナシ青空相照ス湖水四周春ノ緑秋ノ
楓錦淵ニソノ影ヲウツス　其ノ麗シキコト名狀スベカラザ
ル景色ナリ　風光明媚ニシテ小赤壁ノ橋アリ
又然ルニ天下有數ノ美湖林水橋小赤壁ト云ヒ
此ノ時申ノ家ニテ湖畔ノ岩石上ニ亭ヲ建テ興學ヲ致セリ
或ノ若主人ガ家業後湖畔ヲ散歩スル時風一頻リ吹イテ被リ
シ冠風ニ飛バサレテ湖上ニ浮ベリ若主人此ヲ拾上ゲントシ
テ湖岸近ク進ミ寄ル時足辷イテ湖中ニ落チテ可憐ニモ死ノ
如キ若主人ガ溺死シ不帰ノ湖神トナレリ　其ノ若嫁一婦必
從夫ト云ツテ死シタル夫ヲ慕ヒ湖中ニ投身殉死ヲセリ
之レヨリ此ノ岩ヲ烈女岩ト稱ス
其ノ父母ハ一時ニ子嫁ヲ失ル常ニ歎キ悲ンデ居ル時幾莫モ
無クシテ或僧來リテ曰ク此ノ家ハ岩ト湖ノタメ不吉ナリ、
之ヲ切開ケバ必ヅヨクナラン」ト豫言ヲセリ　悲シミノ余
リ申翁ハ早速家奴ヲ発シ向山ヘ延塞イタル太岩ヲ切断シテ

ムリ。故ニ金華山ト名付ケタリト傳フ。本名ハ德峯山ナリ。

5 香泉水

此ニ香泉寺ノ奥山ニ小泉ヲナレ金ノ烏飛来レテ或ハ泉水ヲ飲ミ常ニ香氣充滿シテヰタト云フ　故ニ香泉ト名付ケ其ノ泉今モ尚ホ香ヲ発生スル感アリ

6 Y岩

龍華山ノ頂上ニアリ　其ノ姿恰モY狀ノ如シ故ニY岩ト名付ク尚ホ之ニ關シ面白キ說アリ　下方ヨリ仰望セシ岩ノ形僧ノ袈裟ヲ着タルガ如キ場合ハ必ズ降雨アリト云フ。

7 劍血跡

香泉里文廟後園ノ南ニ走リタル小山アリ　昔時此ノ山ヲ劍血ト稱ス　其ノ昔禮山邑内ニ殺人被害事件多カリキ、コレハ劍血走リタル為メト。此ノ地氣ヲ鎭メレメネバナラヌトテ山麓南端ニ一小石塔ヲ建テテ山氣ヲ鎭メ、尚其ノ氣ヲナダメンガ為メ下ニ屠殺場ヲ設ケ殺氣ヲ無クセシカバ常ニ陰カナリト傳フ

現ニ特殊村アリ且ツ其ノ石塔ハ現在伊東醫院ノ園庭ニ移立シアリ　昔ヲ語ラン評リノ樣ナリ

8 烈女岩

山城里（岩下里）製絲工場ノ後ニ見ルカラニ名アリソウナ

62

(四)

山　河　堤　池　岩　古木

1、龍岩

金島山ノ中腹ニ在リ其ノ姿ハ恰モ龍ノ如シ　昔時其ノ下ノ小泉ヨリ龍ガ上昇シタトノ傳説アリ　今ハ祈雨祭ヲ行フ場所トシテ一般ニ知ラレテヰル

2、告嚙（坂先）

農學校ノ水源地ニアッテ其ノ邊一帯ノ堅固ナル地盤ヲナセリ　昔泉ガ三ケ五十三佛ヲ安置スル際石舟デ石津浦ニ着キ其所カラ雄牛一頭デ現在ノ寺マデ運搬シタト云フ　其ノ牛ハ寺ニ着クヤ此ノ岩上ニ於イテ喊死セリ　故ニ告嚙ト云ヒ傳フ

今ハ坂岩（古明）ト稱ス

3、祠堂

金島山ノ頂上ニ在リ昔縣監ガ春秋ノ朝ニ於テ鎮護ノ神ニ縣内ガ平和ナル樣オ祭リヲシタ所ダト云フ

今ニ尚ホ其ノ跡址アリテ昔ノ面影ヲ偲ブベシアル

4、金島山

新羅文聖王二年己未ノ時薯蕷國師ガ唐ヨリ三千五十三佛ヲ石舟ニノセテ今ノ倉所里ヘ来タ時金色ノ鳥ガ一羽飛来シ道案内ヲナシテ悠々山奥ヘ飛ビ行キ今ノ金島山頂ニ止ッタト

[illegible]ハ其ノ佛像ノ奉安ヲ考ヘテ[illegible]
[illegible]ト金烏ハ南ノ方ニ飛ビ去ルヲ見尚不思議ニ思ヒ後ヲ追ヒタ
ルト所今程山邑後麓ノ山上ニトマリ暫ラクシテ又飛ビ南麓千
ノ篠葉ノ積リタル所ニ止ル僧ハ其宮ガ奉ノ敷地ニ適スルヲ
悟リ井デノ道地ヲ探視シタ所金烏ハ下ノ方ボ地ノ落葉ヲカ
ク分ケテ皆不ヲ表メリ僧ハ其處ガ井戸ノ道地ナルヲ知リ衆
人ヲ欲ンデ見タ所味類ハ美味ナリ依テ後寺ヲ奉果寺ト名
ノ水ヲ飲ンデ見タ所味類ハ美味ナリ依テ後寺ヲ奉果寺ト名
付テタリ・僧ハ寺ヲ建テ宛佛像ノ運搬ヲ氣ニシタ所或ル日
村ノ一頭ガ寺近ク来タノデソノ牛ニ佛ヲ運ンダ
鞍ヲ乘セタ牛一頭ガ寺近ク来タノデソノ牛ニ佛ヲ運ンダ
其後石舟ハ陀ミ其地名石舟浦トナリ後又石鎖浦トナル
今ハ皆ト変リテ居リ其ノ石ガ数年前マデ破片トシテ残在シ
今ハ皆トリ去レタルモ今尚石片ガ残リ舟筒（叫七）ト称シ
石舟ガツリ當時堅中ヨリ鐘磬ト伴ツテ者アリ依ツテ村名ヲ
鐘磬ト稱ス

奈川ノ位置変遷

[illegible]光時面積者里ノ前ニ通リタルモノガ幾年月ノ經過ニヨリ
龍頭里方ニ變流スルト云フ
京經川ノ位置變遷
奈ハ[illegible]面後寺里前ニ通リタルモノガ今ハ年々大興面新東
里ノ所ニ漫欲サレ近寄リツヽアリト云フ

米
猪井池　揮橋面積四
昔龍が昇天遊中水不足ノ為メ龍祭峯ニ掛リ止ッタノヲ地方
民ガ給水シ尚ホ台ヲ設ケテ祭ッタ所　龍ハ無事昇天シタリ
ト言ヒ傳ヘラル。
依ッテ数百年前ヨリ旱魃ノ時ハ元徳山郡平ハ工司ノ命ヲ受
ケテ類ンタリ此ノ龍祭峯ニ祈雨祭ヲ行ヒタリ此際必ズ豚ヲ猪
井池ノ水ニ投ジテ殺シ且ツ此ノ水ニテ洗ヒ祈雨祭用ノ水ハ
尊ヲ此ノ池ノ水ヲ使ヒタリト言フ
尚ホ此等ノ準備登山ノ際ノ祝明持ケハ現新里民ヲ使役セリ
依ッテ徳山郡廃止ノ際郡平ハ此ノ池ヲ里民ノ共有地トシテ
新里民ニ拂下ゲタリト言フ
猪井池ハ大正四年地方費ノ補助ヲ得テ樋管及溢流堰ノ新設
ヲ為シ同時ニ堤防ノ嵩高ヲ行ヒ現ニ敷地面積ハ三反町歩
灌漑面積三八町餘ニ及ブ
龍祭峯ハ現ニ此時ニ祈雨祭ヲ行フ所ナリ
舟沓ハ一町七一一種山郡新為面宗敬里南方村外レニアル）
新羅時代ニ成レル溜池ノ方向ヲ眺メルト金ノ島ノ一
群ガ海上ヲ龍ヒ廻ルノヲ者推ニ思ヒ遠ニ近ク来タ調ベテ見
ルト水上ニハ大キナ石ノ舟一隻ガ雄壮ニ浮ブ心其ノ舟上ニ

(イ)

ノ舟橋里

昔時ハ無限川ノ支流トシテ槻色内ヲ流レル川ノ水量豊富ニシテ帆船ノ往来サヘ出来タト云フ、從ッテ舟橋ヲ掛ケ交通ノ便ヲ計リシモノナリ。故ニ槻禮山駅附近ヲ舟橋里ト名付ク

2 穆島（オイ岩里）

現ニ新村ノ向側ニアリ、半島ノ形ヲ成シテ在テ百濟ノ時罪人ヲ多ク此處ニ送リテ歳月ヲ送ラシメタト言フ

3 松楼坦

現ニ金島山ノ麓ニアッテ縣監ヨリ春秋二回ニ於テ農神ニ報恩感謝ノ祭典ヲ擧ゲタト言フ

4 塔洞

現在ノ天主教會堂ノ後ノ山ニシテ新羅時代ニ數多ノ寺ヲ有シ所謂僧村ナンタリト云フ　故ニ塔洞ト名ヅケ傳ヘリ

5 水車小屋ノ跡

音衆寺ヘ行ク道側ニアリ　昔其ノ奥山ヨリ流レル水量豊富ニシテ水車ノ廻轉ニ充分ナリシト云フ

6 龍祭峯

所在地　龍祭峯ト猪井池　狸橋面新里　德山面トノ面界海拔六六四

慶州人吉堂金春澤ノ長子正宗十年(天明六年乾隆五十一年)生年二十四ノ時父吉堂ノ清ニ使スルニ際ヒテ外遊シ清朝ノ名賢大儒ト学術ヲ語ビ経義ヲ叩キ輪墨ヲ請スル等往日経学ノ堂奥ニ詣シ清朝文化ノ核心ヲ捉フ帰国後学大イニ進ミ経史詩文全邑清臺ノ窺ハザルハナク蔚然大ヲ為シ新ニ実事求是ノ学ヲ宣布シ半島数百年来ノ陋風一洗ニ偉大ノ足蹟ヲ印セリト傳フ不幸後ヲ所期ニ遂ケ或ハ南海府ノ島ニ或ハ北辺ノ北青ニ流謫ノ憂ヲ嘗メタリト雖モ其ノ卓越セル識見ト清風高節トハ相俟ッテ後世識者ノ渇慕欽仰ヲ加フルニ至レリ官安曾参判ニ終リ時京七年(安政三年咸豊六年)果川ニ歿シ北ノ地ニ葬ル遺蹟ノ多クハ火災ニ罹リ焼失シタルモ尚国内ニ亘ル氏ノ子孫現住シ四ツ数多ノ筆蹟扁額ヲ存スル外其ノ嘗朝官時清国ヨリ持来移植ニ係ルト云フ白松存シ子孫ノ管理ニ帰シアリ

7.

竹亭

竹亭ハ今吉德西元高山西ニアリ敦祝ノ茅葺極メテ瀟洒シタリ李春元号シテ九皐トス少時ニ李安訥子東矣ナルモノ及鶴林ナルモノト共ニコノ竹亭ニ會シタリ九皐ト東矣ハ俱ニ是當代有名ナル詩人ニシテ鶴林ハ正ニ西ヲ以テ世ニ名アリ　九皐ガ鶴林ニ竹ヲ畫カシメ壁一杯ニナシ九皐ト東岳モ名ヲ一律ツヅヲ賦シテソ壁上ニ写シタリシガ鶴林ノ反対シテ之ヲ賞スルモノ皆ミツ絶品ト為シケリ　今皆磨シタリ

8.

李王朝ノ遺蹟

新岩面龍宮里ノ山麓郡事務所ヨリ北西約一里ニアリ李朝英宗大王ノ二子方順翁主ノ墳墓ニシテ其ノ性仁孝且ツ貞淑ノ德ハ一世ニ冠レ夫金用淑駙馬名漢蓋死スルヤ十数日間一滴ノ水一匙ノ粥モコヒニ盡ス遂ニ殉死ス英宗大王其ノ貞烈ヲ嘉賞シ旌閭碑名等ヲ此地ニ建立シ給ヘリト傳ヘラレ親筆ノ刻字ト共ニ現存ス

9.

秋史金阮堂ノ遺蹟

新岩面龍谷里ニアリ　阮堂名ハ正喜字ハ阮春秋史ト号ス

逸人オッペルトハ李太王五年(紀元ニ五二八年)五月九日牙山湾ニ入港翌朝九時頃ニ上陸直ニ武装シ夜ニ乗シ德山面三隊里ニ着キメル一行ハ大院君ノ父南延君ノ墳墓ヲ発掘ヲナシタリ

墓所ノ守衛及仰河馬ハ共ニ逃ヲ洋人ノ來襲ニ驚キ逃散シタリ

オッペルトハ墓所ニ登極シタリシモ棺柩堅固ニシテ容易ニ開棺シ難ク四ツ退部ニ利用スベキ干潮ノ時刻迫リタルヲ以テ目的ヲ達セズシテ逃ゲタリ

伊山縣

伊山縣ハ今ノ德山ニシテ伽倻河口外ニアリ百濟ノ時馬尸山縣ニシテ後義馬縣トノ傳說アリ、清安ノ人板商ヲスル者ガ貴ノ冬葛疾ニ罹ッテ古德山縣市ニ於ニ死シタリ所持シタル馬ガ三晝夜ヲ徘徊シテ屍ヲ守ル飢渴スルバ時ニハ村中ニ入ッテ藁ヲ咥ミ水ニ飲ミテ訓ケス屍傍ニモトリ哀シリ啼キ如何ニモ訴ヘルガ如シ村人初メテ知リ党ニ行ッテ見ルシ尸体ハ地ヲ抜上ニ出リテ鼠鳶モ敢ヘテ啄キ得ズ馬ハ則絶ズ嘶リ詰人之ヲ奇異ニセザルモノナシ依ッテソ市源ヲ名付ケテ曰ク義馬縣ト云フ

セル廣漠タル元泉沃野ヲ眺メ非常ニ稱讃シ國賜狀ヲ村民ニ與ヘ水利ノ便ニ供セリ、今新院元泉元坪三ケ里ノ村民水利契ヲ設ケ之ヲ管理ス、ソノ當所村民ハ洪御史ノ功ヲ紀念スベク石碑ヲ建立セリ

春風秋雨数百年ヲ経タレド尚ホ碑文明瞭ニシテ鉢塔里ノ一隅ニ嚴立シ往時ヲ偲バシム

3、

横橋

明國朝鮮國使通過スルヲモッテ成川ニ宏大ナル石橋ヲ設ケ之ヲ横橋トナシタルモ其后函ヲ破潰シ石材川中ニ埋没セリ

4、

奉詔院（俗稱鳳舞里）

支那明國南京時代ニ明國朝鮮國使通過ノ際驛卒驛馬等ノ從又ハ旅客ノ宿所トセル院舍（國舍）アリタリ、然ルニ支那國邪ヲ北京ニ移遷スルニ及ビ之ガ院舍モ函ヲ廢セラレタリ

現在ノ德山面新坪里ナリ

5、

オッペルト事件

天主教徒ガ大院君ニヨリ蒙リタル慘禍ニ対シ報復ヲ企ジタ

余城ヲ回復シタリ
別并汀吐相ヘト共ニ義兵ヲ應援シタリシガ義兵ハ高宗後
ヲ遣ハシテ招諭スレバ義兵ハ解散ス是ヲ聚シテ遂ニ劉仁凱ニ詣降シ
リ
遂ニ倭ハ劉仁凱ニ至リテ日本援兵ニ逆ヒ四戰皆利アラズ豊ハ第ヲ覺ンテ劉仁凱ニ走リ王子扶余忠勝忠走并ハ日
本援兵ト共ニ降リタリ
獨リ遂ニ倭ハ任城ノ地ニシテ城國ヲ攻略アルニ依リテ
西戰悪闘ニ闘ニシテ城陷落シ及ンデハ妻子ヲモ棄テ
高句麗ニ奔走セリ
後西海道既ニ立ノ城ニ籠リテ叛逆ヲ企テハ高麗太祖之ヲ
防メ殺獲ガ三千人ニ至リシガ今ハ城壕毀壞シテ遺蹟ノミ
ナリ

2

驛場里
吾邑國驛場里ハ田舍到時代ノ通信機關タリシ所謂驛場ニシ
テ交通上ノ要衝ナリキ且ツ李朝時代ニ於ケル御史ノ定宿地
タリシカバ那外ノ殷盛地タリキ
李朝末葉御史洪徽國ガ礼山ヨリ當村ヘ向フ途中眼前ニ展開

三

史蹟

任存城

西池城陷落シテ義慈王既ニ唐ニ降レバ武王從子福信ガ浮屠道琛ト共ニ義ヲ唱ヘ周留城ニ據リテ王子扶余豐ヲ日本ヨリ迎ヘ立テテ王トナシ兵ヲ引キ唐將劉仁願ヲ都城ニ今公州ニ圍ムコト急ナレバ更ニ唐ハ劉仁願ヲシテ新羅兵ト聯合シテ之ニ應援セリ。

福信等ハ勢如何トモスベカラズ解ヲ任存城ヲ保チ自ラ補シテ福信等將軍ト稱シタリ後ニ黑ハ各種ノ流言蜚語之ガ性ナル反間術策ニ惑ワサレ遂ニ福信ヲ殺害シタリ之ガ百濟ノ最後ノ失策ニシテ南木豐ハ王タル器ニアラザルコトヲ論ズルモノナリ

黑齒常之ハ本邦西部ノ人ナリ身長七尺余驍勇セシモ謀略ヲ以テ義慈王ノ時達率ノ官ニ至リ風達郡將ヲモ兼ネタリ唐將蘇定方義慈王ヲ執リテ兵ヲ放チ境内ヲ大ニ掠奪セシム常之十余人ノ部下ト通ジテ敵兵ヲ誘聚シテ任存城ヲ占ム山自ラ險惡ニシテ司令モ至ニスシテ歸趨スルモノ三萬ヲ算シタリ蘇定方之ヲ攻撃シテ拔クコト能ハズ遂ニ二百

六 修樓峰ニ天槐アリ 槐下ニ盤石アリ 昔ヨリ有名ナリ

56

樹種	所在地	推定年令	備考
欅	大興面上中里	三〇〇年	
仝	大興面東西里(事務所)	二五〇年	
仝	大興面東西里	二五〇年	
公孫樹	大興面校村里(細校前)	三五〇年	
欅	大興面大也里	二六〇年	
仝	大興面芝谷里	三八〇年	
仝	大興面炭所里	三四〇年	
仝	大興面大東里	四五〇年	
櫟木	大興面葛田里	四六〇年	
	德山面宮里		
			德川家光項貞頓翁主ノ自ラ植エレモノナリ葉ノ間ク様子ニテ豊公ヲ定メルトノ事アリ又世乱アリタル場合ハ鳴聲アルトノ事ナリ

德山面南約一里ニアリ長四百五十尺幅五尺三方周圍延長九百九十尺水深ナリ

三三、國只堤
德山面南約一里ニアリ長サ二百四十尺幅八尺三方周圍九百八十尺水深四尺ナリ

三四、猪洞堤
德山面東約二里ニアリ長サ三百九十尺幅五尺三方周圍四百七十尺水深三尺ナリ

三五、板橋堤
德山面東約二里ニアリ長サ七百七十尺幅四尺三方周圍一千五十尺水深六尺ナリ

三六、省坊堤
德山面約一里ニアリ長サ四百十尺幅七尺三方周圍一千一百尺水深六尺ナリ

三七、炭田堤
德山面東約一里ニアリ長サ七百尺幅六尺三方周圍一千二十尺水深三尺ナリ

三八、猪井堤
德山面北約一里半ニアリ長サ四百尺幅七尺三方周圍一千五百四十五尺水深六尺ナリ

古木

ヨリ今廢セラレタリ

四、何池堤
禮山邑内ヨリ西約一里半ニアリ周圍一千十五尺水深三尺ナリ

五、剉池堤
禮山邑内ヨリ西北二里ニアリ周圍一千十五尺水深六尺ナリ

六、長承浦堤
禮山邑内ヨリ南約一里ニシテ周圍六百八十尺ナリシガ大興面ノ排水ニ防ゲ被害アリ故ヲ以テ破潰シタリ

七、國祀堂洑
禮山邑内ヨリ西一里半ニアリ無限川上系結川日捍山月捍山附ニアリ

八、佐耳川洑
禮山邑内ヨリ西約二里ニアリ

九、君川洑
禮山邑内ヨリ東約一里ニアリ

十、城洞洑
德山面ヨリ西約二十町ニアリ長サ四百五十尺幅六尺三方周圍延長七百八十尺水深四尺ナリ

十一、鶴池堤

七、鶴池堤
禮山邑内ヨリ西北一里半ニアリ周圍一千六百三十二尺水深
二尺ナリ
八、破橋堤
禮山邑内ヨリ西北二里半ニアリ周圍一千一百八十五尺水深
三尺ナリ
九、柳等堤
禮山邑内ヨリ西約二里ニアリ周圍二千四百三尺水深三尺
ナリ
一〇、壬子池堤
禮山邑内ヨリ西約二里ニアリ周圍一千八百八十尺水深二尺
ナリ
一一、弓可山堤
禮山邑内ヨリ西約一里ニアリ周圍八百四十七尺水深四尺
ナリ
一二、日與堤
禮山邑内ヨリ西約一里數町ニアリ周圍一千二百十七尺水深
二尺ナリ
一三、箭竹堤
禮山邑内ヨリ西約一里半ニアリ周圍九百三十八尺水乾キニ

今神橋ニアリテ禮山德山間ノ通路ナリ

八、玄化橋

今神橋南ニヨリ古德面ヘ直チニ通スル橋ナリ

堤堰川防

一、舟橋

禮山邑内ヨリ西二十數町驛ノ近所ニアリ周圍一千一百三十尺ト云フ

二、巖下堤

禮山邑内ヨリ西十數町ニアリ　年久シク乾キニヨリ今廢セラレタリ

三、九通堤

禮山邑内ヨリ北約十町ニアリ周圍五百八尺　今ハ乾キニヨリ廢セラレタリ

四、宗敬堤

禮山邑内ヨリ西北一里半周圍七百六十尺水深二尺アリ

五、城北堤

禮山邑内ヨリ西約二里ニアリ周圍七百十尺水深二尺ナリ

六、板橋堤

禮山邑内ヨリ西北約二里ニアリ周圍一千九十尺水深二尺ナリ

一、樓山面東約一里アリシガ廢セラレタリ

八、慶聖院　德山面南約半里ニアリシガ今ハ廢セラレタリ

九、開聖院　大峙俗稱寺峙ハ樓山面西南約二里半ニ當リ内浦諸邑ノ咽喉ニシテ地勢稍々險ナリ今ハ廢セラレタリ

十、橋梁

一、驛川橋　禮山邑内ヨリ西約一里　樓山往來ニアリ

二、京畿里橋　禮山邑内ヨリ西北約一里半　新岩面ニアリ

三、鄒野里石橋　禮山邑内ヨリ西約一里半　扶餘往來ノ通路ナリ

四、東川石橋　大興面ニアル　佳芳橋ナリ

五、居遷橋　新陽面ニアル　逆川石橋ナリ　今ハ川移リ橋埋メラレタリ

六、光時橋　東川上流ニアリテ洪城青陽禮山三郡ノ界ニアリ

七、橋橋

29. 鳳山面鳳林里ニ忠壯公（諱義培）李先生ノ墓アリ

30. 忠壯公李義培ノ墓 鳳山面鳳林里ニアリ

31. 文襄公趙克善墓 鳳山面待洞里ニアリ

八、驛院

一、日興驛 今君可面驛里ナリ駅廢セラレテ今更生部落トシテ共勵組合組織セリ

二、無限城院 今禮山面小物里無限川邊ナリシガ廢セラレタリ

三、古紗院 禮山邑東約一里半ナリシカ今廢セラレタリ

四、新禮院 禮山邑ヨリ北約一里ニアリ昔便居ヲ出迎ヘタル所ナリ

五、光時駅 光時面光時里ニアリ今廢セラレタリ

六、加方院 大興面加方橋附近ニアリシカ今院ハ廢セラレタリ

七、汲泉駅

19. 光時面長信里ニアリ
領議政趙春僖墓
大興面大果里ニアリ
趙命翼墓

20. 領議政趙命翼墓
新陽面ニアリ

21. 領議政趙師錫墓
新陽面ニアリ

22. 參判崔翼鉉墓
光時面新谷里ニアリ

23. 牧使尹元求墓
光時面隆寺里ニアリ

24. 將軍塚
光時面九禮里筐谷後麓ニアリ

25. 伽倻山麓ニ顯祿大夫南辻君兼五衛都總府都總管韓球墓
諡忠正公ハ大院君ノ父ハ仝夫人驪興閔氏ノ墓アリ

26. 同じく大臣國宗祿大夫議政府領議政宗正卿興寧君韓昌應
諡貞簡公ハ大院君ノ長兄ハ仝夫人林川趙氏ノ墓アリ

27. 同じく大院君次兄ノ墓ニアリ

28. 鳳山面侍洞里ニ趙治谷先生ノ墓アリ
諡文祿公韓克善

述谷面頓寺里ニアリ　今ノ大述面ナリ
9. 恭儀　鄭麟濟墓
今坪面堂北里ニアリ　今禮山面ナリ
10. 領議政　金興慶墓
立巖面龍山里ニアリ　今新岩面ナリ
11. 阿城尉　金漢遠墓
今新岩面龍山里ニアリ　初順翁主祔
12. 阮堂金正喜墓
今新岩面龍山里ニアリ
13. 興仁君　李最應墓
大興面校村里ニアリ
14. 領議政　趙斗淳墓
新陽面ニアリ
15. 領議政都（名未詳）墓
鷹峰面ニアリ
16. 李希烈墓
大興面芦洞里ニアリ
17. 領議政　金履喬墓
大興面金谷里ニアリ
18. 判書　李山甫墓

其他

石器

揷橋面新里　夾岩山中ヨリ昭和八年昔時ノ石鼎ヲ拾得セリ

鳳山面唐谷里　趙濟元家ニ保存中

墳墓

1. 領議政　李山海墓
大枝洞面　華山ニアリ号鶴峯　今ノ大述面ナリ

2. 判府事　李啓榮墓
大枝洞面　藝橋峴ニアリ　今大述面牙山禮山郡界ナリ

3. 牧使　李養性墓
述谷面　觀山ニアリ　今大述面ナリ

4. 副提學　金誠墓
豆村面宗敬里ニアリ今新岩面宗敬里ナリ

5. 處士　李恩俊墓
豆村里宗敬里ニアリ今新岩面ナリ

6. 正言閔懷賢墓
立巖面虎嶺山ニアリ今新岩面ナリ

7. 判書　朴弘佑墓
今坪面堂北里ニアリ　今禮山面ナリ

8. 承旨　朴安悌墓

二、縣監金侯嘗應永世不忘碑

永夫氣高橋木復春
載在道巡二年春嘉之

三、縣監李侯揆文愛恤善政碑

字惠一也　蠲減百弊
殘弁尊親　永世銘師
[illegible]五月春見寺

仁公惠　[illegible]人　[illegible]檢[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日

四、縣監李侯[illegible]永世不忘碑

[illegible]修[illegible]　[illegible]永
[illegible]　[illegible]日　癸丑十月日立

[illegible]
[illegible]

五、縣監李侯世臺[illegible]之民[illegible]之碑

公以[illegible]以書　[illegible]
[illegible]我[illegible]　賢相[illegible]
崇[illegible]後丁丑三月　日

同煥咨煥綱煥國煥先生孝反出天事父母諸父母至誠無少間西
堂公之竄也先生慟不欲生度必泣祖天不康寒暑不易裘爲全宥
還乃之方彌留時仲氏或度生拔好朝夕其所訪苦殿疾既革猶
問仲氏試藥否單心君國可以禍福少撓其精忠明白之氣可薄日
星而貫之金石在中所　慶廟命書進扁帖中有紀豆詩帖先生以
爲紀豆之義終涉華藻附以小題寓敬諷之意而回既以書進有可
以言進者知而不言長所不敢其子慶所宇頻加亡好奬掖後進多
成運而振起者風儀逸爽意氣和易人言藹然各得其歡及夫義
利之際議論如雷霆剛毅人無敢抵牾者蓋其道故險言先生之不
思客固宜然其不容於世所以羈旅而畢于學也天於先生得矣身
在而道亨記於一時而傳於千秋無所以無憾矣獨世不陽共衆楚
以至於此爾先生之歿今八十年蒙昏世多故文未奥墓石道人士
醵金而爲之道士君又訪得司果公所斷理碑版屬承烈記其陰顯
晦出寡酒何敢任此屢辭不獲惟述門人所爲傳及聞於宋臺長之
意謹而書之以效生平敬慕之私云

10. 新禮院附近ニ建立サレタル記念

一縣安李侯度護清口恤民善政碑

己卯十月日立

間探涉清代文化之源流則其病痛在非常人所能略也晩年及約
在十三經左傳易禮而交古訂今實事求是侍讀家之平而無偏於
義理之辯蓋先生之為經其精異乎人之為經先與乎世稟學者至書
寧遂絲與曲焉先生嘗題笠屐小照云霜淚三嗜古經玄臺云不齊
云云云兩公之言蓋吾邑之朝為乎海天一笠忽似元祐罪人古頻
要擁以閑杞國遺爐逼海謁先生而請學焉先生喟然曰五十主治
經之効乃至於此君學此欲何為曉其自道地宇天地之文律曆之
數字之聲內以主金石書畫佛典道藏亦皆扶摘鈎微皆窮源人口
家日當大風且拔屋宜所之至時果然家晉責時憲曆來先生舊圖
庶之四中氣其鎮序乎雲翼請丞欽天監教人覺之　大內有硯南
宋前水無庸注　命先生審之先生曰是蛇也烹之如其言人咸異
之之上笑曰坐請君少讀書耳丙寅宿得一小刀以獻先生以無
七年賞之因言切玉刀也後孔小棠金爽準唐請無購書數万卷小
棠屢為承辦迎之先生不欲以著述名至焚藁而今刊行于世者
所皆先序明迎先生以　哲宗丙辰十月十日甲午卒葬于孔山貞
考公墓南乾坐原阮韓山李氏堂生義民女文敬公台壽冨孫繼配
孔氏李氏生夷鎬女文定公東玄孫但賢而無子丶共後兄恭喜
子尚慶生貴司馬側室一男商佑學官司馬以再從兄南慶子翰濟
後嗣文科承旨學官一男真齋三女適申用朝李義邁宋厚一承旨
又坐本生兄有病子所兄為嗣進士進士六男石煥峰爾本生台煥

文於以通儒厥後碑帖西軸詩箋文卷相蠹無盡歲芸臺模經能為
卷千四百經籍纂詁十三經校勘記并壽皆臣朕也當世淸大家莫
之見特先寄先生草本覃溪卒時奇筆記一部潛研經史子集詩義
書法者又嘗摹奇吹陽文忠黃文節公像為先生日壽以二公生
四六在大月也諸名士六於六月三日漑酒作詩為圖而奇之申紫
霞入燕見覃溪燕室空諸所有唯桂先生書一朕而已其見重如此
足卯擢芥蔗住書翰林 座章幽待制議政府檢詳 經遊春坊玉
堂涑陵憲府當帶知製教 間為鄭史湖西丁次通政 陞承旨還輯漢
大司成吏禮兵三曹參議 憲宗而申嘉善拜兵曹參判刑曹戶子
緻起辟連先生先是確然宮西堂公讀渝蘇千島四載始宥還矣猶
齒齔先生不足且疾其剛正不阿滿欲圖之死至是誣以浸異學犯
不軌殷械蒼黃禍在不測先生拳拳如他日對傳渝容辨析峻嚴雖
絕拔無所執卒投謫濟州濟絕島也海鉅又常多風人沿恒日先
生方解舟忽大風濤以齊震舟中人皆栗晚先生凝然坐抱頭有詩
奇哉蒼與風濤相上下因拳手相點曰萬師力挽拖向此舟乃疾顛
發乎至濟六可異也居脅九年益朝適區書訓迪州人文大前
哲宗辛亥權相國敦仁以親宗禰之禮見作右謂先生宜主之
又還北青先生談笑乎登麥麗而行主子肯還居果川西堂公墓下
五年而卒先生脛胝異稟天分既逼絕人其為文若師者又紬岡者
宿也甫弱冠覃溪百氏若山海之崇深及麗澤于西士學士大夫之

若然岩洲泉雍亭貞雄茶山杞園與公四先生有大事承諸賢之
機私衆如為振古之通儒嗚呼何其盛也先生諱正書字元春号秋
史或稱丹之令客于諸道都觀察使遂異者自壹以樹大師入儒而諱私祔号
科仕至黑龍道都觀察使遂異者自壹以樹大師入儒而諱私祔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百茂陪紀念碑
(三)德山郡守曺公玉煥碑
(三)唐根暻不忘碑

6. 亂山面内ニ建立サレタルモノ
(一)宏壯公李氏ノ神道碑
(二)文襄公神道碑
(三)趙致谷神道碑
(四)唐爾廉神道碑

7. 新岩面内ニ建立サレタルモノ
陀堂先生墓表
正祖在有右文崇儒寵絶百王於是殫學之士蔚然由興嘉落相望

48

(二) 郡守李侯宅鎬思世不忘碑
光緒六年庚辰五月 日立

(三) 郡守吳侯鼎泳愛民善政碑
不許民歛 東何共募
是地頭還 收何式還

(四) 觀察使南公一祐永世不忘碑
甲申五月 日立

(五) 郡守曹公濱承碑

(六) 金公甲秀碑

(七) 洪州牧討使李公勝宇碑

(八) 白公忠基碑

(九) 宋瀚宅碑

(七) 觀察使金公應根永世不忘碑
咸豐十一年四月 日立

(八) 郡守金候在鶴永世不忘碑
咸豐十一年十月 日立

(九) 縣監閔候致訥永世不忘碑
道光十七年丁酉七月 日立

(十) 觀察使沈公宣臣永世不忘碑
道光十七年丁酉七月 日立

(十一) 郡守趙候義升永世不忘碑
同治十二年二月 日立

47

公人此碑 接人業務 寬厚小作
施績既著 慶阿改良 竊蒭稍饒

(三) 從七位
勲七等 川越誠吉公頌德碑

展覽地方 厥功如斯 頌德一隻
產市發開 民點何已 感四勒碑
昭和十一年四月十九日 立

(四) 縣監李侯命復清德永慕碑
萬曆三十九年二月 日立

(五) 縣監朴侯義陽永世不忘碑
道光二十六年丙午五月 日立

(六) 郡守田侯學魯永世不忘碑
明治七年戊辰三月 日立

維國賜洑　長契總轄
百世恩澤　惜畫合策

(八)國賜洑禊長確公奚涉記念碑

陳慶條祛曰功曰勞
安此祿福　咸頌勒石
丙子四月日立

7. 德山面内ニ建立サレタルモノ

(一)縣監李侯聖漢清廉愛民善政碑

康熙四十二年九月日立

(二)前面長金連植紀念碑

長面方載　賑災復生　葺旋盡力
無民所恃　救瘼成喜　安集有諗
任城優績　事名刻戟　愛利實蹟
水土尤美　鮮如晩蹤　永永不忘

(五)

曰有仁人　大石維何　安性溫厚　存善周恤
在彼珙城　根木發萌　稼行清平　載路頌德
根木宇喜大公永世頌德碑
米發漢廩　蒙恩賑節　西來活佛　片石進語
火拳齊鄉　大公醫藥　南渡慈航　永固不忘
昭和十一年二月　日立

(六)

國賜狀監理金公南垂紀念碑

協贊堂務　策不理苦
監視注力　剛理隨道
兩而不浸　所祿庇頭
旱而不滴　非君何孰
丙子四月　日立

(七)

國賜塘水利　模理事吳公始末功德碑

掌理狀事　賦課輕減
事無不巨　赴役公平
積弊消盡　積己益衆
歲利增旺　功德可頌
昭和十一年五月　日立

(二)

金公智恭惠紀念碑

天姿醇粹　為公為和　哀此窮民　亡徵及期
性度慷慨　能積散散　方呼庚癸　納之無汁
一施慈悲　呂氏相恤　於休盛德　鐫石三尺
常濟閭里　[illegible]公意義　俾垂敢志　昭示無疆

昭和十年三月日　吾可民一同

(三)

前面長任命鎬氏治績紀念碑

管面十載　垂民安頼
事々公平　一境澄清
累々補弊　建校育英
蠢々成名　人文開明

大正十五年八月二十日　吾可民一一

(四)

忠臣孝子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朴信興之閭　丙戌四月　日

45

境賴女覆此斥石
辭桔退永懷銘刻ー

(六) 鷲峰公立普通学校創成参民 白重鉉紀念碑
昭和十一年五月日立

(七) 林公炳奠
損賦興学 慈惠普施
志存備蒙 同貧師寇
平吉昭行 僉曰難忘
孰肩厚公 堅石紀功

6、吾可面内ニ建立サレタルモノ

一 碑行郡使 上体国弱 一塵還四 下愈民命 王鶴偉正 欲同天世不忘碑
公諱不昌 自年春水 年年無乃 夫績方晋
昭和紀元後五丁卯 四月日立

稽其實羣公稱恐大祥指期奄忽淪沒頑瞻江都民號儒哭公之權
柄孝忠是操三朝書癖一瞑万世後之君子為公安沖於子維紋曾
王考郡憲公屋家行誼之朝事蹟有不可泯沒於世有龍井趙先生
既叙且銘而王考九年國事未遑而奄忽先君殫力於三代墓碣之
役有意未熟不尚孫龍河居恒靡憐遂於喪病之余僅鳩財力始謀
堅石于墓中間八十余年內外子孫之有生有亡及有科有爵添錄
如右

崇禎紀元後百二十五年　壬申十月日立

曾孫龍河　謹書

(四)

前平澤縣監　公倍煥周恤施德碑

戊戌三月　日　立面立

(五)

前鷹峰面長李公鳳周紀念碑

辛酉十一月　日　立

茲務七載捐俸貸祝
寬惠亦公恤匱興窮

一不槩納者乎蓋人之所難公之所異人之所趨公之所避淪沉艱
難如視坦途盤根錯節游刃恢々孝廟之寵遇公出於諸臣右者曰
也庚寅之歷上特遣羅中人精地部金不幹於命壽兒可以觀君矣
矣初張新豐特國爲主司程公之事一其所取者濟之乎於張可謂
有人論之盛者或公於紅榜亦不得而越臻其極無官則不翻明長
代職業或皆出是出不于人一意以矯時弊之公外王文龍原府院
君尹公自於郎所宣閣勤賢宣在久居度支精明敏好藉其論者謂
公略似其舅之公之明敏卜至是病議長之稱特著不知古之人何
如也所受知於君父者亦可謂瞭世事者誰它不如位止二品年又
不永不克究竟其所觀者亡矣石姻於乎嘻歟夫人之化物天令知
中樞事內秉其所之女侯公八年而歿遷公墓合葬于己向之新麓
生一男二女男尚文科庶尹女宋光陵郡事早歿次閔宋道別書尚
初娶豐山柳氏生一男錫福進士女陟叙功臣娶進士趙嗣恒女
生二男四女男鉉祉錫祚生員女尚德九參奉女南壽賢文壯縣監
女韓宗說進士女玟嗣輔側室女倉夢良閔宗道生三男三女男彥
良及茅彥相進士彥光進士女李根正言李邵韓宋爽進士錫福有
男龍河童河有一男柱聲爲長房后次有前命所有三男密所有一
男並幼韶因遷宅之書聲公墓卿至于忠陵右于昭平雖公之封昭
平是論公之受才若代于陟苦事于陸何物不洛國之武公毋別屬
揭西重公西同重公南麓類左鋤柏乾石涵登窟必預顧連必起上

於鄉例損公四年江都匡劉安余江都陰居島中鐵板先者二樹丁
字公以為親上死長岳於何擇村秀才可教者要皆粮居內舍謀以
通讀未一年丕變公亘知本就甲午還兵希未及入朝鮮湖南觀察
東西南北性命從之者非公那時湖南又饑民交走死無吊公歸上
賑救之策上為從之乙未朝鮮以山城及海島敎陰遣吏臣李厚源
審之公後厚源往圖上論島形勢大辛勇為亡都留援也　啓夫回
與陽儒丁晳之獄起起日月之所不能無疑道臣緩其事公乃些制
奪悍湖左敬食者二載丁酉叙除錦城縣監未赴還平安兵使戊戌
冬移拜親察公當西梁者三矣刷見西路利害無遺錙銖膏枯醒時
如不及亦不免中山之筮庚子由工曹移湖西節時一國同鑑湖
西為最與甲午之湖南無異公憂國愛民性也不以憂詩憂為悔為
道揚心苑氏取卿苑冒難之遺法曰是湖西民竟歲考韓遺壁而又
扞之罔而揚癸卯以亡為免起徵使還有馬走犯清國大禁石硫貿
者公曰是解脫公當以兩親受於于戈除久在戎士為畫夜匡扶今
亨釋負以其間即謀還定于大興之富卜好丘公雖從下緬之禮矣
泣摧痛如始喪吉年親敕更讓不得々疾未積日稍館舍甲辰秋
七月二十二日也國公之卒亡論土大夫遠近冤痛不已至思外更
晉董威曰方良臣亡吳國失忠臣矣嗚呼公以哽々孤身無愚之奇
士之名無金張許史之助而一朝擢政才之管書盈尺之紙吐盡忠
志明主恨相見之晚年除歲還不足言也公所遺者不知其幾而有

43

廷祐公西臯石所凍長戊子由礼參觀案嶺南公考政以成教化為
務学宮一新經術詞章彬彬多士政城池民稅之倍經吾平當上聞
受張而縣正一切海西諸有如祥名齊民叫呼為賀已立今以石尹
被召道改兵泰革獨留豈上八侍進曰嶺南人材府庫自足今以
之今雖不及古十室忠信不可誣也嶺南之物家地大最於八路民
瘦怎倍於八路願聖明之如意焉且曰尤賢進忠自古人主嘗如渴
者徂鬼目蹴珠根蔡似苗是可耀也公之奏語有直有風上雲已以
三事為盍問使則已祈命壽也公與廬協勤盍畏其所校使冥茅守
如當時我咨之得失公實時有及事發家口收福且不測成樣
公裏哉公廢辭辨而不置一言而不決一事命壽不敢更請宰臣
歎善下如不侵所些與公裏命壽莊怒敘中其云譯久之納曹如何
其後廟升庭之議風服變實洪公竟下諜禁府奏堂配瑛陽又有臺
彈還亨邊辛卯清使東四李盧與罪朝廷用清祓赴公冥定冊巡慰
俄拜萬海監公陳情色宛溫如不許再辭乃一逸秋江郡留後之命
又下公又以前後罷憤辭上特賜引見曰卿無一切宜益勉新命公
之任以尹鐸董安于為治戰檻一如陶士行綠翼士辰靈府命走
十冠初公以同罪罰黑辛二於是人憑震室辰教敗陵誰使任至二
臣不安其職言某亦不可與言焉芽蔬公遂不得已入對備陳保障
事要略講廟堂論行任賢已冬史廟失火公待罪教曰火由惡始

改之異數也其歲冬有修撰同僚上謝出公平言奬蔵結
及西聳上避之南漢公以母病華不得賀勤刷事果遺母艱子恭時
安島中剏除又拜[illegible]陞授現改敕細言事與俗議之異時完岳出
宰平昌壬午拜安慕奉枚親齊遣終天之痛甲申才訖祥琴以掌令
孫臣之道唯有孝移於忠而已遂上一疏凡二千余言有味乎其
己公謝位而辭曰無狀小臣罪大惡積亡年之內父母俱亡即今
言之也總之邪本之賴連也勢貴之不獲也股肱之非人也杯盤
媚客使也剖盜利主家也宦官宮妾也營兼興剛失曰殺細殺而不
國大是也深吾九重邪親宦官宮妾也營兼興剛失曰殺細殺而不
奬之遂擢置龍住人以為公之此疏明始貫淳而術不疏辭祖敬與
而懇是可並上医，國而倉為斯讓也上此回論言正直徵見
高明改特用超擢其無庸辞乙酉由左副提寅海監司是時海西饑
基賓運阻滯客使相衛諸弊如蝟公考敢本剽以支以重所壹心忠
在苧政與判度支岡罷徵爭是非公言在賑微度支在恤經貢至今
論者度支不能點己見而與人善也版築之業者新遂得之怨者息
特余事耳丙戌八月及白參倉盟宴陞嘉善回有後命秩滿可遷丁
亥科知事徵授南西即到安世則鄭敢命壽使酒恣睢部御酒諸
辱餓慰使公見命壽以視而所之命壽鄭公使使西民利膚雅隨以
侍貧馬不獨彼使所虐而然我使實忘而效之公一繩以法先自戒
使西民大喜孝賜聲長狀命壽文惡無德公不少貸命壽瓢誣

篆公諱昌宇忠憲國之冏始也享年二十四登戊辰上舜事仁者合三
朝所歷內外官由敏而顯由畢而鉅階為嘉善封為完原爵為大司
憲壽僅一甲子以終嗣子進士曾孫公衷葬之于大興縣老登社原
些奚向丁之原既事丞相于京師公亦出行祖章妻母失聲然哀
麻衣伏不復之門曰惟執事知吾父敢以不朽吾父恩執事不倦於
是敢序為吊而言曰方今學士大夫出而從達官者何限予胡合之
乃以莫電顯別爲請我孰之考事莫豈非老菁舊同先大夫還之西
塞之故者顯吾大馬之國何業爲爲界歟神精銷亡憤氣比安能自力
文字向況先大夫不朽事業矣倩他人言進士君雖勤不置數，往
來為禮且置家狀而玄三年於此矣不定感其誠至試閱其狀而讀
公世所稱吾東國恭抱護亭大君七世孫世長侍而湖山君昭平公
諱鎰國廟朝佐理功臣也　而諱水男鎭安副正而諱世良贈恭判
完陵君而諱珠文科參議　贈參奠完寧君昭平公長子諱壽男係
安副正而諱希琛文科僉樞無嗣取完陵為後是乃公之高曾祖若
考也讓寧之之世代有人主公亦有聲公為人和厚而精敏材人自望
子弟出入中貳經筵皆將無不識聞其所為府稍國恩及遠祭亥
中學拔萃射科每發如聲名著與新登朝部看朔西乡部庚午拜正
言癸酉遷司書曾有左寡事則之除乙亥社稷平時上憲天讀宿仁
城子文度臣僕其　[illegible]公上疏寧太遂合鄭相復所覆上美也
是但旅葬於[illegible]自題之兩字以社稷臣高祖上素其有病危親特令

尚闕毀剏此爲子孫之恥故敢請余不敏謝是以輸攄大烈倩不加
久然世家道微三綱斁絶丙子之變放是焉靈如子可謂知所務矣
是說也吾知其聲聲人多矣托名爲榮何以終辭銘曰
君匡大倫天經地緯禮之盡思俾曰取義禹吳彼宵人與事君或苟
利於己無所不爲於蔀賛成捉牛麗秀其在恭讓天禍靡悔邪其倫
來我罔匡僕明入此也爲我必蜊載彼海曲有囿其谷之死靡他而
如激日秋水芙蓉山薇條我宿歎于澗于陸爲彼雲岡終遠跡聖
朝咨時予故文子于淮在涉之郊或有好爵五徵不就何忍奪也俾
遂其志賜号青松天香不沫顧命使匡載之車固有卓其節山高斗
明是亦有本集義而生勇閑程書西旋朱礼載變幕殊祠見大體其
氣能道塞于兩間後天不滅落右我人有他斧封大興之原翼〻末
雲載樹宰右武[illegible]銘章厚吉千壹
度中十二月 日

有司十五孫 鎭哲、 相領、 相殷、

(三)

有明朝鮮國嘉善大夫司憲宏原君李公神道碑銘 并序
輔國崇祿大夫判中樞府事兼弘文館大提学知經筵春秋館成均
館事世子左賓客趙炯撰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許筠

次恩湛次恩敏次雲峯女適李亨商恩勉奉正大夫內資寺直長娶
鉄城李氏判尹氏女生四男長庶子朝大夫繞原從四臣屢賜二品
次順羽奉烈大夫希礼案清次義孫次慮孫司直恩湛承旨娶坡平
尹氏判尹弘女生一男晟儀賓白吏恩敏生一男龍文科雲峰娶連
城縣氏訓將思厚女以[illegible]天[illegible]行有四竹之場生一男根生員內外
宮主以下不畫號按東國[illegible]白公吳社門諸員有題名統又有私特
史臣之編海東實鑑以治德吉再清松堂都廟護嚴全對松谷之天
錫美甘氣節治隱詩曰玉亘驚孤伊遠近從來秦部訂青松碎斬詩
曰近世節知無數惟是青松毋治徽夫以諸公之眞至相祖讓如此
則先生之節義部此而可知矣距歲月變遷之厄逼迫而後之相論
者必有以思復其典型而事新復世其詩凡十三絃爵祿笑一號
兇青蒼二可謂有十一於千百雖若可限變如零金碎玉恐說以虛
其逸氣 外兄給百不碍為世之奇觀也嗚呼先生在聖朝治未之
日厥若一入鉢門則富貴光榮回不下於攀桂諸人而顧乃自甘寂寞
岩社門絕跡全成人紀哉，王帝竟不能下其志豈非盡平所謂大
又天有子首至[illegible]此者而下可存之君子與人君子人也若先生
其庶幾也夫昔殷之亡也于箕而殺其子微子去之夫子並稱三仁
以是例之公之志固亦之所[illegible]而不同焉之所[illegible]之所[illegible]之[illegible]其[illegible]之[illegible]
惻怛其送夫治有[illegible]道者何也自靖而已人自靖于先生又何[illegible]
焉曰公之再[illegible]海[illegible]澤[illegible]燒[illegible]絕於余曰吾祖之節之行而神道

賜以亟主門下侍中贈以委質爲臣而不幸國破君亡忍當今日不
能殞軀臣辭黑首陽而若曾也果利二三其猪則名義論矣綱常
絶矣不忍禍亡余喪復跗不幸亡科願從光武時得亟子陵之志願
俯賜鑑察特憐衰苦之情亟收孤用之命俾賜命終弁海壑之分罔
帰草木之腐

太祖嘉其節以蜀綴書青松堂三字並御製絶句以寵之曰受看青
松絶貞靳予以摩宸間一切上賞賚而宵虞能又奉曰都廳之節實
無愧於古人吾不忍奪其志固敕其邦賜祭米千苫又辭不受矣爾
辛未西行松京賜祭堅辭特書曰勝國忠臣是難非諱公當日用晦
之本意而所以慰可世忠臣烈士之心有靡有余憾矣公初諱俞字
子藝星州人以臨溟侯諱稱爲上祖有諱蒲佐百濟夫人有節行事
載三綱行實孫有諱原府院君食珠八百頃而諱順興理尚書是生
諱忠朴尚書是生諱有德宗簿判書屋山君定公己高祖也曾祖諱
考安門下侍中沮諱洪正壁上功臣三韓三重大匡國門下侍中考
諱吉敷大匡國宗孫大夫門下僉議贊成事諱武庚中郎
太祖許倭有功已已有教書之變爲倭所擄而賴侍中諱于公尚
仁烈力救得免妣貞敬夫人延安車氏防禦月坡宋處女安東權氏
副万户可珍女禍初以義自終公歷之職左尺興縣監而三街軍雙
乳左右雙翅有林石刻旌閭麗忠臣有蓋竭書麗朝爵号蓋從遺訓且
亨星州秀川祠郡夫人丹陽禹氏郎靖平公女孝四男一女長男勉

忠臣重大臣門下侍贊成郡先生鷹其十世蓋公以簪纓世家少事

恭愍宋質重望者子當世如己巳以後遭時罔極晦跡邱園遯于陝
州之魯陰洞以魯陰爲号蓋寓魯連蹈海之義也耶居屋敗不蔽風
日蔓衣蔬食有時不敦面柏然不屈自甘貧賤子孫勿事舉業以保全
性命且四我東自羅以來尊尚釋教閭有名世者抵以詞章侍習於
喪礼全設事体士大夫行百日卽吉以未免束帶三名世自白上黨
並塋而歸東人得見綫衣全妻及朱反公家礼始知有性理三号時
則圃牧諸先生最其左者者也汝等面敏去中立不倚則庶幾有成
人之道矣噫洞源之正大見識之卓榮如彼故後來遺變改而不失
其操雖卑日日爭是可也喜防物陷于長時別聲呈一絶以子陵自
爲安身之地實自及世及壓圖陰被害屈伏不得所而歎世不如死
詩詞凄惋百世之下凜然有生氣洪武二十五年壬申太祖大王就
興之初特下神宮之命以詩徵故文越明年以朝奉大夫典醫少監
召不赴又明年以重房柄國興兵衛左領將軍召不赴以京倉使一
百二十石賜不受又明年以禮賓寺正領將軍召又明年以保信軍
虎賁郎衛司僉大都軍簿司正大司水監正召並不赴方上看日
隆而公僉選上及上象曰宜以無以賜天乳遺家國之福而爲寒積
難容覆載之間今已隱處五百年賓事歷歷然無知而一縷不絶苟
延歲月自天地開闢以來迄今之時何幸今而中興前朝被誣之
積冤私公感激而革然參天世祖世祖於麗朝身已登第於王氏歷

晏羽儀朝廷肩時重任拘於冏命不大廠施而子進士增二女適士
人宋光滉持平閔宗道其耶生但幼公之監京津不佞以朝命視
師之其縣都憲公方季十四文材已亟出以有我酒轉肝之頃遷成
人氏之感今我獨不死宋榆末景紀公宅穹良可慨也　銘曰人方
姻節復發奇馳夫已尺璧耶得毫釐雖公不矜不知我安其軀不
躐于岐爵位豈多叅佐以庠名塗顯欲就過其機有子克家敢屑當
時珠渝赤水士林所悲任存之麗土厚之深其丘峯如行路偶欽東
卅李敏求撰坡平尹載慶書
崇禎後七十年癸巳八月旬孫錫福之

(二)

重大臣門下侍中賁成都先生應之墓
丹陽郡夫人丹陽南氏祔左
庚申十二月日

重大臣門下侍中賁成青松堂都先生神道碑銘並序
嘉義大夫行吏曹參判兼同知　經筵成均館義禁府事奎章閣
直提學　侍講院檢校輔德驪興后人閔丙承撰
幼學　望川后人任英編書　幼学十四世孫秉譯蒙
高麗之屋社也　東節死義有若圃隱諸先生又有社門洞七十二

5、

應峰面内ニ建立サレタルモノ

有明朝鮮國贈領議政大夫議政府左參贊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
事世子左賓客五衛都總管宣平君行通政大夫刑曹參議彦公墓
碣銘并序

吾里中有純德君子曰彦公諱萍字子緣鄉黨一右言其長者始讓
亭大君諱禔實恭定大王元子讓德不嗣為周恭伯於公上距為六
代是生咸陽君諱師生湖山君諱鉉生鎮安副正諱永昌生奉事諱
希年生齊陵參奉諱世良倡而封贈載來來始湖山有長孫保安副
正諱壽男子僉知中樞府事諱希孫無白以參奉公後之恭奉公嫡
妣安東金氏參判澍之女以丁酉癸酉生公未故易埋占筮解乙巳
司馬任子繹禍登科以資第科典籍甲寅丁卯外艱丁巳監察津癸
亥人為禮曹郎甲子奉向公出行在還拜全羅都事乙丑差冬至使
書狀業拜子浮海朝京西賓春復　命丁卯慶尚江都由內贊正除
沃川郡并復拜濟用正轉奉常考滿陞僉樞癸酉除享越郡守乙亥
刑曹參議丙子以後退居沔川庄宅至庚辰秋由刑曹守平昌郡以
壬午六月考終于任所得年七十公恂恂勤謹未嘗有疾言遷色平
居謙後不欲見知於世與人交推其長孝無所差別濟里飲其和時
與才經評論古今人臧否及享利害後當如何洞諭無滯然悃款無
華人無覩其中者以是宦不通達沈於下位可勝惜哉公妣南
原尹氏一六曹判書諱自新女性質淑塞與公合德生一子大羽憲

是頗後公一歲生宏公五十卒姪英收山絶祀于公墓男泰宏所觀
察公次泰耇原任吏官判書次泰耆進士才任南平縣監女適學生
尹宰觀察聚副提學尹敬敎女無子判書娶應敎彦有祖女生彦彬
為觀察後聚縣監彦觀成女生敏彬顯彬女朴師俊金東赫余幼
南平要牧使沈益祖女生漢彬女彦夏宏余幼尹有澌子尚衡彦彬
生榮集女幼尚衡子女並幼小子幼而孤仰公如父癸酉中小試謁
公于固城公四不出四五年攻必登弟恨吾不鮮見是才公棄子姪
壹五年小子果登弟公言果驗而小子之痛益甚焉今當此筆衾不
能文首柳柳氏為其叔父墓版備家人之言而記之若吾叔父事行
昭載國史林、照人耳目非若有啟中之潛微雖不借人言宜若無
憲遂稽實而為之銘、曰

狩嗟叔父德學宏碩興人有誦譬公柱石顯廟器公將以大用
經綸副王受之耶托重伊何乃相公惟感厥益奮忠亮嘉謨遠猷載賁
有讒者口如蜮何人鳥能害公適蕃于身凡世姦佞可少戢
翊彼黨人又復諭、猶公嶺海自為得計天道好還黃不敎才明邪
奚益逆板羌裔耶悲叔父抱匡君衛賢柳倖彷徨謁、昌言有光
汗青雖有善毀曷掩公名小子文俚辨則匪私凡百後人尚考于斯

從子通政大夫禮曹參議知製敎恭億謹

面而辭文致哀肩既奚甫日　上蒜然更化首　命復公官致祭
又　命於三年虞僖堂臣白公宏論寓令啓堂官洪重鉉金汝建李
東根等　上亦是追悔愍悼之意焉公風姿雅傑早量閑宏平居莊
毅儼然若恩恩蹙蹙遠人莫能窺測自在章布已而公輔望及遭遇
兩朝感激　殊知殫竭忠智勞績於若有申以後身膺軍國重務
一意厚公常戒盛滿未嘗文處權要枚律己政之節用所莅庫庚亥
湧以此黨人謀中公肩按傳巧覓卒不得毫毛事壬癸以來朝論漸
歧清城將敕抑年少之峻激肩公曰不可求以鎮猜恐益憤裂公且
不能自安後果知公言清城至作詩示悔人乃服公之見洎蒙　特
擢入相思欲設施更張以裨世道不幸蔓蘿遂野未克展布素蘊
及夜辰重入天公已變時敘可惜公亦知其不可奈何而猶且有感
心原盡誠匡救扶貫相和羅宗培直之桑杜倡論之漸正色直諫
忠義敵烈辛至顛沛而不悔此可以觀公之大節矣至若孝友服於
天性喪祭盡其誠敬慕父母毋忘不衰語及必流涕嗚咽嘗侍仲兄
親寮公疾日不交睫者數月親寮公歎曰吾弟友愛至矣視諸侄如
子遇宗族親戚窮若者卹之如家養育而冠娶肩基多及公喪無帑
而服所繼者至數十人然此在公為細節可略也素嗜書手不釋卷
早以詞藻有名為文長於論事章劄頗暢懇至有詩文若干卷藏于
家夫人權氏安東大姓承旨簿孫進士　贈承旨皇女也有淑德德能
行忠清公嘗稱佳婦公亦曰吾歷職內外數十年無大沾汚緊夫人

涕泣極諫語無迴避觀者悚然　上亦改容謝之顧不能意已益責
筭寢其直憲史死有　命加邱崇公又申戒願勿貳過
然前後所言多上所厭聞者皆為公危之間治妖僧呂還獄及朴
萊貴獄專主平反無所枉濫
遂決院許遂而時事大變公遇叢旨出城府　命久之還香山聞成
李兩貶將黜文廟享歎曰我雖候罪不可不言上劉諫之　嚴批又
下逆　廷請學士疏罷之　以參議兼藝文館奉教尚相直要與公八人
下逆釋皮江戍聞　呼位且領草疏將予之李尚相直要與公八人
校　送請痛哭悲泣無以自伸遂上劉請伏不產之刑劉八十三日
始命勿辭公自是痛恨欲無生佑長門宮請以禽獸馬冬省墓于全
義仍留經歲庚午為賀春宮冊禮與在野諸相並到城外陳疏他相
今入東於公上命勿待罪公惶恐不敢入禮成歸皮江翌年秋黨人
喉諸臺論公以不參賀班為案又謂典金清城錫胄最善揑造罪名
合啓請罷又請極邊遠竄　上初命中途付處曰王堂劉從之配固
城是時三命並被榜出驅使獨執義李嵩令夜立不從至從削職固
城地遠恩子弟憂泣公常然笑曰吾受　兩朝恩遇不能死於己巳
天其假手於人乎在謫三年嘯詠自適　神氣不損發西冬得風疾十
二月二十四日卒于葛川寓舍享年六十二嗚呼痛哉疾革命諸子
曰我死必返櫬全義又尖奚湖中毋遠之塋諸孤奉喪還全義甲戌
三月癸亡大典葛申亥坐原三南人士赴吊者至千百人或有不知

在歲道甫明聖王向計日大哭白衣以行清人始禁之卒乃南歲
為寰長也執義韓泰東言事被削黜公與諫院官內劄爭之長本兵
則稱疾淹滯請托不行及為吏判深憂朝論猶武意欲調和保合將
以建白施行未幾拜相拜相之日憂命加卜而終憂公事同卜特
簡公益爲所圖酬國鎮周李秀乃等憂卜為言公固已不安而流言
閭生公自傷所遭不幸豈復當世意乎刀辭得遇出江湖轉向西山
別墅及金乃重以流言聞公始陳疏顯宠許極痛切上同繼備至
及幸長陵每三　召公公席藁路次上為駐駕命百衣入謁
面諭勤摯之賜　祀四嚮之被評不惟寡昧那知天地恩神實助
臨諸大臣觀　上心致公公辟坡江及被重卜固辭不起則特遣都
承旨任相之禮請判青南龍駕巡諭勉出宾旼世　異數也令玄石
朴公論近宗杭事遣　嚴言去朝南相九丁丑相聖者多之並將森
北塞三司皆被護舉朝憂恒者望公一八公既迫於　恩命又憂念
國基乃昇疾入朝上即賜對命兩宮扶被慰論甚至公極言抗之
特授提學宣丞收還兩相箭擢宜丞放釋縷々陳白涕頑言零上賜
答溫諭而猶前之從又言因鎮周久疾金万重被竄皆以臣實不安
又言一三大臣在野者亘列敦召自秋至冬登　對者五上劄者大
而隨事盡言然意懇篤其論兩相相事不避煩複或遺嚴放而不
上及兩相宥還言事諸臣收叙則公為賀　聖德有光仍請兩相甄
叙時張昭儀母兼屋輟入闕憲臣李益壽等虛治其奴公既劄又勤

城之行此公之始末也其右史君 毀廟以事竄七 諫臣又讟責爭
執者 命史官勿書公四君孝 上益怒公猶不輟書
命罷職俄又 命勿罷自後 者待多殊異公之受知兩朝始此
其在臺閣請竄趙嗣其削黜吳楚呂而李翔及尹公 敎敎諭相續被
罪李公敏迪論事補外公並爭之憲臣有以一四 啓被 特罷者
公曰 君上有過雖一日十 啓可也臺閣論事豈有定例言甚激
切人稱有諍臣風其儐優世優等請移館熊川 朝廷不許優跳出
館至萊府肆竭前儐官不能禁公至則先責其違約禮出理曉而威
懾之卒以計移館草梁率鮮逆寢 頭廟每見公狀案明該 嘉契
不已屬有邊防虞 命遣從臣分巡三南 上曰湖南尤重非趙某
莫可其差遣之會以 國恤不果行其在政院湖南人楊夢拳疏請
追罪鄭松江官爵公 啓曰鄭敏伸冤復官餘丞十年今豆痛斥此
言右僚權諧入對與王堂吳治大筭力攻公啓 上特召公向之公
歷陳仲復事甚晰 上大悟嚴斥夢拳公乞省墓則特給淺莫床
吳昌世及其再入丕齊宋公方脩棘辟議欲告廟加罪公上疏痛
陳黨人情狀疏到政院時相故啓通之其爲宗伯值 翼陵冊遐疑
文受孔碧酌而善處之又論礼俱軍識者遣之優曰欠陳戎請革弊
政修薦章劾海防緒甲兵極論宮庄主弟事又論戶布法不可行衛
營當罷收其營弁禦練卒時糜軍情權然而刀避戒權遂出江都還
解列撤增舡甲津蠲民役與文敎士民碑以須惠 上亦賜馬褒之

德猶昊夢而生公諱与公拳舜昭悔又號昭体或稱香山或稱蘿
茂幼受偉有吾度凡歲賦魯雨詩曰蒼生喜雨禾秋喜公舅東淮公
奇之曰此宰相器遊場屋有聲名庚子中進士壬寅擢太科由槐院
歷注書丙午入史局為檢閱己卯拜放兼說書庚戌丁外艱服闋陞典
籍歷兵曹部兩司春坊式士于嶺南癸丑復授于東萊入玉堂為副
校理獻納吏曹部兼帶者歷數年　顯廟上賓以鄭益勞陞通政
乙卯出莅水原府時年歲公大得軍民心移授黃海監司實遠之也　除命秋拜江
丙辰進拜戶曹參議丁巳遷承旨久處郊墅屢不赴命秋拜江
原監事戊午春以海原府遭疫民多流配高陽道臣以來至配不赦
上責道臣特放公徙又　特叙呈承旨進為忠清水使尋以微文削
職軍辛丑復官之已未　特叙擢拜京畿監司庚申改紀首拜吏曹
參判兼方翼使陞冥憲為師使不果行以知中樞差備使赴薩鳴
還辛酉陞正憲壬戌留方江都癸亥冬赴燕甲子還陞崇政兩曹陞
冥祿又當喜　王冊陞輔國而故辭不書凡七年之間為禮曹者四
戶判者一參贊者四判尹者二都憲則八間為知敦寧兼帶則　經
筵安鎮祭府兩禁府則主判事提調則槐院籌司　宗廟禁衛司僕
醫院譚院內贍僧寺而或多妻妾者丁卯由史判拜右議政中流言
去位　上詞燭其誣息禮益篤戊辰拜左議政盡歡召致乃已已巳
春遷拜判敦寧前之為流言所情狀畢露出致祥李師命等並首實
伏蒙定極恩白人情合恢弄罪屈款寧辛未又為黨人所誣遂有固

(四一) 兪公在濬頌德碑

昭和八年癸酉四月　日

(四二) 崔等內永世不忘碑

亡長尹昌點　吏房金東沫

乙酉三月　日

(四三)

議政府左議政忠憲公府君墓碑銘并序

議政府左議政忠憲公之葬注廟立碑神道而公遺戒曰表母眷祭
戒叔父左議政忠憲公之葬注廟立碑神道而公遺戒曰表母眷祭
母豊母求輓于人母請謚于朝母乞銘立碑但子才拙記生卒且矣
諸孫謹宇戒曰敢違顧回、延臣陳白有　旨賜謚則不敢辭乃有
長胤觀察公在閔西嘗治石擬刻不碑而碣且命泰億曰爾其為文
母敢或謚褒億起而拜曰所懼不文安敢有溢惟我趙肇箕裕世奠
祖考高麗判中樞入戒　朝有諱未生領中樞謚文剛厥後代有簪
紳大世而至諱等　贈左贊成寔公曾祖諱存雅知敦寧謚昭敏
考諱咨遠刑曹判書謚忠靖兩世俱　贈上相世濟忠勤為時名臣
妣申氏領議政文貞公欽女生五子公即第四忠靖公理冤獄有陰

(三六) 尚書鄭公周永遺德紀念碑
昭和二年丙寅十二月 日

(三七) 前主事尹尚求氏遺序碑
大正十三年甲子十一月 日
大興面東面里振興会之

(三八) 大興面長金公健植清德紀念碑
大正十一年三月 日之

(三九) 郡守鄭侯東龜清德愛民善政碑
戊子五月 日

(四〇) 大興面長李公舜主紀念碑
昭和十年五月 日

(三)
巡撫李公乾夏不忘碑
忠德金濬鉉政書撰

(三)
湖沿招討使李公勝宇永世不忘碑
乙未七月 日

(三)
郡守李侯冏世愛民清德碑
乙未七月 日

(三)
同敦甯張公胤植永世不忘碑
孝憲書字惠敏制篆
誦伊至千禮王垂万
辛卯六月 日立

(三)
郡守李侯昇民永世不忘碑
辛卯十二月 日立

34

(二六) 郡守洛侯宣斗清德恤民善政碑
戊寅七月 日

(二七) 繡衣李公範祖興学愛民不忘碑
戊子八月 日

(二八) 觀察使李公乾夏永世不忘碑
己酉八月 日立

(二九) 巡察使趙公得林永世不忘碑
公始到田分民逗安清口碑千秋

(三〇) 郡守崔侯鶴昇清德善政碑
祛痼球弊 推產歡謳 俾化民安

(二) 觀察使沈公栢薰興学愛民善政碑
戊子八月 日

(三) 郡守宋侯[illegible]成清白善政碑
丙辰三月 日

(三) 郡守李侯寅昱興学愛民善政碑
甲午四月 日立

(四) 郡守沈公載鎭善政碑 邑翁家侯 清以辛酉 民活荐飢 百世永死

(五) 郡守安侯荣植清白愛民善政碑
辛巳六月 日

(六) 縣監柳夢鶴善政碑
万曆大[illegible]七月 日

(七) 觀察使沈公宣臣永世不忘碑
体悄一念 民尙丹[illegible]
石猶有碑 名不可沿

(八) 郡守[illegible]侯宣喜清德善政碑
丁酉十一月 日

(九) 縣監文益周善政碑

(十) 郡守鄭侯基永清白愛民善政碑
[illegible]城俄大 悄[illegible]
深仁厚澤 不[illegible]亦世
同治四年乙丑十二月 日立

(二) 孝子学生崔舜炅之碑
新陽面西陽里今ヨリ六十二年前命旋

尚本面内ニ散在シタル石碑ヲ大興面上中里路傍ニ集メ整置シタルモノ三十一基アリ 左ノ如シ

(三) 領議政金公塡永世不忘碑
順治十七年庚子正月日

(三) 巡察使閔公致庠永世不忘碑
庚午十月 日

(四) 縣監權淪善政碑
崇禎元年四月 日

(五) 左営將鄭公東望務恤軍卒永世不忘碑
康熙三十九年庚辰十一月 日立

(五) 佳芳橋建設者頌德碑
建設年月日不明
大興面上中里佳芳橋畔ニアリ

(六) 仝上重修者頌德碑

(七) 光山后人金振五妻 漢陽趙氏烈女碑
大興面芦洞里 今ヨリ大十九年前建設

(八) 孝子朴承休之石碑
光時面新垈里 今ヨリ大十八年前命旋

(九) 烈女玄風郭氏之碑
光時面新垈里 今ヨリ前八十年前命旋

(十) 孝子学生崔弼奭之碑
新豫面西界陽里 今ヨリ六十二年前命旋

之后反復之女也性行卓越事親至孝十二歲時閭閻以進得延壽及
歸金門孝養舅姑病則致憂禱天祭山願以身代所天病革鑿氷得魚當
其不諱雖欲下從而上有隆虎舅姑下有青年孀婦又有新生孤兒故合
哀忍痛毀齋骨立二十餘年僅夫丁卯二月上墓痛哭血淚樹之為之枯
遂終于墓側豈有如許至行乎在家為孝女適人為孝婦夫死為烈女當
時章甫二百余人同聲稱述呈營啓稟　太皇帝九年辛未　特蒙旌閭
公有三男一女長男世夏次世殷次世漢女適楊州趙鎮平次適延安李
用錫世殷三男五女長成鎬出后世夏次玖鎬次朱鎬出后世漢女適延
安李八恩安東權安周晉州姜信碩安正羅東陳全州李容九郎其婿也
成鎬生四男長泳夏次泳益泳斗泳浦也琥鎬生三男長泳太次泳相泳
周也常鎬生三男長永玉次泳深泳石也泳夏生二男卓秀哲秀也泳太
子疑秀也內外孫幾至數十餘皆幼此豈非公之積德累仁之報耶長孫
成鎬欲圖不朽伐石乞銘余不敢以非其人辭為之銘曰芝溪之峰鍾精
鍾氣降有全公其間行義夫兼孝悌孀兼孝烈氷鯉雪菜天感卓節子孫
蕃昌善繼善述受祐于天賜佑陰騭

甲子二月二十九日族孫泳式撰　長孫成鎬　謹書

善大夫行　皇太子侍講院副詹事原任奎章閣直學士宣城李貞烈識

開國五百四十年辛未二月十九日立

八世孫昌鍊　護書

八世孫烈鍊周務

九世孫濬日　監刻

(三)

光山金公振三之墓

夫人漢陽趙氏祔左

公諱振五字景玉姓金氏貫光山上世有王子公興光是為始祖至于麗代八世祖諱為平章事八子戒朝有諱凰文科提學生諱礼家進文礼判謚文敬生諱性源進文司藝贈吏參生諱伯文生員參奉子諱綱進文翰林至提學生諱宗忠進直長有諱汝昇官法禹世襲簪纓是公之六世祖也曾祖諱重聲考諱珩妣李氏有女士乞慮祀廟丙寅三月十五日生公於大興郡東面芦洞里第公天分甚異必丕敦重氣宇斟諱清分絶俗人鮮克知於義理若瞻欲診羞於斜利達如畏遊恂夫讀書家理言宏行篤孝養雙親氷壺雪操無所瑕疵愛恭足弟衣食飲食有無天之循循規矩可為世法天若假之以年則聲名豈止此而已哉　憲朔丙午十二月四日終于正寢享年四十有一葬于蘆洞里後麓雪峰下艮坐原夫人趙氏祔左趙氏即漢川府院君諱澤

(二)

朝鮮國世子翊衛司洗
馬贈嘉善大夫同中樞
水明金公諱攻昇之墓
贈貞夫人玄風郭氏祔
左

公姓金氏諱攻昇字夏聖辨水明世新羅
貫而爲始祖至麗代連襲八世平章事八本
八世祖生諱礼蒙文礼曹判書謚文敬生諱
諱鳳文文翰林生諱綱文翰林兩詔提學郎公之高祖世曾祖諱宗忠礼
王子諱興光遯居光山仮鄉
朝諱逸竇文提學爲公之成均司藝生
諱性源文翰林
廣寺直長祖諱反仁禮賓齊直長殆梅谷彦諱有憲軍資監判官殆寒軒
娶牧使扶餘徐士諶之女生公于宣朝丁未正月十日貢縱豊頑才德
兼備不而於而令文字受業於白江李敬輿之門貞知力行華聞日至師
友蔓除逸馬不就當時笑注之餘羅是非之顚倒多有就質而正爲耳明
經史拜儒之讀毛詩左傳者執冊後歲旌閭
贈嘉善大夫同中樞此固
請明倫理承襲家業而繼世事宗戊午十月十日卒享于六興邵近東面
基谷里負甲之原夫人金正玄風郭渾之女祔公之墓生三男主桓楷而
柱早卒桓楷皆登仕隱公之篤學懿行生未展布古宅文藻亦多遺落不
亦根哉公之八世孫百鍊氏花其畧于遺蹟余以存不移以表其墓索以昧學縱不
彤奎有感其後承墓之走男叔其實以
歲辛未仲春吉日

引道自兩子以後外務二勿干彌綸應接不顧衆咻之論惟謹心於安社
稷而時日棘殷憂泯棼所以屢去其位往來山墅暮年西河之痛益與意
於世矣親撰有文有曰蒼龜云云有疑誰姿依柱己頹有危誰持此雖百
世之下君臣間知遇孰不興感平天之生公將以綏靖我粉而居吾保之
職享名保之壽為國家祈天永命厚誼肯存今弓已已矣惟有後死之悲
而已嗚呼銘曰

大猷制治相得其人時若予采姿諏廷臣簡在聖心內不避親維德與才
見的知直非常寵命踰表溫綸公乃忘軀才丹質神入告出宣效時極
民匪遊逸吐如衡此均奈際艱慮斥走莫伸退而亦憂一處結遂巡憤窒
未甦怒運誰因中流失楫詒戚重崖人鑑斯亡相春不陳年齊凍水古今
訴昊正直之如悲苦同宣一塵奄隔湖岑嶙峋

觀象監事翰林修撰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
大匠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
觀象監事翰林修撰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事
從子輔國崇祿大夫判宗正卿府事兼吏曹判書知經筵春秋館事
同知成均館事原任奎章閣直提學侍講院左賓客五衛都總府都摠管
載之謹書

從子輔國崇祿大夫判宗正卿府事兼吏曹判書知經筵春秋館事
同知成均館事原任奎章閣直提學侍講院左賓客五衛都總府都摠管
載之謹書

宣塗特除判敦寧府衛大將大廟南殿尚方烈院太僕提學甲成特拜左議
政陞領議正鄭翌年王世子冊禮為傅參陞領議政自此作解旋拜者四
判事領事於樞府敦府間嘗科取主試得人為多亦文纓而東筆特例也
統理機務衛門新設 命管經理大臣以都相則大廟廚院葉院譯院葉
御訓局武衛營而權差於哀慶四都監賞賜之廐馬文豹任子之帶繁不
畫錄壬午特授廣州留守六月十日軍亂大變也訓局判卒露兵圍公本
時尚早矣公急起寢室驚憤氣塞移寓於壁峴宮上遣御醫齊看病竟於劇
是日卒壽六十八計聞 上震悼撤朝別下陰敎厚賜賻賵遣近侍致祭
命中消龙表不待狀諡孝憲後又 特敎改諡忠翼危身奉上曰忠思
慮深遠曰翼時值授壞翌月葬龍山坊甲申還宅于大興邸牛井里卒坐
須配贈貞敬夫人安東權氏進士義在女配贈貞敬夫人延日鄭氏縣監
明源女偶無育配貞敬夫人安東金氏晩根女三配同公初娶夫人生
一男載兢礼判諡獻簡年纔二十五百先公大無育取今度興令昭夏子
恨鎔為后公貌瘦音朗身不踰中人而若不勝衣學止端雅有儒者氣像
外雖柴易內實剛介縕確乎不拔之操矣恒以祿不遠養為平生憾恨足
美親戚務存厚敬各盡其道理而謹約謙牧務式柴宴迓夫愛知于上親
密倚毗托之股肱也蓋遂至委任百責手札以寵之公本感激恩奮圖報
一念寤寐如飴不擇茅茨置此身於度外若及勉君德濟民生之紀綱節
財用皆其嘉散而愈敷奏不萊前席流涕嘗曰吾與也大臣有異從容陳
違於燕嬉中而不欲直載犯顏是豈外人所知益公之去不激不隨朝約

(4)

(一)

大學面内ニ建立サルモノ

有名朝鮮國領議政興君　贈諡忠翼忘山李公諱最應之墓

贈貞敬夫人安東權氏　貞敬夫人延日鄭氏　府右

貞敬夫人安東金氏　府左

有朝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春秋
館觀象監事領宗正卿府事謹頃經興機務衛門事侍講院師興安君諡
忠翼公神道碑銘并序

惟我聖上宵旰愛勤每念得興共国布化俊彦其所知之落信之篤可以
朝久納諮尚圖莫若忠翼李公遂乃勿用龜卜特命爲立入中書九載輝
誠畫忠鞠瘁後已國朝宗美惟公一人是也公偉最應字良伯号山響金
州人系出瑞州祖諱複恩信君諡忠憲郎莊獻世子功三子考諱戒南延
君諡忠正本以仁祖大王功三子諱淯麟坪大君諡忠敬三祖至諱東源
進士贈領議政是生忠正過考爲忠憲後忠正生四子公序居功三而興
宜大陵君之同胞叔兄也妣郡夫人驪興閔氏監察贈右議政諱景淵女
左議政諡文忠諱昇重之設也公以純祖乙亥二月十七生自幼厚之性
葛然沃出喜施與見人過失必掩覆之亦不言愛憎當時以國然稱号已
尹授興寧副正翌年陞都正封君連姿至顯祿以有高於仲氏粤忘君蹤
辭而後更授三寧宗丙申丁忠正公寡克導礼制易成備至服闋克冬至
上使我持瓊嚴象諱敬輝甲子當宁御極判宗正卿以處地自別用朝紳

(3)

光時面內ニ建立サレタルモノ

有朝鮮昭威將軍行 世子翊衛司副率贈嘉善大夫吏 曹參判兼同
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金公墓碣銘
大匡輔國崇祿大夫原任領中樞府事致仕事朝賀 李宜顯撰

孫 敦行 譔

玄孫 資憲大夫礼曹判書兼知義禁府事同知經筵成均館事義禁護軍
故相國安東金文忠公遇聖亂殆即於仁都後學師尊之稱為仙源先生
子孫法象其賢威以忠直殺行自別有聲盛學道獨号水月軒肩文忠之
曾孫文忠諱尚容歷吏曹參判諱光炫沔川郡守諱壽賢庭娶全義李氏
清江公濟臣曾孫女也公雖晚出於郡守而天姿特穎苦學語便識文学
十二喪父持制如成人見有難冥之公自助已負吾度務冠與倚友賞月
遇醪斟幾覆獨徹現不懼曰吾輩豈論死人哉時有島寇虛警京外奔波
公灼知其必不然熟運心算坐定釋疑長老以為非年少所及已已光鑛
進倫或絕宗庞文谷公首及於禍公悲憤慷慨既連參牙閥之班又有八
海避世之志逆奉大夫人還憩世之葛山村社門屏居謝絕人市常仰屋
長歎曰吾處義亦可謂視古人無恥矣噫公出處之正此言可觀而於
見小人必嚴之戒又有加入數著有人餘韻

夏夫人清州韓氏祔左 勉菴崔先生益鉉之墓

後園淨處課役未雲從天冀有十三年不辭如一日其所汲之水隆冬亦不凝演可見至誠感神也及其危欲當夏所指多方救護以延時日竟書崩域哀痛弟至殞絕行路爲之流涕方決意下從翻然悟曰舅姑在誰爲奉養乎乃此族子後爲嗣以全夫門噫世之蔑倫常敗風教者何限使朝迎暖夫人之平生孰不自反而混頹所奠性之不可泯也在此余之差此文庶可爲世之無行者戒否

歲己巳季春上澣

通政大夫承宣院在詞承宣謙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宏山 李鳳鎭 撰

(三)全勤李南有 朝鮮時偶者推ナルモ今ヤ廢モ未詳

(四)每足德烈女門……六長張仲淵女三十三大死三年

處慕父母欲奪其志剃髮爲尼被害 場所未詳

(2)新原面內ニ建立シタルモノ

監面十載 勤儉爲治

設校育英 矯僞悉革

面長李奭國紀念碑

佳風草偃 仁澤雨施

高口成碑

昭和三年十一月一日立

孝烈婦人山氏之墓

生員王学鍾妻平山朴氏

孔夫子誕降三千四百八十一年庚午三月日

平山朴氏貞孝行錄

婦人貞吉從一而終倫理之正也主於廉隅一節俠愈識人情之所難而間有一躬行而能身尚卿黨稱歎社奬勵寔助風化之不可少者也金閔報章是穆山郡王爽鐘夫人平山行蹟之記載為人擎管而三歎及見光聖廟事務所完議文變間其詳從以要余記其實庸為揭板之資以垂久遠余雖筆鈍辭拙義不敢辭乃為之文曰夫人世為孝友夙有藻閫及故王氏孝事舅姑敬奉夫子一家化之曰濟慕之越三年三子娶右体不遂之症起居欲嘆失其自由夫人親自扶持寢以纏晝身不衣澣口不皇味惟以迎醫供藥為事又設壇於

明治十八年ニ禮山邑内ニ建立香泉方行路旌

孝烈
女鄉
吏朴
英培
妻慶
州李
氏之
門

光緒十一年乙酉五月初二日命
旌同年九月日不有子戶長孝原
堅之

(三)烈女門
昭和五年京城大成学院ヨリ孝烈朴氏之門ヲ禮山五里亭ニ立
テタル

(一) 方蒲孝旌

崇禎後三癸丑九月禮山縣ニ建立氏ハ麗朝忠臣ニシテ李朝ノ不臣ノ臣ナリ都ヨリ當地ヘ零落シ来リシ以来其ノ子孫永住シ今尚其ノ後裔多シ

昭和十一年春礼山里ニアリシ旌門ヲ方家旧墓地ナル香泉里山麓ヘ移築セリ礼山ニ於ケル最古ナル遺古物ナリ

孝子戸長方蒲之門

崇禎後三癸丑九月日十一世孫戸長文鐸奬庸旌改建

(二) 孝烈女旌

孝女李氏之門ヲ光緒十一年乙酉九月

26

(二七)

作兌德 成樹人 禹倏傳
踏矣嗣 序化治 藻旁系

縣監李侯家[illegible]世不忘碑

林修程 愛所永
蜀學學 勒之石

永十月 立

(二八)

縣監李侯度謹清白恤民善政碑

己卯十月 日立

(二九)

觀爵里 松契龜合 朴永寬 成魯匡 特些會員
鳴財協力
出其非理 惟或祝蹇 惟物學能
短乃但往 一里學旺 美人見拿

李錫衡 李奎性 記念碑

出吾及吾 表而壓碑 鄭厚水 趙學彬 鄭鍾玉
九仞要山 立洗石碑 李容直 李慶壽 全正日
李容九 車元仲 合員八十名

大正十一年 壬戌二月

閭旌

李承昺今進士嗚呼我乎妣不幸蚤世而不尚壽歿無知爾平
懿德茂行之不可泯者無所考微終不能表章以示後世分孝之
罪此不尚所設也隱痛也若記先考子姓便千百世後感知吾父
母之威而已夫熟知吾先君之有志無年吾先妣之有德祿也嗚
呼痛矣

男大進輔國崇祿大夫議政府　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
任奎章閣提學寅錄總裁官昺在注織弄書　飾事原
崇禎紀元後四甲子十月　日　立

(二五)

縣監金侯睿應永世不忘碑

貢馬革弊

水夫息看　樗水後春

歲在道光三年李春之

(二六)

縣監李侯揆文愛恤民善政碑

字惠一公　謚威布奬

縣青亭慈　永仕銘碑

裏面

嗚呼此故禮山縣監贈議政府領議政李公諱毅先之墓也配贈
貞敬夫人潘南朴氏祖左不尚孤景左樹石子墓道之南誠之曰
存君子生後李氏系蔣山石高麗祿牧而先生仍世以德業文章
大顯子世八我朝名石碩祖望為東方巨儒有諱廷燕号敏川官
吏曹參判望重代是生諱齊進贈吏曹參判於府君四世祖也曾祖諱永哲翌陵參奉贈吏
郎牙贈吏曾參判於府君四世祖也曾祖諱永哲翌陵參奉贈吏
曹判書祖諱台壹号三山以直道現望為世名臣文户曹判書謚
文敬公考諱学礼蔭長府使贈議政府左贊成狐平山申氏參判
諱暉女府君以英宇乙三月十二日生絶祖甲子登司馬壬申翼
宋朱封首雇因清先得淺馬丙子出宰戊寅四月二十日下世子
住所平年四十四府君有志德文行為士友所推重而沈倫蔭途
末乏展施天又不假之年小非命耶不尚竊位于朝屢屢恩贈天
之報施堂在是即始權昏子供卅用川面已卯四月復窆子礼山
山城里艮坐之原夫參奉諱泳壽女錦城尉諱明源曾孫也以甲
午四月十日生胎定家訓有士行辛未五月十二日下亨年三十
八莖同墳有二男三女昌在蔭參判景在文科今判敦寧金祖根
蔭領敦寧永卿府君設承顯王后弟鍾茂蔭前縣監朴頤陽金
正植景存子承九敏現旱天文訓承五文金炳德今判書趙重協
今參判金炳匡進士合裕根子炳準今承旨女南氣推判書洪鍾
茂朱子序養進士女秀明魯前參奉李淵子友香進士女序秀
臣

(二)

縣監張侯胤植永世不忘碑

政着爾官解結理頑情見答
治効與蒼俾宮憂[illegible]

民懷而德頌該七事片石可誌
吏服新制財費万計得克永世
庚午十二月日立

(三)

縣監張侯胤植永世不忘碑

三班威頌
一議相堅

(三)

中西袁吉公祐惠頌德碑

以富慶世 以明發身 公天造方 威猶夏歟
難得其善 仁之主人 能成不少 春省猶足

嗟我貧民 凡及農村 一家興富 愛古成碑
安土食力 威猶其德 可以模範 勿忘記念
昭和十年乙亥九月日立

(四)

在山城里大成壯上墓碑

有明朝鮮贈議政府領議政行慶山縣監韓山李公載先之墓
配贈貞敬夫人潘南朴氏祔左

24

(一五) 指財補校 千載遺名
同敦寧張公胤植永世不忘碑
烏山比重 龜石猶輕
庚寅六月 日立

(一六) 巡察使閔公致庠永世不忘碑
庚午十二月 日立

(一七) 縣監兆侯冕燾清德簡愛民善政碑

(一八) 縣監李侯純麟愛民善政碑

(一九) 縣監李侯時宇愛民興學碑

(二〇) 是公之澤 歲金千方
同敦寧張公胤植永世不忘碑
千歲云須 一片石号
辛卯二月 日 大廳堅立

(二)

芝圃鄭相公洛倫永世不忘碑

相傳敎愛民安業

恤隱蠲稅 遠南爭集

崇禎紀元後五戊戌三月

(三)

縣監申侯史源清德愛民善政碑

崇禎紀元後三丁未七月日

(三)

郡守李侯基祖愛民善政碑

全民心重霖林民瘼 桑民之 桑民式憑先成日我疾府瘼孚流 憂民之 愛願若長留

今上己亥三月 日

(四)

行觀察使鄭公周永清德善政碑

福星取垂歲熟民慈 正分入綱斧鉞秋霜

如鑒其明 如水其清

郡三十七政今出一

今上己亥三月 日

(七) 蓄石防岸 巨度無罹
從二品俞公致興紀念碑
荷損賑資 恩遇寡部
大正七年十月 日

(八) 忠魂碑 元帥陸軍大將
子爵川村景明題
大正十五年七月建之

(九) 憲兵補 勲八等
功七級 蔡壽黙之碑
朝鮮憲兵隊司令官持永浩書
昭和十一年六月十七日

(十) 烈 夫病裂指 父惱餘命
女朴慶祖妻 裂欲殉身 程忍金論
昌岸成氏碑
蓋厥所事 翻思奮作
本美古人 表盜貞珉

文

石碑

(一) 禮山面內ニ建立サレタルモノ

(一) 縣監朴侯來羽清德愛民善政碑

崇禎紀元後再庚戌二月日立

(二) 縣監任侯臺仁慈愛民碑

乙未十二月日立

(三) 觀察使兼巡察使沈公豆薰愛民善政碑

道光十六年丁酉六月日

(四) 縣監權侯基憲清德愛民永世不忘碑

戊申三月日

(五) 縣監嚴侯錫謙清德愛民永世不忘碑

(六) 朴縣監遺愛碑

公諱雄楫字濟鎬州

戊辰十月針任丙子十月換起

市境三民如失父母

旱魃戊寅四月立

門境三民如失父母

旦歷戊寅四月立

ニテ高麗朝時代ノ寺跡アリ　寺廢シタル後ノ或日僧ノ夢ニ
石塔現レテ曰ク「今ノ場所デハ不安ナレバ山上ニ移置セラレ
ヨト、僧答ヘテ曰ク「地僧ノ力及ベズ如何セント　併シ石塔更ノ
テ曰ク「事容易ナリ　責僧ノ背ヲアテ給ヘ」ト　翌日僧教ヘ
ラレシ方法ニテ山上ニ移シタル其後今ヨリ十五年前村ノ李
某塔中ニ寶物アラント思ヒ倒シタレバ腐敗シタル底ヨリ出タ
ルモ文字ハ讀メザリシトノ事ナリ、以後塔石山地ニ散在セ
ルヲ白遺士憲主申良善氏ト計リテ今ノ境地ニ移葬シタリ

。古德

古德面内策里（現石谷里）ノ後山ニアリ、高麗時代ノ遺物トシテ

リ、

。石佛

穉山

。彌勒佛（向良里ノ前ノ田下ニ在リ、築造年代ハ未詳ナリ）

。大興

大興公立普通學校定ニ石佛一座アリ、元ハ松林寺ノ遺跡ヨリ
本面事所ニ移置セラルヽモノヲ更ニ校庭ニ安置セリ
又、大興面東面里姜文照氏ノ宅地前ト上中里舍学壽氏ノ宅地ニ
各一座ヅヽアリ　（其ノ由來不明）

。德山

德山面新坪里ニアリ　（未詳）

(三)、開運寺

今ハ開運寺トイ　寺アルノミ附近ニ處ノ破レタル石ノ白ガ谷ニ散在ス、寺ハ形モナク開運寺ハ新岩面東北端ニアル

青龍寺

昔ノ寺ノ後ナル所今尚語リ傳フ
寺ノ敷地ハ東敬里ノ東南端ナランと傳フ

七、石塔

禮山

香泉寺塔、　香泉寺ト同時ニ築造シタルモノニシテ香泉寺壇内ニアリ、禮山郡内ノ處ニ五重塔アリ、之ハ僅山面柏鄕山寺ヨリ移轉シタルモノナリ

光時

東山里大道寺ニ五重塔アリ

大興

大栗里松林寺跡ニ五重塔アリ
本石塔ハ元大栗里佛道谷(一名佛屠谷)ノ山麓ニアリシモノニ

公基距寺不数百武為左近判桓公所為首発捐施衆為之成也
此又請後承不可以不知者也
惟十有四年戊申揭

平壤曹錫臣刻

華嚴寺觀音改金幷事同　施主記

大華嚴之開寺山泉金公記于戊申今不贅也嗚呼取奉
觀音夢像年久金褪殿宇頹敗幸得鳳巖師同発誓願
鳩錢等事未成料而經紀重爭方費二十許日已就點眼殆天誘
而神助也色相復光文殿中更新煥然若睿彼之月併乎如水上
之運一功倍俗莫不踴躍歡喜如泰洛逐真相斯莫非善男信女
禮邦之大恩普被而新福福傳于永年其敬写記佛起系　以偶
頌　円霞莫測德山莫撤朝拝夕禮間無説少見多怪凡夫餡
古寶陀當時興此何期萬古微猷一般白月誰非佛性訂請禮越

同治八年己巳十二月二十四日點眼

(二)西江寺

三韓時代ノ古い塔ハ今尚其前ノ畑ハ西江畑トイヒ塔ノ破
片モ或存スルモ寺ハ形モナシ(新岩面崇敬里ノ東側)
(位置明確)

三間偏半之前祭餘得室三之一後如之中安佛龕庵曰無量壽
閣伯氏書之龕之左右屋僅栖息重之在夾拓東北隅三分室而
得其一為樓以待眺望遊者曰詩境無伯氏書也又並而三分
樓而得其二為禪室以庵奴屬禮部又北而倍其室為房以待還
衲震箱盥盂之藏及北而三分其子室一為庫以待薪穡之備室
之石夾為廚以室之偏為室三分廣而益二為偏以待飯食筐篋
之供又北而為室偏視廚之廣三分偏而捐一為廣以待運水漑
柴者處焉揭名之曰華嚴寺庵仍舊　貞孝公手書也又就舊
佛堂址建屋一架安舊有佛像小金像二箱仍舊曰藥師菴亦
貞孝公書也凡用工匠者所者皆出自若干人錢之取諸
宮中者又二萬余於是寺之制畧猶視舊增三之一而人之見者
者以為宏且麗之昔每而今始有之山若益以奇林木益以苾蘿
煙雲之朝夕變化日益以獻態呈色於前益人之心目豁然開於
新觀能造境如此僧徒始稍稍來集寺地禁穢蘇不患不力矣夫
成而毀物理也毀而成則在乎人寺之成毀無常而吾所以為寺
地禁穢蘇者君子永世之久久而愈不替以克體我
先訓則寺可以後毀矣吾竊為後人祝焉徒知物理之任乎彼不
知舊乎人之修乎此視寺之毀枵然不以為意是其於　先訓
忍焉忘之得所謂數與而忘其初者也寺之毀可之憂乎吾又竊
為後承曜焉嗚呼可不惕然哉　伯從祖祖文　賜替成

20

時近二千百年ナルニ知ラス古不ガ大三本散在シテ居リ
ノ三言ノ高名公武文華ノ名士及吉利ノ後ヲ偲ブニ足ル

重建記

華嚴寺重建記　　山夫金命喜撰　弟相喜謹書

龍山之南寺下和其所如未當
吳氏世世　　嘗祀孝貞孝公猶嘗重建蓋以　高祖考靖獻公
墓在於寺北故望而近于此歲禁樵蘇僧徒与有力焉　貞孝公
所擇定墳菴規模　以是護僧人誠後承祀而　貞孝公醫
極地貴生下世宮右舍平于山之巒鵲峰下距寺僅近時　嘗
上憲或病民　　命御史晴行以廉之御史柳泰言都所遺愛在
民　至命不忘近寺緇徒語及有玩弄者　　上曰奇哉其得人
必可知即　　命賜米　　親綴文旨之有若曰嘉禮山何也所
用之材民恩重恩不知其法吾嚴禁徒語用重城三子可謂有膏
矣於是　　貞孝公愛厚之為民長者遂思者至於動　主職
行衰襄而寺之色因得以新之　　御製文以重建後九十五年
而當丙午之歲寺殿宇大以記多命小子大曜整矣　　老訓
西區改觀從祖考先以錢三高撫之後又陽山監公以屬
百觀從祖考羅世使公以何二萬從祖弟禮淳監位書以紙五十
束次第捕近經始于翌年正月至九月而工告竣正室而哀前西廊

華嚴寺ノ起來ハ　不詳ナルモ三韓古刹ノ後ト言ヒ傳ヘ昔ハ
[illegible]トスル下ニ建チタル石塔ノ數層ヲ獄以其ノ下ニ
英祖二十二年ニ英祖ノ駙馬貞孝公ガ貲ヲ捐出シテ重建シテ
アリ九十五年後憲宗十二年丙午ニ至リ寺ハ毀損シ僧侶ノ
居住不能ニ至リタルノ金秋史ノ一欵ガ貲ヲ出シ合ヒテ公
年五月起工シ翌九月一旦成工シタルモノガ現在ノ華嚴寺ナ
リ
古昔ノ燒物ト推測シタル青瓦ガ本堂ノ屋上ニ三枚三社
堂ニ一枚計四枚アリ見ルヒノアシテ古刹ノ後ナルヲ偲ブ
ヒル、
伽倉龍ニハ『光明寺圖』『題ヒト金秋史ノ書』ヲ
『詩徳』『トカル』『獄亦秋史ノ書』ヲ
伴像ハ五、六歳ノ小兒ノ如ニサ程デ昔ヨリ此ノ寺ニ奉安シ來
ラ今ヨリ約二十年前ニ「盜ヒシ現在ノ伴像ハ禮山郡香泉寺
ノ本尊ニ移安シタルモノナリ、此ノ觀音尊像ハ年久シノ
テ金箔ハ多部剥落シテ淋漓タルモノ多ニ至リタルヲ幸
ニ鳳巖師ノ發起ニヨリ渴欲勸募ト米幾千ヲ貲ラレテ昭和
四年(己巳)改金シ今日ノ如キ面ノ顔ハ「華嚴寺」ノ裏面ハ巖師ノ
英祖ノ駙馬貞孝公ノ書ナリ

19.

前項本面西渡氏白龍銘氏組立テ昭和十一年郡ノ某氏ニ
賣却シタルモ四跡保存ノ意味ニテ當局ノ指示ニヨリ還元
シ現在郡庁構内ニ置カル

(三)白雲菴　紀頃殿
德山元陸軍下士官ノ別荘

(四)也物寺
苔蓮寺山ノ下ニアリ

○鳳山
鳳林里ニ雪菴寺跡アリ

○新岩
善巖寺
人位置ハ新岩面竜宮里龍山上ノ東面ニ位シ東ハ屏風岩ニ隣
マレ此ノ岩壁ノ南方ニハ「詩境」北方ニハ「天竺老先生」ト題
セル金秋史ノ刻字アリ。龍山南端ハ岩石ヲ積ミ並ベタルガ
如キ奇岩端ニ金秋史「小蓬萊」ト題セル刻字アリ。山ノ北端ハ
鸚鵡峯ガ迫リ聳立シテ東ハ遠ク曠野　中原ヲ遠レシ無限
川ガ平山湾ヨリ黄海ニアハタ眺望ス

(八) 日願寺
伽倻山麓ニアリ

(九) 能仁寺
德山面ヨリ西南一里伽倻山下ニアリ

(十) 修禪寺
德山面北方二里盈王山下ニアリ

(十一) 伽倻寺
高麗末期ノモノニシテ玉淵里臥龍潭ヨリ月峰マデ一里續キシ大寺ニシテ今ハ寺跡アルノミ 郡廳前ノ石塔ハ其ノ殘リナリ

(十二) 伽倻寺ニ突撃ヒ云フ僧アリ性慾亂暴ニシテ多クノ婦女子ヲ侵シタリ 或時節兵使豆龍ノ妻(牛峰李氏ヲ云ヒバ)タルモ彼女ハ節ヲ屈セズ ヒソカニソノ夫ヲ養ヒタルニガ後節兵使豆龍ハ突撃ヲ殺シタリシガ間モナク同時ハ寺トナリタリト云フ。
同時ノ境内ニ五重ノ石塔アリシガ崩壞シ今ヨリ數十年

18

天然記念物保存会ニヨリ昭和十一年五月二十三日寶物指定ヲ受ク

(三)定慧寺
修德寺ノ上方ニアリ　修德寺ト同時同師開山創建ニ係ル　昭和八年境内ニ高サ二十五尺幅十五尺ノ大觀音ヲ得テ建立ス

(四)西林寺
家王山ニアリ

(五)龍淵寺
如意山ニアリ　一名龍菴ナリ

(六)水菴寺
德山面ノ南約一里八峯山ニアリ

(七)雲菴寺
德山面北方約一里　家王山麓ニアリ

○銀寺
金羅山今燭羅山麓ノ銀寺洞ニアリ（寺跡）

○大興
○松林寺
大興面大栗里ニアリ（寺跡）

○鷹峰
八峰山ニ昔栄ヘシ寺跡アリ　現在ハ小サキ佛堂アルノミ

○德山
○報德寺
李朝四七四年　金若渾和尚ノ創建ニカヽリ　大覺君　李星慶氏ノ檀施ナリ　建物一五三坪ニシテ寺寶トシテ新羅時代ノ青瓦一枚アリ

○修德寺
新羅文武王五年（六百六十五年）大旨王皇帝（八）二大の余年前元昭國師ノ開山創建ニカヽル古刹ニシテ德崇山中腹ニアリ　昭和八年一大修理ヲ行フ　寺内ノ大雄殿ハ朝鮮寶物古蹟名勝

○新陽

(一)安谷寺

今新陽面獅子山北麓ニアリ法堂九羅漢殿三間禪堂十二間　僧堂十二間尚正門ニ十五間ハ今廢セラレタリ

(二)甘湯寺

今新陽面舞鳳里松林下ヤ麓ニ三間草庵アリ

(三)龍學寺

新陽面獅子山ニアリ　〔寺跡〕

○光時

(一)大運寺

光時面寅山里鳳首山南麓ニアリ　法堂三間禪堂五間僧堂五間北殿五間香燈殿三間正門十二間ナリシガ現ニ北殿香燈殿、正門ハ廢セラレタリ　可藤寺慈三三十六年七月七日創定　創建者僧道深　中建者僧無染師野

(二)普光寺

白月山ニアリ　〔寺跡〕

居ルノミデアル

(二) 夢殿寺
間良里ノ後道高山麓ニアリシカ廃サレテ今ハ寺蹟ガアルノミデアル

(三) 間寺
間良里奥ノ德方山下ニ在リシガ之モ廃サレテ今ハ本ニ少ノ形跡ガアルノミ

大述

(一) 于房菴
李山海鳩淺ト石棲表一

(二) 陵跡寺
禮山邑内ヨリ東南一里数町ナリ　現大述面ニアリ

(三) 鳳首菴
禮山邑内ヨリ東南二里十町ナリ　現大述面ニアリ

16

師建設セシモノナリトミフ。

(五) 陀羅菴
邑内ヨリ北方約二里　現道高山ニアリ

(六) 龍山菴
邑内ヨリ西方約二里半ニアリ

(七) 觀正寺
邑内ヨリ北方約二里　道高山中ニアリ　〔寺跡〕

(八) 淨水寺
邑内ヨリ東方約二里半　ニアリ　〔仝〕

(九) 鷲谷寺
邑内ヨリ東方約一里半　ニアリ　〔仝〕

(十) 澗陽寺
邑内ヨリ距ルコト約三里南良山麓ニ在ル古刹ニシテ目今百五十年前マデ現物アリシガ頗ル今ハ只石塔ト寺跡ガ殘ッテ

ト。

寺院又ハ寺跡

禮山

(一) 香泉寺

邑ノ東北約二哩金烏山ノ麓ニアリ。本寺ハ新羅ノ普照國師僖康王二年王宮ニ遊ッテ九子山和諍和尚トイフ僧ノ弟子トナリ、佛教ヲ修メ文聖王二年ニ石佛三千五十三位ヲ載置シ、極樂殿ヲ佛殿ヲ築造セリトミフ。

(二) 隱跡庵

香泉寺ノ南東約數十歩ニアリシカ、現今ハ漸クソノ跡ヲ殘スノミ。新羅ノ普照國師香泉寺創立當時石佛三千余ヲ雕キ一頭ニヨリ運搬スル時運ブ事七日目ニ疲レテ死セリ。ソノ牛ノ屍体ヲ埋葬セシル所ナリトイフ傳說アリ

(三) 施羅寺

金烏山ノ頂上ヨリ東北約數十歩ノ所ニアリ本寺ハ大覺國師ノ高弟タル慶宗トイフ僧ガ甘露庵、瑞雲庵、浮屠庵等ヲ連說スル時山外ニ存ル寺ノ一分寺トシテ增築セリトミフ

(四) 十層塔

香泉寺極樂殿ノ前ノ廣場ニアリ。新羅文武王二年ニ普照國

書院

(一) 德岳書院

肅宗乙酉建甲午賜額
金緝字柔男自菴光州人官副提學贈吏曹判書謚文憲

(二) 集成祠影堂

肅宗戊子建

○德山面
德山文廟
李朝定宗ノ時建設シタルモノナリ
現在齋任ハ直任一人 掌議四人ナリ

○鳳山面
鳳林里ニ晦岩書院址アリ

7. 釋奠日時

每歲陰曆仲春仲秋初丁日午前十時(古者丁日實明行祀)
舉行祭祀初獻郡守新行亞獻以下獻官諸執行事依直員薦報
者嗣託學校學生生徒皆參拜各至朔望日直員只行焚香禮

8. 釋奠祝文式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干支禮山郡守何某敢昭告于
先聖大成至聖文宣王伏以
道冠百王萬世之師茲值上丁精禋是宜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式陳明薦以
先師兗國復聖顏氏鄒國宗聖公曾氏沂國述聖公孔氏鄒國亞聖公孟氏配尚
饗

14

左二籩

神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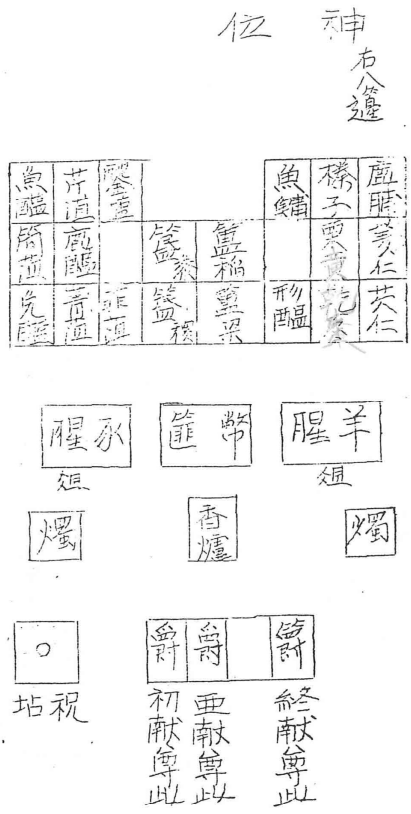
右二豆

鹿脯			栗黃
鹿醢	蔓菁	菹	篹稻

豕腥

燭爵燭

(6) 州縣祿與從享位設饌圖


神位
右籩
魚醢
芹菹
醢菹
兔醢
醴齊
高醢
青菹
菲菹
簠黍
簋稷
稻粱
稷粱
形醢
橘子
栗黃
芡仁
芡仁
羊腥
俎
幣篚
香爐
燭
承
俎
燭
爵
爵
爵

文昌侯崔致遠　高麗顯宗十一年從祀

文忠公鄭夢周　韓中宗十二年從祀

文獻公鄭汝昌　光海君二年從祀

文元公李彦迪　光海君二年從祀

文正公金麟厚　正祖二十年從祀

文簡公成渾　甫辰年從祀十五年題三年復

文敏公趙憲　孝太王二十年從祀

文正公宋時烈　英祖三十二年從祀

文純公朴世采　英祖四十年從祀

共二十三位

共二十三位但東西廡位牌亦奉安于大成殿內東西壁下是最初礼山那也故廟制亦依規繪少者耳

公州縣釋奠正配位設饌圖

經筵門頒敗已久

2. 神座 正位中主聖大成至聖文宣王南向 正位肖像無

配享 兗國復聖公顏子向東 魯國宗聖公曾子向東
沂國述聖公子思西向 鄒國亞聖公孟子向東
(東廡無)

3. 殿內 東從享(孔儒薛聰 高麗顯宗十三年從祀)

文敏公安裕 忠肅王六年從祀
文成公李珥 肅宗八年從祀 十五年黜 孝復
文正公趙光祖 光海君二年從祀
文敬公金集 李太王二十年從祀
文正公宋浚吉 英祖二十五年從祀
文元公金長生 肅宗四年三年從祀
文純公李滉 仝上
文敬公金宏弼 光海君二年從祀

4. 殿內 西從享(西廡)

禮山面

鄕校中ニハ文廟アリ　禮山　大興　德山旧郡廳所在地ニ
八春秋ニ回儒林ヲ係近キ文廟ニ集リテ釋奠祭ヲ行フ

文廟
按文廟者崇奉孔子之所也在高麗從安文成裕說初是制而至
韓國每郡必設一廟享祀孔子本郡之有三廟者以併禮山德
山大興三郡為一郡故也古制大成殿奉安孔子及配享四
聖東西從享之新羅高麗韓國之儒賢十八位是謂鄕校近來儒
生之入校修學問者稀少只為享祀之所

(小)(一)禮山文廟
廟在禮山郡省川里
大成殿　一棟
內三門　三門　一棟
明倫堂　一棟
東齋室　一棟　祭官房
西齋室　一棟　收補室
校奴室　一棟　監庫室

伽倻神祠

禮山面西納十數間ニアリ新羅西鎮ノ爲祠リ李朝ニテハ其地方官ヲシテ春秋之ヲ祭ラセタリシガ今廢シタリ

(五)祈雨壇

大興面ニ一ツアリ一ツハ鳳首山古城中ニシテ一ハ宋之制ノ上ニアルト云フ

木神祠

禮山面

市民一般敬神崇祖ノ念ヲ起シ大正十二年十二月畏クモ皇大神宮ヲ顧定シ邑ノ東山麓ニ禮山神祠ヲ安鎮シ敬神ノ誠ヲ致セリ

昭和九年五月金烏山南麓ノ高燥壯麗ナル神域ヲ定メ嚴カニ遷宮ヲ致セリ春秋ノ例祭ハ勿論毎日朝夕赤心込メテ參拜ニ來ル市民後ヲ絶ズ

鄉校及書院

古德面
忠臣旋閣
仁辰亂韓猶戰ヒテ慶尚道白梁山下故自大川市約五町相距
地ハ即大川里ニ建築ヲ忠臣旋閣

二、

(一)社稷壇
一ハ禮山邑西北約十町　一ハ大興面西方約十町　一ハ德山面西方約二十町ニアリシガ　何レモ今廢サレタリ

(二)城隍祠
一ハ禮山邑内北方約七町　一ハ德山面東方約十町ニアリ
又大興城隍祠ハ鳳首山下ニアリ　俗ニ唐將穆定方ガ祠神ナリシヲ春秋本面ニテ祭ヲイタシタリト傳ヘ云フ
現ニハ何レモ廢止セリ

(三)厲壇
一ハ禮山邑北方約五町　一ハ大興面北方仙鶴洞　一ハ德山面北方ニアリシガ　今皆廢止セリ

夕佳亭　今禮山邑内ニシテ不明ナリ

○大興面

布政亭　客館ノ東側ニアリ　嘗テ觀察使安琛カ（見思亭ト改称セリ（ソノ内客ハ月見ニ依ルコト）亭下ニ蓮池アリ　李孟常詩（布政亭東迎素月觀魚池北引寒泉）ト云フ　現ニ大興公立普通學校運動場北側ニ蓮池ノ一部ノミアリ　樓亭ハ傾頽シテ更ニトタン葺小亭ヲ築キ名ヲ東屋ト稱ス

○神橋面

神橋面ニ里ニ　李牧使影堂アリ

○德山面

德山面槃上里ニ　印榮淳孝閣アリ

○鳳山面

鳳山面侍洞里ニ治谷趙先生ノ孝子旌閣アリ

鳳山面鳳林望知洞ニ鄭兵使見龍ノ旌閣アリ

金人ノ妻（牛峰李氏）ノ旌閣モアリ

ニ一層ノ美ヲ添フ

○大興面
大興客舍三間　今公立普通學校
大興郡廳舍三間　今面事務所

○獲山面
舊獲山郡廳時代ニ在ノ官廳舍アリタリ　（現在普通學校敷地内）
客舍（殿牌奉安ヲアリ　毎月一日　十五日　郡守朝賀ヲ
呈セリ）
政閣（祝日文堂）
内衙（郡守内室）
吏廳（外廷の対）
將校廳
刑吏廳
官奴廳
使令廳

八、鐵樓亭
○檀山面

3. 建造物

イ 宮室

○ 德山里ノ一部ニ宮里ト云ヒ所アリ　貞慎翁主光海癸丑ニ逝世ス　院君金淨男ノ子孫ヲ救ヒテ之ニ住居セシメシヨリ宮里ト云ヒ傳フ

金載穎生長シテヨリ頗村ト又云ヒ傳ヘラル

○ 槐山面

胎室（玉溪里胎封山）

憲宗大王胎室

（胎初六年ニ京畿道揚州郡方ニ移安シ其跡ハ廢跡トナル）

ロ 官廳

○ 禮山面

邑内里ニハ古来ノ規範ニヨリ夫々官庁アリタルモ殘存保管セルモノ今ハナシ　現在普通學校ハ昔ノ郡庁ノ有リシ所風景明美ナルコト郡内一ニシテ昔ヲ語ルモノ只運動場ノ一隅ニ老タル梨ノ木ガアルノミデアル

之郡守ノ舍宅ニ有リタル老樹ニシテ榮枯盛衰ヲ静カニ語リツツ有リ年ニ依リ滿開ノ花　白雲ノ狀ヲ呈シ情操教育

じ以テ伊山旧營トシ本縣治所トナシタリ
乃朴所 一名羅朴所ナリ 今ノ羅朴所里ナリ

○古德面
古德山ハ 今ノ 古德面ナリ
葛谷所ハ 今ノ 古德面ナリ

○新岩面
仙物莊ハ 昔ノ立岩面 今ノ 新岩面ナリ

2、

○禮燧山面
色ヲ云ハコト東北ハキロノ地今ノ醴良里ニアリ後ノ山頂ニハ燧燧ノ跡蹟アリ
昔日ハ延烽亭ト云ル 烽燧ヲ擧ゲテ朝廷ニ急報ヲツゲル所ナリ

○德山面
德山面伽倻山頂上ニアル 現在ハ 遺跡ノミナリ

德山面社洞里ノ後山ノ壽岩山（昔ハ今青山）ニアリテ土築ナリコレニハ龍祭堈ヲ設ケテアリ　昔ヨリ大旱ノ時望雨祭ヲ行フ　弊式ヲコレニナスト雨降ラズト傳ヘテアリ

○鳳山面　天谷山ニ土城跡アリ　新羅時代築造ノモノナリト云フ

○古德面　在於大川里後山　新羅時代畏保築造云

八、其他歷史的城跡

○禮山面　蘇島　今邑内ノ村ハヅレニアリ　土造山ニシテ周圍一百八十五尺ナリ

○大述面　立石所　（名（文石）ト云フ　昔大枝洞面ニアリ

○新陽面　后邊所　今新陽面后邊里ニアリ　昔ハ居叱勿所　又ハ巨物所ト云フ

○德山面　伊山鎭　高麗崔瑩ガ建議シテ都部別使營ヲコヽニ置キ李朝太宗五十六年車駕　巡安那ヘ行幸セラレ海美縣ニ移鎭ヲ命

今ハ山城ニ李朝時代ノ儒者ノ墳墓アリ　其ノ側ニハ雄大ナル石碑アリソノ側ニハ七年ヲ記ル檜ノ獨リ空ニ聳ヘ立チ永久ノ歴史ヲ語リツヽ有ルガ如シ

(二) 金島山城

香泉寺ノ後峯即チ金島山頂ニ小規模ノ土城趾アリ世ニ知レザルヲ語リツヽアリ

(三) 土城民堡

金島山ノ最高峰ガ昔時民堡ナリト云フ　亦時代未詳　土堡ノ跡的アリ〈ト見エルノミ

大興面

(一) 任存城

鳳首山頂ニアリ　石築ニシテ周圍五十一百九十四尺（十四町二十五間四尺）内ニ三個所ノ井戸アリ　四川城（今採石場）一個塔殺浮屠五洞白衣將黑齒常之別將沙吒相如等ト築造シタリト云フ

(二) 無限城（今山城堡）

無限山頂ニアリ周圍二十二尺（五町三十三間四尺）ノ石築ニシテ内一個所ノ井戸アリ　昔洪水ノ時ニハ大蛇出現シテ人畜ニ被害ヲ及ボシシガ今ハナシ築造者及年月不明ナリ

穆山面

二、

一、古城跡

イ、邑城

○大興邑城　石築周圍一千一百十五尺内一個所ノ井戸アリシ
オ今ハ廢セラレタリ

○松山面　徳山面邑内里ニアルモ荒廢ス　土築ニシテ築造者詳
○凰山面　住洞里築山ニ城跡アリ　石築ニシテ新羅時代築造トモイナ
リト言フ

ロ、山城

(イ)○禮山面

山城里第二区ニ在リ其ノ形楕円形ヲナシ全山走松蒼蒼ト
繁茂シ土城ヲ以テ濟ニ守城ノ一ニシテ其規模大キク今尚殘
存ノ形頗奇怪ノ感ヲソソルモノアリ山城内部ハ廣ク直線
コース百米ノ地アリ二百米ノ円形コースモ保レル程ナリ
東南ニ向ヒ東北ニ傾斜ヲナシ遥カニ西北ノ大平野ヲ望ミ
得ルト共ニ眼前無限川ノ白帆ヲ眺メシ時代有リタリト云フ

唐廢金連都督府置支溝州仍治已汶縣（新羅文武王十年唐高宗咸亨
二年辛未）
新羅擊破唐矢成支溝州已汶縣後補今別縣（新羅景德王十五年丁酉）
改今別縣為今武縣（高麗太祖天授二十三年庚子）
改今武縣為德豐縣（高麗顯宗以德豐縣屬運州（今淇州））
高麗明宗置德豐縣勢　朝鮮太宗合德豐伊山二縣為德山縣（豈邑下德山
自是德豐縣遂廢屬德山縣為古縣內面　大正三年廢德山郡屬礼山郡管
古縣內道用嶺山居等四面為古德面自是為礼山面古德面　郡

○新岩面

大正三年四月一日面廢合ニ依リ立岩面（竜岩、礼林、山礼別島谷）新宗面
（新宅、新宗）豆村面（豆谷、桂村、宗教）吾元里面（五山、灘中、豆所面一部）
中里（灘中）蓍灘里（灘中）其七里　山面里（五山）五池里（五山）
ヲ各併シテ新岩面ト称セリ

大正三年版也西外也西ヲ合シテ禮山郡鳳山面トナセリ
西ニ鳳鳴洞アリ東ニ天馬山アリ古ヲ鳳ノ字ト山ノ字ヲ取リテ鳳山
ト名付ケタリ

○西漢國

高韓武康王九年（戊申）歲奚國始受封建國（高韓末王二十七年西漢
遥祚三十四年己巳）
西漢伐高韓歲奚國降于西漢爲屬國（西漢西衛王十二年癸卯）
歲奚國始通中國魏（西衛王四十二年丙申）
歲奚國內附于晉（西衛王四十六年庚子）
歲奚國朝獻于晉（西衛王五十二年丙午）
歲奚國遣使獻于晉（西漢書稽王二年戊申）
歲奚國結晉校尉內附（西漢武帝王九年壬午）
廢封建以歲奚國還今切縣（云屬切縣 西漢義慈王十九年唐高宗顯慶五年
庚申）
唐滅西漢以今切縣爲金連都督府始已次縣未幾西漢人收復（西漢後王
三年新羅文武王二年癸亥）
新羅遣將金欽純天存攻西漢屠切城降之是歲唐與新羅大滅西漢（新羅
文武王八年唐高宗總章二年己巳）

現今ニ至ル

○抽橋面

元德山郡大島支面ヲ德山面ニ編入シ抽橋面ト稱ス　場末面ノ三ヶ面ガ大正三年面廢合ニ當リ合併シテ抽橋面トナリ

○德山

德山面

德里縣　伊山縣ノ全部　李朝太祖五年ハ尼山縣ト德山郡トナセリ　德山郡ハ現在ノ德山面ト德山抽橋面ト德山面ノ一部ト尼山郡トナシ德山面トナリ大正三年德山大邑德山三郡ヲ合併シテ尼山郡ト德里縣ハ西海時代ハ今切縣ナリシガ新羅時代ニ今武ト改メ尼山郡トシ顯宗朝ニ德山郡ニ屬シ明宗朝ニ德里縣トナリ縣内面紫霞洞（今古德面大川里）ニ縣廳ヲ置ク

伊山縣ハ西海時代ハ馬尼山縣ナリシモ新羅時代ニ尼山縣ト改メ顯宗朝ニ沃州ニ屬シ李朝太祖五年ニ至リ德里縣ニ合ス德山面西小坪ニ現在ノ德山面主淺里月峰ノ一部ニ縣廳ヲ置ク

○鳳山面

李朝太祖五年伊山縣德里郡ノ一部ヲ割キ鳳山郡トナレリ

慶長四年(明治四十二年)庚戌八月日新合併同十月一日地方官制廢
止ノ際名称旧郡還及書記
大正二年癸丑十二月廢合府郡改定名称還當鶴亀ニヨリ禮山德山大成
ノ合ニテ郡トナシ礼山郡ト称シ大正三年三月一日施行ノ件ニ
至レリ

鷺峰面

本面ハ大正三年四月面廢合ニヨリ九大郡北面外北面ノ一ヶ面ノ
併合シテ峯山面ト称シタリシガ大正六年九月鷺峰面ト面名ヲ改ムシ
俗ニ茅里望里ハ元外北面ナリシガ面廢合ニヨリ吾元面新長里ニ属シ
十三ヶ里トナリテ今日ニ至ル

吾元面

上古沿革ハ不詳ナレドモ約三百年前ヨリ吾元里千所山巨九大三ヶ面
トナリ明治三十九年ニ至リ始メテ面長ヲ置キ大正三年三月面廢合ニ
ヨリ吾元面ト称シ十三ヶ里ヲ置ク　面事務所ハ吾元里ハ茅望里千所
山ハ新望里　巨九ハ他川里ニ置キ大正三年三月面廢合ニヨリ他川里
ニ置キ其ノ後更ニ新望里ニ移転シ同年十二月十七日駅塔里ニ庁舎ヲ

○祇山面

百濟朝ニハ烏山孤山孤山縣ト稱ス

百濟武寧王二十年辛巳九月王獵于孤山之原云々

唐時 高津縣ニ改ム

百濟義慈王十九年庚申唐滅百濟以烏山縣為高津縣云々

新羅ニ至リ烏山縣ヲ改メテ孤山ト稱シ任城郡（今大興）ノ領縣タリ

新羅文武王改取百濟復稱孤山云々

新羅神文王五年癸酉二月置孤山縣云々

新羅景德王十五年丙申十二月改為孤山縣云々

高麗太祖二年己卯ト改稱ス

顯宗王九年戊午任城ヨリ分割シテ天安府ニ隸屬シ恭愍王時天安府ヲ寧山ト改メ仍爾寧山明宗時祇山ニ監縣ヲ置ク

文宗王時寧山ヲ改メテ天安府ト改稱シ仍爾天安郡

李朝癸巳太宗王十五年監務ヲ廢シ縣監ト為セリ

李朝太宗時例改為祇山縣云々

光武十年（明治三十九年）天安郡ヨリ分割サレ祇山郡トナセリ

光武十年本郡（天安郡）ノ一部ヲ割キ牙山郡ニ謝シ云々

朝鮮總督府圖書館藏

郡廢合ノ結果ハ礼山德山及大興ノ三郡ヲ併合シ
朝鮮島山縣トスヒ新羅ニ至リ改メテ礼山縣ト稱シ任
縣ト為リ高麗太祖二年礼山ト改稱シ顯宗王九
後監務ヲ置キ李朝太宗王十三年縣監ト稱ス後郡ト

改ム德山郡ハ本德豐及伊山ノ二縣ヲ合併シタルモノナリ德豐縣ハ德山
縣東別鶴山西ニアリ是レ古德ヤリ西濟時代ノ今列縣ニシテ新羅ハ
今武ト改メ顯宗王ノ時運州（今洪城）ニ屬シ明宗王ニ至リ縣務ヲ
置ク伊山縣ハ伽倻山洞口外ニアリ（今面所在地）西濟ノ禹亂山縣
ニシテ新羅朝伊山ト改メ郡ト為ス　高麗顯宗王二縣ヲ合併シテ德
山縣ト改稱シ監務ヲ置キ近世郡ニ改メ礼山郡ニ屬シタリ
大興ハ西濟時代ノ任存城一名今州ニシテ新羅朝任城郡ト改メ高麗
ノ初興州ト稱シ始今ノ名ト為ス顯宗王九年運州（今洪城）ニ屬シ
明宗王二年監務ヲ置キ李朝太宗王十三年縣監トセシガ肅宗王ニ至
リ郡ニ陞シ大正三年郡廢合ニヨリ礼山郡ニ屬セリ

附記（各所在地學校調査）

不備ナル點多大デアツタ　唯願クバ後來有爲ノ士ハ之ニ依リ
再檢討究明ノ上完璧ヲ期シテ郡内ノ庶政刷新ノ實際ニ資シ以
テ國運ノ進展ヲ圖ラレンコトヲ

昭和十二年三月三日

於鳳首山麓學舍　尹昌求

2

ソコデ古典秘藏シタル在京友人、圖書館ヲ便リ禮山郡及郡内各學校ノ援助ニヨリ主トシテ左ノ數書ヨリ資料ヲ蒐集シタ

一 海東鄉土史　一 輿地勝覽
一 朝鮮四千年史　一 朝鮮史
一 朝鮮新地誌　一 典古大方
一 鄉土誌（本校下）　一 禮山郡一覽表
一 郡内各校蒐集資料

右ノ中在京友人ノ秘藏シタル海東鄉土誌ハサスガハ山川洞里ノ名稱名勝古蹟ノ由來人物産物教育行政風俗等ノ實地調査シタ形跡歴然トシテ專門ノ編纂程アッテ詳細ガ極メラレテアル　然シコレハ世ニ公開シテ居ラヌ所謂或專門家實地調査シタ研究物デ然モ漢籍デ通俗的デナイ嫌ガア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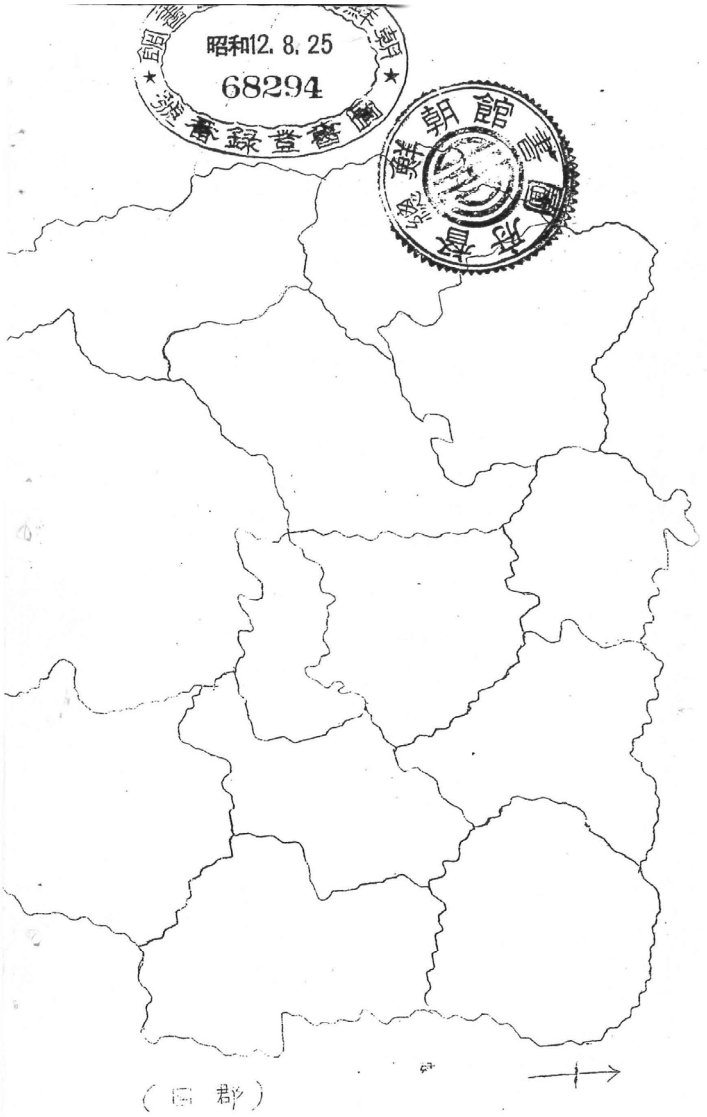
勿論編纂ニ當リテハ調査ハ上述ノ如ク疎漏デアリ然モ不文

編者ノ言葉

編者ハ禮山郡教育會ノ依頼ニヨリ「禮山誌」ヲ編纂スルコトニナツタ　幸ニ京城ニ古書籍秘藏スル友人知舊等ノ多ク居ルヲ以テ其參考資料モ容易ニ得ラルヽモノト思ヒ、且ツ大興ハ元予ノ搖籃地デモアリ、其ノ上禮山、德山地方ハ前住地其他關係淺カラズ地デアルヲ以テ、安請負シタ

然ルニ實際着手シテ見ルト中々ドウシテ容易ナコトデハナカツタ　元大興郡管内中現在校下ノ區域ナレバ昨秋本校ニ十五周年記念事業トシテ鄕土誌ヲ編纂シ　碩學博識ノ士ヲ一堂ニ會集シテ座談會モ開催シタ關係上多少ノ俚說其他ノ參考スベキ資料ヲモ調査シ蒐集シタガコレヨリ範圍ヲ擴大シテ全郡一圓ニ於テハ充分ナル調査ノ實地ニ當ル餘日モナク、且此ニ關スル座談會等ヲ開催スル機會モ容易ニ得ラレナカツタ

昭和12. 8. 25
68294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登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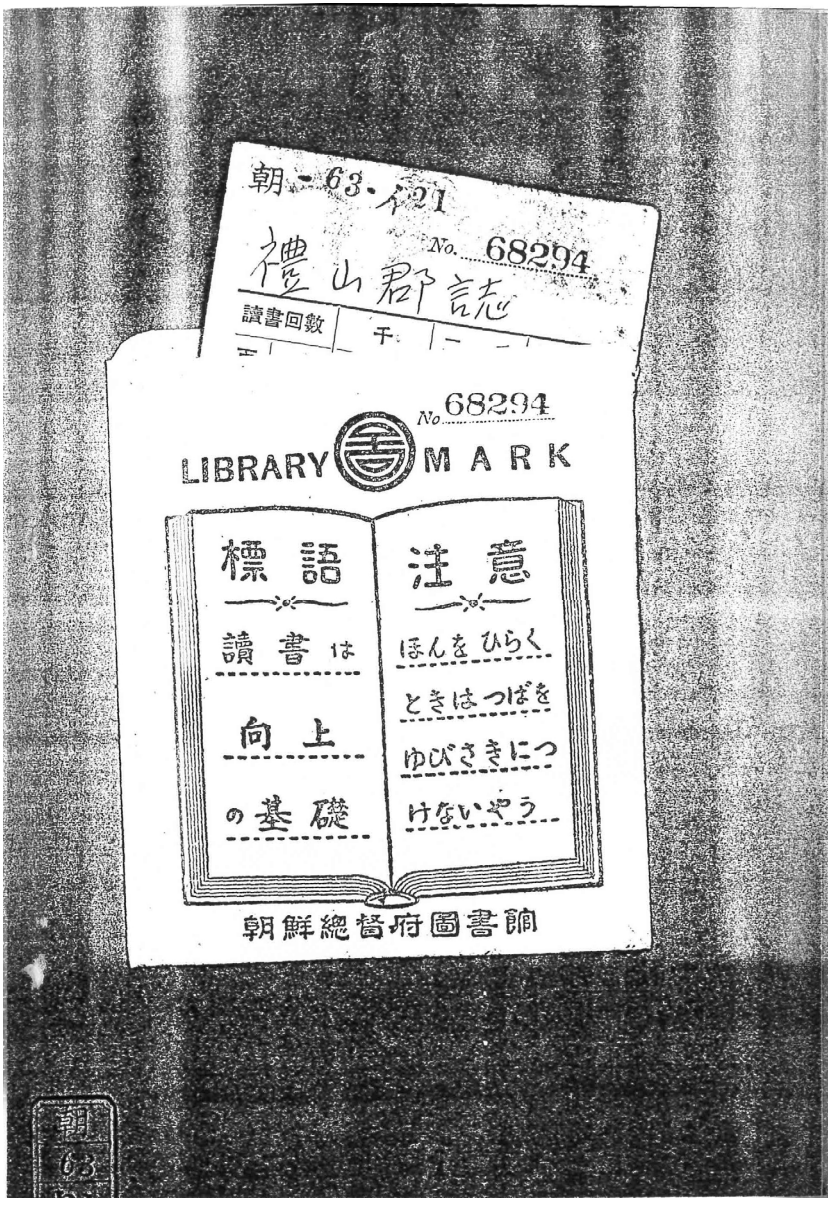
PL 0

朝鮮總督府 古蹟調査資料

目次

三、史蹟
四、傳說
五、名勝地
六、人物
七、物產
八、特異ナル風俗習慣

1、城廓
2、烽燧
3、建造物
4、其他


朝-63-イ21
No. 68294
禮山郡誌
讀書回數
No. 68294
LIBRARY MARK
標語
讀書は
向上
の基礎
注意
ほんをひらく
ときはつばを
ゆびさきにつ
けないやう
朝鮮總督府圖書館

昭和十二年三月

禮山郡誌

禮山郡教育會

新

예산지명(禮山地名)이 명명(命名)된 지 내년이면 1,100년이 된다. 고려 태조가 나라를 건국하고 지명 개혁을 하면서 고산(孤山)이던 지명을 예산(禮山)으로 명명한 것이 고려 태조 2년 기묘(己卯) 개금명(改今名)하였다.

고려 태조 2년 기묘년은 서기 919년이며 천수(天授) 2년이 된다.

919년은 2019년이 1,100년이 되는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에 우연히 1937년에 간행된 『예산군지(禮山郡誌)』를 발견하여 참고하던 중에 일제강점기인 1937년(소화 12년 3월) 등사판으로 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된 책으로 잘 안 보이는 면도 있고 하였으나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귀한 책으로 알고 당시 대흥공립보통학교 교장이신 윤창구(尹昌求) 선생께서 편찬하신 것을 보면 현재의 발달된 교통에도 어려운 것을 군내 전체를 조사 수록하신 대단한 열정에 머리가 숙여지는 바이다.

원본은 일어로 발행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고자 생각하던 때에 일본인인 오가와데루요(小川哲代) 여사가 예산군 문화관광해설사로 근무하는 것을 알고 번역을 부탁하니 기꺼이 응해 줘서 이 책자의 발행이 빛을 보게 되었다.

원본으로 사용한 『예산군지』는 국립도서관본을 복사하여 제공해 준 김득수(金得洙) 동문과 고려대학교 도서관본을 제공하여 준 박형(朴炯) 씨의 도움을 받았다.

원본은 등사본이라 잘 안 보인 면도 있으나 참고하시라고 후면에 영인해 수록하였으니 일본어가 이해되시는 분은 보실 수 있겠으며 이제 우여곡절 속에 교정 감수를 마쳤다. 훌륭한 역사책으로 간행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미진한 부분은 후학들이 바로잡아 주시길 기원하면서 후기에 가름합니다.

2018년 10월

荷塘 박병하(朴炳夏)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예산문화원 사무국장·부원장 역임

예산군지(1937년 3월)

인　　쇄 2018년 12월 20일
발　　행 2018년 12월 31일

번　　역 박병하
발　　행 김시운
발 행 처 예산문화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대회리)
전화 041-335-2441
기　　획 박세진
행정지원 이충환 이수영 이다연

제 작 처 도서출판 내포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루실길 182 1층 109호
전화 070-7761-6537　03090

ISBN 979-11-959886-9-3
이 책의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에는 예산문화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추청남도와 예산군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비매품]